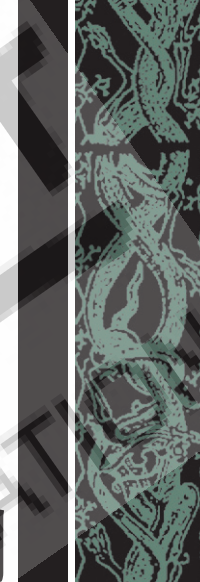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발간사

고구려와 발해는 고조선·부여에 이어 우리 고대 국가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고구려가 압록강 중류 유역에서 건국하여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의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북부에서 존속했고, 고구려 유민에 의하여 건국된 발해도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발전하며 우리의 역사를 풍부하게 하였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압록강 유역의 산이 많고 골짜기가 깊은 곳에서 나라를 세워 차츰 주변 지역을 통합하면서 영역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좌절을 극복하며 발전해 갔습니다. 9대 고국천왕 때는 사회 변동이 심하여 나라 안에 빈민이 증가하자 국상인 을파소의 도움을 받아 진대법을 실시하였고, 15대 미천왕은 목숨이 위태로웠던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내어 왕위에 오른 후, 한사군 가운데 하나였던 낙랑군을 고구려 영역 안에서 몰아내고 고구려가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7대 소수림왕은 아버지인 고국원왕이 전사하자 비상 시에 왕위에 올라 불교 공인이나 율령 반포 등 내치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19대 광개토대왕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규모의 영역을 확장하였고, 그 생애를 기록한 광개토왕릉비는 고구려인의 웅혼한 기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 사람들이 남겨 놓은 적석총이나 산성 등은 고구려 역사와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문화는 고구려 정치와 사회의 발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고구려가 중국의 수나라나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긴 것 역시 고구려 정치 발전과 국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인 698년, 고구려 유민인 대조영을 중심으로 그 옛 땅에 발해가 건국되면서 북방 지역은 계속적으로 한국사의 무대가 되었고, 이로써 남쪽의 신라와 함께 남북국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발해는 건국 이후 먼저 신라와 교류를 맺었고, 바다 건너 일본과도 국교를 열었으며, 중국의 당나라와도 초기의 대립 관계를 벗어나 평

화로운 교섭을 하였습니다. 발해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고, 왕은 황상이라 하여 황제국을 표방하고, 대외적으로도 스스로를 부여의 습속을 지키는 고구려 계승국임을 천명하는 등 당시 동아시아 세계의 유력한 일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그것이 끊임없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구려나 발해인들과의 대화에서 얻는 교훈은 그들의 열린 자세라 할 것입니다. 고구려와 발해인들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변 민족과 교류를 하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고구려와 발해인들이 역사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주변국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그 시대를 영위하였는지를 서술한 것이며, 아울러 고구려사와 발해사가 우리 고대 역사의 핵심적인 존재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역사 갈등 문제로 고구려와 발해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관련된 일반 역사서는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이 책은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학생들에게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구와 함께 원고를 맡아주신 집필자들과 사진을 제공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동북아역사재단에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3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응덕

총론 · 8

1부 고구려의 기원과 국가 형성

- I. 고구려의 기원과 문화 기반 · 20
- II. 고구려의 건국 신화 · 42
- III. 고구려의 국가 형성 · 60

2부 고구려의 성장

- I. 고구려 중앙 정치 제도의 발전 · 80
- II. 초기의 영역 지배와 대민 지배 · 95
- III. 영토 확장과 대외 관계 · 111

3부 체제의 정비와 영역의 확대

- I. 진연 · 백제와의 대결과 시련 · 130
- II. 중앙 집권 체제의 확립 · 145
- III.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과 광개토대왕릉비 · 165



4부 고구려 중심의 국제 질서 구축

- I. 장수왕과 평양 천도 · 190
- II. 중국 남북조와의 관계 · 204
- III. 고구려의 남진과 백제 · 신라 · 222
- IV. 고구려의 부여와 말갈 통합 · 240

5부 고구려의 멸망과 계승

- I. 귀족 연립 체제의 성립 · 258
- II. 연개소문의 집권과 정권의 한계 · 276
- III. 국제 질서의 변동과 수 · 당과의 전쟁 · 289
- IV.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 운동의 전개 · 309

참고문헌 · 326
 찾아보기 · 336



1. 고구려 역사를 연구해온 맥락

근대에 들어서 고구려 역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시작된 계기는 19세기 말 광개토대왕릉비가 발견되고 비문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이 일어나면서부터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했수로만 보자면 110여 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정작 고구려 역사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미진하였으며, 연구의 내용도 시대의 상황에 따라 적지 않은 굴곡의 과정을 겪어왔다. 그러한 연구의 맥락을 간단하게 짚어보자.

광개토대왕릉비가 발견된 후 1945년 이전까지 고구려 역사에 대한 연구는 일제 관학파(官學派) 역사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삼국 중에서도 고구려는 가장 선진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식민 사학의 주된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과 집안(集安) 일대의 유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만선사(滿鮮史)의 일부로서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식민 사학에 대한 비판으로 민족주의 역사학에서는 신채호에 의해 고구려사 연구가 크게 진전되었다. 그는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에서 단군·부여·고구려의 정통론을 중심으로 한국 상고사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 영역이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걸쳐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즉 이 시기 고구려 역사는 민족 사학과 식민 사학 사이에 벌어진 대결의 쟁점(爭處)으로서, 연구 자료나 역사관·연구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점에서 대척점에 서 있었다. 그러나 고구려사를 통해 한반도와 만주를 통합하려는 관점은 식민 사학의 만선 사관이나 민족 사학의 상고사 체계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았다. 이렇게 고구려사 연구는 근대 역사학의 성립 단계에서부터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대결의 공간으로 출발하였으니, 이후 고구려사 연구의 굴곡을 예고하는 셈이다.

광복 후 1950~1970년대에 고구려사 연구가 가장 활발한 곳은 북한 학계였다. 고구려 역사의 중심 무대였던 곳을 차지하여 고구려 유적에 대해 조사와 발굴이 이루어지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찾는 정치적 맥락에서도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49년 안악3호분의 발굴을 시작으로 고구려 고분과 벽화 고분 및 평양성, 안학궁성,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 유적이 집중 조사되면서 새로운 고고 자료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다. 특히 1960년대 고조선사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뒤에는 봉건 국가로서 고구려사를 연구하는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어 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주체사상이 강화된 정치·사회적 환경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역사 인식과 결합되어 오히려 고구려사에 대한 이해의 폭은 갈수록 좁아지게 되었다. 다만 1976년의 덕흥리고분 발굴이나 1978년의 동명왕릉의 발굴로 대표되듯이 고고 발굴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상당수의 고고 자료가 집적되었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에 북한에서는 고구려사 연구가 새로운 방향에서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때는 고구려사나 발해사만이 아니라 북한의 역사 인식 체계 전반이 변화되고 있었다. 1993~1994년에 이루어진 단군릉 발굴과 개건(改建), 1993년 동명왕릉과 왕건릉의 개건은 이 무렵 북한의 역사 인식의 틀이 급격히 바뀌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는 평양 중심의 역사 인식, 즉 평양을 중심으로 한 왕조인 고조선·고구려·고려로 이어지는 정통론적 인식이 강화된 결과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1971년에 광개토대왕릉 비문의 '비문 변조론'이 제기된 이후, 한동안 온통 광개토왕릉비에 집중되다시피 하였다. 일본 제국주의 역사학에 대한 신랄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일본 학계는 다양한 대응 양상을 보이면서 탁본 문제, 비문의 구조와 내용 분석 등으로 연구 범위를 넓혔으며, 그 결과 광개토왕릉비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일본 학계가 가장 폭넓고 깊이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 또한 고대 왜(倭)의 위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고구려사를 고대 동아시아 세계를 읽어내는 코드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1970년대 후반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다시 대두되기 시작한 '동아시아론'이란 시각과 연관된 결과이다.

남북 분단 이후 한국 학계에서 고구려사 연구는 현실적인 여건상 취약할 수밖에 없었지만, 1980년대 초부터 고구려사 연구가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면서 많은 성과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국가 형성론이 중요한 학술 과제로 등장하면서 고구려 역사가 새삼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는 고구려사에 관한 문헌 기록 등이 초기 국가 형성을 살펴보는 데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의 1960~1970년대 연구 성과가 소개되면서 이에 자극을 받은 점도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게다가 1979년 중원고구려비의 발견은 고구려사에 대한 한국 학계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의 초기 기사를 적극 활용하여 고구려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론을 다각도에서 모색하였으며, 정치사와 대외 관계사를 중심으로 연구 주제를 세분화 다양화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고고학에서는 1980년대 전반까지는 북한의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고구려의 고고 문화에 대한 개설적인 정리를 시도하는 데 그쳤으나, 중국에서 점차 증대되기 시작한 고고 자료의 성과가 소개되면서 고분 벽화·고분·토기 등 고구려 고고학의 제 분야에서 독자적인 연구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임진강, 한강 유역에 남아 있는 고구려 유적에 대한 조사 성과도 여기에 크게 기여하였다. 관련 연구자 수가 늘어나고 연구 영역도 점차 넓어지면서 현재 고구려사에 대한 학문적 성과는 한국 학계가 가장 폭이 넓고 깊이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할 수 있겠다. 오늘날 고구려사에 대해 제법 풍부한 역사상을 그려낼 수 있었던 것도 이 무렵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 고구려사 연구 흐름에 힘입은 바 크다.

중국에서도 고구려사 연구가 1980년대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는데,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 일종의 역사 인식의 지침으로 작용하여 발해사를 중국사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 학계 일부에서 고구려를 중국사의 소수 민족 지방정권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고구려사 전체를 중국사로 귀속시키는 입장이 강화되어 왔으며, 마침내 2002년 이후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하여

고구려사를 비롯하여 동북 지역의 역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연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한 학계와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늘어나기 시작한 고구려 유적에 대한 고고 조사는 2004년 중국 내 고구려 유적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전후하여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근래에 고구려 역사에 대한 연구는 한국을 비롯하여 각국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는 냉전 체제의 해체 이후 고조되어 가는 국가주의·민족주의의 확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각국의 정치 사회적 환경이 점차 고구려사를 국가주의·민족주의에 기반한 역사 인식의 국제적 충돌 지점으로 만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고구려사는 한국사로는 보기 드물게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셈인데, 이 역시 고구려가 갖는 역사적인 위상에 따른 결과라고 하겠다.

2. 고구려 역사를 전해주는 자료들

오늘날 우리에게 고구려의 역사를 전해주는 기본 자료는 크게 문헌 자료와 고고 물질 자료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가장 주된 문헌 자료로는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를 들 수 있다. 그외 『삼국유사(三國遺事)』에도 고구려 역사와 관련된 기사가 일부 전하고 있다. 그리고 고구려의 대외 활동이 중국 왕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또 동북아 국제 관계 속에서 고구려가 차지한 위상이 상당히 컸던 만큼 외국의 역사 기록에도 적지 않은 기사가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측 역사책인 소위 이십오사(二十五史) 중에서 『한서(漢書)』 이후 『당서(唐書)』까지의 정사에 편찬된 동이전(東夷傳)에 고구려에 대한 기록이 상당 부분 남아 있으며, 그 외에도 『자치통감(資治通鑑)』 등 다수의 중국 측 자료에 고구려 관련 기사가 전해지고 있다. 또 『일본서기(日本書紀)』 등 일본 측 역사책도 백제 측 역사서를 인용하여 다른 역사 기록에서 볼 수 없는 고구려 역사의 한 측면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헌 자료들은 그 기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편찬·기술되었느냐에 따라

내용상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문헌 자료에 입각한 모든 역사 이해가 그렇듯이 적절한 사료 비판이 필요하게 된다. 고구려사에 다가가는 핵심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경우에도 3세기까지의 초기 기사가 갖는 신빙성이나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한국 학계에서는 백제사와 신라사를 연구하면서 『삼국사기』에 전하는 삼국시대 초기 기사가 상당 부분 신뢰할 만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북한과 중국에서 이루어진 발굴 조사 결과 나타난 풍부한 물질 고고 자료가 보여주는 고구려 초기의 역사상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고구려본기 기사에 근거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고구려 초기 역사에 대해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각 역사서가 반영하는 시기가 서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는 3세기까지의 역사상을 전해주는 국내 전승 자료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 초기 고구려사의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구려 내부의 정치 사회상을 제법 규모 있게 구성할 수 있는 편이다. 그런데 4세기 이후 본기의 기년 기사는 많은 부분이 중국 측 자료를 토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전승 자료는 드물다.

중국 측 자료는 대체로 고구려 역사 전 시기에 걸쳐 있으나, 반영하고 있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고구려 초기의 역사상을 전하는 자료인 『삼국지(三國志)』 고구려전 등은 그 내용이 민족지적인 성격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그런데 5~6세기의 사정을 전하는 『송서(宋書)』나 『위서(魏書)』 등의 고구려전은 조공·책봉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대외 교섭 관계 자료가 중심이며, 『수서(隋書)』나 『당서』 등에는 6세기 말~7세기의 새로운 사회 변화상을 보여주는 일부 자료도 포함되어 있지만 역시 주된 내용은 고구려와 수·당과의 전쟁 기사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중국 측 자료도 시기별로 반영하고 있는 역사상에 서로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고구려 역사상이 시기별로 불균형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여기에 있다.

고구려인이 남긴 직접적인 사료라고 할 수 있는 금석문(金石文) 자료는 비록 적은 양만 전해지고 있지만, 4~6세기에 집중된 자료로서 그나마 시대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광개토태왕릉비(414년)를 중심으로 그 전후한 시기의 역사상을 전해주는 안악3호분의 동수(冬壽) 묘지(357년), 덕흥리고분의 유주 자사

진(鎭) 묘지와 다수의 명문(408년), 모두루(牟頭婁) 묘지(5세기), 중원고구려비(5세기) 등 금석문은 당시 고구려인 스스로의 손에 의하여 직접 기록된 자료라는 점에서 고구려인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 자료가 대체로 대외 관계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 동아시아 세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 시각을 제공하는 자료로서도 그 사료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측 역사책과는 달리 고구려의 주체적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다음 고구려사의 고고 물질 자료로는 고분과 고분 벽화 및 성곽(城郭) 자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중국과 북한에 분포하고 있어, 한국 학계로서는 조사는 커녕 현장에 대한 접근조차 용이하지 않으며, 중국이나 북한의 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가뜰이나 취약한 문헌 자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점이 앞으로 고구려사 연구가 활성화되는 데에 장애가 될 것이다.

북한에서 고구려사를 고대사 연구의 중심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은 당연한 측면도 있지만, 고구려 중심의 정통론적 인식은 고구려사의 객관적인 위상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분과 고분 벽화, 도성과 산성 등 고고 자료의 조사 결과가 적지 않지만, 이러한 자료 조사에도 그 같은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중국 학계에서 고구려 고고학의 성과는 주로 집안 일대에서 진행된 고구려의 도성(都城) 유적 및 고분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 그리고 과거 고구려 영역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고구려 산성(山城)에 대한 지표 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공된 이 분야의 고고 자료의 양이 적지 않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근의 연구에서 고구려사 전 체계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고고 자료의 실증적 해석조차 무시하는 등 정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 측이 제출하는 고고 자료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한 접근 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에 한강과 임진강 지역에 분포한 고구려 군사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진전되면서, 성곽은 물론 토기·와당(瓦當) 등의 분야에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이들 물질 자료에 대한 한국 학계 나름의 연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고구려사를 연구하고 구성하는 자료로서 문헌 자료는 그야말로 매우 소략하고 그것도 다양한 계통인데다가 자료가 반영하고 있는 시기도 그리 균질적이지 못하다. 대신에 고고 물질 자료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고고 자료에 대한 해석에도 정치적 입장이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앞으로 고구려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다. 역사에 대한 기술은 무엇보다 역사 자료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객관적인 이해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3. 고구려 역사의 특성

고구려는 기원전후 무렵에 건국하여 668년에 멸망한 한국의 고대 국가이다. '고구려(高句麗)'라는 나라 이름의 연원을 보면, '구려(句麗)'는 성(城)·읍락(邑落) 등을 의미하는 고구려 말인 '구루(溝婁)'와 통하고, '고(高)'는 크다는 뜻의 한자어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합하여 '큰 고을' 또는 '큰 성'이란 뜻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5세기 이후에는 고구려를 줄여 '고려(高麗)'라는 칭호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는 중원고구려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를 세운 족속은 압록강 중류 유역에 거주했던 맥(貊)족이었다. 맥족은 기원전 5~기원전 4세기경부터 압록강 중류 지역에서 거주하였는데, 이들은 적석총(積石塚: 돌무지 무덤)이라는 독특한 무덤을 만들어 주위의 다른 족속과 문화적으로 구분되었다. 고구려 지역의 적석총은 요동 지역의 적석총과 연결되고 있어 고구려 주민들의 연원을 파악하는 단서가 되고 있다. 그 뒤 고구려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부여(夫餘) 방면에서 이주해온 일부 부여족이 합쳐져 맥족과 더불어 고구려인의 근간을 이루었다. 고구려와 부여의 관계는 고구려의 건국 설화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사실상 고구려의 건국 신화는 부여의 건국 신화인 동명(東明)신화를 변용한 것으로 양자가 동일한 계통임을 알 수 있다.

그 후 고구려는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 주변의 여러 종족과 국가들을 고구려 영역 내로 편입하였다. 이는 고구려 국가의 성장 과정에서 고구려인의 주민 구성이 매우 다양

해졌음을 의미한다. 초기 고구려를 구성한 맥족과 부여족을 근간으로 하여 한반도 중북부와 요동 일대를 차지한 뒤에는 다수의 중국계 주민들, 한(韓)과 예(濊)족, 거란족과 말갈족 등도 고구려인을 구성하는 주민들이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성기의 고구려는 다종족(多種族) 국가라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고 보겠다.

다음으로 고구려의 국가 발전과 역사 전개가 당대 동북아 국제 질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유의된다. 우선 초기 고구려사를 보면 국가 형성 과정 자체가 중국 근현 세력을 축출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3세기 중엽 동천왕 때에는 중국이 위(魏)·오(吳)·촉(蜀) 삼국으로 나뉘어 상쟁하는 당시의 국제 정세를 이용하는 외교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이어 중국이 '5호 16국시대'라는 혼란기로 접어들자 이를 이용하여 낙랑군과 대방군을 정복하여 한반도 내에 있던 중국 근현을 완전히 축출하였고, 또 요동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선비족(鮮卑族)인 모용씨(慕容氏)가 세운 전연(前燕)·후연(後燕)과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였다. 이처럼 국제 정세를 이용한 외교 전략은 중국이 남북조로 나뉘어 상쟁하던 시기에는 북위와 남조와 모두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국을 견제하는 등거리 외교 전략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고구려의 발전 과정은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의 변동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고구려의 멸망 배경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에서 수(隋)와 당(唐)이라는 통일 세력이 등장하자 이들의 힘에 의해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세력 균형이 깨지고, 그 결과 동북아에서 독자적 세력권을 구축하였던 고구려와 수·당 간의 지속적인 충돌과 전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고구려의 역사적 무대를 보면 지금의 한반도 북부와 요동 및 남만주 일대이다. 고구려가 처음 일어난 곳은 압록강 중류의 독로강 및 훈장 강(渾江) 일대로, 첫 수도는 졸본(卒本: 지금의 중국 랴오닝 성(遼寧省) 환인현)이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성(國內城: 지금의 중국 지린 성(吉林省) 집안현)으로 천도하였다. 국내성에 도읍한 기간은 400여 년 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 국가 발전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그 뒤 427년(장수왕 15)에 평양성(平壤城)으로 천도하였으며, 이후 전성기를 맞이하며 동북아시아의 패자로서 융성하였다.

전성기인 5세기경에 고구려의 영역은 북으로는 송화 강(松花江) 유역에 미쳤고, 서북으로는 지금의 싱안링 산맥(興安嶺山脈)에 이르기까지 세력을 뻗었다. 또 서로는 랴오허 강(遼河) 서쪽에까지 확장되었고, 랴오허 강 상류의 거란(契丹)도 대부분 복속시켰다. 남으로는 한강(漢江) 유역과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차지하였으며, 동으로는 연해주 지역에 이

르렀다.

이처럼 광대한 영토를 개척하고 지배하면서 고구려의 국력은 강대해져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였다. 더욱 5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중국이 남북조로 나뉘어 대립하고, 북방에서는 유목 국가인 유연(柔然)이 세력을 떨치며, 여기에 고구려가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하는 다원적인 세력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고구려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위(北魏)는 물론 남조와 북방의 유연과도 다각도의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다. 국제 무대에서의 이러한 세력 관계를 배경으로 한반도 내에서는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면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유지하며 발전할 수 있었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물론 중앙아시아 지역과도 교류함으로써 다양한 제반 문물을 수용하여 독자적이면서도 국제성이 풍부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 시기 고구려가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당당한 위치는 고구려인의 국가 의식에 반영되어 있다. 즉 광개토태왕릉비와 중원고구려비의 내용을 보면, 고구려는 스스로 천하(天下)의 중심 국가임을 자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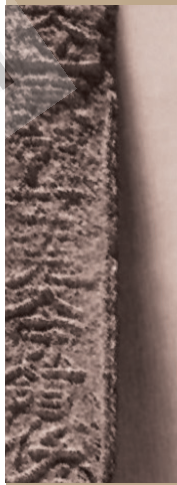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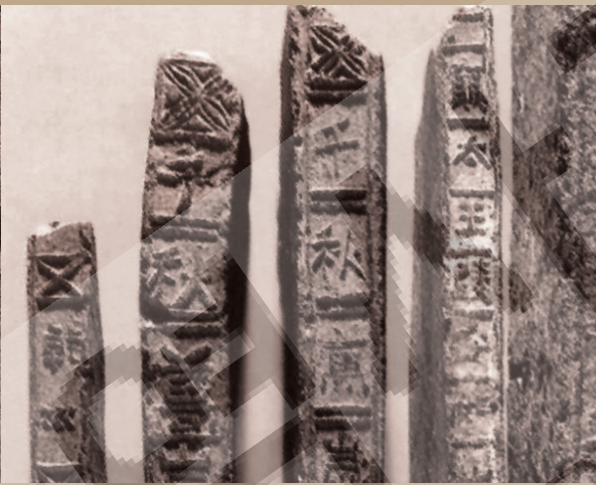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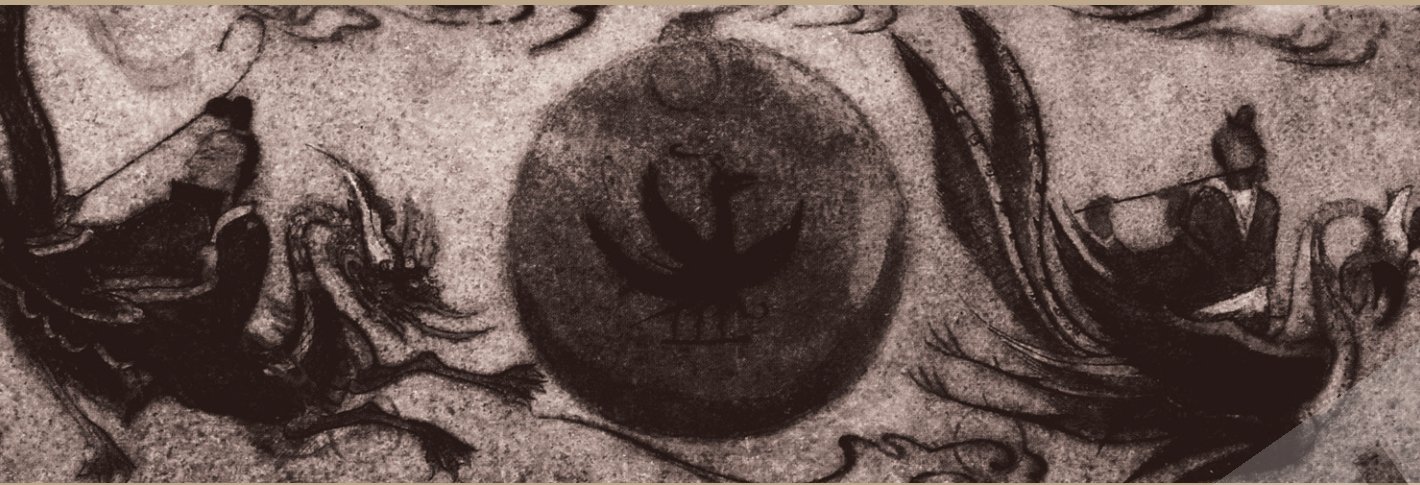
한편 이 시기 평양 천도가 갖는 의미와 그 이후 고구려 문화의 성격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세기 이후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데에는 수도로서 평양이 갖는 지리적 개방성과 국제성이 한몫을 했다고 본다. 당대에 고구려는 북위·남조·유연과 더불어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유지해가는 중심축의 하나였으며, 고구려적 '천하'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 평양은 새로운 문화 변동의 구심점이기도 했다. 평양 천도 이후 고구려의 문화적 성격은 이전에 비해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평양 일대에 흩어져 있는 고분 벽화가 그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본래의 전통적 문화 기반 위에 외래의 다양한 문화 요소를 융합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주위의 신라 등에 큰 영향을 주어 중국 문화권과는 구별되는 동북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는 705년 동안 모두 28명의 왕이 이어진 것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대략 고구려사의 전개 과정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기는 건국에서 3세기 말 봉상왕 대까지로 국가 성립과 발전기이며, 제2기는 4세기 초 미천왕 대에서 6세기 초 문자왕 대까지로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대외적 팽창을 이룬 전성기이다. 제3기는 6세기 중엽 안장왕 이후 멸망할 때까지로 쇠퇴기에 해

당한다.

이렇게 고구려는 넓은 영토와 그 안에 다수의 종족을 거느리고 아울러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물론 중앙아시아 지역과도 교류하여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이면서도 국제성이 풍부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제국(帝國)으로서의 발전과 다종족 국가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우리 역대 왕조 중에서 가장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또한 삼국 중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문화 기반을 이루어 이를 백제와 신라에 전하여 민족 문화의 원류를 이루었다는 점도 주목되며, 나아가 정치적으로는 중국 세력과 유목 세력의 진출을 막고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 세력권을 구축하였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고구려는 기원전후 무렵 건국하여, 668년 멸망할 때까지 700여 년 이상 존속한 한국의 고대국가이다. '고구려(高句麗)' 라는 나라 이름의 연원을 보면, '구려(句麗)' 는 성(城)·읍락(邑落) 등을 뜻하는 고구려 말 '구루(溝婁)' 와 통하고, '고(高)' 는 크다는 뜻의 한자어로 볼 수 있다. 즉 고구려라는 국호는 '큰 고을' 또는 '큰 성' 이란 뜻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장에서는 고구려의 기원과 건국의 문화적 기반, 국가 형성 과정을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학계의 연구 쟁점을 짚어본다. 또 건국의 역사를 보다 풍부히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단서로서 주몽 신화의 형성 과정과 의미, 건국 신화에 투영된 고구려인들의 세계관을 살펴본다.

고구려의 기원과 국가 형성

- I. 고구려의 기원과 문화 기반
- II. 고구려의 건국 신화
- III. 고구려의 국가 형성

I 고구려의 기원과 문화 기반

여호규

고구려는 1세기경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서 건국한 다음, 668년 멸망할 때까지 무려 700여 년 동안이나 존속했다. 고구려는 삼국 가운데 가장 빨리 국가적 성장을 이룩했고, 그 이후에도 한발 앞선 역사 발전의 궤도를 걸으면서 백제와 신라의 발전을 견인했다. 아울러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4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대외 확장을 추진하여 5세기에는 만주 중남부와 한반도 중북부를 아우르는 광대한 영역을 확보하고 독자 세력권을 구축했다.

이때 고구려는 숙신(말갈)이나 거란 등을 포괄하는 일종의 다종족 국가를 건설했지만, 동부여, 백제, 신라 등만 비슷한 계통의 국가로 인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확립했다. 만주와 한반도 일대의 여러 족속과 국가를 갈래지어 파악한 셈인데, 이는 고구려의 족속 계통이나 문화 기반과 밀접히 연관된다. 즉 고구려인들은 족속 계통의 연관성이나 문화 기반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주변국에 대한 인식 체계를 확립했던 것이다.

또한 고구려는 국가적 성장을 이룩하면서 초기 이래의 전통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영역을 확장하는 곳마다 거대한 산성을 축조해 군사 방어와 지방 지배를 도모한 것이나, 바닥이 평평하면서 몸체가 둥그스름하며 길쭉한 토기를 꾸준히 사용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면서 중국 왕조나 북방 초원의 유목 국가, 멀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히 교섭하며 외래 문화를 적극 수용했다. 그리하여 초기 이래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외래 문화를 접

목시켜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다.

따라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겠지만, 고구려의 국가적 성격이나 다양한 문화적 면모를 이해하려면 그 토대부터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인의 정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발상지인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자연 환경,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 집단의 족속 계통, 그리고 문화적 기반의 형성 과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상기 주제를 중심으로 고구려의 기원과 문화 기반을 고찰해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는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만 기원과 관련된 논의는 엄정한 기준을 잃으면 자칫 허상을 좇거나 미궁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련 자료의 시간성과 객관성에 유의하도록 노력하겠다.

1.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자연 환경

고구려는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서 발흥했다. 건국 설화에서는 주몽(朱蒙)이 부여 방면에서 남하해 건국했다고 전하지만,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주몽은 혼자 힘이 아니라 여러 토착 세력과 연합하거나 이들의 도움을 받아 패권을 장악한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주몽이 남하하기 이전에 나(那)라고 불린 지역 집단이 상호 통합과 복속을 거쳐 상당한 정치체로 성장했고, 주몽 집단은 이들을 결집시켜 고구려를 건국했음이 확인된다. 고구려 건국의 실질적인 주역은 바로 오래 전부터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 거주하던 주민 집단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고구려는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탄생했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지역의 자연 환경은 향후 고구려사의 전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흔히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넓은 들판이나 비옥한 토지는 적어” 그 옛날 산골짜기를 따라 거주하던 고구려인들이 “부지런히 농사지어도 식량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전한다.¹⁾ 실제 이 지역은 대부분 험준한 산악 지역으로 농사지를 수 있는 땅이 그리 많지 않다. 고구려 첫 번째 도성이 있었던 환인(桓仁) 지역에는 해발 1,000m 이상 봉우리만 64좌에 이르며, 두 번째 도성이 자리잡았던 집안(集安) 지역의 경지율은 6.6%에 불과하다고 한다.

1)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高句麗條.



●●● 그림 1 압록강 상류의 북한 풍양(豊陽) 마을(압록강 상류의 험준한 협곡 사이에 아름다운 들판이 펼쳐져 있다)

백두산에서 발원한 압록강은 총 길이 790km, 유역 면적 3만 1,739㎢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이지만, 하류 유역을 제외하면 넓은 평야가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다. 백두산에서 중강진에 이르는 상류 유역은 백두산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현무암 지대로서 해발 고도가 대체로 1,000m 이상인 험준한 산악 지대이다. 중강진에서 시작되는 중류 유역도 여러 계통의 암석이 뒤섞여 복잡한 지층을 이루며, 특히 압록강 연안 남쪽에는 강남산맥, 북쪽에는 노령산맥과 용강산맥 등 여러 산줄기가 동북에서 서남으로 내달리며 험준한 산악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고구려의 발흥지인 압록강 중상류 일대는 만주의 대평원이나 한반도 서남부의 평야 지대와 비교할 때, 외견상 험준한 산악 지대로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기에는 열악한 자연환경이다. 그렇지만 압록강 중상류 일대가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압록강 본류와 그 지류인 혼장 강(渾江), 독로강(秃魯江), 자성강(慈城江) 등지에는 본류와 지류의 합류 지점을 비롯하여 곡류(曲流)하는 안쪽 보호사면 등지에 상당히 넓은 충적평지가 형성되어 있다.

가령 초기 중심지였던 환인 지역에는 푸얼 강(富爾江), 야허 강(雅河), 류따오허 강(六道河) 등 60~70여 개의 하천이 혼장 강으로 흘러들면서 곳곳에 충적평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혼장 강과 야허 강·류따오허 강이 만나는 환인 분지는 최대 직경이 10여 km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넓은 편이다. 두 번째 수도였던 집안시 일대에도 60여 개의 소하천이 압록강이나 혼장 강으로 흘러들면서 곳곳에 비교적 넓은 충적평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성이 자리잡았던 집안시 소재지는 폭 2~4km, 길이 10km 정도로 상당히 넓은 분지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환인과 집안 지역은 강수량이나 기온 등 기후도 만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편이다. 환인과 집안의 연평균 기온은 6.2~6.3℃로서 만주 일대에서는 가장 온난하며, 특히 집안분지 일대는 만주의 소강남(小江南)이라 불릴 정도로 따뜻한 편이다. 연 강수량은 900~1,000mm 전후에 이르고, 서리가 내리지 않는 무상일수(無霜日數)도 140~160일로서 농사를 짓기에 부족함이 없다.

또한 산간 지대에는 산림이 울창하며 집안 지역의 경우 수종이 600여 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식생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울창한 숲 속에는 지금도 곰, 멧돼지, 노루, 사슴, 토끼 등 다양한 야생 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각종 약초와 야생 과일도 풍부하게 산출된다. 그리고 울창한 산림 사이를 흐르는 압록강과 그 지류는 늘 수량이 풍부해 잉어와 붕어 등 각종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압록강 중·상류 일대는 수렵과 어로 자원도 풍성한 편인 것이다.²

고구려를 건국한 시조 주몽이 부여에서 남하해 졸본천(卒本川) 곧 지금의 환인 지역을 둘러보고 “토양이 기름지고 산천이 험준하다.”고 했다거나³ 유리왕 대에 국내 지역 곧 지금의 집안분지로 천도하면서 “국내 지역의 산천이 험준하고 토양이 오곡을 짓기에 알맞고 사슴·물고기 등이 풍부하다.”라고 한 것은⁴ 바로 이 지역이 험준한 산간 지대이면서도 농경에 적합할 뿐 아니라 수렵이나 어로 자원도 풍부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자연 환경으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은 일찍부터 강 연안의 충적평지를 배경으로 농사를 지으며 가축 기르기, 사냥, 물고기잡이 등을 병행하며 생활을 영위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 유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바닥이 평평한 빗살무늬토기를 비롯한

2) 환인과 집안 지역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 編纂委員會(1990),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1984), 『集安縣文物志』; 集安縣地方志編纂委員會(1987), 『集安縣志』.

3) 『三國史記』 고구려본기1 동명성왕 즉위년조.

4) 『삼국사기』 고구려본기1 유리명왕 21년조.

여 돌도끼나 돌괘이 등의 농공구, 그물추, 돌활촉 등이 출토되고 있다. 특히 두께가 얇은 돌괘이가 대량으로 출토되고 있어 신석기시대에 이미 농경의 비중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고, 그물추나 화살촉의 존재로부터 어로나 수렵도 병행했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 토기와 석기 제작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훈장 강 지류인 다웨이사허 강(大葦沙河) 연안의 이도외자(二道崴子) 유적처럼 한곳에서 대량으로 토기와 석기를 제작하게 된다. 다양한 용도의 석기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농업이 발전하였고 주민 집단 상호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만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는 거의 대부분 석기만 대량으로 출토되며 청동기는 거의 없거나 극히 소량만 출토되고 있다. 본격적인 청동기시대로의 진입이 주변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던 것이다. 이점은 후술하듯이 철기시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는 구리와 철을 비롯해 금, 아연, 활석, 석면 등의 지하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이는 여러 요인에 의해 다른 지역보다 뒤늦게 청동기나 철기시대로 진입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금속기를 자체적으로 제작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실제 통화(通化) 소도령(小都嶺)이나 만발발자(萬發撥子) 유적에서 석제 용범(鎔范:거푸집)이 다량 출토된 것에서 보듯이⁵⁾ 다른 지역에 비해 늦기는 했지만 청동기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했다. 또한 독로강 변의 노남리 쇠부리 터에서 보듯이 철기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서북으로는 요동 지역, 동남으로는 동해안으로 통하는 동서 교통로상의 중심지이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서해, 서남으로 대동강·재령강 유역의 평야 지대, 북쪽으로 송화강(松花江) 유역의 대평원 지대나 랴오허강(遼河) 상류 방면의 초원 지대로 통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이 지역 주민 집단이 일찍부터 주변 지역과 활발히 교류하며 문화 기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했고, 나아가 고구려 건국 이후에는 사방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국가적 성장을 이루는 발판을 제공했다.

또한 압록강 중상류 일대는 산간 지대이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각 지역 사이에 소통이 매우 어려웠을 것처럼 보인다. 물론 육로만 놓고 본다면 험준한 산줄기를 넘어야 하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산림이 울창한 산간 지대를 흐르는 압록강과 그 지류는 항상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배를 이용해 쉽게 왕래할 수 있다. 제15대 미천왕(美川王) 을불이

백부인 봉상왕의 박해를 피해 다니며 소금장수를 할 때 배를 타고 압록강 본류와 그 지류인 비류수(沸流水, 渾江)를 넘나들었다는 이야기는 이를 잘 뒷받침한다. 또한 발해 시기에 중강진 건너편의 서경압록부(臨江)에서 배를 타고 압록강 물길을 따라 서해로 나아갔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압록강 상류에서 강변을 따라 성들이 다수 확인되는데, 압록강 물길을 이용한 흔적이다.

결국 압록강은 고구려인들에게 농사지를 터전인 들판을 마련해주고, 다양하고 풍성한 어로 자원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압록강 중상류 일대 전체를 하나로 이어주는 교통로 구실까지 했던 셈이다. 그리해 압록강을 경계로 그 남쪽과 북쪽이 한·중 두 나라로 양분된 오늘날과 달리 고구려 시기에는 압록강 중상류 일대 전체가 물길을 따라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했던 것이다. 후술하듯이 고구려인들이 조영한 적석묘(積石墓)가 압록강 물길을 따라 남쪽과 북쪽 지역 모두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 주목해 만주 전역으로 시야를 넓히면 압록강 중상류의 자연 환경이 고구려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된다. 만주는 지리적으로 서북의 대싱안링 산



●●● 그림 2 압록강의 뗏목 (지금도 압록강은 뗏목의 뗏길로 이용되고 있다)

5) 滿承志(1987-3), 「通化縣小都嶺出土大批石范」, 『博物館研究』, 長春: 吉林省文化廳; 中國國家文物局主編(2001), 「吉林通化萬發撥子遺址」, 『1999中國重要考古發現』, 北京: 文物出版社.

맥[大興安嶺山脈]과 동북의 소싱안령 산맥[小興安嶺山脈] 그리고 남쪽의 창바이 산맥[長白山脈]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일컫는다. 이들 산맥 사이에는 랴오허 강과 쑹화 강이라는 거대한 하천이 흐르는데, 두 강의 본류 연안에는 광활한 대평원이 끝없이 펼쳐진다. 고구려 발상지인 압록강 중상류 일대와는 판이한 자연환경이다. 더욱이 만주의 서부 지역은 비가 적게 오는 초원 지대로 이곳 주민들은 수렵이나 유목을 하며 생활했고, 동부 지역은 날씨가 춥고 산림이 울창해 주로 사냥이나 어로를 하며 생활했다. 만주의 서부와 동부 지역은 압록강 중상류 일대와 생활 방식마저 달랐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만주 남부와 한반도 북부에 걸친 압록강 중상류 일대는 만주 지역보다는 한반도의 자연 환경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산간 지대에서 성장한 고구려인들에게 만주 중심부의 광활한 대평원은 경이롭기보다는 쉽게 다가가기 힘든 낯선 땅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가 요동 평원을 장악한 다음에도 대평원이 아니라 대평원 안쪽의 하곡 평지(河谷平地)에 성곽을 축조해 군사 방어와 지방 지배를 도모했으며, 그것도 평지성이 아니라 초기 이래의 산성을 축조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고구려가 5세기 전반 천도를 단행하며 요동 방면이 아니라 서북한(西北韓)의 평양 지역을 선택한 것도 이와 연관된다.

이처럼 고구려인들은 압록강 중상류의 산간 지대에서 축적한 문화 기반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그러면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 집단은 어떠한 계통인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문화 기반을 구축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자.

2. 고구려의 족원(族源)과 주민 집단의 계통

청동기~초기 철기시대에 만주 중남부와 한반도 북부에 거주했던 주민 집단을 흔히 예족(濊族) 또는 예맥족(濊貊族)이라 부른다. 이들이 우리 나라 최초의 고대국가인 고조선이나 그에 뒤이은 부여를 건국했고, 이들과 한반도 중남부의 한족(韓族)이 융합해 오늘날의 한민족을 형성했다고 이해한다. 그런데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 집단이 이러한 예족(예맥족)과 구별되는 맥족(貊族)이었던 것처럼 기술한 사료가 있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가령 『삼국지(三國志)』 동이전 고구려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온다.

또한 소수맥(小水貊)이 있다. (고)구려는 나라를 세워 큰 강[大水]에 의지해 거처했다. 서안평현(西安平縣) 북쪽에 작은 강[小水]이 있어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고)구려의 한 지파(別種)가 이 작은 강에 의지해 나라를 세워 소수맥이라 부른다. 좋은 활이 산출되는데 이른바 맥궁(貊弓)이 바로 이것이다.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고구려조

여기서 큰 강은 압록강 본류를 말한다. 당시 고구려가 압록강 변의 집안 분지를 도읍으로 삼아 나라를 운영하던 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서안평은 압록강 하구의 단동(丹東)으로 비정되는데, 작은 강은 단동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아이허 강(愛河)이나 푸스허 강(浦石河)을 가리킨다. 작은 강에 의지해 나라를 세운 고구려 서쪽의 주민 집단이 소수맥(小水貊)이니, 큰 강에 의지해 나라를 세운 고구려는 대수맥(大水貊)이라는 것이다.

고구려와 그 서쪽의 주민 집단이 맥족이라는 것인데, 『후한서(後漢書)』에서는 이 기사를 이어받아 “고구려는 일명 맥(貊)이다.”라고 명기했다. 반면 『삼국지』 동이전 부여조에서는 부여 창고에 ‘예왕지인(濊王之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도장이 있고, 나라 가운데에 ‘예성(濊城)’이라 불리는 옛날 성곽이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원산만과 강원도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집단은 ‘동예(東濊)’라고 명기했다.

맥족으로 불린 고구려와 달리 부여나 동예는 예족 계통이라는 것이다. 이에 예족(예맥족)과 구별되는 맥족을 상정하고, 양자를 계통이 다른 족속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심지어 맥족이 금속기를 사용하면서 평지나 구릉 지대를 배경으로 초보적이거나 농경을 시작한 이후에도, 예족은 여전히 강가나 바닷가에 살면서 어로와 수렵에 의존하는 낙후된 생활을 유지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두 주민 집단은 생활 방식이 현격히 차이날 정도로 족속 계통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족과 맥족의 계통을 달리 설정하는 일종의 이종족설(異種族說)인 것이다.

이종족설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 집단이 중국 북방에 거주하던 맥족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견해이다. 진한 이전 시기에 중국 북방에 위치했던 맥족이 점차 동방으로 이주해 요동 지역을 거쳐 압록강 중류 유역에 정착해 고구려를 건국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맥족과 더불어 예족도 이주한 것으로 설정하기도 하지만, 맥족의 이동만 상정하는 견해도 있다. 만약 후자의 견해를 취하면 맥족은 예족과 원거주지조차 완전히 다른 전혀 별개의 족속으로 설정된다.⁶⁾

6) 최근 중국 학자들이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기 위해 고구려의 족원을 화하족(華夏族) 곧 현재의 한

또한 예족과 맥족을 동일 계통으로 보면서도 일찍부터 뚜렷이 구분되어 별개의 실체를 이루었다고 보기도 한다. 특히 예족이 주로 님장 강(嫩江)~송화 강 유역과 한반도 일부에 분포한 반면, 맥족은 요동 지역과 한반도 일부에 거주했다면서 분포 지역을 명확히 분별하기도 한다. 양자를 동일 계통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동종설(同種說)이라 볼 수 있지만, 일찍부터 별개의 실체를 이루었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이종족설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처럼 고구려의 족원이 본래부터 예족(예맥족)과 다른 계통이라거나 아니면 상당히 일찍부터 그와 뚜렷이 구별되는 별개의 주민 집단을 이루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물론 상기 기사 이외에도 고구려를 맥이라 지칭한 사료가 많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과연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 집단은 본래부터 예족(예맥족)과 계통이 다른 족속이거나 아니면 일찍부터 이들과 구별되는 별개의 족속을 이루었던 것일까?

족(漢族)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주민 이동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상기 견해와 일맥 상통한다. 중국 학자들은 고구려의 족원을 화하족과 연결시키기 위해 처음에는 막연히 상인(商人) 곧 은인(殷人)의 후예로 설정하다가, 최근에는 『일주서(逸周書)』 왕회해편(王會解篇)에 나오는 고이(高夷)가 고구려의 선조이며 이들은 전설상의 인물인 전옥(顓頊) 고양씨(高陽氏)의 후예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요서 지역의 신석기 문화인 홍산문화(紅山文化)의 담당자를 전옥 고양씨 족단(族團)으로 설정하고, 이 족단의 중심 세력은 중국 대륙으로 이동해 은(殷)을 건국했지만 그 일부가 동방으로 이주해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파악한다. 즉 고구려의 족속 계통은 화하족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견해는 가장 핵심 논거인 『일주서』가 후대에 꾸며진 가작(假作)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일주서』를 신뢰한다 하더라도 기원전 10세기에 존재했다는 고이와 고구려를 연결시킬만한 논거는 전혀 없다. 중국 학자들은 고구려의 '高'와 고이의 '高'가 동일하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양자 사이에는 시간상 엄청난 간극이 있을 뿐 아니라 고구려라는 국호는 '句麗'에서 유래했으며 '高'는 나중에 첨가된 미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설령 고이의 존재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전옥 고양씨와 연결시킬 논거는 더욱더 미약하다. 황제의 손자로서 그를 이었다는 전옥 고양씨는 전설상의 인물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 하더라도 고이와 무려 1,500여 년이나 차이 나는 기원전 2,500여 년경에 활동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홍산문화와 고구려 초기 문화와의 연관성도 이야기하는데, 역시 양자 사이에는 3,000여 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차가 존재하며 토기를 비롯해 제반 문화 양상에서도 유사성을 찾기 힘들다. 홍산문화의 적석묘와 고구려 초기 적석묘의 연관성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홍산문화의 주묘제는 적석묘가 아니라 소형 석관묘였다. 또한 후술하듯이 최상층 지배층에 한정해 조영한 홍산문화의 적석묘는 매장 주체부가 지하에 있다는 점에서 매장 주체부가 지상에 위치한 고구려 초기 적석묘와 명확히 구별되는 묘제이다. 그밖에 고구려의 족원을 산동 반도 일대의 염제족(炎帝族)으로 설정하는 견해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거의 모두 전옥 고양씨의 후예라는 견해처럼 사료적 논거가 거의 없는 궤상(机上)의 가설에 불과하다. 여호규(2003a), 「중국학계의 고구려 대외관계사 연구현황」, 『한국고대사연구』 31, 서경문화사; _____(2003b), 「고구려의 족속기원과 건국과정」, 한국고대사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3세기 전반의 상황을 기술한 『삼국지』 동이전에 따르면, 당시 한반도 북부와 만주 중남부에는 중국 군현이 설치된 요동~서북한 지역을 제외하면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고구려, 송화강 유역의 부여, 함경도 방면의 옥저(沃沮), 원산만과 강원도 북부의 동예(東濊), 그리고 만주 동부의 읍루(挾婁) 등이 존재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읍루는 부여나 고구려와 언어가 같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족속 계통이 달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를 제외하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는 언어나 습속이 유사했다고 한다. 가령 고구려는 부여의 한 지파(別種)로서 언어와 풍속이 대부분 같았으며, 기질이나 의복만 조금 달랐다고 한다. 또한 옥저는 음식과 거처뿐 아니라 의복과 예절도 고구려와 거의 유사했고, 동예도 언어와 법속이 대체로 고구려와 같았으며 의복만 조금 달랐다고 한다. 흔히 언어는 각 집단의 족속 계통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언어가 유사했다면 고구려는 부여, 옥저, 동예 등과 같은 계통의 족속에서 갈라진 주민 집단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고구려를 맥이라 지칭한 사료가 많기는 하지만, 거의 모두 기원 이후에 해당한다. 고구려를 맥이라 지칭한 최초의 사서는 1세기 후반에 편찬된 『한서(漢書)』인데, 10년 왕망(王莽)이 흉노를 정벌할 때 동원한 고구려인을 '맥인(貊人)'이라 일컬었다. 또한 연대상 가장 앞선 기사는 기원전 1세기 전반인데, 『삼국지』 동이전 옥저조에서 기원전 76년 제1현도군이 이맥(夷貊)의 침입을 받고 고구려 서북으로 쫓겨났다고 한다.

현전하는 사료상 고구려를 맥이라 지칭한 용례의 상한은 기원전 1세기 전반인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인 기원전 2세기 후반에는 맥이 아니라 '구려'로 불렸다. 이는 고구려가 처음부터 맥으로 불리지 않았으며, 또한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 집단이 본래 맥족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예와 맥의 용례가 시기에 따라 변화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와 맥이라는 족속 명칭은 선진(先秦) 문헌에서도 다수 확인된다. 다만 이때 예와 맥을 합칭하여 '예맥'이라 칭한 경우는 거의 없고,⁷ 대체로 예나 맥 단독으로 사용되었다. 더욱이 이들 용례를 종합하면 예는 대체로 랴오허 강 동쪽, 맥은 하북(河北)~산서(陝西) 북방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한 대 이전의 예와 맥은 거주 지역이 명확히 구별되는 별개의 족속이었

7) 『관자(管子)』 소광편(小匡篇)에서 제(齊)나라 환공(桓公)이 북방의 고죽(孤竹), 산용(山戎)과 더불어 예맥을 정벌했다고 언급했지만, 동일 사실을 기술한 『국어(國語)』 제어(齊語) 등에는 예맥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로 보아 『관자』 소광편의 예맥은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를 제외하면 선진 문헌에서 예맥이라고 합칭한 사례는 찾아지지 않는다.

던 것이다.

따라서 예와 맥이 합쳐져서 ‘예맥’을 형성했다고 보려면 중국 북방의 맥족이 동방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전하는 문헌 자료상 이들이 랴오허 강 동쪽으로 이주했다는 논거는 없다. 또한 고고학 자료상으로도 청동기나 초기 철기시대에 중국 북방의 주민집단이 대거 동방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흔적도 찾아지지 않는다. 결국 중국 북방의 맥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예와 결합해 예맥을 형성했다거나 또 이들이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선진 시기에 맥족의 이동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맥이라는 명칭의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용례가 다수 확인되어 주목된다. 가령 맥이 동호(東胡)나 산융(山戎)까지 포괄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거나, ‘만(蠻)’과 결합되어 화하(華夏)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맥이 북방 종족 전체에 대한 족속 명칭 내지 이종족 전체에 대한 범칭으로 확장된 것이다.

예맥이라는 명칭은 기원전 1세기에 편찬된 『사기(史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때는 이미 맥의 용례가 다양하게 확장된 이후이다. 따라서 예맥은 예와 맥의 합칭에 의해서가 아니라, 맥의 용례가 확장되면서 예와 결합해 생겨난 것이다. 『사기』에서도 예와 연칭되지 않은 맥(貉, 貊)은 거의 모두 중국 서북방이나 북방에 위치한 족속을 지칭하며, 랴오허 강 동쪽의 주민 집단에 대해 맥이라는 단독 명칭을 사용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도 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된 예맥이라는 명칭의 종족적 실체는 선진 시기부터 랴오허 강 동쪽에 거주했던 예족으로 보아야 한다. 이 예맥 속에 본래부터 예족과 구별되는 족속이나 주민 집단으로서 맥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 기원전 2세기 후반에도 중국인들은 랴오허 강 동쪽 지역 전체를 가리킬 때 ‘예의 땅(穢州)’이라고 일컬었다. 또한 전한 대에 고조선이나 그 주변의 주민 집단을 거의 모두 ‘예(穢, 穢)’로 인식했다.

가령 기원전 128년 28만 구를 거느리고 한나라에 투항한 남려는 예군(穢君)으로 불렸고, 옥저의 전신인 부조(夫租)의 우두머리도 예군으로 불렸다. 그리고 부여의 창고에 있었다는 ‘예왕지인’이라는 도장은 전한 대의 인장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한이 부여를 예족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최근에는 랴오둥 반도(遼東半島) 남부의 보란점시(普蘭店市)에서 ‘임예승인(臨穢丞印)’이라는 봉니(封泥)가 출토되었는데, 랴오둥 반도 일대의 주민 집단도 예족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전한 대만 하더라도 고조선과 그 주변의 주민 집단은 거의 대부분 예족으로 인식되었던 것

이다. 고조선뿐 아니라 그 주변에 존재했다는 진번, 임둔, 부여, 옥저(부조) 등은 모두 예족(예맥족)에서 분화했던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 집단 역시 본래 예족(예맥족)의 일원이었다고 생각된다.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 이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던 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고조선 멸망 이후 압록강 중류 일대에는 현도군이 설치되었다. 이에 대해 『사기』 흉노열전에서는 “이때 한나라가 동쪽으로 예맥과 조선을 공략해 군을 설치했다.”고 했으며, 『한서』 지리지에서는 “현도군과 낙랑군은 무제 대에 설치했는데 모두 조선·예맥·구려 만(蠻夷)이다.”라고 기술했다. 여기서의 조선은 고조선의 옛 땅, 예맥은 그 주변의 여러 주민 집단을 가리킨다.

그런데 압록강 중상류의 주민 집단은 『사기』에서는 예맥(穢貊)의 일부로 파악되었지만, 『한서』에서는 그와 구분되는 ‘구려(句麗)’로 인식되었다. 이는 압록강 중상류의 주민 집단이 본래 예족(예맥족)의 일원이었다가, 이로부터 점차 분화되어 ‘구려’를 형성했음을 말한다.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 집단은 본래 예족(예맥족)과 계통이 다르거나 지역적으로 구별되는 맥족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예족(예맥족)으로부터 분화하여 점차 독자적인 주민 집단을 형성한 것이다.

이처럼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 집단은 예족(예맥족)에서 갈라져서 ‘구려’라는 주민 집단을 형성했다. 부여, 옥저, 동예 등과 동일한 계통의 족속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경 현도군을 몰아내고 왕망의 동방정책마저 분쇄해 중국인들에게 강렬한 인식을 심어 주며 맥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특히 기원 이후 중국 북방 족속에 대한 맥의 사용례가 점차 소멸한 반면, 고구려를 맥이라고 일컫는 사례는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마치 고구려가 본래부터 예족(예맥족)과 구별되는 맥족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삼국지』나 『후한서』에서 고구려를 맥이라 지칭한 사례는 거의 모두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더욱이 고구려인들도 이를 받아들여 자신을 맥족으로 표방했다. 타이저허 강(太子河) 상류에 거주하던 자신들의 지파를 양맥(梁貊)이라 일컫고, 광개토태왕이 새로이 확장한 한강 북쪽과 영서 지역의 주민 집단을 ‘신래한예(新來韓穢)’라 지칭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로써 고구려는 국제적으로도 맥족의 나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가령 돌궐인들은 고구려를 ‘매크리(Mökli)’ 곧 맥구려(貊句麗)라 불렀고, 바다 건너 왜인들도 고구려를 ‘고마(狗)’라고 일컬었다.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 집단이 본래 맥이라는 별도의 족속을 형성한 것이 아

나라 단지 기원전 1세기부터 한인(漢人)들이 고구려를 맥이라 불렀을 뿐인데, 이것이 확산되어 마침내 고구려 자신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맥족의 나라로 인식되기에 이른 것이다.

상기와 같이 고구려는 본래 예족(예맥족)의 일원이었다가 그로부터 분화하여 독자적인 주민 집단을 형성했다. 따라서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 집단의 형성을 추적하려면 예족(예맥족) 전체의 동향과 연계시켜 고찰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고구려 건국을 주도한 주민 집단은 대체로 압록강 중상류에 국한되는데, 그 서쪽의 압록강 하류나 타이즈허 강 상류의 주민 집단도 맥이라 일컬었던 것을 보면 여러 단계의 분화를 거쳤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러한 분화 과정은 주민 집단의 형성 과정인 동시에 주변의 예맥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화 기반을 축적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3. 적석묘 축조 집단의 형성과 그 문화 기반

앞서 언급했듯이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는 신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는데, 농사를 지으며 물고기잡이나 사냥을 병행하며 생활을 영위했다. 이들은 바닥이 평평한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두만강 유역 등 한반도 동북 지역의 신석기시대인과 연관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최근 만주나 한반도에서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 사이의 계승 관계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압록강 중상류 일대도 그러했는지는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요동 지역은 빠르면 기원전 15세기 늦어도 기원전 10세기에는 청동기시대로 진입한 것으로 이해된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대표적인 청동 유물은 비파형 동검인데, 이에 이 지역의 청동기 문화를 흔히 비파형 동검 문화라 일컫는다. 비파형 동검 문화는 크게 요서 지역의 하가점(夏家店) 상층 문화, 요동~서북한 지방의 미송리형 토기 문화, 북류 송화 강 유역의 서단산(西團山) 문화, 그리고 한반도 중남부의 송국리형 토기 문화 등으로 대별된다.

이 가운데 하가점 상층 문화는 북방식 청동 단검과 은주 대의 청동기까지 공반되는데, 동호(東胡) 계통의 문화로 이해된다. 이에 비해 요동~서북한 지방의 미송리형 토기 문화나 송화강 유역의 서단산 문화에서는 북방식이나 중국 대륙의 청동 문화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미송리형 토기 문화는 대체로 우리나라 최초의 고대국가인 고조선의 문화적 토대를 이루었

다고 이해되며, 서단산 문화는 부여 선주민들이 이룩했던 청동기 문화로 파악된다.

반면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서는 아직까지 전형적인 비파형 동검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청동기의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었던 것이다. 이 지역의 청동기 문화는 흔히 공귀리(公貴里) 유형이라 불리는데, 주거지로는 장방형 움집, 무덤으로는 석관묘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비파형 동검은 보이지 않지만, 토기나 석기는 많이 출토되고 있다. 토기의 경우 바닥이 평평하며 고리(橋狀)나 꼭지 모양 손잡이가 달린 것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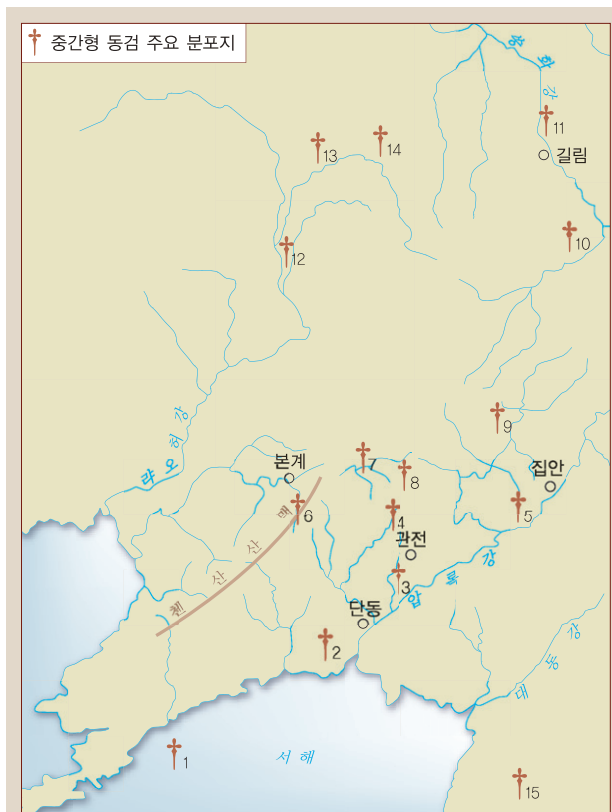
이 가운데 꼭지 달린 바리 모양 단지는 서단자형 토기의 그것과 비슷하며,⁸ 미송리형 토기가 중강군 토성리와 통화시 만발발자(萬發撥子: 옛 이름 王八脖子) 등지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평평한 바닥이나 꼭지 모양 손잡이는 두만강 유역이나 동해안 연안의 토기와 통하는 요소이며, 이중구연(二重口緣)이나 굽 높은 좁은 바닥은 대동강 유역의 팽이형 토기를 연상시킨다.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인들은 주변 지역과 비교적 활발히 교류하며 공통의 문화 요소를 많이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압록강 중상류 일대는 본격적인 청동기시대로의 진입이 상당히 지체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 명확히 구별되는 문화적 특색이 약했다고 볼 수 있다. 비파형 동검 문화기에는 아직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이나 주변의 예맥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주민 집단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이 시기의 토기에서 보이는 평평한 밑바닥, 고리 모양 손잡이, 바리 모양 기형 등의 특징이 초기 철기시대를 거쳐 고구려 시기까지 면면히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이 무렵에 고구려 문화의 기저가 상당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⁹

한편 기원전 4~기원전 3세기에 전국(戰國) 연나라가 고조선을 제압하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함에 따라 동방 지역의 정세가 급변했다. 고조선의 판도가 서북한 지역으로 위축되었을 뿐 아니라,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전환되고 그 분포 범위도 청천강 이남으로 축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전국 연 계통의 철기 문화가 요동을 중심으로 만주와 한반도 일대로 보급되

8) 최근 통화 만발발자 유적의 청동기 문화층에서 삼족기(三足器)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삼족기는 만주 지역에서는 송화 강 일대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양 지역의 문화 교류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9) 최근 환인 오녀산성(五女山城)과 통화 만발발자 유적 등에서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중간형 동검기(초기 철기시대), 고구려 초기, 고구려 중기 등의 문화층이 연속적으로 확인되었는데, 바리 모양 토기[鉢形土器]가 거의 모든 문화층에서 출토되었다. 이는 고구려의 기저 문화가 신석기시대 이래의 토착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지도 1 중간형 동검의 분포도

1. 장해 상마석(上馬石) 2. 동구 대방신(大房身) 3. 관전 사평거(四平街) 4. 관전 조가보자(趙家堡子) 5. 집안 오도령구문(五道嶺溝門) 6. 본계 남분(南芬) 7. 본계 유가초(劉家哨) 8. 신빈 마가자(馬架子) 9. 통화 적백송(赤柏松) 10. 화전 서황산 둔(西荒山屯) 11. 영길 왕둔(汪屯) 12. 창도 적가촌(霍家村) 13. 쌍로 길상둔(吉祥屯) 14. 회덕 대청산(大靑山) 15. 평양 토성동(土城洞)

즈허 강 중상류와 압록강 중하류 등 첸산 산맥(千山山脈) 동부 산간 지대에서는 철제품이 거의 출토되지 않는다.

이로 보아 중간형 동검 유적은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의 전환기에 형성되었지만, 철제품이 거의 출토되지 않는 첸산 산맥 동부 산간 지대에는 철기 문화의 보급이 상당히 지체되었다고 파악된다. 그런데 첸산 산맥 동부 산간 지대에서는 철기가 출토되지 않는 대신, 나뭇잎 무늬(葉脈紋)를 시문한 동모(銅矛)나 동경(銅鏡)이 출토되고 있다. 타이즈허 강 중상류나 압록강

10) 중간형 동검은 흔히 비파형 동검의 돌기부만 사라지고 검신 하단부는 비파형 동검과 비슷한 것, 검신 하단부에 턱이 형성된 것, 검신이 거의 직선인 것 등 세 가지 형식으로 세분된다.

기 시작했다. 동검이 비파형에서 세형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로 전환되는 대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는 압록강 중상류 일대로도 밀려왔다.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검신 하단부에 턱이 형성된 중간형 동검은 이를 잘 보여준다.¹⁰⁾ 이러한 형태의 중간형 동검은 랴오둥 반도에서 타이즈허 강 중상류와 압록강 중하류를 거쳐 랴오허 강 중상류와 송화 강 유역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 가운데 랴오허 강 중상류나 송화강 유역의 중간형 동검 유적에서는 연 계통의 철기가 많이 확인되는 반면, 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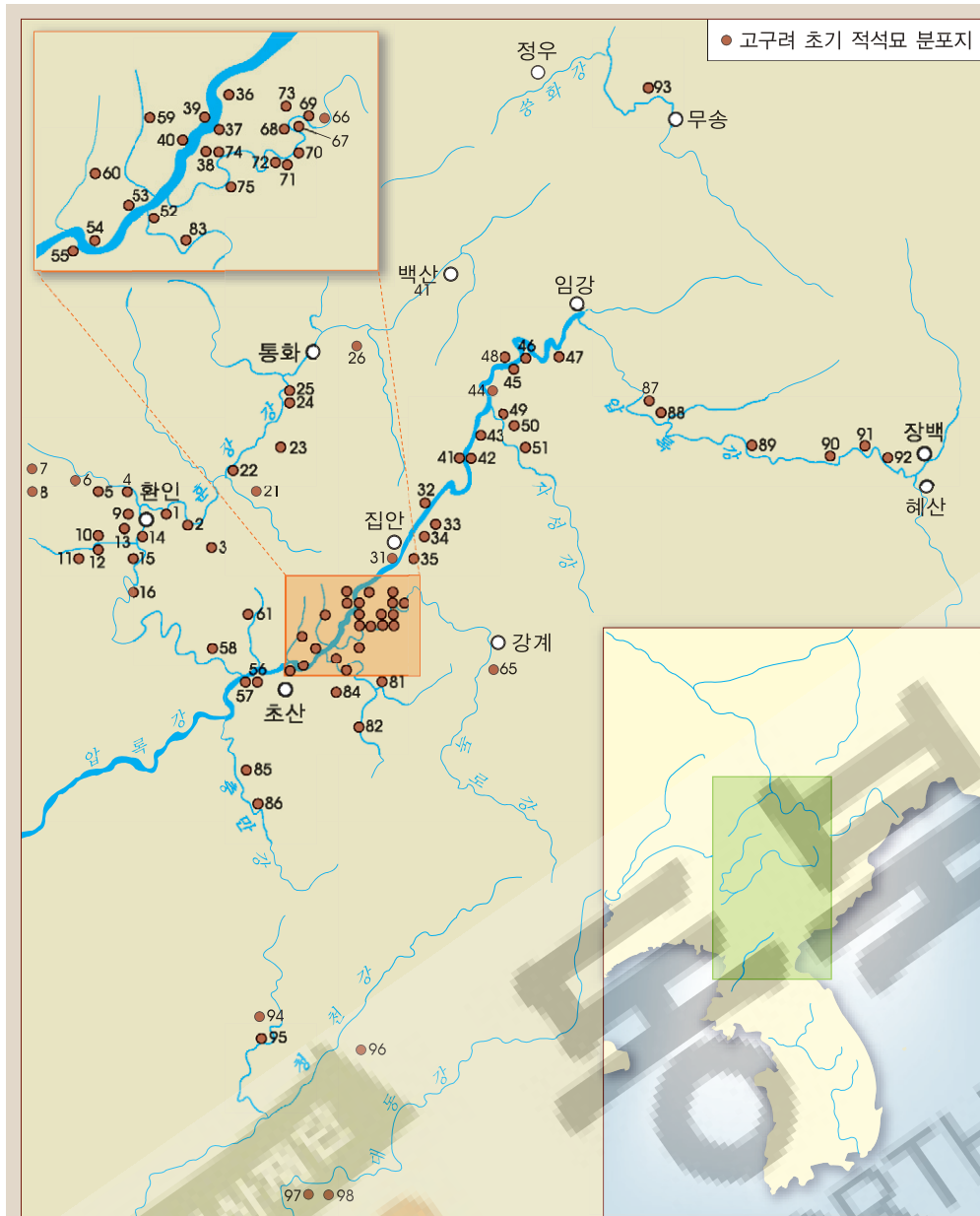
중하류의 중간형 동검 유적은 나뭇잎 무늬라는 공통의 문화 요소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청동기시대 말기에는 두 지역 토기 문화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공귀리식 기형에 고리 모양 손잡이가 달린 토기가 압록강 유역뿐 아니라 타이즈허 강 중상류 일대에서도 널리 출토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의 전환기에 첸산 산맥 동부 산간 지대의 주민 집단 상호 간에는 문화적 친연성(親緣性)이 높아졌으며, 주변 지역과 구별되는 문화권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1~3세기에 타이즈허 강 중상류(梁貊), 압록강 하류(小水貊), 압록강 중류(大水貊) 등 첸산 산맥 동부 산간 지대의 주민 집단만 '맥'이라 지칭한 사실은 이를 반영한다. 결국 기원전 4~3세기경 연의 요동 진출과 고조선의 위축으로 동방 지역의 정세가 급변하던 와중에 첸산 산맥 동부 산간 지대에는 예(예맥)족으로부터 분화한 문화권과 주민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첸산 산맥 동부 산간 지대의 주민 집단은 다시 한번 분화되었다.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서 널리 발견되는 적석묘는 이를 잘 보여준다. 고구려 초기 적석묘는 지표 위에 강돌이나 깎은 돌을 쌓아 묘단(墓壇)을 만든 다음, 그 위에 묘곽(墓槨)을 설치하여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덮는 형태로 축조했다. 지상의 묘단 위에 매장 주체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하나 반지하에 매장 시설을 만든 송화 강 유역의 석관묘나 요동 일대의 토광묘·목곽묘 등과 명확히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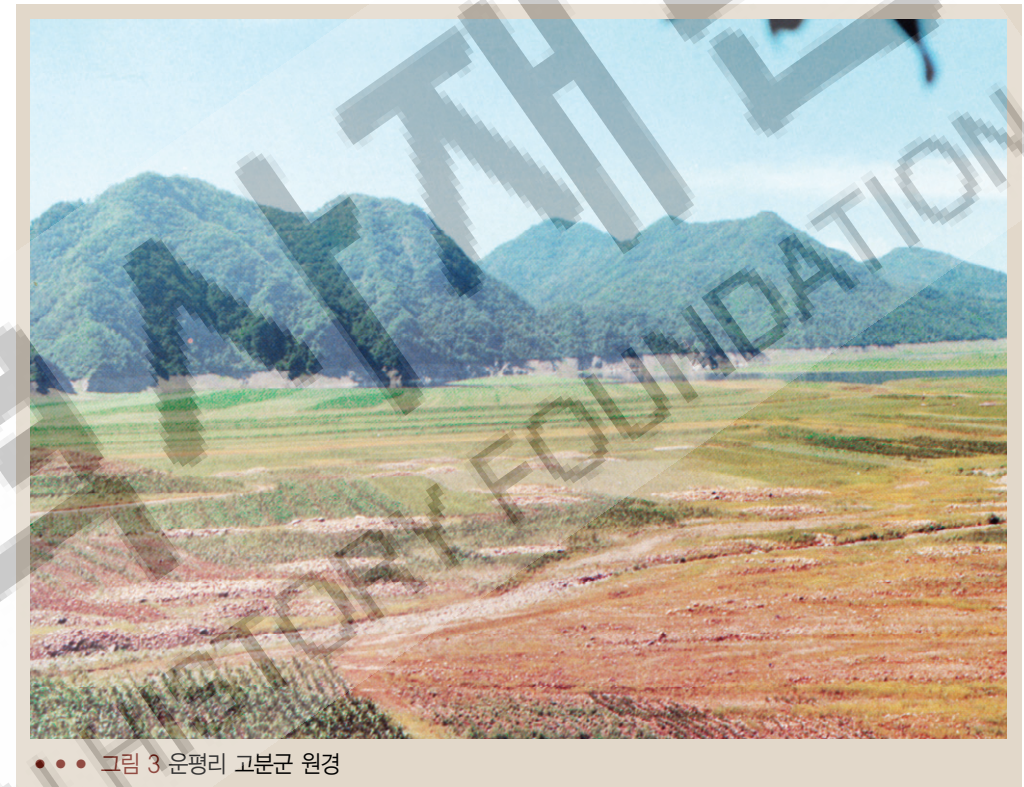
또한 요서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우하량(牛河梁) 유적에서도 적석묘가 발견되었지만, 매장 주체부가 판석묘(板石墓)로서 반지하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고구려 초기 적석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랴오둥 반도 서남단에서도 청동기시대의 적석묘가 확인되었지만, 지표상에 곧바로 매장 주체부를 조성했으며, 여러 매장 주체부를 하나의 봉분으로 덮은 집단묘라는 점에서 역시 고구려 초기 적석묘와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본다면 주변 지역의 영향이나 교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지만, 고구려 초기 적석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 이 지역의 고유한 묘제(墓制)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구려 초기 적석묘에서는 동검(銅劍)은 출토되지 않고, 청동제 장식품과 생활 용구를 비롯하여 철제 농공구와 무기 등이 출토되고 있다. 적석묘는 앞서 언급했던 중간형 동검에 뒤이어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단계에 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통화 만발발자 유적에서 중간형 동검 바로 위의 문화층에서 무기단 적석묘가 확인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 지도 2 고구려 초기 적석묘 분포도

1. 고령묘자 2. 연강촌 3. 사도령자 4. 양가자 5. 오도하자 6. 대전자 7. 천리 8. 제야보 9. 상고성자 10. 만만천 11. 대청구 12. 연합 13. 망강구 14. 중선영 15. 미창구 16. 대파 21. 횡로구대 22. 모배령 23. 반가자 24. 남두둔 25. 강연촌 26. 향양촌 31. 봉구 일대 32. 장천 33. 문악리 34. 별오리 35. 미타골 36. 분토 37. 고산리 38. 남상리 39. 상활룡 40. 하활룡 41. 양민 42. 조아리 43. 서해리 44. 연풍리 45. 토성리 46. 장성리 47. 호하리 48. 대장천 49. 범동리 50. 신흥동 51. 송암리 52. 사장리 53. 노호초 54. 지구·궁요천·유림하구 55. 신천동 56. 운평리(운해천동) 57. 연무리 58. 고마령 59. 태평구 60. 대고령묘자·소고령묘자 61. 고지 65. 공귀리 66. 집귀리 67. 남파동 68. 내평 69. 간평 70. 풍청리 71. 하천장 72. 연상리 73. 미타골 74. 연하리 75. 고보리 81. 양강동 82. 용연동 83. 만호동 84. 덕암동 85. 관평리 86. 동서리 87. 동전자 88. 칠도구 89. 십이도구 90. 안락 91. 양종장-간구자 92. 김화 93. 신안촌 94. 용호동 95. 상초리 96. 소민리 97. 묵방리 98. 봉장리



●●● 그림 3 운평리 고분군 원경

다만 압록강 하류나 타이즈허 강 중상류의 중간형 동검 유적은 대부분 매장 주체부가 지하나 반지하에 위치한 석관묘이지만, 그 상부에 적석(積石)을 한 경우가 많다.¹¹ 아직도 적석묘인지 아닌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집안 오도령구문 유적 역시 적석 유구에서 중간형 동검을 비롯하여 나뭇잎 문양의 동모와 동경이 출토되었다.¹² 또한 통화 만발발자 유적의 중간형 동검 문화층에서는 석관묘와 대석개묘(大石蓋墓)만 발굴되었지만, 고구려 초기층에서는 대석개묘와 적석묘의 과도기 묘제인 대석개적석묘(大石蓋積石墓)가 확인된 바 있다.¹³

이러한 측면에서 고구려 초기 적석묘는 바로 전 단계의 중간형 동검 문화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초기 적석묘는 중간형 동검의 분포 지역 가운데 압록강

11) 梁志龍(1992-4), 「遼寧本溪劉家哨發現青銅短劍墓」, 『考古』, 北京; 許玉林出王連春(1984-8), 「丹東地區出土的青銅短劍」, 『考古』, 北京.
 12) 集安縣文物保管所(1981-5), 「集安發現青銅短劍墓」, 『考古』, 北京.
 13) 中國國家文物局 主編(2001).

중상류 일대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가령 서쪽으로 타이즈허 강 중상류나 압록강 하류에서도 적석묘가 발견되지만, 모두 4~5세기 이후에 축조한 고구려 중후기의 봉석석실묘(封石石室墓)이다. 따라서 고구려 초기 적석묘의 분포 범위는 첸산 산맥 동부의 중간형 동검 분포권 가운데 타이즈허 강 중상류나 압록강 하류 일대를 제외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첸산 산맥 동부의 주민 집단은 철기 문화의 본격적인 보급과 더불어 다시 고구려 발상지인 압록강 중상류와 그 서변의 주민 집단으로 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압록강 중상류의 주민 집단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적석묘를 조영하면서 그 서쪽 지역과도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적석묘 문화권은 고구려 초기의 공간 범위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때 고구려 건국의 문화적 토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적석묘 축조 집단 내부에도 다양한 층차가 확인된다. 가령 고구려 초기 적석묘는 여러 기를 연결한 경우가 많지만, 대체로 개별 적석묘를 일렬로 연이은 형태를 띤다. 그만큼 개별 적석묘의 독자성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압록강 최상류에 위치한 장백(長白) 간구자(干溝子) 고분군의 경우 다른 적석묘처럼 지상에 묘단을 만들고 그 위에 묘곽을 마련했지만, 묘단 아래에 돌을 한 두 벌 깔아 공동의 묘역을 설정한 다음 한복판의 주요단(主墓壇)에 잇대어 3~4기 내지 십수 기의 적석묘를 겹겹이 축조했다.

간구자 고분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집단묘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이곳에서는 전국시대 말기의 일화전(一化錢, 一刀錢) 17매와 진말~한초의 반량전(半兩錢) 18매가 출토되었다. 고구려 초기 적석묘 가운데 가장 이른 기원전 3~2세기경에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7기의 집단묘, 총 65기의 개별 적석묘를 발굴했는데, 철기는 쇠칼(鐵刀) 3개와 철곽(鐵鑊) 1개가 출토되었을 뿐이다.¹⁴ 철기 문화의 보급이 상당히 저조했던 셈이다. 따라서 압록강 최상류처럼 철기 문화의 보급이 저조했던 지역은 적석묘 축조 집단이 형성된 이후에도 사회 분화가 더디게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집단묘의 성격이 강한 적석묘를 조영했다고 생각된다.

이에 비해 압록강 중상류 가운데 층적평원이 넓게 발달된 지역의 경우, 기원전 2세기 중반부터 철제 농공구가 많이 보급되었을 뿐 아니라 묘단을 절석(切石)으로 쌓은 기단 적석묘가 조영되기 시작했다. 기단 적석묘를 축조하려면 자연 암석을 채취, 가공, 운반하기 위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보아 이러한 지역에는 철제 농공구를 다량 집적하고 넓은



●●● 그림 4 환인 망강루 적석묘

대지를 점유해 읍락민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세력가들이 등장했다고 보인다. 즉 철기 문화의 본격적인 보급으로 사회 분화가 심화되고, 각지에 세력 집단이 등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복속과 통합을 통해 고구려 건국을 주도한 정치 세력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바로 이때 고구려 건국의 정치적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고구려의 첫 번째 도성인 환인 지역에서는 부여계 유이민이 이 지역의 토착 모체인 적석묘를 채용한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바로 환인 망강루(望江樓) 고분군이다. 망강루 고분군은 환인분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산마루를 따라 자리잡고 있다. 남쪽으로는 경사가 완만한 언덕이 펼쳐지지만 북쪽은 깎아지른 절벽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강변의 층적대지나 산기슭에 자리 잡은 다른 적석묘의 입지와 명확히 구별된다.

그런데 이 적석묘에서는 서풍(西豐) 서차구(西岔溝)나 유수(榆樹) 노하심(老河深) 유적의 출토품과 유사한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 특히 금귀고리의 경우 부여 계통으로 추정되는 노하심 유적의 출토품과 거의 동일하다. 이로 보아 망강루 적석묘는 북방에서 남하한 부여계 유이민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적석묘와 달리 절벽을 깬 산마루 정상에 따라 고분을 조영한

1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2003-8), 「吉林長白干溝子墓地發掘簡報」, 『考古』, 北京.

사실도 이를 반영한다. 서차구나 노하심 유적은 기원전 2세기 후반~기원전 1세기 경에 조성되었다고 하므로, 망강루 적석묘는 대략 기원전 1세기경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⁵

앞서 언급했듯이 고구려의 건국 시조인 주몽은 여러 토착 세력과 연합하거나 이들의 도움을 받아 이 지역 전체의 패권을 장악했다. 정복이 아니라 토착 사회와 융합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졌던 것이다. 망강루 적석묘는 이러한 유이민 세력이 적석묘라는 고유 묘제를 채용하며 토착 사회에 융합된 양상을 잘 보여준다. 결국 압록강 중상류의 주민 집단은 적석묘 축조와 더불어 고구려 건국의 문화적·정치적 기반뿐 아니라, 유이민 세력을 토착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융합력을 지닌 문화적 토대를 구축했던 것이다. 고구려는 바로 이러한 문화적 토대를 바탕으로 국가적 성장을 이룩하며 주변의 여러 나라와 폭넓게 교류하여 다양한 외래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독특한 개성을 지닌 독창적인 문화를 창출해나갔다.

4. 고구려 건국의 문화적 토대

이상을 통해 고구려 발상지인 압록강 중상류의 자연 환경,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 집단의 족원 그리고 문화 기반의 형성 과정 등을 고찰했다.

그 결과 압록강 중상류 일대는 험준한 산간 지대이지만, 농사지를 만한 충적평지가 곳곳에 발달되었을 뿐 아니라 수렵이나 어로 자원도 풍부했음을 파악했다. 또한 이 지역은 산간 지대이기 때문에 대평원이 발달한 만주 중심부보다 오히려 한반도의 자연 환경에 더 가까운 사실도 확인했다. 그리해 고구려는 요동 평원을 장악한 다음에도 대평원이 아니라 주로 그 안쪽의 하곡평지를 지배하는 데 주력했고, 5세기 전반에는 평양 지역으로 천도했던 것이다. 고구려는 압록강 중상류의 산간 지대에서 축적한 문화 기반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의 방향을 모색했던 것이다.

고구려의 족속 계통에 대해서는 맥족(貊族)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다. 심지어 중국 북방의 맥족이 동방으로 이동하여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진한(秦漢) 이전에 만주 중남부와 한반도 북부에 '맥(貊)'이라 불린 주민 집단은

존재하지 않았고, 중국 북방의 맥족이 대규모로 이주한 사실도 없었음을 확인했다. 오히려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 집단은 본래 예족(濊族, 濊貊族)의 일부를 구성했으며 '예족'이라 불렀다. 그리고 예족으로부터 분화하여 처음에는 구려(句麗)로 불리다가 기원전 1세기경부터 '맥(貊)'이라 불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점차 확산되어 맥족의 나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 집단은 본래 예족(예맥족)의 일원이었으며, 맥은 후대에 붙여진 명칭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예족(예맥족) 전체의 동향을 고려하며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 집단의 형성과 그 문화적 토대를 고찰했다. 그 결과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는 청동기 문화가 상당히 늦게 보급되어 이때는 주변과 구별되는 문화권을 이룩하지 못했음을 파악했다. 그러다가 기원전 4~기원전 3세기경 연의 요동 진출로 동방 지역의 정세가 급변하던 와중에 압록강 중상류를 포함한 첸산 산맥 동부 산간 지대에 중간형 동검과 나뭇잎 무늬를 공유하는 문화권이 형성되었음을 파악했다. 그리고 기원전 3~2세기에 압록강 중상류의 주민 집단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여 적석묘라는 이 지역만의 독특한 무덤을 조영하면서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러한 적석묘 문화권은 고구려 초기의 공간 범위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때 고구려 건국의 문화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 집단이나 그 문화적 토대는 철기 문화의 수용과 더불어 적석묘를 조영하면서 구축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 건국기에 부여계 유이민 세력이 적석묘를 채용하여 토착 사회와 융합한 데서 적석묘의 축조와 더불어 형성된 문화적 토대는 다양한 외래 문화를 토착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융합력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구려는 이러한 문화적 토대를 바탕으로 국가적 성장을 이룩하며 주변의 여러 나라와 폭넓게 교류하여 다양한 외래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독특한 개성을 지닌 독창적인 문화를 창출해나갔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

15) 梁志龍·王俊輝(1994), 「遼寧桓仁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 『博物館研究』 2, 長春.

II 고구려의 건국 신화

김기흥

1. 천제의 손자 주몽의 건국 이야기

고구려 건국 신화는 시조인 주몽(朱蒙)의 거룩한 탄생과 신비로운 건국 활동에 관한 이야기로서 흔히 주몽 신화라고 한다. 부여족인 고구려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부여의 시조 동명 신화에 의거하여 주몽 신화를 만들어 갔다. 그런데 두 나라 간에는 건국 시기의 차이가 있고 특히 새 나라에 대한 기대와 자부심에서 고구려인들은 부여의 신화와는 다른 차원의 새롭고 풍성한 주몽 신화를 낳았다.

건국은 매우 힘든 일이라서 특별한 능력과 노력 그리고 행운까지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것은 위대한 신의 후원을 받아야 가능할 정도의 대사인 것이다. 주몽은 바로 천제(天帝) 즉 하느님의 손자이며, 어머니도 하백(河伯)의 딸이니 수신(水神)의 외손이기도 하다. 위대한 신들의 후예인 주몽이야말로 나라를 세울 자격과 능력이 있으며, 고구려는 바로 하늘과 땅의 신이 어우러져 탄생시킨 거룩한 혈통을 가진 자가 세운 위대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주몽 신화는 말하고 있다. 중국 고대의 왕들이 상서로운 물건을 우연히 얻게 되면 하늘의 뜻 곧 천명을 받았다고 하여 '천자'로 자임하는 데 비해, 고구려의 시조는 직접 하늘의 혈통에서 난 자로 여겼으니 중국과는 또 다른 세계의 거룩한 왕을 자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주몽 신화에 보이는 천제의 손자라는 혈통 의식은 돌출한 것이 아니다. 단군 신화에

보이는 하느님인 환인으로부터 환웅 그리고 단군으로 이어지는 계통 인식과 기본적으로 같다. 어머니 하백녀도, 토테미즘 시대에는 곧 곱신의 딸이라고 보았을 수도 있는 단군의 모친 웅녀와 유사한 존재인 것이다. 이처럼 주몽 신화는 단군 신화의 영향을 받았던 듯하며, 동북아시아 문화권이란 공동의 지역 기반에서 두 신화가 형성되어 이렇게 되었다고 볼 만하다.

2. 자료를 통해 본 주몽 신화

1) 주몽 신화 형성 시기에 대한 인식

신화의 표현은 상징적·은유적인 것이 많고 변형 과정이나 이유도 쉽게 알 수 없으므로 같은 신화에 대해서도 인식의 편차가 있기 마련이다. 주몽 신화에 대한 학자들의 인식 차이도 비교적 큰 편이다. 그것은 상고의 것을 다룰 때 있게 마련인 시대 감각상의 문제, 말로 이야기된 구술 문화를 남겨진 문자 사료로 연구할 수밖에 없는 자료적 조건, 그리고 각 연구자들이 처한 주몽 신화에 대한 연구사의 단계의 차이에서 왔다고 여겨진다.

주몽 신화에 대한 기존 인식은 두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화가 고구려 초 건국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경우와, 4세기 말 이후 5세기의 전성기에 정치적 의도에서 만들어지고 그 후에 변형된 것이라고 보는 경우로 대별해볼 수 있다. 일제 시기 일본인 연구자들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보이는 고구려 초기 역사를 불신하였는데, 장수왕이 고구려에 편입된 부여계 주민을 무마하고 부여계의 종가로 자부하기 위해 부여의 동명왕 전설을 개작하여 '추모왕(鄒牟王) 전설'을 만들었다는 견해를 내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의 연구자들은 이같은 일시적 조작설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으나, 주몽에 관한 전설의 파편들이 전해지던 중에 그것들을 이용하여 4세기 말 이후 왕실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몽 신화가 만들어지고 더 뒤에는 주몽의 출신 계통이 바뀌기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한다.

자료상으로 볼 때, 주몽이 활동했다는 기원전 1세기나 그 직후에 기록된 주몽 신화는 없다. 따라서 신화가 후대에 조작되었는지, 당시에는 거의 구전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전해지는 주몽 신화 관련 자료들은 모두 5세기 이후에 기록된 것들이고,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점진적으로 그 양이 증가하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자료적으로

는 후대 성립설이 더욱 설득력이 있을 듯도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더욱 검토할 점들이 있다.

2) 주몽 신화 자료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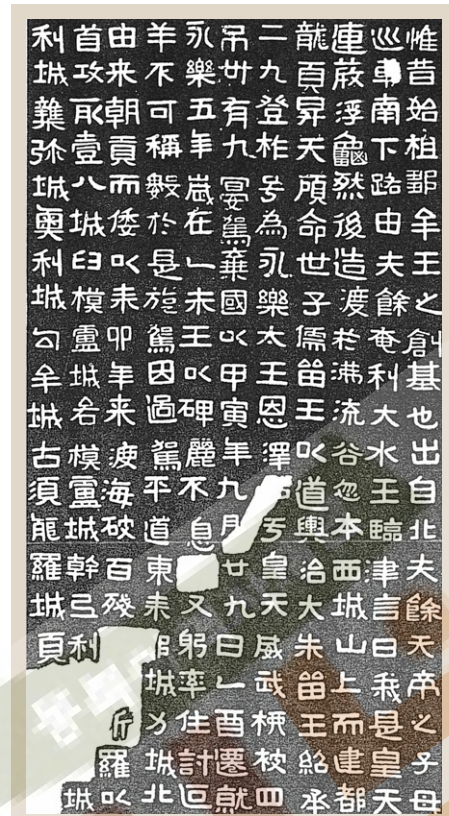
전해지는 주몽 신화 자료 중 가장 일찍 기록된 것은, 장수왕 2년(414)에 작성된 광개토대왕릉 비문의 앞머리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몇 줄의 내용이다. 이하 한문 자료들을 한글로 풀어 인용하겠다.

생각건대 옛날에 시조 추모왕(鄒牟王)이 처음 나라를 세우심은 이러하다. 북부여 천제의 아드님에게서 나오시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셨다. 알에서 깨어 세상에 내려오시니 태어나심에 성스러움이 있고 □□□□하였으며 □□수레를 명하시어 남으로 내려오셨다.

오시는 길에 부여의 엄리대수(奄利大水)를 만나게 되었다. 왕께서 나무에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 왕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신 추모왕이다. 나를 위하여 갈대를 잇고 거북을 떼오르게 하라.” 하시니 이 말에 응하여 즉시 갈대가 이어지고 거북이 떼올라 이에 강을 건너셨다.

비류곡 흘본(忽本: 졸본) 서쪽 성의 산위에 수도를 세우셨다. 세상의 왕위를 즐겁게 여기지 않으시니, 이에 황룡을 보내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왕은 흘본의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를 밟고 승천하시었다.

주몽 신화의 간략한 줄거리가 보인다. 고구려 시조를 ‘추모’라고 하였으며 천제의 손자이자 하백신의 외손이라 말했다. 중국의 신이나 천자와는 전혀 무관한 시조관이 확립된 것에서 고구려의 독자적 세계관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의 기록에는 추모왕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일생이



••• 그림 1 광개토대왕릉 비문

언급되고 있어서, 혹시 당시에 주몽 신화가 이처럼 간략하게 형성된 상태였던 것은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듯하다.

장수왕 대에 고구려 귀족 모두루(牟婁婁)가 기록한 모두루 묘지명에도 주몽 신화의 존재를 알려주는 다음과 같은 약간의 언급이 보인다.

하백의 손자이며 해와 달의 아들이신 추모성왕은 원래 북부여에서 나오셨는데 천하사방이 이 나라가 가장 성스러운(나라인) 것을 알 것이다.

외손도 손자인 까닭에 추모성왕은 ‘하백의 손자’가 되는 것이며, 해와 달을 천제의 아들로 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554년에 편찬된 『위서(魏書)』 고구려전에 꽤 긴 줄거리의 주몽 신화가 보인다. 대체로 장수왕 23년(435)에 고구려에 다녀간 북위 사신의 견문으로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왔다. 스스로 말하기를 선조는 주몽(朱蒙)이라 한다. 주몽의 어머니 하백녀는 부여 왕에 의해 집안에 가두어졌다. 햇빛이 쬐자 몸을 이끌어 피했으나 햇빛이 다시 쬐어왔다. 잉태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만 하였다. 부여 왕이 이를 개에게 던져주었으나 먹지 않았고 돼지에게 주었으나 역시 먹지 않았으며, 길에 던져두었으나 우마가 피해가고 뒤에는 들에 버렸으나 새들이 털로써 감싸주었다. 부여 왕이 그것을 갈라보려 하였으나 깨뜨리지 못했으며 드디어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미가 물건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니 한 남아가 껍질을 깨고 나왔다. 자라매 이름을 주몽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에서는 주몽이란 말은 활을 잘 쏜다는 뜻이다.

부여인들은 주몽이 사람의 소생이 아니라서 장차 탄마음을 가질 것으로 여겨 죽여 없애기를 청했으나 왕은 듣지 않고 그로 하여금 말을 기르도록 하였다. 주몽이 매번 스스로 시험해보아 좋은 말과 약한 말을 알 수 있게 되자 준마는 먹이를 줄여 마르게 하고 둔한 말은 잘 먹여 살지게 하였다. 부여 왕이 살진 말은 자신이 타고 마른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뒤에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게 되었는데, 주몽은 활을 잘 쏘므로 화살을 하나만 주었으나 화살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많이 잡았다. 부여의 신하들이 다시 모의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다.

주몽의 어머니가 이를 알게 되어 주몽에게 말하기를 “나라에서 장차 너를 해치려 하는데 너의 재주와 피면 마땅히 멀리 사방에 가서 살 만하다.” 하였다. 주몽이 이에 오인(烏引)과

오위(烏違) 두 사람과 함께 부여를 떠나 동남쪽으로 달아나다 중도에 큰 강을 만났다. 건너려 하나 다리가 없고 부여인은 급하게 추격해왔으니 주몽이 강물에 고하기를 “나는 태양의 아들이고 하백의 외손인데 금일 도망 길에 추격병은 닥치고 있으니 어찌 건너가 리요.” 하니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주어 주몽이 강을 건너고 물고기와 자라는 흩어져버리니 쫓아오던 기병은 강을 건널 수 없었다.

주몽이 드디어 보술수(普述水)에 이르러 세 사람을 만났다. 한 사람은 삼베옷을 입고 다른 한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물풀 색 옷을 입고 있었으니, 이들과 더불어 흘승골성에 이르러 살게 되었다. 이름하여 고구려라 하였으며 이로써 성씨를 삼았다. 처음에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에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주몽이 달아난 후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처음에는 여해(閼諺)라고 하였다. 그가 자라서, 주몽이 나라의 임금인 것을 알고 그 어머니와 더불어 도망해오니 그를 이름하여 여달(閼達)이라 하고 국사를 위임하였다. 주몽이 죽자 여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앞서 본 고구려의 기록들에서 시조를 ‘추모’라고 한 데 비해 여기서 처음으로 ‘주몽’이라



••• 그림 2 고구려의 마구간을 보여주는 덕흥리 벽화고분의 그림

고 하였다. 참고로 1세기에 후한에서 편찬된 『한서(漢書)』 권99 왕망전에는 고구려 후(侯) ‘추(騶)’라는 외자 이름이 전해지기도 한다. ‘주몽’이 한국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게 된 것은, 12세기 고려에서 편찬된 『삼국사기』 고구려 동명성왕본기에서 시조 이름을 ‘주몽’이라고 적었기 때문이다. 추모(鄒牟)나 주몽(朱蒙)은 고구려 시조의 이름을 유사한 음의 다른 한자로 적은 것이므로 어느 것만 바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외에 한중일 역사서들을 보면 중모(仲牟), 도모(都慕), 동명(東明) 등으로도 쓰였는데 모두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위서』 고구려전의 뒤를 잇는 자료는 1145년 고려에서 편찬된 『삼국사기』의 동명성왕본기이다. 이 본기는 동명성왕(=주몽) 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아래에 인용해보겠다.

시조 동명성왕의 성은 고씨요 이름은 주몽이다(추모 혹은 상해라고도 한다). 처음에 부여 왕 해부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어 산천에 제사하여 후사를 구하려 했는데, 그가 탄 말이 곤연이란 곳에 이르러 큰 돌을 보고 마주 대하여 눈물을 흘렸다. 왕이 괴이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옮겨놓고 보니, 금색 개구리 모양의 한 아이가 있었다. 왕이 기뻐하여 말하기를 “이는 하늘이 내게 뛰어난 자식을 주심이라.” 하고 곧 데려다 길렀다. 이름을 금와라 하고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

그 후에 국상 아란불이 말하기를 “일전에 천신이 제게 강림하여 이르기를, 장차 나의 자손으로 이곳에 건국케 하려 하니 너희는 다른 곳으로 피하라. 동해가에 가섭원이란 곳이 있으니 토양이 기름지고 오곡에 알맞으니 도읍할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아란불이 드디어 왕을 권하여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동부여라 하였다. 그 옛 수도에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으나 자칭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 하는 이가 와서 도읍하였다. 해부루가 돌아가고 금와가 그 왕위를 이었다. 이때 금와는 태백산(백두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얻어 내력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나는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화입니다. 여러 아우들과 함께 나와 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제 딸로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 하고 나를 웅심산 아래 압록강가의 집 속으로 유인하여 사육을 채운 후 곧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남에게 몸을 허락하였다고 하여 드디어 이 우발수에 귀양살이를 하게 하였습니다.”라 했다. 금와는 이상히 여겨 그를 집 속에 가두었다. 그녀에게 햇빛이 비추더니 몸을 피하여도 또 따라 비추었다. 그로 인하여 태기가 있더니 다섯 되만한 큰 알을 낳았다. 왕이 그 알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더니 먹지 아니하였고, 또 길바닥에 버렸더니 소와 말이 피해갔다. 뒤에 들에 버렸더니 새가 날개로 품어주었다. 왕이 그 알을 쪼개보려 하였으나 잘 깨어지지 않으므로, 드디어 그 어미에게 도로 주었다. 그 어미는 물건으로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사내아이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왔다. 아이의 외모가 빼어났으며, 나이 일곱 살에 평범한 아이와 확연히

다르게 제 손으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쓰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의 풍속에서 활 잘 쓰는 자를 '주몽'이라 하므로 그와 같이 이름을 지었다 한다.

금와왕에게는 아들 7형제가 있어 주몽과 더불어 놀았는데 그 재주와 능력이 모두 주몽을 따를 수 없었다. 그 장자인 대소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몽은 사람의 소생이 아니고 그 위인이 용맹스러우니, 만일 일찍이 그를 도모치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그를 없애소서.”라고 하였다. 왕은 듣지 않고 주몽으로 하여금 말을 기르게 하였다. 주몽이 말을 살피어 준마에게는 먹을 것을 줄여 여위게 하고 둔한 말은 잘 먹여 살지게 하였다. 왕은 살진 것을 자기가 타고 여윈 것을 주몽에게 주었다. 그 후에 들에서 사냥을 할 때 주몽은 활을 잘 쓰는 까닭으로 화살을 적게 주었으나, 그가 잡은 짐승은 매우 많았다. 왕자와 여러 신하들이 또 그를 죽이려 모의하므로, 주몽의 어머니가 비밀히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라 사람이 장차 너를 해치려 하니 너의 재주와 지략을 가지고 어디에 간들 아니 되겠느냐. 지체하다가 옥을 당하느니보다는 멀리 가서 큰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주몽은 이에 오이·마리·협보 3인과 벗 삼아 도망하여 엄체수(일명 개사수니 지금의 압록 동북에 있다)에 이르러 물을 건너려 하였으나 다리가 없었다. 추격병이 이를까 두려워하며 강물에 고하기를 “나는 천제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으로 오늘 도망하는 중에 쫓는 자가 이르고 있으니 어찌하랴.” 하였다. 이때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주몽이 무사히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가 곧 흩어지니 뒤를 쫓는 기병이 건너오지 못하고 말았다.

주몽은 모둔곡(『위서』에서는 보솔수에 이르렀다 한다)에 이르러 세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마의(麻衣)를 입고 한 사람은 납의(納衣)를 입고 또 한 사람은 수조의(水藻衣)를 입었다. 주몽이 묻기를 “그대들은 어떠한 사람이며 성명이 무엇이나?” 하니, 마의 입은 사람은 말하기를 이름이 재사라 하고, 납의 입은 사람은 말하기를 무골이라 하고, 수조의 입은 사람은 말하기를 목거라 하고 성씨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주몽은 재사에게 극씨란 성을, 무골에게는 중실씨, 목거에게는 소실씨를 내려주고, 여러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지금 큰 명을 받아 국가를 개창하려 하는데 마침 이 세 현인을 만났으니 어찌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 하고 드디어 그 재능을 헤아려 각각 일을 맡기고 그들과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다(『위서』에서는 흘승골성에 이르렀다 한다).

그 토양이 기름지고 산하가 험고함을 보고 거기에 도읍을 정하려 하였는데,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어 단지 비류수가에 오두막집을 짓고 거기 거하여 나라를 고구려라 하고 인하여 고(高)로써 성씨를 삼았다(혹은 이르되, 주몽이 졸본부여에 이르니 왕이 아들이 없었는데 주몽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고 그의 딸로 아내를 삼게 하였으며 왕이 돌아가니 주몽이 그 왕위를 이었던 것이라 한다). 이때 주몽의 나이는 22세이니, 한나라 효원제 건소(建昭) 2년이요, 신라 시조 혁거세 21년인 갑신년이었다.

사방에서 소식을 듣고 와서 붙어사는 자가 많았다. 그 지경이 말갈 부락과 연결하였으므로 침략과 도적질의 해를 입을까 염려하여 드디어 이를 쳐 물리치니, 말갈이 두려워 복종하여 감히 침범치 못하였다. 왕은 비류수 중에 채소의 잎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보고 상류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사냥을 하면서 비류국을 찾아가니, 그 국왕 송양(松讓)이 나와 보고 “과인이 바닷가의 한 구석에 치우쳐 있어 일찍이 군자를 만나보지 못하다가 오늘 우연히 서로 만나니, 또한 다행한 일이 아니라. 그런데 그대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대답하기를 “나는 천제의 아들로 모처에 와서 도움을 하였다.”고 했다. 송양이 말하기를 “우리는 여기서 여러 대 동안 왕 노릇을 하였지만, 땅이 작아 두 임금을 용납하기는 어렵다. 그대는 도움을 정한 지 며칠 안 되니, 우리에게 붙어사는 편이 어땠겠느냐.”라 하니, 왕은 이 말에 분노하여 그와 시비를 하다가 또한 서로 활쏘기를 하여 재주를 시험해보니 송양이 항거치 못하였다.

2년 하6월에 송양이 나라를 바치고 항복하므로 왕은 그곳을 다물도(多勿都)라 하고, 송양을 봉하여 그곳의 주(主)로 삼았다. 고구려 말에 구토의 회복을 다물이라 하므로 그와 같이 이름한 것이다.

3년 춘3월에 황룡이 골령에 나타났고, 추7월에 상서로운 구름이 골령 남쪽에 나타났는데 빛이 푸르고 붉었다.

4년 하4월에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서 일어나 사람이 7일 동안이나 빛을 분별치 못하였다. 추7월에 성곽과 궁실을 지었다.

6년 추8월에 신작(神雀)이 궁정에 모여들었다. 동10월에 왕이 오이와 부분노에게 명하여 태백산(백두산) 동남쪽의 행인국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아 성읍으로 삼았다.

10년 추9월에 봉황이 왕이 사는 집에 모여들었다. 동11월에 왕이 부위염을 시켜 북옥저를 쳐 멸하고 그 땅을 성읍으로 삼았다.

14년 추8월에 왕모 유화가 동부여에서 돌아가니 그 왕인 금와가 태후의 예로써 장사하였고 드디어 신묘를 세웠다. 동10월에 부여에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바쳐 은덕에 보답하였다.

19년 하4월에 왕자 유리가 부여에서 그 어머니와 함께 도망해오니, 왕은 기뻐하여 태자로 삼았다. 추9월에 왕이 돌아가니 나이 40세요, 용산에 장사하고 동명성왕이라고 이름을 붙여드렸다.

이 『삼국사기』의 동명성왕 신화는 ‘해부루’와 ‘금와’가 나오는 동부여 설화가 앞에 나오는 점이 특징이며 ‘해모수’와 ‘유화’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기도 하였다.

전에 보이지 않던 동부여 설화의 출현을 의미 있게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6세기에 들어와

고구려 귀족들의 권세는 강화되었다. 『일본서기(日本書紀)』 흠명기에 의하면, 안원왕(安原王)에게는 원자가 없이 둘째 왕비와 셋째 왕비 소생의 왕자가 있었는데, 외척 세력들이 각기 외손인 왕자를 태자로 세우기 위해 안원왕 말에 수도에서 전투를 벌여 2천여 명이 살해되는 비극이 있었다고 한다(544년). 승리한 둘째 왕비 측의 소생인 8세의 왕자가 왕이 되었으니 그가 양원왕(陽原王)이다. 이후 정정은 불안하였으나 정권이 뒤바뀌지는 않았다. 어쩌면 광개토대왕의 정복 사업 때에 따라 들어온 동부여 출신 등과 유관할지도 모를, 상대적으로 신흥 세력일 가능성이 있는 양원왕 후원 귀족 세력 계열이 대를 이어 그 권력을 누리는 중에 『신집(新集)』의 편찬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600년). 이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유리한 방향으로 사서가 편찬되도록 했을 만하며, 그런 중에 주몽의 출자를 북부여에서 동부여로 바꾸고자 동부여 설화를 주몽 신화에 두게 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해보기도 하였다. 『신집』은 고려에 그 일부라도 직간접적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삼국사기』에 보이는 주몽의 동부여 출자를 말한 듯한 신화는 바로 『신집』에 있었던 내용을 따랐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해모수’의 최초 등장도 5세기 말 6세기 초경에 부여 정복을 마무리하면서 삽입되었던 것이 아닐까 추정하기도 하였다.

『삼국사기』 이후의 중요한 주몽 신화 자료로는 이규보의 서사시 「동명왕편(東明王篇)」이 있다(1193년). 이규보는 『삼국사기』의 편찬 책임자인 김부식이 동명왕의 거룩하고 신비로운 탄생과 행적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음을 크게 비판하며 시를 지었다. 그는 시의 내용적 근거를 밝히기 위해 『삼국사기』보다 앞서 편찬된 『구삼국사(舊三國史)』 동명왕본기에 보이는 신화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시가 너무 길어서 여기에 제시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은 훨씬 풍부하며 재미있고 신화적이다(www.minchu.or.kr 참조). 그런데 이 「동명왕편」이 전한 『구삼국사』의 주몽 신화를 바라보는 인식에도 차이가 있다. 고구려 중·후기에 주몽 신화가 형성되었다는 입장과 그것이 고구려에서 말해진 내용이 아니라 통일신라나 심지어는 고려에 와서 풍성해졌다고 보는 듯하다.

위와 같이 주몽 신화 관련 자료들을 연대순에 따라 기록된 내용만 평면적으로 볼 때, 주몽 신화가 건국기가 아닌 중기 이후에 점진적으로 성립되고 더 뒤에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볼 만한 점이 있는 듯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검증되어야 할 점이 있다. 위와 같은 기록 자료들이 기록된 시점에 말해지던 주몽 신화의 거의 모든 내용이거나, 적어도 그 중심적 요소를 제대로 요약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글이란 주관적·객관적 조건에 따라서 같은 내용도 천차만별로 써지고 윤색되기 마련이다.

앞에서 인용한 자료들의 출전을 보아도 그 성격이 다양하다. 광개토대왕릉 비문은 왕의 공적과 왕릉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은 비문이다. 따라서 추모 신화는 광개토대왕의 혈통의 연원을 말하는 가운데 줄여서 적었다. 장수왕 2년(414)에 말해지던 신화의 전부가 아니라 광개토대왕이 천손임을 말하기에 적합한 정도만을 적은 것이다. 보이는 내용만으로는 전설도 민담도 될 수 없을 정도이니, 풍성한 신화의 에피소드 등은 의당 더 있었을 것이다. 모두루 묘지명에 기록된 내용도 장수왕의 조상을 찬양하고자 추모의 출자에 관한 핵심적 내용만을 언급한 것이다.

『위서』 고구려전의 주몽 신화는, 구체적인 줄거리가 갖추어져서 앞의 미숙한 두 자료의 신화가 드디어 성체를 이루었다고 볼 만도 하다. 그런데 이 자료는 자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고구려 왕실의 연원을 말하고자 하는 목적상 알게 된 주몽 신화의 줄거리를 꽤 많은 부분 기술하였던 것이다. 고구려로부터 문헌 자료를 얻어 이 기록을 하게 된 것은 아니고, 사신이 이야기를 듣고 적는 중에 ‘추모’를 ‘주몽’이란 한자로 기록한 것도 알 만하다. 더구나 내용을 보면, 종주국을 자부하고 있었던 중국 측의 입장에서 윤색이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앞서 기록된 광개토대왕릉 비문에 보이는 주몽이 천제의 손자라거나 하백녀를 모친으로 하고 있는 점이 말해지지 않았다. 고구려 시조를 중국 황제들과 유사하게 천제의 손자로 언급하거나 그 모친조차 신의 딸로 언급하고 싶은 심사나 형편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자료도 필요한 내용만을 적었을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었을 듯하다. 신화의 실제적인 시작 부분을 보면 “주몽의 어머니 하백녀는 부여 왕에 의해 집안에 가두어졌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주인공의 모친이 갇혔다는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설화가 있을까? 사신이 들은 주몽 신화에는 부여 왕이 왜 주몽의 모친을 집안에 가뒀는지 그 사연이 언급되었을 것이다.

이런 이해 방식이 무리가 없다면, 더 풍부한 내용과 특히 동부여 신화 내용을 전하고 있는 『삼국사기』 동명성왕본기에 보이는 주몽 신화도 후대에 정치적 이유에서 변형된 산물로만 볼 수 없는 점이 있다. 즉 『위서』 고구려전에 실린 주몽 신화 단계에도 이미 동부여 관련 설화가 있었는데, 중국 측에서 기록을 생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더구나 『삼국사기』의 신화를 동부여 출자 설화라고 말하고도 있으나, 사실 『삼국사기』 동명성왕본기에서도 주몽의 출자 즉 혈통을 동부여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옛 수도 북부여에 출현한 해모수가 유화와 관계를 맺어 주몽의 부친이 됨을 말하고 있다. 광개토대왕릉 비문에 보이는 주몽이 북부여 ‘천제 지자(天帝之子)’의 아들이라는 점은 여전하다.

해모수나 유화라는 이름도 고구려 후기에 처음 사용된 듯도 하지만, 수백 년 간 구전되던 신화에서 추모왕의 부모를 ‘천제지자’ 나 ‘하백녀’ 로만 말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신화에서는 흔히 신들을 의인화하여 이름을 부르며 실감 나게 이야기한다. 고구려인들 스스로 기록한 비문과 같은 공식적인 글에서 ‘해모수’ 나 ‘유화’ 등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왕실 조상에 대한 경외심의 발로일 수도 있으며, 기록자의 입장이나 구전 설화의 변형(variety)의 산물일 수도 있는 것이다.

「동명왕편」이 전하는 신화의 풍성함도 시간의 경과의 결과로서만 볼 일이 아닐 것이다. 그 내용에는 후대인이 조작해낼 수 없는 상고의 시대상과 정서에 가까운 것이 많다고 여겨지므로 오히려 고구려에서 이야기된 내용을 실감 나게 전하고 있다고 볼 만하다. 「동명왕편」의 근거가 된 『구삼국사』 동명왕본기는 『삼국사기』보다 먼저 편찬된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고구려 『신집』의 내용에 보다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들로 보아, 자료의 창에 비쳐진 것들을 당시에 말해진 신화의 전부인 양 보고 주몽 신화가 고구려 중기 이후에 형성되고 이어 변형된 것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듯하다.

3. 주몽 신화의 형성과 건국의 역사

1) 주몽 신화의 형성

3세기에 편찬된 중국의 사서 『삼국지(三國志)』 동이전 고구려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나라 사람들이 크게 모였는데 동맹(東盟)이라고 하였다. 그 벵슬한 자들은 모두 비단옷을 입고 금·은으로 장식하고 모였다. [...] 그 수도의 동쪽에는 큰 굴이 있어 수혈(隧穴)이라고 한다. 10월에 나라 사람이 크게 모일 때에는 그 굴에서 수신(隧神)을 맞이하여 수도의 동쪽 강가에 와서 제사를 지냈는데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신의 자리에 두고 하였다.

우선, 고구려의 동맹제가 제천(祭天) 행사임을 알 수 있다. 천신에게 제사하였으며, 그의 아들 동명에게도 제사하였기에 동명과 유사한 동맹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국



●●● 그림 3 집안시에 있는 국동대혈 (고구려에서는 매년 10월에 온 나라에서 크게 모여 수신(隧神)을 맞이하여 나라의 동쪽에 모시고 가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행사에는 왕과 제가(諸加)들이 모두 참석하였을 것이다)

내성 부근 굴의 수신도 이 동맹에 맞이해와 제사하였던 것이다. 수신은 굴의 신이라서 지신(地神)이기도 한데, 지신은 흔히 모신(母神)이다. 6세기 중·후반의 역사를 전하는 중국의 『주서(周書)』 이역 고구려전에 의하면, 고구려에서 두 신묘(神廟)를 두고 모신과 그 아들 신을 섬겼는데 모신은 나무를 깎아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무 상으로 만들어진 수신은 뒤에도 존속하여 여성 목상으로 만들어져 숭배되었던 것이다. 지금도 옛 국내성인 중국 집안(集安) 부근에 실재하는 압록강 가 산 속 큰 굴에 있던 수신을 맞이하여 배에 싣고 강물을 따라서 내려와 수도 국내성 부근에 와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천신 및 동명과 함께 제사된 여신은 누구일까? 상식적으로도 그녀는 천신의 아내이자 동명의 모친이었다고 보인다. 견우와 직녀처럼 매년 딱 한 번 만나는 천신과 수신과의 애절한 사연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을 것이며, 이들 부부의 사연은 말하고 또 말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 땅인 압록강 부근 큰 굴의 여신이 낳은 아들이 부여의 동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니, 그 아들은 마땅히 고구려의 동명 곧 고주몽이었던 것이다. 두 부부의 만남, 햇빛으로 정을

통합, 잉태와 주몽의 출생이라는 주몽 신화의 중요 줄거리는 동맹제를 통해 매년 재연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렇게 태어난 주몽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며 건국을 완수했는지도 거기에 덧붙여 말해졌을 것이다. 따라서 동맹제가 매년 행해지던 3세기 중반 이전에 고구려에는 주몽 신화가 존재하였다고 여겨진다.

주몽 신화는 3세기 이전 어느 시기에 형성되었을까? 1세기 중반 태조대왕 대 이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말할 자료는 없다. 또한 그 가능성은 의심스럽지만, 태조대왕이 고구려의 건국 시조였다면 그때에는 그에 관한 신화가 형성되어야지 주몽 신화가 형성될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일제 시기 이래 일본의 연구자들에 의해 전설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실재가 부정된 고구려 초기 5왕의 존재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재위기에 주몽 신화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초기의 5왕은 동명성왕(주몽), 유리왕, 대무신왕, 민중왕, 모본왕이다.

이들을 검증하는 데 제3자 입장인 중국 사서의 기록이 크게 참고가 된다. 『한서(漢書)』 권 99 왕망전에는 고구려 후 추(騶)가 보인다. 『삼국사기』와 연대를 맞추어보면 그는 유리왕에 해당될 수 있다. ‘추’는 ‘말 먹이는 사람’이란 뜻인데 주몽 신화에서 주몽이 청소년기에 가졌던 직업이기도 하다. 한편 주몽(추모)의 뜻은 ‘활을 잘 쓰는 자’이다. 따라서 부친을 찾아 동부여에서 내려온 명사수 유리가 역시 추모나 주몽으로 불리고 중국 측에서는 그를 외자로 ‘추’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최소한 『삼국사기』가 전하는 유리왕과 『한서』 왕망전에 보이는 추는 부합될 가능성이 높다. 유리왕의 존재가 신빙할 만하다면, 유리왕의 기반이 되었을 부왕의 실재를 상정하는 것이 비약은 아닐 것이다. 대무신왕은 『후한서(後漢書)』와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후한 광무제 건무 8년(32)에 후한에 사신을 보내고 ‘고구려 왕’으로 다시 칭해진 바로 그이다. 다시 『후한서』 동이전에 의하면 광무제 건무 25년(49)에 고구려가 기왕의 우호적 관계를 깨고 후한의 우북평(右北平), 어양(漁陽), 태원(太原) 등지에 약탈을 감행한 일이 보인다. 대규모의 중국 약탈을 시도한 왕은 그 통솔력이 막강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자연재해로 고초를 겪던 모본왕이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대무신왕이 죽고 왕자가 너무 어려서 4년 간 재위했다는 민중왕의 존재를 굳이 부정할 이유가 없다면 고구려 초기 5왕은 역사적으로 존재한 왕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5왕의 실재를 부인할 수 없다면, 이들 왕 대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설화적 기사는 허황한 것이 아니라 설화로 진실을 주고받던 상고인들의 인식의 결정으로 볼 수도 있다. 후대

의 고구려 사관(史官)이 조작했다고 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상고의 사회상·역사상이 물 흐르듯 연결되는 초기 기사들의 상당 부분은 구전된 것들로서 사실성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신화는 주몽의 졸본 도착과 건국 사업 착수에서 이미 태동했을 것이며, 동부여에서 모친의 죽음과 신묘 설립으로 그녀와 관련된 내용이 풍부해졌을 듯하다. 아들 유리의 출현과 태자 책봉과 즉위는 거룩한 부자의 신성성이 드높여 말해져야 할 대목이었다. 현실적 근거가 미약한 유리왕은 오랜 인내와 장고 끝에 더 큰 가능성을 가진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국내성 인근 지역을 열심히 탐방하며 세력자들을 규합하고 지세를 살피던 유리왕에게 새 수도에 가까이 있었던 신비한 ‘국동대혈(國東大穴)’이 눈에 띄지 않았을 리 없다. 국내성 일대에 대한 유리왕의 기대와 비전 그리고 신을 경외하던 고대인의 심성에서 현지인들이 이미 섬겨왔을 ‘수도 동쪽 큰 굴’의 수신을 국가적 제천 제례에 수용하게 되었던 듯하다. 여기서 하늘의 태양 해모수와 압록강 하백의 딸 유화의 로맨스가 한껏 풍성하게 이야기되어 신비하면서도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신화로 발전해갔을 것이다.

유리왕의 아들 대무신왕은 재위 3년에 조부 동명왕(주몽)의 사당을 설치하여 조부의 신위를 모시게 되었다. 주몽이 확실히 조상신이자 시조신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신이 있어서 사당에 모시고 제사하고 있는데 그 신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을 이치는 없다. 유리왕 대에 풍성한 주몽 신화는 대무신왕 초에는 동명왕묘(사당)의 설치와 함께 공식적인 신화 체계를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

2) 주몽 신화에 보이는 건국사

황당하다는 선입관을 버리고 상고인의 인식 세계에 다가가는 마음으로 보면, 주몽 신화를 통해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건국사의 진실을 일부 맛볼 수 있다. 주몽 신화는 주몽이 천신과 자신의 손자로서 새 나라를 세운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신화 속에는 감추어진 사실의 그림자들이 더러 보이는데, 주몽은 아무래도 금와왕의 서출 왕자인 듯하다. 그 어머니는 금와왕의 별궁에서 살았다고 하며 그도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금와의 일곱 왕자들과 생활하였다. 장성해지자 왕자들이 명사수 주몽을 죽이려고 하였다. 홍길동처럼 능력이 뛰어난 서출, 그는 위험한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모친은 아들에게 궁궐을 떠나 멀리 가서 새 나라를 세울 것을 권했다. 출신으로 인해 주몽은 자연스럽게 정치를 알게 되었고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처지였으니 별 망설임 없이 건국 사업에 나서게 된 것이다.



●●● 그림 4 오녀산성에서 바라 본 훈장 강의 모습

졸본에 가까이 와서 세 현인을 만나 성씨를 내렸다고 하니 그들은 지역의 유력 족장들이었다. 당시에 성씨까지 내려줄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주몽의 휘하에 들어온 상황을 말한다. 뜻이 맞아 뭉쳤으니 뒷날 그들은 계루부의 중심 세력을 이루었을 것이다. 연타발의 딸 소서노와의 결혼과 처가살이는 정략혼과 고구려의 혼인 풍속이 교차하면서 정치적 뿌리를 내리게 해줬다.

그리고는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어 비류수 가에 오두막집을 짓고 거기 거하여 나라를 고구려라 하고”라는 대목이 나온다. 후대의 사관 등이 조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기원전 1세기의 정치·사회·경제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기와집 궁궐이 아닌 오두막 초가집이야말로 그 시절에 마땅히 있을 수 있는 궁궐의 원형인 것이다.

이웃에 있던 영웅, 선주(先主) 세력 송양국 왕이 그를 흔쾌히 맞을 리는 없었다. 활쏘기를 겨루고 모든 면면 노심초사하며 견제와 경쟁이 펼쳐졌다. 한 나라도 근근이 운영하는데 가까이 만만치 않은 영웅이 건재하니, 두 영웅 모두 잠 못 이룰 일이었다. 송양국에 홍수가 나고 성심껏 구호한 주몽의 사람됨에 송양왕은 마음을 열었다. 송양국의 항복을 말하며 ‘다물도 운

운’ 한 것은 뒷날의 운색이 스민 것이고, 뒤에 두 나라는 혼사를 맺어 송양왕은 유리의 장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웃과 화친하여 여유가 조금은 생겨 궁궐 비슷한 것이라도 지어야겠다고 하여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서 일어나 사람이 7일 동안이나 빛을 분별치 못하였는데 성곽과 궁실이 지어졌던” 것이다. 오녀산 그 높은 곳에 돌먼지 흙먼지가 날리니 하늘빛이 일시 가려진 듯했을 것이다. 산 위의 건물들이 구름 속에서 모양을 내보일 때 주몽과 백성들의 건국의 기쁨이 어땠을까?

그러나 기쁨만이 있을 수 없으니 어머니가 동부여에서 돌아가시고, 드디어 두고 온 처자까지 찾아오니 상봉의 짧은 기쁨 후에 큰 고통이 일게 되었다. 건국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졸본의 아내 소서노와 두 아들 비류와 온조, 돌보지 못한 아쉬움을 보상해주어야 할 먼 곳에서 온 옛 아내와 큰 아들. 아들들의 나이로 보아 태자를 세우지 않을 수도 없었는데, 성질 급한 비류는 불만을 말하고 다니니 아버지의 마음이 타지 않을 수 없었다. 나라는 무엇이며 왕의 영화는 무엇이라! 이복형들의 박대를 피하여 졸본으로 내려와 건국을 하였는데, 아들들이 다시 왕위를 두고 다투어야 한단 말인가? 자신이 죽으면 객지에 외톨이처럼 남겨질 유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장자라는 이유로 그를 태자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소서노와 두 아들을 간곡히 설득했을 것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고구려인들이 말하던 주몽 신화는 민감한 이 부분 가정사를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묘하게 은혜를 입은 소서노나 비류, 온조를 입에 담을 입장이 아니었다. 오히려 백제에서 힘주어 이야기했으니 『삼국사기』 백제 온조왕본기는 그 소상한 가족사의 흔적을 전해준다. 결국 주몽 신화는 “동명왕이 세상 왕위가 싫어지시니 하늘에서 황룡을 보내 그를 데려갔다.”고 말한다. 신성한 영웅의 죽음은 역시 거룩한 모습으로 말해졌던 것이다. 그리고 새 왕인 유리왕 이야기가 이어졌다.

이처럼 주몽 신화에 보이는 고구려 건국사는 다소 유치하고 초라한 고대 국가 태동의 역사를 포장한 것이다. 결혼을 통해 장인의 자리를 이어 받아 오두막집을 궁궐 삼아 살던 건국의 출발점의 서사인 것이다. 세계적 대기업이 시골 정미소에서 출발했다든지 하는 회사 창업사를 상기해봐도 좋을 것이다. 보잘것없다 할 수도 있는 건국의 시작 부분을 자랑스럽고 재미있게 이야기한 것이 주몽 신화이니 바로 건국 신화의 진면목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건국 신화로 본 부여·고구려·백제

고구려 건국사는 부여의 역사에서 비롯되었고 백제의 건국사와의도 직접 관련이 있다. 자연히 건국 신화나 신앙에서도 상호 관련성이 보인다.

1세기에 후한의 왕충이 지은 『논형(論衡)』에는 다음과 같은 부여의 동명 신화가 전한다.

북쪽 오랑캐에 있는 탁리국 왕의 시비(侍婢)가 임신을 하였다. 왕이 그녀를 죽이려 하니 그 시비가 대답하기를 “달걀만한 크기의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로 말미암아 제가 임신을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뒤에 아들을 낳으니, 돼지우리 안에 버렸으나 돼지가 입김을 불어주어 죽지 않았고, 다시 마구간 안으로 옮겨 말에게 깔려죽게 하려 했으나 말도 입김을 불어주어 죽지 않았다. 왕은 이 자가 천자(天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그 어미로 하여금 거두어 노비처럼 기르게 하였다. 동명(東明)이라 이름 짓고 소와 말을 기르게 하였다. 동명은 활을 잘 쏘았는데 왕은 나라를 빼앗길까 두려워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다. 동명은 남으로 달아나 엄체수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서 다리를 만들어주었다. 동명이 물을 건너니 물고기와 자라가 흩어져버렸다. 쫓아오던 병사들은 강을 건널 수 없었다. 이리하여 도읍을 정하고 부여의 왕이 되었다. 그리하여 북이(北夷)에 부여국이 있게 되었다.

이 신화의 기본 모티프와 골격의 상당 부분은 고구려 주몽 신화에서도 볼 수 있다. 더구나 고구려의 시조를 동명성왕이라고도 하니 두 신화의 관계가 밀접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고구려인들은 알고 있던 부여 동명 신화에 의지하여 같은 건국 사업을 시작한 고구려 주몽의 신화를 엮어갔다고 볼 만하다. 물론 고구려인들은 점점 새롭고 구체적인 화소를 넣어 주몽 신화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부여 동명의 모친이 이름 없는 시비인 데 비해 고구려 주몽의 모친은 하백의 딸 유화였으며, 아버지도 천제의 아들 해모수로 구체화되었다. 물론 잉태의 과정도 좀 더 사실적으로 그려졌고 황룡에 의한 승천 등을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여, 고구려, 백제 세 나라의 종족 및 계통적 관계를 아는 데에는 이들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숭배한 동명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 모두 부여족이 건국의 중심이 된 나라들이니 부여의 시조를 공동의 조상으로 숭배했다는 견해가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새 땅에서 새 나라를 세우는데 과연 수백 년 전 옛 나라의 시조를 다시 시조로 섬기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앞선다. 무엇보다도 고구려 동맹제에서 압록

강 변 큰 굴의 수신을 모셔와 제사 드리고 있는데 그 고구려 땅의 여신이 낳은 아들이 부여족 공동의 시조 동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활을 잘 쏘는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건국에 나선 새로운 졸본부여의 영웅을 옛 부여의 시조와 같이 동명이라고 부르고 숭배의 도를 더해 갔을 듯하다.

이렇게 볼 때, 온조가 부왕이 죽자 졸본부여를 이복형인 유리에게 양보하고 남으로 내려와 건국과 동시에 동명왕묘 즉 동명왕 사당을 세운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막 서거한 자신 및 동행한 주민들에게 큰 감화력이 있는, 이미 신화적 존재가 된 자신의 부왕을 추모하며 건국 사업의 정신적 지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그 후에도 백제에서는 고구려와의 적대 관계가 심화되고 남천(南遷)과 더불어 그 시조를 구이(仇台)로 바꾸어 모시기 전까지 온조의 부왕인 졸본부여의 동명을 섬겼던 것이다. 사비로 천도한 백제가 남부여로 국호를 칭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때에 오히려 동명보다는 구이를 시조로 모셨던 사실은 백제에서 섬겼던 동명이 부여족 공동의 조상이 아닌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부여의 동명 신화는 부여족 출신 영웅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영감을 주었을 것이다. 영감을 받아 새 역사를 이루게 된 고주몽을 둘러싸고 그 신화는 다시 생명력을 찾아 풍성해졌다. 새로운 주몽 신화의 분위기와 에너지 속에서 자란 온조는 부왕의 건국 정신의 진정한 계승자가 될 것을 자부하며 기왕의 조건을 양보하고 역시 새 나라 백제의 건국에 나섰던 것이다. 이처럼 온조는 자신이 성스런 주몽의 아들임을 자랑스럽게 여김으로써 백제에는 온조 건국 신화가 새로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던 듯하다.

▣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III 고구려의 국가 형성

박경철

1. 고구려 사회의 형성(기원전 3~기원전 2세기 초)

1) '고구려 사회'란

'고구려 사회(高句麗社會)'란 고구려가 '국가(state)'로서 발흥하기 이전 곧 기원전 3~기원전 1세기 하반기의 압록강(鴨綠江) 중류 유역과 그 지류인 훈장 강(渾江)·독로강(禿魯江) 유역 일대에서 적석총(積石塚)을 축조하던 맥계(貊系) 여러 세력 집단 그 자체 혹은 그들의 존재 양태를 지칭한다. 이러한 '고구려 사회'에 대한 접근은 국가 형성기를 전후한 당해 지역의 적석총 축조 집단의 실체와 그 존재 양태 해명에 초점을 맞추어 행해지고 있다. 우리 학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원(原)고구려 사회' 혹은 '구려 종족 사회' 역시 이와 같은 실체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기원전 1000년기(年紀) 후반 이후 중국 동북 지방에서는 철기 문화의 진전과 함께 요령(遼寧) 동부 지방·길림(吉林) 지방의 경우 토광묘(土壙墓)가 예맥계 제 집단의 기본 묘제로 광범위하게 확산·정착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3세기 이래 압록강 중류 유역 일대의 맥계 주민 일부는 적석총이라 일컬어지는 지역적으로 특화된 묘제를 자기 집단의 기본적 매장 관행으로 삼아 그것을 집중 축조하고 있었다.

고구려 사회의 공간적 범위는 이들 적석총의 분포 지역과 대체로 합치하고 있다. 즉 초기 적석총에 속하는 무기단(無基壇) 적석총과 기단 적석총들은 동쪽으로 압록강 상류 일대, 북쪽으로 룡강 산맥(龍崗山脈) 일대까지 분포하며, 서쪽 계선은 충만강(忠滿江), 남쪽 계선은 청천강(淸川江)·대동강(大同江) 중·상류 산간 지대로 설정된다.

따라서 토광묘를 기본 묘제로 하고 있는 중국 동북 지방 및 한반도 서북부 지방과 확연히 구별되는 이들 지역의 적석총의 집중적 축조라는 돌출 현상은 고구려 국가 형성 전사(前史)의 이해를 위한 노력에 있어 매우 주목되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은 바로 기원전 3세기 이후 압록강 중류 유역의 맥계 제 집단의 응집력이 현저하게 제고됨으로써 그들이 고구려 국가 형성 과정에 있어 하나의 주체로서 그 존재를 뚜렷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2) 고구려 사회 기저 집단의 존재 양태 : '마을' 혹은 '촌'

'고구려 사회' 형성의 배경으로 지나칠 수 없는 것은 기원전 4~3세기 예맥 문화권(濊貊文化圈) 전체 세력 구도의 변동 추세이다. 그리고 압록강 중류 지역 일대의 맥계 주민들 또한 이러한 예맥 문화권 내의 세력 재편 소용돌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것 같다.

당시 이 지역에서 빈발했던 것으로 보이는 기저 집단(基底集團) 간 사투(死鬪) 수준의 무장 충돌 흔적은 예컨대 청동기시대 말기 경으로 추정되는 공귀리 유적(公貴里遺跡) 옷자리 문화층의 집자리('집터'의 북한어)가 모두 불에 탄 데서 엿볼 수 있다.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고구려 시기의 질그릇이 함께 나오는 심귀리(深貴里) 유적 2호 집자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1호 집자리 위에 자리한 3호 집자리의 기둥이 불에 타서 넘어진 것도 이 점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원전 3세기 이래 압록강 중류 유역 일대의 주민들은 자기 기저 집단 생존 기반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집단별 무장 역량의 제고에 진력한 것 같다.

그런데 이 기저 집단의 실체와 관련해 몇 가지 견해가 개진된 바 있다. 혹자는 그것을 여러 세대(世帶)의 부부가족들로 이루어진 친족 집단들로 구성된 '마을'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견해는 제 나집단(諸那集團)의 하부 단위인 읍락(邑落) 곧 '곡(谷) 집단'을 구성하는 '촌(村)'의 존재에 주목하고 있다. 혹은 이들 기저 집단을 기원전 2세기 중엽경 '구려 종족 사회'의 나집단(那集團) 형성 이전의 강돌 무기단 적석총을 축조하던 집단의 존재와 연결시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여러 논의를 감안해볼 때 고구려 사회의 기저 집단은 개별 주거의 단혼(單婚) 가족을 특징으로 하는 세대가 모여 이루어진 주거 군(群)인 세대 복합체 및 그것이 구성 단위가 되는 세대 복합체 군이 거주하는 '소규모 취락(聚落)' 수준에 조용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구려 사회의 기저 집단은 다수의 혈연 집단이 지연(地緣)을 연결 고리로 하여 결합한 형태로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저 집단들은 다른 집단을 힘으로 아우르면서, 일정 공간 내에서 자기 집단의 우월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집단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다른 집단과 상호 제휴하여, 자기들과 경합하거나 적대적인 집단들을 힘으로써 제압, 자기 집단 생존 기반의 보전·확대를 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정 공간 내에서 주도권을 확립한 기저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들 간에 우열 차가 생기면서, 전자를 중심으로 고구려 사회의 기본적 사회 단위의 '국지적(局地的) 집단(local group)'을 형성코자 하는 움직임이 태동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정 지역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기저 집단의 지도자는 자기 집단 내 다른 구성원에 대한 우월성과 차별성을, 또 한편으로는 다른 집단에 대한 자기 집단의 그것을 과시코자 무기단 적석총을 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원전 3세기 이래 압록강 중류 유역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가던 적석총의 집중적 축조라는 돌출 현상은 이러한 기저 집단의 성장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문화적 표현과 다를아닌 것이다. 또 이런 사실에서 기원전 3~기원전 2세기 초 사이에 이 지역에서 여러 기저 집단 사이에 고구려 사회의 기본적 사회 단위가 되는 '나집단' 혹은 '곡집단'으로 표현되는 '국지적 집단'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3) 고구려 사회 '국지적 집단'의 성립 : '나집단' 혹은 '곡집단'¹⁾

한편 이러한 고구려 사회의 성장은 철기 문화의 수용과 확산에 힘입은 바 컸다. 즉 고구려

1) 최근 정치인류학계 일각에서는 인류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의 진전상을 family level society (group) → local group → regional group → state로 파악, regional group의 실체를 'simple and complex chiefdom'으로 적시하고 있다. Allen W. Johnson & Timothy Earle(1987),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From Foraging Group to Agrarian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15~22; Timothy Earle(1994), "Political Domination and Social Evolution," *Companion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Humanity · Culture and Social Life*, Edited by Tim Ingold, New York: Routledge, pp.940~961(朴京哲 譯(1999), 「政治的 支配와 社會進化」, 『史叢』 50, 高大史學會).

초기 국가 발생 지역 일대에 주조(鑄造) 제품의 농공구 중심에 일부 병기류가 포함된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 대의 전국계(戰國系) 철기 문화가 유입되어, 이 지역 초기 철기 문화를 형성하고, 그러한 철기들을 바탕으로 농경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을 강화하면서, 고대 사회로 진전되어 가고 있었다는 최근의 연구 성과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철기 문화의 진전에 따른 '생산력'의 제고와 정치 세력의 성장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 관계의 실재성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또 생산력 및 그에 따른 계층 분화의 진전이 각 집단 내부 및 그 집단 상호 간의 계서화(階序化)를 촉진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된다. 이 점은 각기 다른 형식을 가진 적석총들이 통시적(通時的)·공시적(共時的)으로 상당 기간 서로 공존하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도 방증될 수 있다.

그러나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의 기저 문화의 변동과 그 새로운 전개는 압록강 중류 유역 일대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당시 예맥 문화권 전체의 공시적 역사 경험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철기 문화의 진전 자체를 고구려 사회라는 특정 지역의 내재적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인식함은 당해 사회만이 갖고 있고, 그 사회의 형성과 발전을 내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요인을 간과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고구려 사회 형성 과정과 그에 내재한 현상적 특성을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구려 사회의 공간적 무대가 되는 압록강 중류 유역 일대는 농경에 부적할 정도로 자연환경이 열악하고 그로 인하여 농경지와 개간이 가능한 가경지(可耕地) 확보가 매우 힘든 지역이었다.

따라서 고구려 사회는 농경이 이 지역의 주요 생업 기반으로 정착된 청동기시대 이래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 그 인구압(人口壓)은 이미 이 지역에서 농업 생산이 가지는 부양 능력의 한계치를 초과하는 수준에 다다랐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집안(集安) 일대의 한정된 공간에 밀집·분포하고 있는 다기 다양한 형식을 가진 1만여 기 고분들 역시 고구려 사회 형성 이래 이 지역에 언제나 존재해온 인구압의 실상을 가늠케 해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각 기저 집단들이 농경지 및 가경지 확보·확대 여부를 자기 집단의 생존 기반을 보전·강화하는 열쇠로 인식하게 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농경지와 가경지의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갈등·조직화된 무장 충돌이 먼저 이 지역 여러 기저 집단 간에 빈번히 발생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구나 이렇게 빈발하는 무장 충돌은 승리한 집단이 패배하여 분산(奔散)한 적들의 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만들었음은 물론 그에 따른 높은 전투 치사율(戰事致死率: battle mortality)은 이 지역 토지에 대한 인구압을 감소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용돌이 가운데서 여러 기저 집단 간 무장 역량에 기반한 일정한 계서적 관계가 정립되어, 우월한 기저 집단을 중심으로 자기 생존 기반을 지키기 위하여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다른 여러 집단 간에 제휴 관계를 뛰어넘은 일련의 통합 노력도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기원전 2세기 초경 일정 공간 내에 공시적으로 존재하던 몇몇 기저 집단들이 그중 가장 빼어난 무장 역량을 갖춘 하나의 기저 집단을 중심으로 일정한 계서 관계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회 단위로서 '나집단' 혹은 '곡집단'이라 지칭되는 '국지적 집단'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한된 공간적 범위, 그것도 매우 한정된 농경 가능한 공간에 대한 인구압은 고구려 사회 형성 과정을 보다 폭력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 하나의 내재적 규정성을 가지고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 지역의 여러 기저 집단이 국지적 집단으로 결집·성장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폭력적·억압적 분위기는 고구려 사회의 보편적 정서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의 인성이 “흉급(凶急)하고 침략을 좋아 한다.”는 중국인들의 평가는 이러한 고구려 사회 형성 과정과 관계가 많다. 또한 당시 압록강 중류 유역 일대의 명도전(明刀錢: 중국 전국시대에 사용된 화폐)의 퇴장(退藏) 관행은 당시 이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던 주민들이 가진 심성구조(心性構造: mentality)의 표출이라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원전 2세기경 고구려 사회에서 형성된 여러 국지적 집단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물리적 폭력에 바탕을 두고 또 조직화된 무장 충돌을 통해서 성장한 집단이었다는 점에 있다. 곧 각 집단이 조성·축적한 무장 역량 및 조직화된 폭력 기제(機制)의 수준은 이 집단이 갖고 있는 어떠한 측면의 역량보다도 질·양 면에서 뛰어났다. 또 이 점은 당시 고구려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던 '군사화(militarization) 경향'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여기서 말하는 '군사화 경향'이란 당해 지역 주민들의 삶이 군사적 관점에 의하여 통제되는 사회 성향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 초 사이 고구려 사회 형성 과정은 맥계 주민들의 생태적 적응 과정에서 비롯된 과도한 군사화 경향을 현상적 특성으로 하는 여러 기저 집단의 물리적 폭력에 바탕을 둔 무기단 적석총을 조영하는 사회 단위인 제 국지적 집단의 형성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고구려 사회의 발전(기원전 2세기 초~기원전 1세기)

1) 고구려 사회 '지역 집단'의 성립: '나' 혹은 '국'

고구려 사회의 정치적 성장을 자극·촉진한 것은 이 지역의 내재적 발전과 더불어 진(秦: 기원전 221년)과 한(漢)의 중원 통일(기원전 202년) 그리고 동호(東胡)를 공파한 흉노(匈奴)의 강성(기원전 209~기원전 174년)과 이에 맞물린 위만 조선(衛滿朝鮮) 성립(기원전 194년)과 발진 및 부여(扶餘)의 국가 형성(기원전 3~기원전 2세기 말)과 한의 창해군(滄海郡) 설치 책동(기원전 128~기원전 126년) 등 동북아시아 방면의 정세 변동이었다.

기원전 2세기 초 이전까지 제 국지적 집단을 주체로 고조된 압록강 중류 유역 일대의 과도한 군사화 경향은 이 방면의 정치적 통합 노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기원전 2세기 초에서 말 사이 고구려 사회는 위만 조선의 성립과 팽창·부여의 입국과 성장 및 한(漢) 세력의 침투라는 외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고구려 사회는 일정 지역 내의 무장 역량이 우월한 유력한 국지적 집단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갔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그간 이 지역 전체의 군사화 경향에 따라 조성·축적되어 있던 국지적 집단별 무장 역량이 고구려 사회의 정치적 통합을 담보하는 구심력(求心力)으로 작용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당시 위만 조선·부여·한 세력의 존재는 고구려 사회의 성장·통합에 대한 자극 제임과 동시에 멩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기원전 2세기 초경 싹터서 기원전 2세기 말경 본격화한 고구려 사회의 정치적 통합 노력은 이 방면으로 세력 침투를 도모하는 외부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힘의 결집 과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또 그것은 기원전 2세기 초 이래 고구려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사회 단위로서의 나집단·곡집단 같은 제 국지적 집단이 군장 사회(君長社會) 수준의 '나(那)'나 '국(國)' 같은 '지역 집단(地域集團)'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군장 사회(chiefdom)'란 수장(首長)을 중심으로 한 특정 혈연 집단에 의하여 지배되는 지연(地緣)에 바탕한 '지역 집단(regional group)'을 일컫는 용어이다. 고구려 사회의 '나' 혹은 '국'은 물론 흔히 일컬어지는 '성읍 국가(城邑國家)'·'소국(小國)'·'초기 국가'도 그 실체는 군장 사회인 것이다.

고구려 사회는 나(那)나 국(國) 같은 지역 집단이 성립하는 기원전 2세기 말경을 전기(轉機)로 하여 종래의 강돌 무기단 적석총에 갈음하여 절석 기단 적석총(切石基壇積石塚)을 축조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강돌 무기단 적석총에서 절석 기단 적석총으로의 적석총 조영 양식 변화는 이 집단 내에서 거석(巨石)의 운반·가공·구축을 담보하는 일정한 노동력 동원 기제가 이전보다 한층 실효적으로 가동하게 되었음을 엿보게 해준다. 아울러 이 사실은 일정 지역에서 특정 혈연 집단으로 보다 힘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된 지역 집단인 군장 사회의 성립이라는 역사적 현실이 묘제라는 문화 규범으로 표출된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집안 일대에 존재하는 고분군(古墳群)의 실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사회 형성 과정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사항은 석분류(石墳類) 가운데 적석묘(무기단 적석총)에서 방단 적석묘(方壇積石墓:기단 적석총)로의 이행 양상이다.

그런데 집안 현성(縣城) 일대·통구(洞溝) 일대의 1만 1,330기의 고분 가운데는 무기단 적석총과 기단 적석총이 4,078기나 집중 분포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한편 이 지역 적석총의 경우, 무기단 적석총에서 기단 적석총으로 이행함에 있어 만포정 묘구(萬寶汀墓區)와 같은 예외(205기→449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2,886기에서 1,197기로 거의 60% 감소했다는 사실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는 바로 이 지역에서 무기단 적석총에서 기단 적석총으로의 이행은 단순히 적석총의 축조 양식상의 변화라기보다는 그것을 축조한 집단의 정치적 존재 양식에 있어 질적 고양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이러한 적석총 형태 및 조영 양식 변화에 따른 적석총의 양적 감소가 거의 60%에 달함은 기단 적석총을 축조하던 단계에 처한 사회 내 지배 집단의 범위가 그 이전에 비하여 60% 가까이 축소되었고, 또 그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제 역량이 더욱 소수의 지배 집단에 의하여 과점(寡占)됨을 뜻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기단 적석총을 축조하는 단계의 지배 집단은 그것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기제를 이전보다 한층 실효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제반 권능을 획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이러한 묘제의 변화 양상은 적석총 축조 집단 내 지배 집단 범위의 축소와 그들로의 힘의 집중도의 제고를 담보하는 당해 사회에 있어서의 정치적 존재 양식의 질적 고양에 이루어졌음을 엿보게 해준다. 그러므로 필자는 무기단 적석총에서 기단 적석총으로 묘제라는 문화 규범이 바뀐 사실을 고구려 사회에서 지역 집단의 성립이라는 정치적 존재 양식의 전향적 변화와 연결시켜 이해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사실은 고구려 사회를 구성하였던 제 지역 집단이 빈발하는 내적 갈등과 가중되는 외압을 극복하고 정치적 통합 노력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주는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압록강 중류 유역 일대의 제 지역 집단의 성립 자체는 고구려 사회 형성 과정과 궤를 같이하며 심화되어온 이 지역·사회의 전반적 군사화 경향의 한 단계를 매듭

짓는 결정점이었다. 이러한 고구려 사회의 전반적 군사화 경향은 제 지역 집단 구조와 성격 뿐 아니라, 국가 형성기 고구려의 그것들마저 내재적으로 규정짓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나와 국 같은 지역 집단은 늦어도 기원전 2세기 말까지 고구려 사회에 다수 성립·발전하고 있었다. 기원전 2세기 말을 전후하여 압록강 중류 유역 일대의 새로운 상황 전개는 중국인들의 관점에서도 그곳의 주민들 및 그들이 집중적으로 구축한 적석총 분포 지역을 ‘구려(句麗)’라 특징하면서 ‘조선(朝鮮)’과 여타 ‘예맥(濊貊)’ 집단과 분별·인식할 필요성을 느낄 만큼 주목에 값하는 사실이었다.

2) 고구려 사회 ‘지역 집단’의 존재 양태

오늘날 관련 학계는 압록강 중류 유역 일대에 산재한 적석총이 집중적으로 축조된 고분군을 대략 9개 정도의 지역으로 분별·인식하고 있다. 또 이 9개의 고분군들은 모두 압록강 상·중류 유역과 그 지류인 독로강 유역 그리고 훈장 강 유역 등 주로 하천 수계에 연하여 조영되어 있다. 또 그것의 분포상은 대체로 훗날 이 지역에 구축된 여러 성(城)의 그것과 겹치고 있다. 따라서 당시 고구려 사회 내의 여러 지역 집단은 압록강 중류 유역 일대의 발달된 하천 수계를 따라 성을 구축하기에 적당한 주요 전략 거점을 장악한 적석총 축조 집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도군(玄菟郡)은 4만 5,000호(戶)와 22만 1,845구(口)의 주민을 관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한사군(漢四郡)의 한 개 속현(屬縣)의 인구 수가 군장 사회의 그것인 1만 2,000여 명과 비슷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렇다면 현도군 관할 지역에는 22만 1,845명÷1만 2,000명=약 18, 그러므로 대략 18개 정도의 군장사회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삼국지(三國志)』상에는 고구려 주민이 3만 호 곧 15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당시 현도군 관할 지역 및 주민이 고구려 사회의 그것들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당시 고구려 사회는 『삼국지』상 고구려의 주민이 15만 명이었던 점에서 15만 명÷1만2,000명=12, 곧 최소한 12개 정도의 군장 사회를 아우르고 국가로서 형성·발전하고 있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원전 2세기 말을 전후한 고구려 사회에는 대략 최소한 12개 이상에서 최대한 18개 이하의 군장 사회 곧 지역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만일 이들 지역 집단이 압록강 상류 유역의 장백(長白) 및 자성(慈城) 지역·압록강 중류 유역의 만포(滿浦) 지역·압록강 중류 유역의 위원(渭原) 지역·압록강 중류 유역의 초산(楚山) 지

역·독로강 유역 등 다섯 지역에 각기 하나씩 성립하였다고 가정할 때, 나머지 7개에서 13개의 지역 집단은 주로 넓게 보면 압록강 중류 유역의 집안 지역과 훈장 강 유역에서 집중적으로 형성·발전된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집안 지역과 훈장 강 유역 일대에 집중 축조된 적석총들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그 질적·양적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의 국가 형성을 주도하였던 세력들은 주로 이 두 지역에 위치한 지역 집단들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중국인들은 고구려 사회를 주도한 두 세력으로서 '구려'라 지칭되던 압록강 유역의 맥족 집단인 '대수맥(大水貊)'과 '구려 별종(句麗別種)'으로 인식되던 훈장 강 유역 '소수맥(小水貊)'을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훈장 강 유역에 조성된 적석총들이 집안 지역에 비해 그 질적·양적 측면에 있어 현격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대수맥을 '구려'로, '소수맥'을 '구려 별종'으로 파악하는 당시 중국인들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편 집안 일대에 존재하는 고분군(古墳群)의 실태를 보다 세분하여 검토하면, 무기단 적석총에서 기단 적석총으로 이행 과정에서 통거우허 강(洞溝河)을 기점으로 서쪽의 마선구 묘구(馬線溝墓區)가 419기에서 373기로, 칠성산(七星山) 묘구가 745기에서 92기로 줄어 총 1,369기에서 914기로 33% 감소했다(단 만보정 묘구는 205기에서 449기로 오히려 늘어남). 반면 동쪽의 우산(馬山) 묘구(1,067 → 238)·산성하(山城下) 묘구(450 → 52)·하해방(下解放) 묘구(0 → 0)는 총 1,517기에서 290기로 거의 80% 감소했다. 이 점은 우산 묘구를 중심으로 하는 통거우허 강 동쪽에서 제 지역 집단 성립 과정에 따른 여러 집단의 세력 재편 과정이 그만큼 광범위하고 가팔랐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제 지역 집단 성립을 전후한 갈등과 세력 재편의 폭은 대수맥의 경우, 우산 묘구를 중심으로 하는 통거우허 강 동쪽의 기단 적석총을 축조한 집단들이 주체가 되었던 그것들에서 더 컸으리라 추단된다.

3) 고구려 사회와 현도군

기원전 2세기 말 전한(前漢)은 위만 조선을 공멸(기원전 108년)하고 그 땅에 군현들을 설치, 동북아시아 방면으로 적극적 세력 팽창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 한은 압록강 중류 유역 일대의 '구려만이(句麗蠻夷)'를 제어하고자 다른 군현들을 설치한 1년 뒤인 기원전 107년 현도군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곧 전한은 압록강 중류 유역의 지정학적·전략적 우위성을 자기 측에 확보하고, 고구려 사회의 성장과 정치적 통합 노력을 제어하고자 하는 정책적 구도하에

현도군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한은 당시 고구려 사회의 지역별 세력 판도를 정확히 읽고, 그에 맞춘 분할 지배(divide and rule)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세력 침투·확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 지역 정치적 통합 노력을 억제코자 하였다. 따라서 한 측은 그 수현(首縣)인 고구려현(집안)으로 하여금 고구려 사회의 중심지인 집안 지역 일대의 대수맥을, 통화(通化)의 상은태현(上殷台縣)은 훈장 강 유역의 소수맥을, 서개마현(西蓋馬縣)은 압록강 중류 유역 좌반(左畔)을 각각 관할케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시 현도군이 원래 20여 개의 속현을 설치해야만 제대로 지배권 행사가 가능한 지역에 3개의 속현만을 설치·운영한 점은 그만큼 당시 고구려 사회에서의 한 측의 지배 장치가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가동되지 못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기원전 2세기 말 현도군 건치 이후 그 수현인 고구려현의 현령(縣令)은 고구려 사회의 각급 수장들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 현이 관장하는 '조공 무역(朝貢貿易)'에 참여케 함으로써, 교역을 매개로 고구려 사회를 구성하는 제 집단의 분할 지배를 꾀하였다. 즉 현도군은 고구려 사회의 각급 집단 수장들이 한 군현에 귀복하는 대가로 이들이 자기 집단 내에서 또는 타 집단에 대한 한 제국의 권위를 빌미로 '위의(威儀)'를 과시하는 '고·취·조복의 책(鼓·吹·朝服衣幘: 북·나팔·관원이 조정에 나아갈 때 입던 예복)과 같은 권위재는 물론 악공(樂工) 같은 '기인(技人)'까지 공급하였다. 한 측은 이를 통하여 이 지역에 대한 한 문화의 침투·확산을 도모하였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독점적인 권위의 최상위 창출자로서 위상을 점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현도군은 이런 조건 하에서 교역 장소·시기·품목·교환율의 결정권을 자기 측에 유보한 채 개별 집단별로 차등적 교역 조건을 강요함으로써 고구려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 세력의 고구려 사회 침투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제 지역 집단의 군장(君長)급 수장들(chieftains)이었다. 이들은 현도군 설치 이후 몇 가지 면에서 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한반도 서북부와 요령 지방에 설치된 현도군을 비롯한 한 군현들은 고구려 사회가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주변 지역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효율적으로 차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점증하는 인구와 한정된 가경지에 부담을 갖고 있던 고구려 사회는 이 지역으로 진출해오는 한 세력을 자기 발전의 명예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현도군은 임의로 설정한 교역 조건 하에서 기존 제 지역 집단의 계서적 구조·질서를 의도적으로 간과하면서 지역 집단급 세력뿐 아니라 그 하부 구성 단위인 국지적 집단 심지어

는 많은 기저 집단의 수장이나 실력자들과 개별적으로 또 차별적으로 교역을 행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그 결과 제 지역 집단의 군장들은 이제껏 누리왔던 교역상의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교역을 매개로 한 현도군의 분할 지배 정책은 무엇보다도 나름대로 유지되어왔던 제 지역 집단을 기축으로 유지·운영되던 고구려 사회의 계서적 구조·질서의 동요를 유발하는 교란 요인화되어, 각급 집단 간의 갈등·분열을 증폭·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제 지역 집단은 지금껏 조성·축적한 무장 역량을 결집시켜, 한 측이 설정·강요한 봉쇄선(封鎖線)을 돌파하고, 이 지역의 기존 질서·구조를 해체시키려는 기도에 대하여 실효적인 군사적 타격을 가하여, 기원전 75년 집안 지역에 있던 현도군의 수현인 고구려현을 신빈현(新賓縣) 쪽으로 축출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책구루(責溝婁)’의 존재는 고구려 사회와 한 세력 간의 교섭에 있어 한 측의 일방적 주도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던 교역이 이러한 상황 진전에 힘입어 그 장소·시기·품목 등에 있어 쌍방 당사자 사이의 일정한 합의가 전제되는 그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고구려 사회를 구성하는 제 지역 집단의 군장들은 제고된 그들의 교섭력에 힘입어 현도군 측을 상대로 하여 책구루라 일컬어지는 일정 장소에서, ‘세시(歲時)’ 곧 연초인 정월에, ‘조복의책’ 같은 일정한 품목을 수수하는 교역에 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학계에서는 책구루의 축조 시기를 필자와 같이 기원전 75년 제1차 현도군 축출 직후의 상황으로 파악하지 않고, 이를 훨씬 후대의 사실로 파악하여 이 문제를 달리 해석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즉 각 정치 세력의 독자적 대외 교섭권이 ‘책구루’라는 단일 창구로 일원화됨을 연맹체를 대표하는 고구려 왕권의 성장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이를 기원후 1세기 전반 계루 집단(桂婁集團)에 의한 ‘국가 권력의 성립’을 시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그것이다.

어쨌든 제1차 현도군 축출과 책구루의 존재는 고구려 사회 내부에 있어 대한 교역과 관련된 각급 구성 집단들 사이의 제반 합의 도출과 그 이행을 가능케 할 수준의 정치적 통합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스스로를 ‘고구려’라 자임하던 이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던 기왕의 문화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또 외압 극복을 위한 대한 군사 행동에서 싹튼 공동 운명체 의식이라는 한층 고양된 응집력 가운데에서 점차 진전되어가고 있었다.

기원전 2세기 말 한의 위만 조선 공멸(기원전 108년) 및 한 군현, 특히 현도군 설치(기원전

107년)로 표상되는 한 세력의 동북아시아 방면으로의 적극적 팽창세는 이미 나와 국 같은 지역 집단 수준의 정치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던 고구려 사회 제 집단의 정치적 갈등을 증폭·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 현안인 외압을 극복하고 고구려 사회 내에 빈발하는 제 갈등과 분열의 효율적 수렴과 실효적 통합을 담보·추진하기 위한 보다 고양된 정치적 존재 양식의 창출을 지향하는 움직임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

3. 고구려 국가 형성

1) 고구려 국가 형성에 관한 제 논의

고구려의 국가 형성과 관련된 우리 학계의 논의는 대체로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 초기 기사에 대한 접근 방식에 따라 대체로 두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하나는 『삼국사기』 초기 기사에 대한 소극적 수용 자세와 이에 바탕을 둔 태조왕(太祖王) 대 고대국가(古代國家) 성립론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새기면서, 고구려의 국가 형성기를 『삼국사기』 상의 ‘동명성왕(東明聖王)·유리명왕(瑠璃明王)·대무신왕(大武神王)’ 대로 파악하려는 입장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태조왕 대의 고대 국가 성립론은 또한 두 가지 사실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그 하나는 태조왕 대의 왕계 교체론(王系交替論)이고, 또 하나는 태조왕 대의 나부 체제(那部體制) 성립론이다.

나부 체제 성립론은 태조왕 대에 이르러 고구려 국가의 기본적 지배 틀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입장은 ‘부족국가론(部族國家論)→부체제론(部體制論)’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그 구체성과 적실성을 심화시켜 온 바, 오늘날 우리 학계의 유력한 견해로서 주목받고 있다. 본래 부족국가론은 ‘부족국가→부족연맹→고대국가’라는 관점에 서서, 고구려가 기원전 2세기 이래 ‘부족국가’를 그 원초적 형태로 하는 ‘부족연맹’ 단계를 거쳐, 기원후 2세기경 ‘고대국가’로 성립·발전하였다고 파악한 바 있다.

그리고 부체제론은 이러한 부족국가론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고대국가 성립기 단위 정치 조직체의 특성으로서 종래의 혈연성에 갈음하는 지연성에 주목, 고대국가로서의 ‘연맹

체' 확립에 대신하는 '부체제'라는 인식 틀을 제시하면서, 기원후 1세기 후반 태조왕 대에 이르러 강력한 집권력을 갖춘 고대국가 고구려가 확립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한편 나부체제론은 부체제론을 고구려사에 원용한 경우로서, 논자에 따라 그 구체적 인식에 있어서는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늦어도 기원전 40여 년경 대한 군현 투쟁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주몽 집단(朱蒙集團)이 이 지역 연맹체의 영도 세력으로 등장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입장은 대무신왕 15년 이후 태조왕 대 이전 어느 시기엔가에 주몽 집단의 계루부 왕권(桂婁部王權)을 중심으로 오나부 체제(五那部體制)를 그 기본 열개로 하는 고구려 연맹체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나부' 자체를 다수 '곡(읍락)'을 구성 단위로 한 '나국(那國)'이 다수 결속된 '소연맹체'라 보는 바, '고구려 연맹왕국'이란 이러한 다섯 개의 소연맹체의 총화라 인식하며, 초기에는 소노부(消奴部) 곧 비류부(沸流部)가 연맹 왕권을 차지하였다가, 이후 그 지위를 넘겨받은 계루부가 연맹 왕권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며 태조왕 대에는 오나부 체제를 확립시켰던 것이라 이해하고 있다(곡집단→나국→나부=나국의 소연맹체→오나부 체제(국가)).

한편 기원후 1세기 초·중엽경 구려 종족 사회에 '나부 체제'라는 형태의 계루부 중심의 '국가 권력'이 성립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논의는 기원전 3세기 말경 '원고구려 사회'·'구려 종족 사회'가 형성되고, 기원전 2세기 중엽 이들 가운데서 '나'가 성장하다가, 기원전 1세기 전반 현도군 축출 과정에서 '나국' 및 이들이 뭉친 '나국연맹'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것들이 지역별로 보다 큰 단위 정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본다. 또 이 입장은 기원후 1세기 초~3세기 후반 계루 집단이 이들 각 지역별 단위 정치체들을 '나부'라는 하부 단위 체제로 편제함으로써 '나부 체제'·'나부 통치 체제'가 완성·기동되는 과정을 고구려 초기사의 전개라 이해한다. 또 이 견해는 이 나부 체제가 기원후 3세기 이래 해체 과정을 밟으면서, 기원후 4세기 이후 '집권적(集權的) 귀족국가'가 확립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나집단→나국→나부=나국연맹→오나부 체제(국가)→집권적 귀족국가).

이러한 나부 체제론은 고구려 국가 형성을 압록강 중류 유역 일대 전체에 통치력을 관철시키는 구심체의 성립이라 파악하면서 그 시기를 기원전 1세기 주몽 집단의 출현에서 기원후 1세기 태조왕 때까지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와 달리 고구려 국가 형성기를 『삼국사기』상의 '동명성왕·유리명왕·대무신왕(기원전 1세기 후반~기원후 1세기 전반)' 대로 파악하려는 입장이 있다. 이 견해는 기원후 5세기 광개토태왕릉 비문상에 드러난 '추모왕(鄒牟王)→유류왕(儒留王)→대해주류왕(大解朱留王)'이라

는 당시 고구려인들의 자기 국가 형성 인식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초기 기사 그것과 부합됨을 방증으로 제시하고 있다. 필자 역시 고구려 국가 형성 시기를 앞 3대 왕에 한정하여 보려는 입장을 좇고 있다.

어떤 집단의 정치적 존재 양식은 고도의 복합적 정치적 조직체(polity)인 '국가' 수준까지 고양됨을 계기로 하여 그 삶이 질적·양적 측면에 있어 종래와는 차원을 달리하게 된다. 즉 국가란 일정한 공간적 범위 안에 존재하는 여러 군장 사회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그것이 주위의 다른 것들을 힘으로 아우르면서, 이들을 정복·통합하는 과정에서 우뚝 서게 된 고도의 복합적 정치적 조직체와 다름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제 군장 사회의 누층적 통합·정복 과정에서 방출된 역동성이 국가 형성의 에너지가 된다.

따라서 설사 태조왕 대에 나부 체제라는 지배 체제가 가동되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기왕에 존재해온 고구려 국가의 존재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고구려사상(像)의 정립은 일단 국가 형성의 실상을 밝히고, 이 국가 형성의 역동성 속에서 분출되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생성·발전해온 국가 지배 구조의 문제를 논의함이 소망스러운 것이다.

다만 나부 체제론이나 필자의 입장이나 국가 형성을 향한 과정이 '나집단 / 곡집단 = 국지적 집단(local group) → 나 / 곡 / 나국 = 지역 집단(regional group) 혹은 군장 사회(chiefdom) → 국가(state)'라는 정치인류학적 인식 틀과 그다지 틀리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양자의 인식 시점(視點)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형성 과정의 마무리 시점(時點)이 모두 기원후 1세기로 비정됨은 새삼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당시 고구려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는 계속되는 한의 세력 침투 기도와 부여의 이 방면으로의 진출 시도 그리고 말갈(靺鞨)의 발호와 선비(鮮卑)의 공세라는 가중되는 외압 및 빈발하는 상쟁(相爭)에서 비롯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국가 형성기를 전후한 압록강 중류 유역의 주민들은 보다 고양된 수준의 정치적 존재 양식의 창출, 곧 국가 형성을 소망하고 있었다.

영웅 시대(英雄時代: Heroic Zeit)란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의 이행기에 젊은 영웅들의 활약으로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를 지칭한다. 필자가 '국가 형성기'로 규정한 주몽 출현 이후 기원전 1세기 후반~기원후 1세기 전반의 시간대 또한 영웅 시대로 잡을 수 있다. 본시 영웅이란 한 시대의 욕구나 흐름을 자기 인생의 한 순간에 가장 고밀도로 응축해서 전면적으로 담아낸 인간을 뜻함과 다름 아니다. 영웅 시대란 이러한 인간의 비범한 재능(charisma)과 젊음의 역동성이 뒤엎쳐 인류가 경험해온 것들 중 가장 고도로 복합적인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대안

(對案)이 없는 정치적 조직체(polity) 곧 국가의 탄생을 예비하던 그 시기를 말함이다.

5세기 당시 고구려인들은 광개토태왕릉 비문에서 ‘하느님의 아들(天帝之子)’이며 ‘하백의 따님(河伯女郎)’을 부모로 하는 추모(鄒牟: 주몽)가 “나라를 세우고(創基)”, “유명(遺命)을 이어받은 세자 유류왕이 도로써 나라를 잘 다스리고(以道興治)”, “대주류왕은 왕업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다(紹承基業).”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세 왕이 비문에서 영웅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각됨은 이들이 고구려 국가 형성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새삼 되새겨보게 하는 대목이다.

2) 고구려의 국가 형성

고구려의 국가 형성 과정이란 전쟁과 제사(祭祀)를 매개 기제로 하여 물리적 힘에 바탕한 권력 장치의 제도화와 권력의 인격화가 정착되는 과정이다. 이 경우 전쟁은 권력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며, 제사는 그것에 이념적 바탕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초기 기사는 이러한 국가 형성 과정을 잘 적시해주고 있다.

국가 형성기 고구려는 증가하는 인구나 한정된 가경지로 인해 걸머지게 된 과부하에 대한 해소책을 모색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 서북 지방과 요령 지역에 설치한 한군현들은 고구려가 물적·인적 자원이 풍부한 서부·북부·서남부 지역들로 접근하는 출로를 봉쇄하는 장애물로 기능하였다. 고구려는 이렇게 ‘우리에 쫓겨 버린 상황(a circumscribed environment)’을 군사력 행사를 통하여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즉 동명왕 대의 기원전 37년 말갈 외복(畏伏), 기원전 37~36년 비류국 제압, 기원전 34년 행인국(荇人國) 정벌, 기원전 28년 북옥저(北沃沮) 공멸이 그것이다. 유리왕 대에는 기원전 9년 선비 공벌, 기원전 6년 부여의 고구려 내공 기도 좌절, 기원후 12년 고구려와 신(新)의 군사 충돌, 기원후 13년 고구려와 부여의 학반령 회전(鶴盤嶺會戰), 기원후 14년 양맥(梁貊) 공멸 및 한(漢)의 고구려현 강습이 있었다. 대무신왕 대에도 기원후 21~22년 부여 공멸 전쟁, 기원후 26년 개마국(蓋馬國) 정벌 및 구다국(句荼國) 내항, 기원후 28년 한 요동 태수(太守) 내공, 기원후 32·37·44년 ‘낙랑(樂浪) 방면 진출 기도 등이 그 예가 된다.

이 사실은 고구려가 국가 형성기에 이미 전 방위적(全方位的) 국세 팽창이라는 전략적 구도 하에 수많은 군사 행동을 실시하였음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 행동의 실효적 수행이 국가 형성기 고구려에 있어 역동성 창출의 본원적 추동력으로 작용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국가 형성기 고구려는 이미 자기 국가의 생존·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지속적

인 군사력 조성 정책·노골적인 군사적 팽창 정책·피정복 주민의 집단 예속민화 정책·집단적 사민(徙民) 정책 등을 선택, 자기 발전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점에서 ‘전제적 군사 국가(專制的軍事國家: despotic military state)’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게 되었다.

에당초 그의 처자(妻子)로부터 “보통사람이 아니다(非常人).”라고 여겨졌던 고구려 시조(始祖) 주몽은 벌써 그 손자인 무휼(無恤: 대무신왕)에게는 ‘신령의 자손(神靈之孫)’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 ‘하느님의 아들,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라는 주몽의 신격화가 추진된다. 기원후 20년 대무신왕은 동명묘(東明廟)를 건립함으로써 동맹이라는 제천행사와 동명묘를 지배 이념적 매개 기제로 하는 국가적 제사 의례(儀禮)를 제도화함을 통하여 선왕 대로부터 추진해온 권력의 인격화(人格化)를 이념적으로 정착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즉 고구려는 국가 주권(主權)의 연원을 하늘(天)에 직결시켜 자기 국가 정통성(正統性)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다. 즉 고구려는 현실 정치 과정 속에서 이러한 지배 이념을 매개로 자기 국가의 존재 자체 및 그 지배 구조의 정당성(正當性)을 제고시켜 나갔던 것이다. 물론 당시 고구려에서 국가는 주권적 통치권을 쥐고 있는 국왕과 동일시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 형성기 유리왕과 대무신왕은 국가 권력 장치 곧 지배 구조의 제도화를 지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그것을 운용하는 힘 곧 국가 권력의 체현자(體現者)로서 관념하는 권력의 인격화를 정당화하는 지배 이념을 창출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형성기 고구려의 제천 의례와 동명왕묘 건립이라는 국가 제사 체계의 정립은 이러한 지배 이념의 물적 가동 장치였던 것이다.

국가 형성기 이후 기원후 3세기경까지 고구려 지배 체제의 내포를 이루는 중앙 통치 구조·지방 통치 체제·군사 제도 등의 운영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나부(五那部)’의 존재이다. 따라서 이 계루부(桂婁部)와 ‘4나부’의 실체와 그 성격 규명을 둘러싸고 종래 학계는 적지 않은 논의를 진행해온 바 있다.

오늘날 『삼국사기』 상의 ‘4나부’와 『삼국지(三國志)』의 ‘오부(五部)’를 계기적 존재로 보는 관점이 매우 설득력 있는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삼국사기』 상의 ‘나부’와 『삼국지』 상의 ‘부’를 동일한 실체로 파악할 수도 있다. 즉 후자에서 ‘연노부(涓奴部)’의 경우, ‘노(奴)=나(那)’이며, ‘부’ 곧 부족(部族)이란 한족(漢族)들이 북방 이종족의 조직 단위를 관용적으로 표현할 때 흔히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4나’와 ‘오부’는 공식적인 동일 집단에 대한 각 역사 서술 집단의 각기 다른 시점(視點)에서의 자기 표현과 다르지 않다. 이 경우 각기 그 서술 대상으로 포착된 역사적 제 사상(諸事象)의 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당시 실재했던 정치 조직 단위의 역사적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삼국사기』에서 ‘계루부’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또 각 ‘나’와 관련된 구체적인 역사적 제 사실이 파노라마 식으로 적시되고 있음은 당해 고구려본기 초기 기사의 서술 시점이 국가 형성기 이래 건국을 주도한 계루부 중심적이었던 사료를 저본(底本)으로 하여 후대에 재편집된 것임을 방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점이 바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초기 기사가 가지는 사료적 가치성을 돋보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반면 『삼국지』는 중국인의 견문과 한족의 ‘부족’ 인식 같은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서술된 점을 유념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고구려 ‘오부’가 한인들의 유목 제 족(遊牧諸族)의 세력 편제 단위인 부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유목 제 족들의 부족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곧 유목사회의 부족이 혈연적 집단인지, 아니면 지연성에 기반한 의제적(擬制的) 혈연 집단인지 혹은 또 다른 보다 합목적적인 인위적 편제인지를 파악함이 당시 중국인들이 인식했던 고구려의 오부의 실체에 보다 정확히 접근하기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유목사회 연구 성과는 그들의 ‘부족’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의사(擬似) 혈연적인 유대를 전제로 결합된 지역 단위의 정치적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당시 중국인들이 인식했던 고구려 오부의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이런 고찰은 최소한 고구려의 각 ‘나부’ 혹은 ‘부’가 혈연적 집단이라기 보다는 지역적 정치 조직 단위체이거나 그것들의 결합체이었던 사실을 적시해주고 있는 셈이다.

오나부 가운데 고구려사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지목되는 계루부·비류(나)부·연나부(椽那部)는 이미 대무신왕에 이르러 그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 나부의 실체는 외부에서 침입한 전사(戰士) 집단인 주몽 집단이 우월한 군사 역량을 매개로 기왕의 고구려 사회에 존재하던 다수의 지역 집단을 국가 지배 구조 내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의도적으로 분획된 국가의 하부 단위 정치 조직이었다.

계루부는 왕실과 그 위성(衛星) 세력인 여러 지역 집단과 잡다한 제 세력 집단들이 결집된 정치 세력 단위로 우선적으로 조직화되었을 것이다.

비류(나)부의 실체는 본래부터 하나의 지역 집단이었다. 바로 이 점이 “종묘를 세우고, 영성 사직에 제사 지내는(立宗廟, 祠靈社稷)” 별개 제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특권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류나부의 특권 또한 국가 지배 구조 내에

서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지배 구조 내에서 비류나부의 위상 또한 점진적으로 저하되어 갔던 것이다.

유리왕은 기존의 자기 직할 세력인 계루부를 확대·개편하고, 또 새로 통합된 제 지역 집단을 재편, 국가 권력의 새로운 운용 단위로 편제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 경우 연나부는 고구려가 국초(國初) 이래 상대적인 독자성을 보유한 비류나부를 견제코자, 유리왕 대 이래 기원후 22년 사이에 적어도 네 개 이상의 제 지역 집단을 인위적으로 편제한 정치 조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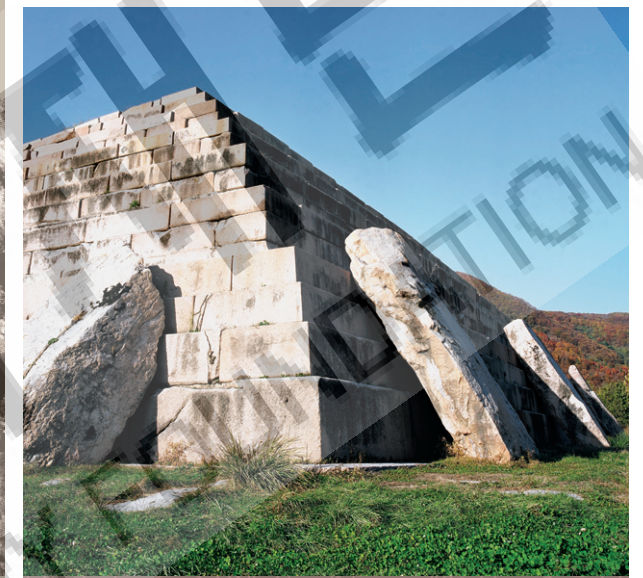
그리고 이러한 국가 형성기 고구려에서 나부의 형성 과정 자체는 이후 그것들의 정치적 존재 양태를 일정하게 규정했을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런 사실들은 대무신왕 대의 고구려에 있어 계루부·연나부는 물론 비류나부가 그 국가 지배 구조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힘의 수준과 한계를 시사해주고 있다.

고구려는 추모왕·유리왕·대무신왕 대에 이미 전쟁과 제사를 매개 기제로 하여 국가 지배 구조를 제도화하고, 그것을 움직이는 힘인 국가 권력을 인격화함으로써 ‘국가’로서 엄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계루부·비류나부·연나부는 이미 이때부터 국가의 하부 정치 단위로 분획·조직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가 형성기 고구려의 국가 성격은 국가 형성론적 측면에서 ‘전제적 군사 국가’적 성격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가 지배 구조의 인적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군사 귀족제(軍事貴族制: militarocracy)’ 사회에 바탕을 둔 국가였다. 당시 고구려는 그 주요 지배 계층이 군사 귀족(war lord)으로 충원되는, 항시 무관이 문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사회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배 질서의 측면에서 신분제를 기축으로 하여 운영되는 ‘신분 국가(身分國家)’였다. 고구려는 애당초부터 신분제를 근간으로 물리적 폭력에 바탕한 전일적(專一的)인 통제력이 지배·생산·일상 의례에 대해 관철되는 국가로 출발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형성기 고구려는 ‘전제적 군사 국가’에서 출발한 ‘군사 귀족제’에 입각한 ‘신분 국가’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성격은 이후 고구려사 전개 과정에서 그 내재적 속성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고구려가 처음 일어난 곳은 압록강 중류의 독로강 및 훈장 강 일대로, 첫 수도는 졸본이었다. 그러나 예맥 소국들에 대한 정복 활동을 전개하고 중국 군현세력을 축출해나가는 가운데 영역을 확대해간 고구려는 유리왕 대인 기원후 3년,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긴다. 2부에서는 국내성 천도 이후 15대 미천왕 때까지 국가 발전의 기틀을 다지며 성장을 거듭하던 시기, 고구려의 중앙 정치 제도의 발전과 초기의 영역 지배 방식, 영토 확장과 대외 관계를 다룬다.



고구려의 성장

- I. 고구려 중앙 정치 제도의 발전
- II. 초기의 영역 지배와 대민 지배
- III. 영토 확장과 대외 관계

2
부

고구려 중앙 정치 제도의 발전

금경숙

1. 고구려 왕권과 왕위 계승

전기(前期)의 고구려는 나부(那部)를 매개로 통치력을 행사하였다는 나부 통치 체계로 보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나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고구려는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 초 이래 여러 단계를 거쳐 국가적 성장을 이루었다. 건국 당시 고구려 왕의 권력은 한정적이었다. 고구려 초기에는 아직 독자적인 정치 세력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그러나 점차 왕권이 확립되면서 이 세력들은 왕권 하에 편제되었다. 각 나부의 정치는 제가들이 자체의 관인(官人)을 두고 운영하였다. 제가들은 '나부' 안에 자신의 세력 기반을 두고 중앙 정치에 참여하였다.

고구려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문제는 태조왕과 관련된 것이다. 고구려는 태조왕이 즉위하는 1세기 중반에 이르러 왕실을 중심으로 변혁을 치른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초기의 왕위 계승 문제는 고구려 건국 문제, 고구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게 대두된다. 『삼국지(三國志)』에 의하면 고구려는 “소노부에서 계루부로 왕실 교체가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소노부에서 계루부로의 교체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먼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주몽이 압록강 중류 유역의 송양을 통합하고 건국한 것을 들어 고구려 왕실이 소노부에서 계루부로 교체되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송양은 부여에서 주몽 집단이 남하하기 이전부터 줄곧 그 지역의 토착 세력으로 존재해왔다.

대무신왕의 사후 왕위 계승 과정에서 불안한 모습이 보이는데, 민중왕(閔中王) 즉위조의 내용 중 “대무신왕이 돌아가고 태자가 나이가 어려서 정사(政事)를 할 수 없었다. 이때 국인(國人)이 해석주(解色朱)를 추대하여 왕으로 세웠다.”¹⁾에 의해서 왕권이 아직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중왕의 재위 기간은 5년이었으며, 그 뒤를 이은 모본왕의 재위 기간도 6년에 그쳤다. 민중왕이 즉위하는 데 간여한 것으로 보이는 국인은 왕위 계승이 비정상적으로 계승될 때 등장하는 점으로 미루어 왕권을 견제하던 제가(諸加)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중왕을 이어 왕위에 올랐던 모본왕도 두로(杜魯)라는 인물에 의해 살해된다. 모본왕의 시해는 고구려 역사에서 왕이 시해당하는 최초의 사건인데, 왕권을 둘러싼 갈등이 왕을 살해하는 방법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모본왕 6년조의 사료에 의하면 왕을 살해한 당사자는 두로이지만 이러한 행동을 충동한 인물이 묘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왕권과 여타 귀족 세력 간의 갈등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모본왕까지 약 100년 간의 기간은 고구려 국가 형성기로서 주변의 소국을 정벌하여 영역 확장하고, 이민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계획을 세우거나, 고구려 국가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여를 공격하기 위하여 몇 차례 시도하고 있으나 그 왕을 살해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삼국지』 기사에 의해서 왕실 교체 시기가 태조왕 대라고 보게 된 이유는 우선 태조왕 이전의 왕들이 해씨(解氏)인데 반하여 태조왕 대부터는 고씨(高氏) 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태조왕의 시호가 태조(太祖)라는 것으로, 시호에서 새로운 왕실이나 왕계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시사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태조'에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는 듯하다.

주몽이 비류국인 송양에게 승리하여 고구려를 건국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주몽 이후 어느 시기에 왕실 교체가 있었다면 『삼국지』에 기록이 될 만하다. 고구려의 왕실 교체와 관련해서 광개토태왕릉비에도 광개토태왕의 선조로 주몽이 언급되고 있다. 왕실 교체의 경험을 가진 신라의 경우 문무왕릉비를 위시한 금석문에는 국가의 시조인 박혁거세에 관한 언급은 없어도 김씨 왕가의 직계 조선인 성한(星漢)에 관한 언급은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태조왕의 '태조(太祖)'라는 시호는 당시까지 중국에서는 그 용례가 없으므로 시조의

1) 『三國史記』 卷14 高句麗本紀2 閔中王 즉위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없다고 본다. 이에 '태조'라는 시호가 후대에 소급되거나 추존(追尊)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고구려의 계루부 왕성(王姓)은 해모수의 아들인 주몽을 시조로 하는 해씨였고, 후대 왕들 역시 그렇게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태조왕의 즉위는 많은 정세 변화가 있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태조왕의 왕위 계승은 불투명한 점이 많아 이를 왕실 교체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태조왕의 어머니가 부여인이고, 또 태조왕 즉위 초년에 국모가 수렴청정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당시 상당한 정치적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태조왕의 어머니가 부여 출신이라는 것은 대무신왕 대에 투항해온 부여 왕 종제(從弟)나 대무신왕의 차비(次妃) 갈사왕 손녀와 동일한 부여계로 추정된다. 또 태조왕 대에 갈사왕손도두(都頭)가 내투(來投)한 배경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부여왕 종제가 연나부에 안치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고구려에 내투한 부여계 집단은 연나부와 관련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2. 관제의 정비

고구려 왕 아래의 일원적인 편제 기준이 확립되기 이전에는 주로 성을 수여하는 사성(賜姓) 등의 방법으로 각 세력 집단을 편제하였다. 동명성왕 주몽은 건국 초기 송양을 제압한 후 그를 다물주(多勿主)로 삼아 휘하에 복속시켰다. 대무신왕 때 부여왕 종제 집단과 같이 독자적인 세력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집단을 복속·편제하였다. 반면 사성은 좀 더 다양한 집단에게 주어졌다. 사성은 각 세력 집단을 편제하는 정치적 조직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사성은 각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징표로 성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사성 집단의 규모와 성격이 다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일원적인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지역 집단을 편제하여 고구려 왕 아래에 세력 기반을 확보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고구려 초기의 관등 조직을 알기 위해서 우선 먼저 고려되는 것이 『삼국지(三國志)』이다. 삼국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그 나라에 왕이 있으며, 그 관은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주부, 우태, 승, 사자, 조의, 선인이 있어 높고 낮음에 각각 등급을 두었다. 그 관을 설치하는데, 대로가 있으면 패자를 두지 않고, 패자가 있으면 대로를 두지 않는다. 왕의 종족(宗族)은 그 대가를 모두 고추가라 칭한다. 연노부는 본디 국주(國主)였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왕이 되지 못하지만 적통 대인은 사직에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절노부는 대대로 왕실과 혼인하였으므로 고추가라 칭호를 더하였다. 여러 대가는 역시 스스로 사자, 조의, 선인을 두는데, 그 이름은 모두 왕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들은 경대부의 가신(家臣)과 같이 모임이 있을 때 앉고 일어서는 데에 왕가(王家)의 사자, 조의, 선인과 같은 열에 있을 수 없다.”

『삼국지』의 기사는 대개 3세기경까지 고구려의 관직 체계 사정을 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고구려조에는 고구려의 관명(官名)에 관해서 상가(相加), 대로(對廬), 패자(沛者), 고추가(古鄒加), 주부(注簿), 우태(優台), 승(丞), 사자(使者), 조의(阜衣), 선인(先人) 등이 나온다. 이 중 상가는 최고 관직인 국상으로 생각되며, 고추가는 계루부의 대가를 비롯하여 소노부의 적통 대인(嫡統大人)과 절노부의 대인(大人)에게 수여된 봉작적(封爵的)인 것이었다. 대로는 패자와 서로 교환되어 설치되었으므로 초기 관등 체계는 대로(패자), 주부, 우태, 승, 사자, 조의, 선인 등 7등급으로 파악된다.

실제 패자, 대주부, 우태, 대사자, 조의 등은 『삼국지』에 관등명으로 나온다. 특히 조의는 우태로 승진하고 우태는 대주부·패자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삼국지』의 관명은 등급 순으로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지』에서 제일 먼저 거론된 상가는 대가의 세력으로 보는 견해와 최고의 관직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김철준은 가(加)는 가(家)와 마찬가지로 '족(族)'의 의미가 있을 것이며, 상(相)은 장(長)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5부족의 장으로 보았다.²⁾ 일본 학자인 다케다유키오(武田幸男)는 상가를 고추가, 패자, 대로와 함께 5부의 지배자 공동체를 대표하는 제가 계급에게 주어졌던 관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노중국은 상가를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제가회의의 장이자 국상으로 이해하였다.

고추가는 왕을 배출한 계루부의 대가나 전 왕족인 소노부의 적통 대인, 그리고 왕비족인 절노부의 대가가 칭하는 관이었다. 고추가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주로 그 연원적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고추가에 대한 몇몇 사료가 보인다. 태조왕이 유리

2) 김철준(1956), 「고구려·신라의 官階組織의 성립과정」, 『이병도박사화갑기념논총』.

왕의 왕자인 고추가 재사의 아들이라는 것과, 태조왕 22년 왕이 환나부 패자 설유를 보내 주나를 정벌하고 그 나라 왕자 을음을 사로잡아 고추가로 삼았다고 하였다. 또 미천왕 즉위년 조의 기사를 보면, 미천왕의 이름은 본래 을불이며, 그는 서천왕의 왕자인 고추가 돌고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고추가는 왕실에서 왕위에 오르지 못한 현재 왕의 아버지나, 왕위를 잇지 못한 왕자 내지 그 계승자에게 주어지는 칭호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고추가를 신라의 갈문왕에 비교한 견해가 있다. 갈문왕은 왕에 비견될 만큼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신라의 냉수리비나 봉평비에 보이는 갈문왕은 매금 왕과 더불어 최고의 정치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 고구려 초기의 고추가도 신라의 갈문왕에 버금가는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추가는 제가 세력을 편제하는 일반적인 성격에서 점차 그 대상이 축소되는 과정을 거쳐 왕실 내의 제한된 범위에 부여되는 관으로 성격이 변하여 갔을 것이다. 왕족·왕비족·전 왕족의 대가가 고추가를 칭하는 점에서 봉작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삼국지』에서 자주 보이는 패자는 고구려 초기의 관직인 좌보나 우보에 나아갈 수 있는 관등으로 보인다. 패자는 또 국상이라는 최고위직으로도 나아가는 것으로 보아 최고의 관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패자는 왕명을 받아 군사들을 거느리고 대외 전쟁에 출전하기도 하였다. 우태는 패자보다 한 단계 낮은 관등으로 독자적인 군사력을 거의 상실한 갈사국의 왕과 같은 존재에게 주어졌다. 패자가 다른 나국을 복속시켜 독자적인 군사력을 유지한 나부의 핵심 세력에게 수여된 것이라면, 우태는 이들에게 복속된 나국 세력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이에 비하여 대주부는 패자와 동격의 관등으로서 왕과 함께 외국의 외교 문서(詔書)를 받고 왕의 입장에서 대가의 군사 활동을 통제하는 왕의 측근으로 활동하였다.

『삼국지』의 “대로가 있으면 패자를 두지 않고, 패자가 있으면 대로를 두지 않는다.”라는 기사에서 보듯이 대로와 패자는 서로 교차되어 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대로와 패자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양자는 오히려 서로 다른 기반을 갖는 관등이기 때문에 교차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즉 “패자를 설치한 시기에는 대로를 두지 않고, 대로를 설치한 시기에는 패자를 두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구려본기에는 3세기 말까지 패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 패자와 대로는 동시에 존재하였다고 본다. 그런데 두 관등이 서로 교차되어 설치되는 것은 외형적인 성격은 유사하지만 그 성립 기반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삼국지』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 태조왕 20년, 관나부 패자 달고를 보내어 조나를 정벌하고 그 왕을 사로 잡았다.
- 태조왕 22년, 왕이 환나부 패자 설유를 보내어 주나를 정벌하고 그 왕자 을음을 사로 잡아 고추가를 삼았다.
- 태조왕 71년, 패자 목도루를 좌보로 삼았다.
- 차대왕 2년, 관나 패자 미유를 좌보로 삼았다.
- 신대왕 2년, 명림답부를 국상으로 삼고 작위를 더하여 패자로 삼아 내외(內外)의 병마(兵馬)를 맡기고 겸하여 양맥 부락을 통솔하게 하였다.
- 고국천왕 12년, 중외대부 패자 어비류와 평자 좌가려는 모두 왕후 친척이라고 해서 나라의 권세를 잡았다.
- 중천왕 7년, 비류 패자 음우를 국상으로 삼았다.

로 서술되어 있다. 이 사료에 의하면 패자가 고구려 초기의 주요직이라 할 수 있는 좌보·우보, 국상, 중외대부 등을 역임하고 있다. 패자가 고구려 초기 정치 조직을 구성하는 최고 관등의 하나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태조왕 이후에는 나부의 제가 세력이 중앙 정치 세력을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들 패자들도 대개 나부의 대가급 세력들이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사료에 의하면 패자는 군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삼국지』의 기사에 의하면,

- 공손도가 해동에서 응거하고 있었다. 백고(신대왕)가 대가 우거와 주부 연인 등을 보내어 공손도를 도와 부산적을 격파하였다.
- 경초 2년에 태위 사마선왕(司馬宣王)이 무리를 이끌고 공손연(公孫淵)을 토벌하였는데, 궁(宮: 동천왕)이 주부, 대가(大加)를 보내어 수천 인을 거느리고 위군(魏軍)을 돕게 하였다.

이 기사는 동천왕 때까지 대가가 군사 활동의 주체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군사 활동의 주체라는 패자와 대가의 기사를 연결시켜 볼 때 관나부와 환나부의 나부가 각각 군사적 동원 단위가 되어, 그 나부의 대가로서 패자가 이를 지휘하였을 것이다. 패자가 소속 나부의 실질적인 지배 세력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 대무신왕 15년 봄 3월, 대신인 구도, 일구, 분구 등 3인을 퇴출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았다. 이들 3인은 비류부장이 되었는데, 자질이 욕심이 많고 야비하여 남의 처첩·소나 말·재화를 빼앗아 마음대로 하고, 주지 않는 자에게는 채찍질을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분하고 원망스럽게 여겼다. 왕이 이를 듣고 죽이고자 하였으나 동명왕의 옛 신하였으므로 차마 극한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내쫓았을 뿐이다. 마침내 남부 사자 추발 소를 대신 부장으로 삼았다.

- 고국천왕 12년 가을 9월에 중외대부인 패자 어비류와 평자 좌가려가 모두 왕후의 친척으로서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 자제들이 모두 세력을 믿고 교만하고 사치하였으며, 남의 자녀를 노략하고 남의 전택을 빼앗았으므로 국민(國人)이 원망하고 분하게 여겼다. 왕이 이를 듣고 노하여 죽이려 하니, 좌가려 등이 4연나(緣那)와 더불어 모반하였다.

위의 두 사료는 패자가 모든 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로에 관해서는 『삼국지』의 고구려본기 초기 기사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고구려본기에는 봉상왕 때까지 패자만 다수 보일 뿐, 대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후기에 보이는 대대로가 대로에서 분화되었을 것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로가 분명 존재하였을 것이다. 『삼국지』 고구려본기 초기 기록에 패자가 주로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패자가 먼저 성립하였고, 대로는 패자보다 늦게 성립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패자가 4세기 이후 소멸함에 반하여 대로는 후기까지 계속 분화·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대로와 패자의 변천 과정과 3세기 이후 왕권의 강화 과정을 고려해볼 때 대로는 왕권 중심의 지배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패자의 기능을 대체하면서 성립한 관등으로 본다. 따라서 대로와 패자가 서로 과도기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고구려 초기에 패자가 최고의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등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대로(對廬) 역시 패자에 버금가는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구려의 관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주부(主簿)와 우태(于台)이다. 주부에 관해서는 그것이 대체로 왕권을 지지하였을 것으로 본다. 『삼국사기』에 보이는 주부에 관한 사료는 다음과 같다.

- 차대왕 2년 가을 7월, 좌보 목도루가 병을 칭하며 물러났으므로 환나 우태 어지류를 좌보로 삼고 작위를 더하여 대주부로 삼았다.
- 봉상왕 3년 가을 9월, 국상 상루가 죽자 남부 대사자 창조리를 국상으로 삼고 작위를 더하여 대주부로 삼았다.

주부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시 한군현 주변 지역에 중국 관제의 불내예후, 주부, 제조와 같은 하위 관원을 설치한 데에서도 짐작된다. 고구려의 주부는 비록 성립은 한나라 현의 관료 조직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늦어도 태조왕 대에는

독자적인 고구려 관직 체계 안에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주부는 대외 군사 활동에 있어서 대가와 더불어 군사 활동의 지휘부를 이루었다. 아울러 주부는 왕권을 지지하는 측근 세력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태는 이를 ‘웃치’로 읽어 가부장인 동시에 그 가부장이 소속되어 있는 친족 공동체의 장으로 파악하기도 하고, 이와는 달리 주부와 더불어 왕의 직속 관료 집단에 속했던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우태에 관한 사료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 태조대왕 16년 가을 8월, 갈사왕손 도두가 나라를 들어 항복해오자 도두를 우태로 삼았다.
- 태조대왕 80년 가을 7월, 관나 우태 미유, 환나 우태 어지류, 비류부 조의 양신 등이 은근히 수성에게 말하기를 ……
- 차대왕 2년 가을 7월, 환나 우태 어지류를 좌보로 삼고 작위를 더하여 대주부로 삼았다.
- 차대왕 2년 겨울 10월, 비류부 양신을 중외대부로 삼고 작위를 더하여 우태로 삼았다.
- 동천왕 4년 가을 7월, 국상 고우루가 사망하자, 우태 명립어수로 국상을 삼았다.

위의 기사에서 갈사왕손 도두에게 우태를 사여한 것은 고구려의 관직 편제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기반을 그대로 유지시켰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우태가 친족 집단의 장이었을 지라도 일단 관등의 이름이라고 하면 이미 왕권 아래 관등의 조직 아래에서 하나의 기능을 하였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관등의 승진 기사에서 보면 우태는 패자나 대주부의 하위에 있고, 조의의 상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태로서 주요직인 중외대부나 국상을 역임한 사실도 있어서 우태가 패자 대주부와 더불어 제가 세력의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자·조의·선인은 왕이나 대가 밑에 설치되었던 하급 행정 실무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고구려 초기 관직의 하부를 구성하며 실무를 담당했을 것으로 본다. 『삼국지』에 의하면 대가는 스스로 관(官)을 설치하며, 가신(家臣)과 같은 존재라는 점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주목되는 관직이 사자(使者)이다. 사자는 수취 체제와 관련하여 성립된 관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계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조의는 무사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선인(先人)은 최하위 벼슬길에 나서는 입사직(入仕職)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기사를 살펴보면 사자·조의·선인은 단순히 하위 관등이라고 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즉 사자가 고구려사 전 시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동시에 다

른 관직들이 역사의 변동에 따라 없어지기도 하나, 사자(使者)는 대사자, 태대사자 등으로 분화되어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존속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의나 선인도 천현성의 묘지명에도 보이는 것처럼 고구려 멸망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단지 하위의 관등이 아니라 고구려 관직 체계 안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구려 초기의 사자(使者)의 분화는 부여에서 이미 대사(大使), 대사자, 사자 등의 분화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예견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가 발전하고 관직 등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관직을 중심으로 분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자류 등의 분화 배경에는 나부의 제가 세력 재편이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고구려 초기의 관등이나 관직에 관한 사료는 태조왕 대부터 빈번하게 보이고 있다. 물론 유리왕 대의 대보 또는 좌보, 우보 등도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간헐적이다.

3. 제가회의와 국상제 운영

압록강 중류와 훈장 강(渾江) 유역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여러 정치체들을 통합한 주몽 집단은 고구려를 건국한 이후에도 주변 세력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하였다. 기존의 독자적인 세력을 인정하면서 일정하게 군사적인 동원을 강요하는 복속과 부용의 형태로 주변 세력을 아울러갔다. 이렇게 중앙 정치를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왕권이 여러 세력들의 족장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것이 사료에서 제가회의(諸加會議)로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의 왕권에 관하여 언급할 때 흔히 왕권의 전제화와 혼동하였다. 왕권이란 왕위의 정당성이 주어지면 일단 보장된 것이며, 왕이 갖는 권한이 정치적·군사적·경제적으로 강인가 약한가는 당시 여러 정치 상황과 관련된 것이지만 왕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³⁾

고구려에서 왕과 더불어 중앙 정치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 고구려 초기에 있어서 대보(大輔)이며, 이후 좌보(左輔)와 우보(右輔)가 등장한다. 대보는 유리왕 대에 잠시 보이고 있는데, 이는 초기 신라나 백제분기의 사료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삼국의 건국 초기 정치 운영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유리왕 대의 대보인 협보는 동명성

왕인 주몽이 부여에서 남하할 때 동행한 3인 중의 한 사람이었고, 또 유리왕의 전렵(田獵)에 대해 간언하고 있음에 비추어, 왕의 측근인 동시에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정치가 어떻게 발전해나갔는가 하는 것은 국정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어 갔는가와 직결되며, 또 이것은 왕권과 귀족의 역학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변화·발전해나갔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우선 좌·우보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 대무신왕 8년 2월, 을두지를 우보(右輔)로 삼고 군국(軍國)의 일을 맡겼다.
- 태조대왕 71년, 패자 목도루를 좌보로 삼고, 고복장을 우보로 삼아, 수성과 함께 정사에 참여하게 하였다.

위의 사료에 의하면 좌·우보의 직능은 ‘군국의 일’과 정사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왕을 보필하고 국정 전반에 참여하는 것이다. 대보와 좌·우보는 동일 계통으로 보이며, 대보에서 좌·우보로 분화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무신왕 대에 와서 왕권이 신장되고 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정치 업무의 분장이 이전보다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대보에서 좌·우보로의 분화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왕의 측근들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대무신왕 대에 왕권이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제한적이었다. 대무신왕 대에 고구려에 항복해온 부여 왕의 종제를 연나부에 안치시키면서 ‘왕으로 봉’하거나, 비류부의 대가를 부장으로 삼은 것은 왕의 세력하에 완전히 편제되지 않고, 왕 역시 자신의 세력 아래에 완전히 편제시키지 못하는 현실적인 정치력의 한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고구려 건국 초기의 대보나 좌·우보 등의 존재를 왕의 가신적 존재들로 이해하기도 한다.

대보나 좌·우보의 성격도 당시 군신의 대표자로서 위상을 나타낸다. 5나부 체제가 확립되고 나부의 제가 세력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태조왕 대에도 계루부 출신이 좌·우보에 임명되었다. 좌·우보는 왕과 매우 밀착된 존재들이었다. 이들은 왕의 위치를 보호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태조왕 말년에 보이는 우보 고복장과 미유를 들 수 있다. 대무신왕 대에 설치된 좌·우보는 부여를 정벌한다거나 주변을 정복하는 상황, 그리고 중국과의 빈번한 군사적인 접촉을 원활하게 수행해나가기 위해서 측근 세력을 둔 관직이었을 것이다.

3) 최광식(1994),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50쪽.

당시 왕권은 강력한 세력 기반을 갖는 다른 나부, 즉 비류나부나 연나부와의 연합을 통해 그 영도력을 강화해갔던 것으로 본다. 이는 이 시기의 여러 나부 사이에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정치적인 갈등이 잘 나타난 것이 대무신왕 대이다.

『삼국지』에 의하면 대무신왕의 어머니가 송양의 딸인 송씨로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사료에 의하면 대무신왕의 어머니는 유리왕 2년에 결혼하여 같은 왕 3년 10월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록에는 약간의 모순이 발견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무신왕과 비류부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밀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바이다.

또 대무신왕의 아들인 호동왕자가 죽게 된 정치적 배경도 결국 비류부 세력과 연나부 세력의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당시에는 왕을 중심으로 왕비를 배출한 집단끼리 서로 주도권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무신왕 대에 좌우보가 설치된 이래 신대왕 대에 국상(國相)으로 개편되기까지 고구려 초기의 정치 운영 체제는 좌·우보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차대왕이 연나부 조의 명림답부에 의해 시해되고, 새로이 즉위한 신대왕은 즉위 직후 정치 개혁을 단행하였다. 약 150년 간 운영되던 좌·우보를 폐지하고 국상제(國相制)를 설치한 것이다. 좌·우보제에서 국상제로의 개편은 5나부의 제가 세력이 새로운 중앙 정치 세력으로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정치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고구려 초기 정치 운용에서 국상은 전임자가 사망해야 후임자가 임명되었다. 신대왕 말년에 명림답부가 사망한 이후 고국천왕 13년 을파소(乙巴素)가 국상에 임명될 때까지 13년 간의 공백이 보인다.

연나부 출신 명림답부가 차대왕을 시해하고 신대왕 대에 국상을 역임한 이래, 고국천왕 즉위 초까지 연나부 세력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다. 연나부 우소의 딸이 고국천왕의 비가 된 것도 그러한 배경에서일 것이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국상과 왕비의 지위를 연나부가 독점하였음은 아직까지 국상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전히 왕권은 연나부의 세력들에 의해 견제를 당하고 있었다.

다음의 사료는 고국천왕과 연나부와의 갈등을 잘 보여준다.

고국천왕 12년 가을 9월, 좌가려 등이 4연나와 더불어 모반하였다.

고국천왕 13년 여름 4월, 좌가려 등이 무리를 모아 왕도(王都)를 공격하였다. 왕이 기내(畿內)의 병마(兵馬)를 동원하여 이를 평정하고, 마침내 영을 내려 말하기를, “…… 너희 4부는 각각 현명하고 어진 사람으로 아래에 있는 지를 천거하여라.”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4부가 함께 동부(東部)의 안류(晏留)를 천거하니, 왕이 그를 불러 국정을 맡겼다. 안류가 왕에게 말하기를 “미천한 신은 용렬하고 어리석어 본래 큰 일을 맡기에 부족합니다. 서압록곡의 죄물촌에 을파소란 사람은 유리왕의 대신인 을소의 후손으로 성질이 굳세고 지혜와 사려가 깊으나, 세상에서 쓰이지 못하고 힘들여 농사지어 자급하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만일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신다면 이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사신을 보내어 겸손한 말과 두터운 예로써 모셔 중외대부로 임명하고 작위를 더하여 우태로 삼았다.

2세기 말 고국천왕 대는 사회 변동이 심하던 때이다. 고국천왕 대는 용작농(傭作農)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는 힘써 농사를 지어 자급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배층이 토지와 노동력에 대해서 수탈을 함으로써 계층 분화가 가속화되었다. 3세기 전반 고구려 사회에는 ‘좌식자(坐食者)’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전체 3만 호 가운데 만여 명이나 되었다고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부여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읍락에 거주하는 부유한 농민인 호민(豪民)과 하호(下戶)로 분화되었다. 3세기 말경에 이르면 용작농과 유이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계층 분화는 더 심해졌다.

이러한 사회 변동에 따라 정치 변동도 수반되었다. 그러나 이후 국상제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갔다. 산상왕 이후 왕위 계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왕권 강화의 결과인 동시에 고구려 중앙 정치의 안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후 국상을 역임한 인물들을 보면 고우루, 명림어수, 음우, 상루, 창조리 등이다. 마지막 국상으로 기록된 봉상왕 대의 창조리는 왕과의 역학 관계에서 갈등을 표출하였다. 봉상왕은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주변 세력들을 제거했다. 우선 안국군(安國君) 달가(達價)를 죽이고, 봉상왕 9년에는 가뭄이 들었는데도 15세 이상의 남녀를 징발하여 궁실을 수리하였다. 국상 창조리(倉助利)와의 갈등은 왕권 강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봉상왕과 국상 창조리와의 관계는 국상이 앞장서서 왕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국상의 정치적 위상에 관하여 고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상에 관하여 일방적인 견해만 가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창조리는 군신(群臣)들과 모의하여 봉상왕을 폐위하기에 이른다. 여기에서 군신들은 군신회의에 참여하는 고위의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나, 기본적으로 귀족으로서의 입장을

견지하였기 때문에 창조리와 뜻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창조리의 사례는 국상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정치·사회적인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왕권을 지지하고 왕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행했던 을파소는 다른 국상들과 신분적인 기반이 달랐기 때문에 고국천왕의 왕권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료에 의하면 고국천왕은 왕권 강화 시도를 위해 2세기 말에 이미 공민(公民)을 확대하는 방법을 취했던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제3의 인물을 등용하여 성공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예에서는 고구려 전기 정치 전개를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실적인 균형 관계에서는 갈등이 표출되지 않았으나 봉상왕의 예처럼 폭압의 형태를 취하였을 것이다. 왕권 강화 시도에 대해서 귀족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상이 왕의 시해나 왕의 축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견제를 구사했음을 알 수 있다.

국상에 올랐던 인물은 대부분 계루부를 비롯하여 유력한 정치 세력 출신들이었다. 국상제의 안정적인 운용은 중앙 관료 조직이나 관동 조직의 정비를 통해 중앙의 관료 집단으로 편제되어 가는 당시 제가 세력의 동향과 맞물려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국상의 정치적 위상이 문제가 된다. 기존의 연구는 국상을 제가회의의 의장으로 보는 견해와 왕권 아래 관료 집단의 수장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졌다. 국상의 임기가 전 왕의 사망이나 새 왕의 즉위에 상관없이 종신제라는 점에서 국상의 임명·퇴출이 왕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을파소가 국상에 임명된 것은 전적으로 고국천왕의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의 일부이었다. 이는 국상이 왕권과 밀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제가회의의 존재는 『삼국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국중대회 이름을 동맹(東盟)이라 한다. 그들의 공식 모임에서는 모두 비단에 수놓은 의복을 입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다. 대가(大加)와 주부(主簿)는 머리에 책(幘)을 쓰는데, 중국의 책(幘)과 흡사하지만 뒤로 늘어뜨리는 부분이 없다. 소가(小加)는 절풍(折風)을 쓰는데 그 모양이 고깔과 같다. 그 나라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그것을 수혈(隧穴)이라 부른다. 10월에 온 나라에서 크게 모여 수신(隧神)을 신의 좌석에 모신다. 감옥이 없고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諸加)들이 모여서 평의(評議)하여 사형에 처하고 처자(妻子)는 몰수하여 노비로 삼는다.

이 사료에서 제가회의는 국중대회 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죄수의 죄를 평결하는 제가회의는 국중대회에만 열린 정기 회의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되는 상설 회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구려의 제가회의는 정기 회의에서 점차 상설 회의로 변모하였다고 추정된다. 제천 행사 시 회의체의 기능은 왕권이 확립되고 국가 체제가 성립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위의 사료에 의하면 제천 행사 시 제가회의가 중요한 국가 의결 기구로 기능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국중대회는 고구려의 중요한 정치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이때 고구려의 지배층은 동명과 하백녀(河伯女, 隧神)에 대한 제사를 모셨고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였을 것이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이 제천행사는 점차 국중대회로 전환되었다. 제가회의는 국가 체제의 확립과 함께 국가 중대사를 의결하는 중요한 정치 기구로 성립되었다.

고구려는 책구루에서 조복(朝服)과 의책(衣幘)을 가져온 다음 이를 제가(諸加)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이다. 이때 고구려 왕의 주재 하에 일정한 의식을 거행하고, 제가들이 참여하는 제가회의를 개최하였을 것이다. 10월 국중대회가 열릴 당시 제가회의는 왕의 주도하에 국가 중대사를 논의·결정하다가 이후 점차 국가 의결 기구로 전환되었다. 이 제가회의에서 국가 중대사가 정기적으로 논의되었을 것이다.

제가회의의 원형적인 모습은 『삼국지』 부여조에 보이는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부여의 지배 세력은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제가(諸加)라고 불렸으며, 대가는 수천 가, 소가는 수백 가를 다스렸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자치권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국중대회의 주요 참가층은 이들 대가·소가 등 제가이며, 이들이 제가회의를 통해 형옥(刑戮)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였을 것이다. 고구려의 경우도 이와 대비하여 상정해볼 수 있다. 우선 고구려의 관계가 부여와 유사한 점에 비추어 고구려의 국중대회에서도 제가회의를 개최하여 반란죄 등과 같은 국가의 중요한 재판을 주도하였을 것이다.

기존에는 제가회의와 국상과의 관계에 관하여 왕권을 중심으로 대립적인 구도에서 고찰하였다. 즉 왕권과 귀족 세력이 줄곧 대립적인 구도 하에 정치가 운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시각을 지양하고 서로 견제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왕권과 귀족 세력권을 지나치게 대립 구도에서 이해하는 것은 고구려 전기의 정치 구조를 좁게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으로,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다.

제가회의와 국상과의 관계는 고구려 전기 정치 발전 상황을 밝히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왕권을 견제하는 귀족의 세력은 언제나 존재한다. 왕 또한 대표적인 귀족 세력이나 다름없

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은 일단 권력 강화를 통하여 모든 정치적인 힘의 관계를 장악하려고 한다.

한국 고대사에서 귀족 회의가 존재하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고구려에서는 제가회의가 있었고, 백제에서는 정사암회의, 신라에서는 화백회의가 있었다. 또한 흉노에서도 제천 행사를 통하여 회의체를 운영하였다.

10월 국중대회나 연초 등에 개최된 제가회의는 각 나부의 대표자들이 고르게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 정치 회의체였다. 제가들은 일 년에 몇 차례 개최되는 정기적인 제가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형태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함으로써 계루부 왕권의 의지를 각 나부에 강제할 수 있었다.

고구려 중앙 정치가 어떠한 형태로 발전하였는가는 단순히 고구려 전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정치 전개 과정을 가늠하는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후 고구려 역사 전개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의 중앙 정치 구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700여 년이 넘는 고구려 역사 안에서 정치는 변화하여가는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발전해 갔다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원

II 초기의 영역 지배와 대민 지배

김현숙

1. 4세기 이전 고구려민의 구성

고구려의 통치 체제는 4세기를 기점으로 변화되었다. 그 이전에는 다원적이고 중층적인 성격의 나부(那部) 체제였고, 그 이후에는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로 발전했다.¹ 이와 더불어 영역에 대한 지배 방식도 4세기 이후 크게 달라졌다.² 이것은 중앙 통치 체제뿐 아니라 민의 위상 및 국왕을 비롯한 지배층의 대민관(對民觀)의 변화와 맞물려 일어난 변화이다. 따라서 영역과 대민 지배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는 이런 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1) 고구려의 나부 체제에 대해서는 盧泰敦(1975), 「三國時代의 部에 관한 研究」, 『韓國史論』 2(『고구려사 연구』(1999), 사계절, 112~164쪽 재수록) 참조.
- 2) 3세기까지는 중앙에 상대되는 개념인 지방과, 왕경인에 상대되는 개념인 지방민이 성립되지 않았다. 국왕을 비롯한 고구려 지배자들은 집단 예민(隸民)들을 '지방에 거주하는 민'이 아닌 복속민으로 보았다. 따라서 3세기 후반까지는 '지방', '지방민', '지방 통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중앙 집권 체제가 완성되기 이전 시기를 다루는 이 절에서는 지방 통치 대신 영역 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지방의 개념에 대해서는 金賢淑(1996), 『高句麗 地方統治體制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고구려의 영역지배 방식 연구』(2005),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66쪽 재수록)과 朱甫暉(2003), 「三國時代 地方統治體制의 定着 과정-高句麗의 事例를 중심으로」, 『강좌 한국고대사』 제2권 고대국가의 구조와 사회(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34쪽 참고.

3세기 중엽의 상황을 보여주는 역사서인 『삼국지(三國志)』 동이전에는 당시 고구려의 영역 범위가 사방 2,000리였고, 인구는 3만여 호였다고 나온다.³⁾ 그런데 이 사서에는 “(고구려에는) 본디 다섯 (부)족이 있으니, 연노부(涓奴部), 절노부(絶奴部), 순노부(順奴部), 관노부(灌奴部), 계루부(桂婁部)가 그것이다. 본래는 연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점점 미약해져서 지금은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연노부 등은 시냇가나 강가, 계곡 변에 자리잡은 정치 집단 가운데 계루부 아래 부(部)로 편제된 네 개의 정치 집단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에는 비류나부, 연나부, 환나부, 관나부로 나오고 있다. 이 네 개의 나부는 고구려 건국 당시의 구성원이자 주체 세력으로서 계루부와 합쳐 일반적으로 5나부라고 부른다. 『삼국사기』에는 이외에 주나(朱那), 조나(藻那) 등 나(那)를 칭하는 정치 세력이 나오지만, 지역명에 부(部)를 칭하는 것은 이 넷뿐이다. 계루부를 포함한 5나부는 3세기 말 이후에는 사서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5나부는 역사성을 띤 특수한 정치 단위였다고 보고 있다.

비류국이 비류나부로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나부는 과거 개별 소국이었다가 부로 편제되었다. 따라서 각 나부는 복수의 정치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계루부의 내부에는 졸본부여계와 부여 유이민계 및 국내(國內) 지역 세력 등 복수의 정치 집단이 존재했다. 비류부에도 구부장(舊部長) 세력과 신부장(新部長) 세력 등 최소 네 개의 집단이 있었으며, 연나부에도 역시 네 개의 정치 집단이 있었다.⁴⁾ 이들 세 나부보다 규모나 세력 면에서 열세였던 관나부와 환나부 안에도 복수의 정치 집단이 있었을 것이다.

나부 안의 정치 집단의 규모는 인구 1만 명 정도였다. 건무(建武) 23년 낙랑에 내속(內屬)한 잠지락대가(蠶支落大加) 대승(戴升)⁵⁾과 대무신왕 5년에 고구려로 들어와 연나부에 안치된 부여 왕의 종제(從弟) 집단이 1만여 명⁶⁾이었다. 참고로 고조선의 우거왕(右渠王) 때 조선상(朝鮮相) 역계경(歷谿卿)이 왕에게 간언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진국(辰國)으로 가버렸는데, 그 때 그가 이끌고 간 무리도 2,000호였다. 고대 시기 1호는 평균 5명 정도였으니까 이도 역시 1만 명⁷⁾ 정도였다. 이를 통해 고대국가의 초기 단계 때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는 정치 집단의 규모가

3)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高句麗條.

4) 金賢淑(1993), 『高句麗 初期 那部の 分化和 貴族의 姓氏』, 『慶北史學』 16.

5)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高句麗.

6) 『三國史記』 卷14 高句麗本紀 大武神王 5년 7월.

7) 『삼국지』 卷30 위서 동이전 韓條 所引 『魏略』.

대개 인구 1만여 명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연나부나 비류부의 인구는 3~4만 명 정도였고 계루부는 이를 상회하는 규모였으며, 관나부나 환나부는 그보다 적은 1~2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5나부의 총 인원은 15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호수(戶數)로 약 3만 호가 된다. 그러므로 『삼국지』에 나오는 고구려 인구 ‘3만 호’는 5나부의 주민만 헤아린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세기 중엽 당시 고구려 안에는 5나부민 외에 다른 사람들도 존재했다. 태조왕대 고구려의 영역은 남쪽으로 살수(薩水), 즉 청천강(淸川江) 이북까지 확장되었고,⁸⁾ 3세기 중엽에는 동쪽으로 함흥(咸興) 일대, 서쪽으로 타이즈허 강(太子河) 유역, 북쪽으로 길림(吉林) 이남 지역까지 이르렀다. 5나부가 위치하고 있는 압록강 중류 유역을 멀리 벗어난 지역까지 영역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은 고구려의 확장 과정에서 편입된 곳으로, 그 지역민들은 복속민으로서 고구려에 집단적으로 예속되어 있으므로 집단 예민(集團隸民)이라 부를 수 있다. 3세기 말경 고구려에 속해 있던 집단 예민 가운데 대표적인 존재로는 타이즈허 강 유역의 양맥, 송화 강(松花江) 인근으로 옮겨진 숙신, 두만강과 함흥 근처의 북옥저와 동옥저, 옥저 아래쪽에 있던 동예를 들 수 있다.

이 중 동예가 245년 위나라 관구검(毌丘儉)이 고구려로 쳐들어왔을 때 동천왕(東川王)을 추격하기 위해 보낸 낙랑 태수(樂浪太守) 유무(劉茂)와 대방 태수(帶方太守) 궁준(弓遵)의 군대에 의해 정벌된 후 고구려의 지배권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났었다. 『삼국지』 고구려전에 실린 내용은 이 전쟁 과정에서 위군(魏軍)이 견문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 기록된 각국의 면적이나 인구는 관구검의 원정 결과 재편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는 위군이 물러나고 동천왕이 환도(還都)한 다음 빠른 시일 안에 혼란을 수습하고 이탈한 복속민을 다시 회복했다. 따라서 4세기 이전 고구려의 영역 지배 방식을 검토할 때에는 『삼국지』 고구려전에 나오는 사방 2천 리, 3만 호만 검토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즉 5나부민뿐 아니라 복속민 집단까지도 모두 검토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복속민의 경우에는 이 시기까지 고구려민이란 인식을 확고히 갖고 있지 않았고, 고구려 안에서 사회적 위상이 확정되지도 않았다. 고구려인들도 역시 이들을 자신들과 같은 고구려인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태조왕 대의 영역 범위를 거론할 때 타이즈허 강 유역

8)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 태조대왕 4년 7월.

까지 들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구려의 지배권이 미치는 범위는 모두 고구려의 영역이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구려민이었다. 따라서 5나부 지역의 주민 뿐 아니라 정치적·군사적·경제적으로 고구려의 주요한 기반이 되는 집단 예민들도 모두 고구려민으로 보아야 한다. 즉 당시 고구려민은 집단 예민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민’과 본래부터의 고구려민인 ‘좁은 의미의 민’으로 나눌 수 있다.⁹⁾ 이 둘은 거주지와 고구려 사회에서의 존재 양상, 그리고 중앙 정부의 지배 방식이 달랐다.

2. 4세기 이전 5나부민과 집단 예민의 위상

3세기 말은 민의 존재 양태 자체가 변화되는 과도기였다. 민의 사회적인 위상이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때였다. 고구려민도 5나부민(那部民)과 집단 예민(隸民)으로 크게 나뉘져 있었고, 영토와 민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았다. 4세기 이후의 ‘민(民)’과는 개념 자체에 차이가 있었다. 아직까지 ‘공민(公民)’으로서의 지위가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고구려 안에서 5나부민과 집단 예민의 위상도 서로 달랐다.

5나부민의 경우를 보면, 고구려가 성립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그 존재 양태가 여러 차례 변화되었다. 이들은 원래 씨족 집단의 씨족원이었다가 사회 발전에 따라 부족 집단의 일원이 되었다. 그리고 소국이 성립한 후에는 소국 왕의 민으로 되었지만 여전히 수장층(首長層)의 사적(私的) 예속민이라는 성격을 띠었다. 이후 연맹왕국 단계를 거쳐 나부 체제가 수립되면서 이들은 자신이 속한 나부 수장의 지배를 받는 나부민면서 동시에 고구려 왕의 민인 존재로 되었다.

5나부 지역은 적석묘가 집중 분포하고 있는 압록강 중류 유역과 그 지류인 훈장 강(渾江), 독로강(秃魯江) 유역, 즉 지금의 중국 환인(桓仁)과 집안(集安), 통화(通化), 봉성(鳳城), 관전(寬甸) 등과 북한의 만포시(滿浦市), 중강군(中江郡), 자성군(慈城郡), 시중군(時中郡), 위원군(渭原郡), 초산군(楚山郡), 송원군(松源郡), 희천(熙川) 등을 포함한 주변 일대였다고 보고 있다.¹⁰⁾ 이 지역에

9) 金賢淑(1989), 「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 守墓人의 社會的 性格」, 『韓國史研究』 65, 29~30쪽.

10) 池炳穆(1987), 「高句麗 成立過程考」, 『白山學報』 34, 52쪽; 余昊奎(1992), 「高句麗 初期 那部統治體制의 成立과 運營」, 『韓國史論』 27, 19쪽.

거주하는 주민들은 3세기까지 같은 고구려인이라 공동체 의식을 확고하게 보유한 좁은 의미의 고구려민이었다.

이들 5나부민들은 매년 10월 ‘동맹(東盟)’이란 제천 행사(祭天行事)를 거행했고, 그때 온 나라 사람들이 수신(隧神)을 모셔 놓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공동체의 결속을 도모했다. 같은 신을 모시는 존재들은 서로에 대해 동질감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제사의 대상이나 참여자는 쉽게 변하지 않았다. 이는 예(穢) 지역이 장기간에 걸쳐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3세기 중엽까지 ‘무천(舞天)’이란 이름으로 별도의 제천 행사를 가졌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동맹’이라는 ‘국중대회(國中大會)’가 열리는 ‘국중’은 바로 5나부 지역을 지칭했다. 이것은 ‘무천’이 행해지는 예 지역과는 관계가 없었다. 5나부의 민들은 그들의 지배자와 같은 신을 모셨고, 혼인과 장례 풍습도 같은 원래부터의 고구려인이었다. 따라서 고구려 왕도 5나부민에 대해서는 영역 확대 과정에서 새로 편입된 민들과 달리 인식했다.

그러나 5나부의 피지배층도 3세기 중엽까지 공민(公民)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집단 예민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처지가 열악하고 지배층에 강하게 예속되어 있는 ‘하호(下戶)’가 대부분이었다. 하호는 전쟁터에 나가도 무기를 들고 싸울 권리가 없었다. 단지 양식을 쳐다 나르는 보급 부대 역할만 할 수 있었다. 고구려에서는 전쟁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생산 활동이었다. 전쟁은 부의 축적, 권력의 장악과 유지, 입신출세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따라서 당시에는 전투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곧 특권에 해당되었다. 전사 집단(戰士集團)인 좌식자(坐食者)와 달리 하호들에게는 치중병(輜重兵) 역할만 부여했던 것은 이런 특권을 배타적으로 보유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다. 외부의 적과 싸울 때에도 하호들에게 무기를 주지 않았던 것은, 당시 지배층이 하호들도 자신들과 같은 고구려인이므로 힘을 합쳐 나라를 지켜야한다는 의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호 측도 마찬가지였다. 하호들도 자신의 가정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할 만큼 의식이 성장하지 못했다. 이는 결국 5나부의 일반 민조차도 3세기 중엽까지는 국가의 기간(基幹) 세력인 ‘민’으로서 위상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국천왕(故國川王) 때에 왕후의 친척인 연나부의 중외대부(中畏大夫) 패자(沛者) 어비류(於界留)와 평자(評者) 좌가려(左可慮)의 자제가 권세를 믿고 다른 사람의 자녀와 밭, 집을 빼앗는 만행을 저질러 국민들의 원망을 사는 일이 일어났다. 노한 왕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니 좌가려 등이 4연나와 더불어 모반을 했고, 이에 왕이 기내(畿內) 병마를 징발해서 그를 평정했

다.¹¹ 이는 왕권이 강화되어 가는 한편 나부의 독자성은 점차 약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고구려민은 모두 왕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왕과 자신의 나부민은 전적으로 자신의 통제권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나부 대가들의 상반된 의식이 충돌한 것이다. 즉 5나부민의 위상이 공민으로 확고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나부민이 부의 소속원이 아니라 국가의 민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것은 나부가 해체되고 나부민들 모두가 국왕으로부터 직접 통치를 받게 된 이후였다.

5나부 소속민의 위상과 그들에 대한 의식이 이 정도로 미성숙했으므로 복속 지역의 민들에 대한 배타성과 차별성이 매우 강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고구려인과 동일한 제천 행사를 공유하지 않았던 옥저와 예, 숙신, 거란 같은 편입민들에 대해서는 이 시기까지 전혀 동류(同類) 의식을 가질 수 없었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복속민으로서 고구려에 예속되어 물자와 인력을 제공해야 하는 집단 예민에 불과했다. 이들은 분명 고구려 영역 안에 속해 있던 고구려인이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민'이 아닌 집단 예민들로, 고구려 중앙 정부에 대해 조세가 아닌 공납(貢納)을 바쳤다. 이들은 수취의 대상이 아닌 수탈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고구려 안에서 민으로서 위상을 정립해나가는 것은 원고구려의 피지배 계층에 비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4세기 이후에는 이들도 5나부의 피지배층과 똑같이 민으로 규정되었다. 광개토대 왕릉비에 새겨져 있는 구민(舊民) 수묘인 출자지(出自地) 가운데 하나인 비리성(碑利城)은 지금의 안변(安邊) 지역으로 이는 예(濊)의 중심지였다. 또 타이즈허 강 상류 유역에 비정되는 양곡(梁谷)과 양성(梁城)은 바로 유리왕(琉璃王) 대에 편입된 양맥(梁貊)¹²의 거주지였다. 예와 양맥은 3세기 중엽까지 집단 예민이었는데, 광개토대왕릉비에는 '구민', 즉 '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루 묘지(牟頭婁墓誌)에 북부여민들을 '성민곡민(城民谷民)'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변화이다. 북부여는 4세기 전반에 고구려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3세기 중반경이라면 이곳 주민도 집단 예민으로 되었을 것이나, 5세기 초에는 '성민곡민'이라 표현되었듯이 일반민으로 되었다.

소수림왕 3년에 있었던 율령 반포¹³ 이후, 고구려민은 모두 호적에 등재되어 정해진 법률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는 국가의 공민으로 되었다. 이에 따라 편입민들도 집단 예민이 아니

라 지방민으로 위상이 정립되었다. 이전에는 왕을 비롯한 지배층들이 집단 예민에 대해 복속민이란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어 가능한 많이 수탈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했었으나, 4세기 이후에는 국가와 왕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보호해야 할 민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집단 예민들이 명실상부하게 지방민으로 되고, 중앙에서 왕명을 대행하는 지방관이 파견되어 이들을 직접 통치하게 된 것은 3세기 말경 나부 체제가 해체되면서 부터였다.

3. 4세기 이전의 영역 지배 방식

1) 5나부 지역에 대한 지배 방식

독자적으로 성립된 여러 정치 세력들이 결합하여 고구려를 형성했고, 외부의 또 다른 독립적인 정치 세력들을 통합하면서 발전해갔으므로,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가 구축되기 이전까지 고구려 안에는 반독자적인 운동성을 지닌 정치 집단들이 다수 존재했다. 나부 체제가 고구려 왕의 통치권은 반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정치 집단들 위에 설정되었고, 왕의 명령은 '왕법'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 전체에 행사되었다. 국왕은 5나부를 비롯한 여러 정치 세력을 집단적으로 간접 통치했고, 각각의 정치 집단 내부의 일은 그 집단의 장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부 체제의 원리였다.¹⁴ 따라서 3세기 말까지 고구려의 영역 지배 방식의 기본은 간접 지배였다.

하지만 간접 지배라고 일괄 표현되긴 해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든 구성 집단에게 동일한 지배 방식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개별 소국들이 병립해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소국들이 필요에 따라 지역연맹체를 결성한 소국연맹체 단계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1세기부터 3세기 말까지 지속된 나부 체제는 계류부가 왕실로 확립된 가운데 고구려를 구성한 여러 소국과 정치 집단들이 4부로 편제되었고, 여기에 집단 예민이 속해 있는 구조였다. 따라서

11) 『삼국사기』 권16 고구려본기 고국천왕 12년 9월, 같은 왕 13년 4월.

12)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유리왕 33년 8월.

13)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소수림왕 3년.

14) 나부 체제의 원리에 대해서는 노태돈(1975); 노태돈(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金賢淑(1995), 「高句麗 前期 那部統治體制의 運營과 變化」, 『歷史教育論集』 20, 경북대 역사교육과; 여호규(2000), 「고구려 초기 정치체제의 성격과 성립기반」, 『한국고대사연구』 17 참조.

이때 나부와 집단 예민들이 가진 독자성은 소국이나 연맹왕국 단계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왕을 정점으로 계루부의 가신들과 나부의 대가들로 구성된 중앙 정치 세력은 고구려 전체를 통치했다. 이때 개별 나부나 집단 예민 지역 내부의 일은 자체적으로 운영해갔지만, 필요한 경우 중앙에서 간여하기도 했다.

5나부의 정치 운영 방식을 보면, 전쟁·외교·무역 같은 대외적인 일은 중앙 정부 중심으로 창구를 단일화했기 때문에 개별 나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지만, 평상시 나부 내부의 일은 나부의 수장이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5나부의 수장들은 각각 자체 관부를 두고 나부민을 통치했다. 이들은 사자(使者), 조의(阜衣), 선인(先人)이라는 왕의 가신과 동일한 관명을 가진 가신들을 휘하에 두고 이들을 동원해 나부민을 통치했다. 고구려 전체에 통용되는 공통의 법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부 수장들은 전래의 관습법에 따라 나부민을 지배했다. 나부에서는 군사력도 별도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부의 수장은 이 병력으로 나부민을 통제할 수 있었고, 대외 전쟁 시 자신의 부병을 거느리고 출정할 수 있었다. 고구려 왕은 계루부 외 다른 나부의 민에게 직접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 나부의 장을 통해 나부민들을 집단적·간접적으로 통치했을 뿐이었다.

이처럼 내부 정치 운영에서 자치를 허용하는 간접 지배 방식이 나부 체제가 5나부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배 형태였다. 그러나 이 원칙이 모든 나부에, 또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왕법'에 의거하여 왕이 나부 내부의 일에 간여하기도 했다.¹⁵ 투항해온 부여 왕 중제(扶餘王從弟) 일행을 연나부에 안치한 것이나, 비류부장(沸流部長)인 대신(大臣) 구도(仇都), 일구(逸苟), 분구(焚求)가 부민의 재산과 처첩을 마음대로 빼앗는 등 탐욕스럽고 비루한 짓을 했다는 이유로 서인으로 만들고 남부사자(南部使者) 추발소(鄒拔素)를 대신 부장으로 삼은 것¹⁶ 등이 그 예다. 태조왕 대에 관나부와 환나부의 병력을 동원하여 조나와 주나를 치도록 했고, 고국천왕 대에 권세를 믿고 부민을 괴롭힌 연나부의 어비류와 좌가려의 자제를 죽이려고 한 것도 같은 경우이다.¹⁷

이는 나부 부장에게 부민 지배를 맡기는 것이 상례였으나, 부민(鄙民)들에 대한 압제가 지나치면 중앙 정부에서 왕법(王法)이란 이름으로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부장을 교체하기도 했

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⁸ 이것은 소국 병립기나 소국 연맹체 단계에서 소국 내부의 정치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해나갔던 것과 달리, 나부 체제기에는 나부민에 대한 수탈이 상식선을 벗어날 경우 고구려 왕이 다른 나부의 일에 간여하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연나부 내부의 일에 왕이 간여하자 4연나가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보면 나부의 장들은 자기 나부의 일에 국왕이 간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나부 체제가 정치 운영 원리는 어디까지나 나부의 독자적 운영을 인정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왕 측은 나부 체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시종 나부 안으로 지배권을 침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연나부 세력을 키워 그와 결탁함으로써 이전의 맹주 세력이었던 비류부를 견제하거나, 연나부의 독주에 대해 관나부·갈사국과 혼인 관계를 맺어 견제하는 식으로 하나의 나부가 지나치게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았다.¹⁹ 그와 동시에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에 주력함으로써 독자적인 운동성을 가진 정치 세력들을 분해해나갔다. 계루부 왕권의 성립 이후 중앙 정부에서는 나부 안으로 지배권을 침투시켜 반독자적인 정치 집단들을 없애고 모든 주민들을 직접 지배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나부의 대가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왕 측은 점차 강화되었고 나부의 독자성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어 갔다.

중앙 정부가 나부의 독자성을 어떻게 감소시켜 갔는지 잘 보여주는 예로 비류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나오는 비류부는 주몽이 압록강 중류 유역으로 오기 이전에 이 지역에 결성되어 있던 연맹체의 맹주국으로 『삼국지』에 소노부(消奴部)로 기록되어 있는 정치 세력이다.²⁰ 비류부는 동명왕(東明王) 2년에 주몽(朱蒙)에게 항복함으로써 맹주국의 자리를 계루부에 넘겨주고 다물도(多勿都)로 편제되었다.²¹ 그렇지만 다물국(多勿國)이란 이름으로도 나오고 송양왕(松讓王)이 주(主)로 봉해진 것으로 보아 이후에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² 송양왕은 주몽에게 복속되어 신하가 되었지만 자신이 지배하던 옛 땅을 계속 통치할 수 있었고, 그 딸은 유리왕의 왕비가 되어 대무신왕을 낳았다. 고구려국 안에서 비류부의 위상은 여전히 높았던 것이다.²³

18) 『삼국사기』 권14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15년 3월.

19) 김현숙(1994), 「高句麗의 解氏王과 高氏王」, 『大丘史學』 47.

20) 『후한서』 권85동이열전 고구려조에는 '연노부(涓奴部)'로 나온다.

21)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동명성왕 즉위년, 같은 왕 2년 6월.

22)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동명성왕 2년 6월; 권14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즉위년.

23)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유리왕 2년 7월; 권14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즉위년.

15) 금경숙(1995), 「고구려 전기의 지방통치 고찰」, 『사학연구』 50, 한국사학회; 금경숙(2004), 『高句麗 前期 政治史 研究』, 高大民族文化研究院, 120~122쪽.

16) 『삼국사기』 권14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5년 추 7월·15년 춘 3월.

17) 『삼국사기』 권16 고구려본기 고국천왕 12년 9월, 같은 왕 13년 4월.

그런데 대무신왕 대에 이르러 나부로 편제되면서 이전보다 왕권의 제재를 더 많이 받게 되었다. 대무신왕 15년에는 패악을 부린 비류부장들을 서인으로 삼고, 추발소를 새로 부장으로 삼는 등 비류나부 내부의 정치 집단들을 상호 조정하여 국왕에게 충성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비류나부 출신의 귀족들은 중앙 관인(中央官人)이 되어 고구려 전체의 정치 운영에 참여했다.²⁴ 3세기 중엽까지도 그 대인(大人)은 고추가(古鄒加)를 칭하며 독자적으로 종묘를 세우고 영성사직(靈星社稷)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또 고국천왕 사후 일어난 왕위 계승 분쟁에서 산상왕에 대항해 일어난 발기(拔奇)의 배후 세력으로 기능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 세력을 유지했다.²⁵ 하지만 계루부 왕권의 지속적인 제재와 견제로 인해 신흥 세력이자 왕권과 밀접하게 결탁된 연나부에 비해 중앙 정부에서의 활약은 뒤졌으며, 발기가 패한 이후 더욱 세력이 약해졌다.²⁶

비류부는 이처럼 독립 소국에서 다물도(多勿都)로, 다시 비류나부(沸流那部)로, 그리고 지방 통치 단위로 분해되는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상위지는 비류국왕(沸流國王)에서 제후적인 존재로, 다시 나부의 부장으로, 중앙 귀족으로 변화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국왕 아래 관료적인 성격의 귀족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비류부의 위상과 성격 변화는 나부의 변천 과정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각 나부의 세력 정도와 성격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모든 나부가 이런 단계를 순서 그대로 밟아가지는 않았다. 또 이런 변화가 모든 나부에서 동시에 일어나지도 않았다. 각 집단의 상태에 맞게 다양한 지배 방식들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의 기본 방향은 비류부가 걸었던 길과 같았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3세기 후반에는 나부 자체의 폐쇄성과 독자성이 소멸되었으며, 각 나부들은 곡(谷)과 촌(村)으로 분해되어 지방 통치 단위로 편제되었다.²⁷ 그리고 이곳에는 국왕의 명령을 대행하는 지방관이 파견되어 직접 통치를 수행했다. 미천왕(美川王)이 즉위 전에 비류수 유역에서 신분을 숨기고 수실촌(水室村)의 부호 음모(陰牟)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거나, 소금 장수를 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²⁸은 나부의 배타성과 폐쇄성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나부가 개별적인 지역 단위로 분해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24)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 차대왕 2년 10월.

25)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고구려.

26)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고구려.

27) 林起煥(1987), 「고구려 초기의 지방통치체제」, 『朴性鳳教授回甲紀念論叢慶熙史學』 14, 32~44쪽.

28)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 미천왕 즉위년.

2) 집단 예민에 대한 지배 방식

3세기 말까지는 집단 예민에 대해서도 5나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간접 지배를 실시했다. 원래의 지역 질서를 해체하지 않고 재지(在地) 수장을 통해 간접 통치를 하되 중앙 정부에 공납(貢納)을 바치게 했다. 지역 내부의 정치는 수장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 탈을 방지하기 위해 국왕이 순수(巡狩)를 하거나²⁹ 감찰관을 파견하여 감시했다.³⁰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복속민 지배의 전형적인 예로 동옥저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 방식을 들고 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동옥저조에 의하면 고구려는 동옥저를 복속한 후 그 대인(大人)을 고구려의 사자(使者)로 삼아 읍락을 다스리게 했다. 재지 세력을 활용하여 복속민 지역을 간접 지배하는 이 방식은 신라와 백제에서도 확인된다.³¹ 따라서 중앙 집권적 고대국가 체제가 확립되기 이전 단계에 실시된 가장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복속민 지배 방식이라고 여겨져 왔다.³²

이런 형태의 지배가 복속민 통치 방식으로 많이 사용된 것은 분명하다³³ 하지만 모든 복속민에게 동일한 내용의 지배 방식을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었다. 복속 집단의 세력 크기와 중요도, 고구려에 편입될 때의 양상, 사회 경제적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다.

먼저 동옥저의 경우를 보면, 대인 즉 동옥저의 유력자 다수를 고구려의 사자로 삼아 서로 견제하면서 옥저민을 다스리게 했다. 재지 수장에게 전권을 주고 공납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이제이책(以夷制夷策)을 씀으로써 동옥저인들이 힘을 합쳐 고구려에 반기를 들거나, 공납 상납을 게을리 하지 못하도록 조처를 취했던 것이다.³⁴ 『삼국지』의 기사에 따르면 고구려는 또 중앙의 대가에게 조세와 공물 수취를 책임지게 했다. 이때의 대가는 계루부뿐 아니라 다른 나부의 대가도 해당되었다. 동옥저는 큰 정치 세력이었기 때문에 계루부의 병력만으로 정복할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동옥저 정복전에는 다른 나부의 병력도 동원되었고, 그 대

29) 金瑛河(1985), 「高句麗의 巡狩制」, 『歷史學報』 106, 역사학회, 61~65쪽; 金瑛河(2001), 「三國時代 領域 統制와 管理」, 『한국고대사회의 군사와 정치』, 高麗大民族文化研究院.

30) 金賢淑(1996); 김현숙(2005), 136쪽.

31) 朱甫墩(1998), 『新羅 地方統治體제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32) 여호규(1996), 「지방·군사제도」,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170쪽.

33) 琴京淑(2004), 190쪽.

34) 김현숙(2005), 132~135쪽.

가로 다른 나부에서도 공물 수취권을 가져갔던 것 같다. 즉 동옥저의 읍락 가운데 일부는 계루부에, 또 일부는 다른 나부에 공물을 바쳤던 것으로 보인다.³⁵ 이처럼 읍락별로 공납을 바친 대상이 달랐던 것은 동옥저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동옥저 지배를 안정적으로 영속화하려는 고구려의 정책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었다. 재지 수장을 통해 간접 지배한다고 해서 별다른 제재 장치나 보완 장치 없이 지역에 대한 자치권을 온전히 넘겨준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동옥저는 산골 간에 위치하고 있고 전답이 적어 힘써 농사를 지어도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었던 고구려에 농산물과 해산물 등을 공급해주었다. 동옥저와 함께 고구려의 주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어주었던 집단 예민으로 예(濊)가 있었다. 예도 한(漢) 말에 고구려에 예속되었다.³⁶ 이 지역은 일찍부터 낙랑군(樂浪郡)과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으로 문화적 수준도 상당했고, 물산도 풍부한 곳이었다. 예 지역민들은 밭농사 중심의 농업을 생산 기반으로 삼았지만 어업과 제염업도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이곳 특산물인 어피(魚皮), 반어(班魚), 반어피(班魚皮) 등은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졌다.³⁷ 『삼국지』에는 예에 대한 지배 양상이 동옥저처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동해안 지역으로부터 특산물과 미녀를 진상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에서 고구려에 공납물을 바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³⁸

집단 예민에 대한 지배 방식 가운데 재지 수장을 통한 간접 지배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다. 『삼국사기』에는 동명왕 대에 행인국(荇人國)과 북옥저 등을 처 성읍이나 군현으로 만들었다는 기사가 나온다.³⁹ 이때 성읍이나 군현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지역의 기존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전체적으로 재편하여 후대의 군(郡)이나 현(縣)과 똑같은 행정 단위로 편제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기존 지역 질서를 전혀 변경시키지 않고 간접 지배하는 것보다는 지배의 강도가 더 강했다. 이 방식은 그 주변에 있는 정치체를 정복하는 데 필요한 전략 거점 지역에 주로 적용되었다. 예컨대 행인국은 백두산의 동남쪽이므로 혼춘(琿春)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4년 뒤 북옥저를 침략한 것으로 보아 행인국 정복 이후 부분적으로 재편하여 행

35) 김현숙(1996), 54~56쪽; 김현숙(2005), 132~134쪽.

36)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예조, 같은 책 고구려조.

37) 『후한서』 권85 동이열전 예조;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예조.

38) 『삼국사기』 권14 고구려본기 민중왕 4년 9월; 권15 태조대왕 55년 10월; 권17, 동천왕 19년 3월.

39)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동명성왕 6년 10월; 권14 대무신왕 9년 10월, 10년 11월; 권15 태조대왕 4년 7월.

인국에 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옥저와 가까운 전략 요충지에 군대를 주둔시켜 북옥저에 대한 정찰과 지형 파악 등 침략을 위한 사전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개마국(蓋馬國)을 정복하자 그 인근에 있던 구다국(句荼國)이 자진 투항한 것⁴⁰으로 보아 개마국 정복도 곧 주변 소국들을 편입하기 위한 포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북옥저도 북쪽으로 읍루(挹婁), 서북쪽으로 부여, 남쪽으로 동옥저와 접해 있는 주요 지역이었다. 동옥저는 북옥저와 접해 있으므로 남옥저라고도 불리었으며, 그 남쪽에 동예가 있었다. 동옥저가 태조왕 대에 정복된 것에 비해 북옥저는 동명왕 대에 이미 복속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곳으로의 진출이 동옥저로의 그것보다 빨랐음을 보여준다. 옥저의 정복과 예속에는 경제적 목적과 정치·군사적 목적이 모두 있었을 것이나, 동옥저는 이 가운데서도 전자가 더 우선했고, 북옥저는 후자가 더 컸다. 건국 초 고구려의 최대 강적은 부여였으므로 그에 대한 견제를 위해 부여와 접하는 지역 집단을 우선적으로 장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옥저의 경우, 남쪽에 있는 동옥저 정복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의 의미도 컸다. 동옥저의 정복도 그 남쪽에 있는 동예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 기지 확보란 목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정치·군사적 전진 기지로서 비중이 큰 주요 지역에는 단순히 재지 지배층을 통한 간접 지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일정하게 재편한 후 고구려 군대를 일정 기간 주둔시켰다. 이런 지배 방식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 군사적 의미가 다른 곳보다 특히 강했던 북옥저의 중심지인 책성(柵城)을 들 수 있다. 북옥저는 남옥저로부터 800리 떨어져 있었다. 그 중심 국읍은 치구루(置溝婁), 즉 책성이었다. 관구검의 침입 시 동천왕이 남옥저를 거쳐 북옥저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를 추격하는 위군에 의해 남·북옥저의 읍락이 모두 파괴되었다. 이는 남·북옥저가 모두 상당 기간 동안 고구려의 중요한 정치·경제·군사적 기반으로 기능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魏)의 침략 후 영동(嶺東)의 정치 세력들을 후국(侯國)으로 삼아 기미 정책(羈縻政策)을 실시했을 때에도 북옥저 지역은 여전히 고구려의 예속하에 있었다.

책성 지역은 고구려 동북의 중진(重鎭)으로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비중이 대단히 큰 곳이었다. 왕이 여러 차례에 걸쳐 책성으로 순수(巡狩)를 했으며, 장기간 머물기도 했다. 한(漢)의 평주인(平州人) 하요(夏瑤) 일행을 책성에 집단 안치해 지역 개발을 도모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책성수리(柵城守吏)를 두고 지키게 했으며,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연회를 베풀기도 하는 등 정성을 기울였다. 이때 책성수리는 중앙에서 파견한 수(守)와 재지 지배층 가운데서 임명

40) 『삼국사기』 권14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9년 12월.

한 리(吏)를 지칭한다. 그렇지만 책성수가 지방관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책성수는 이 지역에 상주하는 고구려군의 장수(將帥)로서 북옥저의 재지 지배층과 그 주민의 동향을 감시하고, 인접한 미복속 소국을 정찰하며 고구려의 동북 변경을 지키는 일을 했다. 지방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한 3세기 말 이후의 태수(太守)나 재(宰)와는 성격이 달랐다. 고구려는 지역민 지배와 변경 방어를 위해 다른 전략 요충지에도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런 전략 거점 지역은 3세기 말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행정 구역으로 편제하고 지방관을 보냈다.⁴¹

정복 지역을 고구려 관인에게 식읍(食邑)으로 주어 관할케 한 것도 복속지에 대한 지배 방식의 하나였다. 식읍을 보유하게 되면 식읍주(食邑主)는 그 지역 주민과 토지에 대한 제반 관할권을 가지게 되어 식읍민들로부터 각종 물자를 수취하고 부역을 강제할 수 있었다. 이것은 나부의 대가가 자체 관인을 두고 반독자적으로 나부민을 통치했던 것과 유사하다. 반독립적인 단위 지역들을 간접 통치하는 형태로 영역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던 때였으므로, 중앙 정부 입장에서 보면 식읍 사여(賜與) 자체가 곧 영역 지배 방식의 한 유형이었다.

이런 점에서 송양(松讓)에게 비류국(沸流國)이었던 다물도(多勿都)를 계속 다스리게 한 것을 식읍의 시원(始原)으로 볼 수 있다. 식읍은 정복지나 계루부 관할 지역을 공훈에 대한 포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신이 통치하던 소국이나 나부에 대한 지배 권리를 국왕으로부터 재인정받아 그대로 보유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식읍주들의 식읍지 관리는 당시의 지방 지배 방식과 유사했다. 대체로 재지 지배층을 통해 수취를 하되 수시로 자신의 가신(家臣)을 파견해 감시·감독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식읍으로 하사하기 전에 그 지역의 지배층 일부를 제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중앙 관직을 주어 왕도(王都)로 옮겨 가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천왕대에 고구려는 충화 강(松花江) 유역에 분포해 있던 숙신을 쳤다. 고구려는 숙신의 근거지인 단로성(檀盧城)을 공략한 후 그 추장(酋長)을 죽이고 600여 가를 부여 남쪽에 있던 오천(烏川)으로 옮겼으며, 항복한 부락 6~7개소를 부용(附庸)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때 가장 공을 세운 달가(達賈)에게 식읍으로 주었다. 그 추장을 죽이고 600여 가를 부여 남쪽으로 옮긴 일차적 목적은 재지 지배층을 제거함으로써 숙신 부락을 원활하게 지배하기 위해서였다. 또 부여에 대한 방파제이자 공격 거점으로 삼기 위해 부여와의 경계 지점으로 사민(徙民)했다. 즉 달가에

41) 김현숙(1996).

게 숙신 부락에 대한 경제적 권리와 함께, 변경 방어와 복속민 관리라는 의무도 함께 부과했던 것이다.

차대왕(次大王)을 제거하고 신대왕(新大王)을 옹립한 뒤 국상(國相)이 된 명림답부(明臨答夫)도 양맥부락(梁貊部落)을 통치하는 권리를 갖게 되었고,⁴² 좌원(坐原)과 질산(質山)을 식읍으로 받았다.⁴³ 이때 명림답부가 받은 양맥부락, 좌원, 질산 등은 곧 그가 속한 연나부의 관할 지역이 되었다. 이 중 양맥은 유리왕 대에 정복된 정치 집단으로서 계루부가 집단 예민으로 관리하고 있던 타이즈허 강 유역의 정치 세력이다. 양맥은 계루부의 정치·경제·군사적 기반이 되었는데, 이후에도 집단을 온존하면서 부락별로 생활했지만, 일부 부락의 경우 공을 세운 귀족에게 식읍으로 사여되기도 했다. 달가(達賈)도 숙신부락과 함께 양맥부락에 대한 지배권과 토지에 대한 수취권을 받았다. 계루부의 집단 예민인 양맥의 여러 부락 가운데 일부에 대한 권리를 명림답부와 달가에게 포상으로 준 것이다. 이와 같이 복속지를 유공자에게 식읍으로 사여한 것은 경제적 수취권을 주는 동시에 지역 지배를 맡긴 것이므로, 식읍 사여 역시 고구려의 영역 지배 방식 가운데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집단 예민의 대표자에게 고구려 관직을 주어 지역 통치를 일임하거나,⁴⁴ 구지배자층을 제거한 후 새로운 지배자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간접 통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⁴⁵ 또 개별적으로 포로화한 경우에는 그들만으로 특수 천민 부락을 조성해 수탈하기도 했고, 노비로 만든 다음 개별적으로 귀족들에게 분여하기도 했다. 고구려에서는 직접적인 사료가 나오지 않지만, 이런 것은 다른 나라의 복속민 지배 방식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방법이므로 고구려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온 바와 같이 나부 체제하에서 고구려민에 대한 지배는 두 갈래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5나부민과 건국 이후 편입한 집단 예민과 포로 등 복속민에 대한 지배가 그것인데,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양자 모두에 대해 간접 통치를 했다. 나부민이든 복속민이든 내부의 통치는 재지 지배층이 담당하고, 그 위에 고구려 중앙 정부의 통치권이 설정되는 집단적이고 간접적인 통치가 주를 이루었다. 기존의 집단성을 해체하지 않고, 또 각 공동체의 자체 운동성을 해체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배권 설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42) 『삼국사기』 권16 고구려본기 신대왕 2년 정월.

43) 『삼국사기』 권16 고구려본기 신대왕 8년 11월.

44)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 태조대왕 16년 8월, 같은 왕 22년 10월.

45)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 태조대왕 20년 2월.

그러나 중앙 정부에서 지향한 것은 국왕에 의한 일원적이고 직접적인 지배였다. 간접 지배에서 직접 지배 체제로의 전환은 3세기 말에 이루어졌다. 영토의 확장과 내부 생산력의 발전으로 인한 공동체의 해체, 국력과 문화적 측면의 성장, 이런 여러 방면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체제 정비 등이 영역 지배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낸 동인(動因)으로 작용했다. 이런 요인들은 국왕권의 강화와 중앙 집권적 고대국가 체제의 확립을 가져왔고, 그에 따라 나부 귀족의 자율성은 점점 약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잦은 전쟁으로 인해 5나부민의 희생이 컸고, 외부에서 5나부 지역으로 유입되는 사람들도 많아 5나부의 공동체적 성격도 많이 열어지게 되었다. 또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귀족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나부의 귀족들도 기존의 자립성을 포기하는 대신 국왕의 관료적 귀족으로서 특권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 때문에 나부의 해체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3세기 말에 이르러 나부 체제가 해체되고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가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 명칭을 딴 나부들은 소멸하고, 수도 내 귀족의 거주 지역을 동·서·남·북·중의 5부로 나눈 방위명부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외의 지역은 행정 구역으로 재편한 후 국왕의 명을 대행하는 지방관을 보내 중앙 정부에서 직접 통치하게 되었다.

중앙 집권화 및 왕권 강화와 함께 국왕의 대민관(對民觀)도 변화되었고, 그와 동시에 민의 사회적 위상도 공민(公民)으로 정립되었다. 이에 따라 집단 예민도 복속민이 아닌, 지방민으로 인식되었다. 중앙에 대치되는 의미로서 지방이 진정으로 존재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물론 3세기 말은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이므로, 전체 영역을 일괄적으로 편제하거나, 모든 행정 구역에 지방관을 다 파견하지는 못했다.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부터 지방관을 보내 직접 통치를 수행하는 거점 지배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국가 발전에 따라 점차 전국을 지방 행정 구역으로 재편한 뒤 지방관을 전체적으로 파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점 지배 방식이 한계에 달하게 된 이후에는 2단계, 3단계 체제로 재정비했다. 즉 나부 체제의 해체와 더불어 명실상부한 의미의 지방 통치가 시작된 것이다.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Ⅲ 영토 확장과 대외 관계

이종욱

이 장에서는 고구려 성장 시기의 영토 확장과 대외 관계에 대하여 다룬다. 여기서 말하는 고구려의 성장 시기는 유리왕 22년(기원후 3) 고구려가 국내 천도를 한 후부터 15대 미천왕(300~331년)까지 기간을 가리킨다. 이 기간 동안 고구려는 영토 확장을 하였으며 통치 체제를 정비하여 나갔다. 그런데 고구려가 영토를 확장함에 따라 대외 관계의 대상과 양상도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고구려의 영역 확장과 대외 관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국내 천도 이전 고구려의 성장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고구려의 건국은 북부여계 이주민 집단인 주몽 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주몽 집단은 졸본(卒本: 현재의 환인)에 도읍을 하고 하나의 소국을 형성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고구려 소국 형성 시기가 기원전 37년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국 신화 속의 건국 연대일 뿐 실제 건국 시기는 그보다 훨씬 올라간다.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고구려가 900년 정도 존속했다는 기록을 통해 보면 대체로 기원전 3세기 후반 언제인가 소국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

한편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나오는 시조 동명성왕 조의 기록은 실제로는 여러 명의 왕들

1) 이종욱(2005), 『고구려의 역사』, 김영사, 56~59쪽.

이 재위한 시기인데 그것을 압축하여 한 명의 왕 대에 벌어진 일로 기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²

그 시기 이미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 있던 여러 소국들은 예맥(濊貊)이라는 하나의 소국 연맹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고구려는 예맥의 변방에 새로운 소국을 형성했던 것이다. 고구려는 송양왕이 다스리던 비류국과 같은 이웃한 소국들을 병합하기 시작했다. 고구려가 정복 활동을 전개하여 영토를 확장하며 예맥 지역의 맹주국으로 성장하여갔다. 그러한 까닭에 기원전 107년 현도군을 설치할 때 그 치소(治所)를 고구려현으로 삼았던 것이다. 고구려인들은 기원전 75년에 이르러 현도군의 치소를 몰아내고 다시 정치적 독립을 이루게 되었다.³

그 후 고구려는 예맥 소국들에 대한 정복 활동을 전개하며 그 도움을 줄본에서 국내(國內: 현재의 집안)로 옮기게 되었다. 국내 지역은 산수가 깊고 험하며 오곡을 심기에 적당하고 사슴·물고기 등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다. 또한 많은 백성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였고 나아가 병란을 면할 지세를 갖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실제로 압록강과 그 지류에 자리 잡았던 예맥 지역에서 국내로 천도함으로써 고구려는 한층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여기서 다루는 고구려 성장 시기는 300년이 넘는 기간이다. 이 시기를 하나로 시대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를 국내 천도에서 모본왕(48~53년), 태조대왕(53~145년)에서 신대왕(165~179년), 고국천왕(179~197년)에서 미천왕까지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1. 국내 천도 후 정착 시기(유리왕 22년~모본왕: 3~53년)

1) 영토 확장

유리왕 22년 고구려는 도움을 줄본에서 국내로 옮겼다. 천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국가적 정치 행위다. 천도를 하는 과정에 축성 등 토목 공사를 하고 정치 조직을 새로 편성하여 국력을 조직화하고, 그렇게 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정복 활동을 벌이게 되고, 늘어난 영토에 걸맞은 대외 관계를 전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 이종욱(2005), 115쪽.

3) 이종욱(2005), 73~79쪽.

특히 압록강 지류인 비류수(沸流水: 현재의 훈강 강[渾江]) 지역에 위치한 졸본에서 압록강 본류에 위치한 국내 지역으로 천도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고구려는 주몽 세력에 의하여 비류수 가에서 소국을 형성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며 점차 비류수 상류 지역의 여러 소국들을 부용(附庸)시키고 이어 병합하였다. 고구려는 이제 소국이 아니라 몇 개의 소국을 병합한 비교적 커다란 왕국으로 성장했다. 그러한 고구려가 압록강 본류 지역으로 천도한 것은 의미 있는 정치 행위였다. 그것은 고구려가 압록강 중상류 지역과 그 지류의 여러 정치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위치로 천도한 것이다. 또한 고구려가 직접 정복한 지역이 그만큼 크게 확대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유리왕은 국내 천도 후 태자 해명을 졸본에 남겨두어 통치하는 방식을 취했다.

국내 천도를 하였을 때 고구려는 이미 건국을 한 지 200년이 넘었고 예맥의 여러 소국인 나(那)들을 정복하여 나부(那部)로 삼은 바 있으며, 나머지 나들은 부용한 상태에 두었다.⁴

그 중 고구려가 정복한 나부에 대해 보겠다. 대무신왕 5년(22) 7월 부여 왕의 사촌 동생이 1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투항해온 일이 있다. 대무신왕은 그를 왕으로 봉하고 연나부에 안치하고 낙씨 성을 주었다.⁵ 원래 연나라는 나가 있었는데 언제인가 고구려에 정복당하여 연나부로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나부는 고구려 왕의 지배하에 있어 새로운 왕을 봉해주고 일종의 봉건제적인 지배 방식으로 통치했던 것이다. 이 시기 고구려가 정복하여 지배하고 있던 나부 모두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연나부 외에 비류나부·관나부·환나부 등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고구려가 예맥 지역의 소국들을 지속적으로 정복하였다는 것이다. 대무신왕 9년(26) 10월 왕이 친히 개마국을 쳐서 그 왕을 죽이고 백성을 위안시키고 그 땅을 군현으로 삼았다고 한다. 같은 해 12월에는 구다국 왕이 개마국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자기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항복했다. 이로써 고구려는 땅을 점점 넓게 개척해갔다고 한다.⁶

2) 대외 관계

국내 천도 후 고구려의 대외 관계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었다. 고구려가 영토를 확장

4) 이종욱(2005), 52~151쪽.

5) 『三國史記』 卷2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5年.

6) 『삼국사기』 권2 고구려본기2 대무신왕 9년.

하여감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진 것이 그 한 이유다. 또한 고구려가 상대한 세력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또 다른 대외 관계가 맺어졌다. 여기서는 황룡국과 부여, 중국 본국과 중국 군현 그리고 흉노·선비 등과의 관계를 보겠다.

우선 예맥 지역의 독립 소국들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 고구려가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나로는 조나(藻那)·주나(朱那) 등이 있었다. 주나와 조나와 같은 나(那)들은 원래 소국연맹이었던 예맥의 소국들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같은 짐작이 가능하다면 그들 나는 이제 고구려를 맹주국으로 하는 소국연맹체의 일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맥 지역에는 또 다른 독립 소국들이 있었다. 압록곡(鴨綠谷)에 위치하고 있던 해두국(海頭國)이 그 예다. 해두국이 언제 형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대무신왕 5년(22) 4월 부여 왕 대소의 동생이 종자 100여 명을 거느리고 압록곡에 이르러 사냥하고 있던 해두국 왕을 죽이고 그 백성을 빼앗아 갈사수(曷思水) 가에 이르러 입국 칭왕(立國稱王)했다.⁷ 예맥 지역에 또 하나의 소국이 존재한 것을 보여준다. 소국은 태조대왕 16년(68) 8월 갈사왕의 손자가 고구려에 항복할 때까지 갈사국과 고구려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궁금하다. 갈사국도 고구려를 맹주국으로 하는 연맹체의 일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단정은 피하고자 한다.

그런가 하면 황룡국(黃龍國)과의 관계는 또 다른 예에 속한다. 황룡국이 단순한 독립 소국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졸본의 북쪽 어디인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다고 여겨지는 황룡국은 하나의 소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리왕 27년(8) 정월 황룡국 왕은 고구려 태자 해명(解明)이 힘이 세고 무용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사신에게 강궁을 보냈다. 태자는 사신이 보는 앞에서 그 활을 꺾으며 내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활 자체가 굳세지 못한 것이라 했다. 이 말을 들은 황룡국 왕이 노했고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 해명은 이듬해에 창에 찔려 죽었다.⁸ 황룡국이 예맥 지역의 소국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황룡국은 고구려로서도 쉽게 정복할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웃한 소국 황룡국과의 대외 관계가 깨지는 것은 고구려로서도 부담이 되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고구려가 갖은 대외 관계의 실상을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부여와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유리왕 28년(9) 8월 부여 왕 대소가 사신을 보내 왕을 책망했다. 그는 이소사대(以小事大)를 원했다. 즉 소국인 고구려가 대국인 부여를 섬긴다

면 나라의 운명이 오래갈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직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라 했다. 유리왕은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되어 치욕을 참고 후일을 기약하기 위해 군신과 의논하여 그 명을 따르기로 했다. 이 무렵 고구려는 부여와 당장 맞서기는 어려웠으나, 고구려의 국력은 시간이 지나며 커졌다. 대무신왕 5년(22) 2월 왕이 군대를 부여의 남쪽으로 보내 쳐들어갔다. 이에 부여 왕이 출전했는데 고구려인 괴유가 부여 왕을 잡아 머리를 베었다. 그러나 고구려군은 부여군에 포위되었다 어렵게 탈출하여 귀환했다. 이 전쟁에서 고구려는 부여를 정복하지는 못했으나 부여의 분열을 불러온 것은 사실이다.

이 시기 영역과 인민이 늘어난 고구려는 필연적으로 중국과도 관계를 가졌다. 유리왕 3년(기원전 17) 왕비가 죽자 두 명의 계실을 두었는데 그 중 한 명은 한인(漢人)의 딸 치희였다. 중국인 여자와의 혼인은 중국 문명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유리왕 31년(12) 중국 신(新)나라의 왕망이 고구려의 군사를 강제로 동원하여 흉노를 정벌하려 한 일이 있다. 고구려인들이 도망하자 요서대운에게 이를 추격하게 하였는데, 그가 살해당하자 한나라 군현에서는 그 책임을 고구려에 돌렸다. 왕망은 엄우에게 고구려를 치게 하였고 엄우는 고구려 장군을 유인하여 목을 베어 장안에 보냈다. 왕망은 기뻐하여 고구려 왕을 하구려(下句麗) 후(侯)라 하고 천하에 포고했는데 이후 한나라의 고구려 변방 침구(侵寇)가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이 무렵 고구려의 국력이 신장된 것을 알 수 있다. 유리왕 33년(14) 8월 오이와 마리에게 2만 명의 병력을 주어 양맥을 치게 하고 진군하여 한나라 현도군을 습취한 일이 있다.

중국의 신나라가 망한 후 고구려는 요동군과 경계를 접하였다. 대무신왕 11년(28) 7월 한나라의 요동 태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쳐들어왔다. 왕은 위나암성에 들어가 수십 일을 버틴 후 편지를 보내어 중국 군대가 물러나도록 했다. 요동 태수로서는 고구려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대무신왕 15년(32) 12월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자 광무제가 왕호를 다시 쓰도록 했다. 이 무렵 고구려는 중국 조정과 외교 관계를 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현도군과 책구루 체제(曷溝婁體制)를 유지한 것을 볼 수 있다.⁹ 『삼국지(三國志)』 고구려조에 한나라 때 고구려에 북 치고 피리 부는 악공을 내렸는데 항상 현도군에 나아가 조복(朝服)과 의책(衣幘)을 받았는데 고구려현의 현령이 그 명단과 장부를 관장했다고 나온다.¹⁰

7) 『삼국사기』 권2 고구려본기2 대무신왕 5년.

8) 『삼국사기』 권1 고구려본기1 유리왕 28년, 29년.

9) 이종욱(2005), 161~162쪽.

10) 『삼국사기』 권14 고구려본기2 대무신왕 20년.

후에 고구려가 교만하고 방자해져 다시는 현도군에 가지 않았기에 현도군의 동쪽 경계에 소성을 쌓고 조복과 의책을 그 안에 두면 고구려인들이 1년 중 때때로 와서 그것을 가져갔다고 한다. 후에 오랑캐들이 그 성을 책구루라고 불렀다고 한다. 고구려인들이 중국인의 조복과 의책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온 것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책구루라고 하는 성을 거점으로 하는 원거리 교역이 한나라와 고구려 사이에 벌어진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하나의 특이한 교역 체제로 필자는 이를 책구루 체제라 부르는 것이다. 책구루 체제를 유지할 당시 고구려는 한나라와의 원거리 교역에 목을 매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렇더라도 이를 통하여 중국 문물을 수입한 것도 사실이다.

고구려는 낙랑과도 관계를 가졌다. 대무신왕 20년(37) 왕이 낙랑을 습격하여 멸한 것으로 나온다. 이때 고구려는 낙랑군의 속현을 정복한 것일 수 있고, 낙랑의 치소(治所)를 습격한 것일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무렵 낙랑군은 중국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다. 대무신왕 27년(44) 9월 한나라 광무제가 군대를 보내 바다를 건너 낙랑을 쳐서 빼앗고 군·현으로 삼았으며 이로써 살수 이남이 한나라에 속했다고 한다.¹¹ 모본왕 2년(49) 고구려는 장수를 보내 한나라의 우북평·어양·상곡·태원 지역을 침략했는데 요동 태수 채용과 다시 화친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실제로 고구려가 현재 베이징[北京] 지역까지 쳐들어갔을 수 있다. 고구려의 국력이 커진 것이다.

2. 정복 왕국으로 성장 시기(태조대왕~신대왕: 53~179년)

1) 영토 확장

고구려는 태조대왕 대에도 소국들을 병합하여 영역과 인민을 늘렸다. 주몽이 소국을 세운 후부터 예맥의 나(那)들을 병합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나들을 모두 정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새로 세워진 소국들을 병합하는 것도 볼 수 있다. 태조대왕 16년(68) 갈사왕의 손자 도두가 항복해오자 그를 우태(優臺)로 삼았다.¹² 태조대왕 20년 2월에는 관나부 패자 달

11) 『삼국사기』 권14 고구려본기2 대무신왕 27년.

12)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태조대왕 16년.

고를 보내 조나를 쳐서 그 왕을 사로잡았다.¹³ 태조대왕 22년(74) 10월에 왕은 환나부 패자 설유를 보내 주나를 쳐서 그 왕자 을음을 사로잡아 고추가(古鄒加)로 삼았다.¹⁴

일찍부터 고구려는 정복한 나(那)나 소국의 지배 세력들을 중앙 정계에 등용하였다. 또한 고구려에 병합된 나를 나부(那部)로 삼고 그 지배 세력들이 나부를 그대로 지배하는 제후적인 존재로 편제하였다. 고구려는 왕국 통치에 일종의 봉건제적인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예맥 지역의 나와 소국들을 병합한 고구려는 국력이 크게 성장되었다. 그 결과 태조대왕 대의 고구려는 나와 소국을 병합하는 동시에 보다 커다란 정치 세력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여 나갔다.

우선 동쪽의 영토 확장을 볼 수 있다. 태조대왕 4년(56) 7월 동옥저를 쳐서 그 토지를 빼앗고 성읍으로 삼았다. 이로써 고구려는 동으로 창해(滄海, 동해)까지 경계를 넓혔다.¹⁵ 동옥저 지역에는 기원전 108년 임둔군(臨屯郡)이 설치되었다가 기원전 82년에 폐지되고 한나라 동부도위가 설치됐다. 기원후 30년 동부도위(東部都尉)가 폐지되고, 현 중의 거수(巨帥)들이 현후로 되며 한나라에 대하여 현국이 된 상태였다. 옥저는 나라가 적고 궁박하였는데 이때 고구려에 신속(臣屬)한 것이었다. 고구려는 그 안의 대인(大人)을 사자(使者)로 삼아 다스리게 했고, 대가(大加)로 하여 조부(調賦)를 통책(統責)케 하여 맥포·어(魚)·염(鹽) 등 해중 식물(食物)과 미녀를 바치게 했다.¹⁶ 고구려는 동옥저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 지배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 시기 고구려는 예를 신속하고 있었다.

고구려는 서쪽으로도 경계를 넓혔다. 태조대왕 3년(55) 2월 요서에 10성을 쌓아 한나라의 군사를 방비한 바 있다.¹⁷ 이 요서가 랴오허 강(遼河)의 서쪽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태조대왕 53년(105) 한나라의 요동을 공격하였고, 66년(118) 6월에는 현도군의 화려성을 공격한 일이 있다. 이로써 고구려의 서쪽은 요동군·현도군과 경계를 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고구려의 서쪽이며 한나라 서안평현의 북쪽에는 소수가 있었는데, 그곳에 구려의 별종이 나라를 세워 소수맥(小水貊)이라 했다고 한다.¹⁸ 이 소수맥은 예맥의 별파

13)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태조대왕 20년.

14)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태조대왕 22년.

15)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태조대왕 4년.

16)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東沃沮.

17)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태조대왕 3년.

18)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고구려.

였다.¹⁹ 압록강 중상류 지역 밖에 또 다른 지역 즉 소수 지역에 예맥과 같은 종족이 나라를 세웠었는데, 태조대왕 때에는 고구려가 그와 같은 소수맥을 정복한 후였다.

이 시기 고구려는 북쪽으로 부여와 경계를 접하고 있었다. 한편 남쪽은 살수(현재의 청천강)를 경계로 하였다. 이 경계는 대무신왕 27년(44) 후한 광무제가 군대를 보내 살수까지 낙랑군으로 편입시켰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 고구려는 남쪽으로 낙랑군의 현들을 정복하여 나갔다. 그 결과 고구려의 남쪽 경계는 점차 남쪽으로 내려간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확대된 고구려의 영역 안에는 고구려·예맥·말갈족 등이 살았다. 고구려의 정복 활동과 영역 확장은 고구려를 다종족 국가로 만들었다.

2) 대외 관계

영토를 크게 확장한 이 시기(53~179년) 고구려의 대외 관계는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우선 북쪽으로 부여와의 관계를 볼 수 있다. 77년 10월과 105년 정월 부여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선물을 보내왔다. 태조대왕 69년(121)까지는 고구려와 부여 사이에 친선 관계가 유지되었다. 태조대왕의 어머니는 부여인이었다. 태조대왕은 일곱 살에 즉위하였기에 태후가 섭정을 했다. 121년 10월 왕이 부여에 가서 태후 묘에 제사를 지낸 일이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고구려와 부여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다.

121년 12월부터 두 나라 사이에 적대 관계가 시작되었다. 고구려가 현도성을 공격하였을 때 부여 왕이 아들 위구태에게 2만의 병력을 주어 한나라 군대와 힘을 합해 고구려군을 공격하여 고구려군이 크게 패한 바 있다. 그 이듬해에 태조대왕이 요동을 쳐들어가자 부여 왕이 다시 군대를 보내 요동을 도와주어 고구려군이 패한 일이 있다. 고구려와 부여 사이에 관계가 벌어진 이유를 알 수는 없다. 그런데 121년 10월 태조대왕이 부여에 행차하였을 때 속신의 사신을 만나 잔치를 베풀어준 일이 있다. 어쩌면 고구려 왕과 속신의 사신이 만난 일이 두 나라의 사이를 벌여지게 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고구려와 한나라 군현들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 고구려의 영토 확장과 정치적 성장은 필연적으로 한나라 군현들과 충돌을 불러왔다. 태조대왕 53년(105) 왕은 장군을 보내

한나라 요동의 6개 현을 약탈했으나 요동 태수에게 패했다. 118년 6월에는 예맥과 함께 한나라 현도군을 쳐들어와 화려성을 공격했다. 121년 봄에는 한나라의 유주 자사·요동 태수·현도 태수가 고구려를 공격해왔다. 고구려는 이 전쟁에서 요동군과 현도군을 쳐서 성곽을 불사르고 2,000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그 해 4월에 왕은 선비 군사 8,000명과 함께 요대현을 공격하고 요동 태수를 죽였다. 121년 12월 고구려가 현도성을 포위하고 이듬해에 요동을 쳐들어갔는데 부여가 한나라 군현을 도와주어 고구려군이 패했다.

태조대왕 94년(146)에는 왕이 장수를 보내 요동군의 서안평현을 습격하여 대방령을 죽이고 낙랑 태수의 처자를 잡아왔다. 고구려가 서안평현을 공격한 것은 한나라와 낙랑군 사이의 교통로를 차단한 것을 뜻한다. 그 후 낙랑군은 점차 쇠퇴하여 갔다.

고구려와 한나라 현도군과의 군사적 충돌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신대왕 4년(168) 현도 태수가 고구려에 쳐들어와 고구려인 수백 명을 죽였다. 이에 신대왕은 현도군에 결속(乞屬)을 청했다. 신대왕 8년(172) 11월 한나라의 대병이 고구려에 쳐들어왔을 때, 왕은 재상 명림답부(明臨答夫)의 계책을 따라 한나라 군대에 대승을 거두었다.

여기서 고구려와 한나라 군현과의 내속(內屬) 관계를 보겠다.²⁰ 태조대왕 59년(111) 고구려는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치고 현도에 속하기를 구했다. 그런데 『삼국지』 고구려 조를 보면 고구려는 요동군(遼東郡)에 속했다가 현도군(玄菟郡)에 속하고 다시 요동군에 속하였다가 현도군에 속한 것을 볼 수 있다. 부여는 본래 현도군에 속했다가 후일 후한 때에는 요동군에 속하였다. 한(韓)은 낙랑에 속했다. 이러한 속(屬) 관계는 신속(臣屬) 관계와 다른 것이다. 신속 관계는 조부를 징수하고 병력을 징발하는 속국 체제로 넘어간 것이지만, 속 관계는 독립국으로 한나라의 군현과 관계를 맺은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속 관계를 통하여 한나라가 고구려에 바랐던 것은 향화지심(尙化之心)과 한 군현과의 전투 중지였다. 고구려는 속 관계를 통하여 한나라와 교역의 창구 등을 열었던 것이다.

한편 고구려와 한나라의 관계 최일선에는 현도군·요동군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유주(幽州)가 있고 그 뒤에는 다시 한나라 황제가 있었다. 고구려는 한나라 본국과도 관계를 가졌다. 태조대왕 57년(109) 정월 사신을 보내 한나라 안제(安帝)의 원복(元服) 착용을 축하했다.²¹ 태조대왕 72년(124) 10월에도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²² 이 시기 고구려는 한나라의 군현

20) 이종욱(2005), 212~216쪽.

21)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태조대왕 57년.

22)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태조대왕 72년.

19) 이종욱(2005), 192쪽.

만 상대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 본국과도 관계를 가진 것을 볼 수 있다.

고구려는 선비와도 관계를 가졌다. 태조대왕 69년(121) 4월 왕이 선비의 군사 8,000명과 함께 요대현(遼隊縣)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 일이 있다. 당시 선비는 한나라 동북 지역에서 한나라를 위협하던 세력이었다. 고구려는 그러한 선비와 동맹을 맺어 한나라를 공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3. 왕권 강화와 국제 관계 활성화(고국천왕~미천왕:179~331년)

1) 영토 확장

고구려인들은 성질이 흥하고 급하며 노략질을 좋아했다고 한다. 이는 고구려인들이 중국의 군현을 빼앗거나 약탈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고구려인들에게 정복 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 행위였던 것이다.

이 시기 고구려는 낙랑군(樂浪郡)과 대방군(帶方郡)을 장악하였다. 사실 고구려가 낙랑군의 현들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은 그 이전이었다. 기원후 30년 동부도위를 폐지하였을 때 낙랑군의 속현은 18개였다. 그런데 3세기 초 대방군이 설치되었다. 중국 진나라 때(265~316년) 대방군에는 7개현 4,900호, 낙랑군에는 6개현 3,700호가 있었다. 그 사이에 5개현이 사라진 것이다. 그와 같은 현들은 북쪽에서는 고구려가 장악했고 남쪽에서는 백제가 장악했다. 백제 분서왕 7년(304) 2월 군사를 몰래 보내 낙랑의 서쪽 현을 빼앗은 것이 그것이다.

한반도에 설치되었던 낙랑군과 대방군은 중국 본국의 지원을 받아 유지되었다. 285년에는 조양 지역에 선비 모용외가 정권을 장악하고 요동 지역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302~435년까지 5호 16국시대가 되었다. 진나라는 316년에 망했다. 이 시기 낙랑군과 대방군은 중국으로부터 통제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는 결국 낙랑군과 대방군의 소멸로 이어졌다.

미천왕 12년(311) 8월 왕은 장수를 보내 요동의 서안평(西安平)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서안평은 요동군의 속현 중의 하나였다. 서안평을 장악함으로써 낙랑군과 대방군은 중국과의 교통로를 차단당하였다. 미천왕 14년(313) 10월 고구려는 낙랑군에 쳐들어가 남녀 2,000여 명

을 포로로 잡아왔다.²³ 그리고 미천왕 15년(314) 9월 남쪽으로 대방군을 침공하였다.²⁴ 이로써 낙랑군과 대방군은 소멸되었다. 그런데 낙랑군과 대방군 지역에는 중국 문명을 익힌 중국계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고구려의 중국화에 도움이 되었다.

고구려는 속신의 일부 지역을 부용(附庸)으로 삼기도 했다. 고구려 동북쪽 지역에 속신족들이 있었다. 서천왕 11년(28) 10월 속신이 고구려 변방을 침입하여 백성들을 죽인 일이 벌어졌다. 왕이 속신을 물리칠 계책을 물으니 군신들이 왕의 동생 달고를 천거했다. 왕이 달고를 보내 속신을 치게 했다. 달고는 속신을 갑자기 습격하여 단로성을 빼앗고 추장을 죽이고 600여 호를 부여의 남쪽 지역으로 옮기고 6~7개 부락의 항복을 받아 부용으로 삼았다.²⁵ 당시 고구려가 속신 전부를 장악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고구려와 속신의 경계 지역에 있는 몇 개의 마을을 부용으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시기 고구려는 신라와 경계를 다투기도 했다. 동천왕 19년(245) 10월 군사를 내어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범한 일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라 북변은 동해안 지역일 수밖에 없다. 신라는 아직 진한 지역의 소국을 모두 정복한 것도 아니고 소백산맥 북쪽으로 진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 대외 관계

이 시기 중국의 정치적 변동에 따라 고구려의 대중국 관계의 대상이 달라졌다. 후한(25~220년), 공손씨 세력(189~238년), 오나라(222~280년), 위나라(220~265년), 진나라(265~316년) 그리고 선비 모용씨와의 관계가 전개되었다.

그 중에는 아직 망하지 않았던 시기 후한과의 관계를 먼저 볼 수 있다. 고국천왕 6년(184) 요동 태수가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에 쳐들어왔다. 왕은 태자 계수에게 막게 했으나 이기지 못했다. 이에 왕이 직접 정예 기병을 거느리고 나가 좌원에서 전투를 벌여 이겼다. 그때 벤머리가 산처럼 쌓였다고 한다.²⁶

이 시기 고구려 또한 요동 지역과 관계를 피할 수 없었다. 요동 지역에 자립하였던 공손씨

23)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미천왕 14년.

24)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미천왕 15년.

25)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서천왕 11년.

26) 『삼국사기』 권16 고구려본기4 고국천왕 6년.

세력과 관계가 있었다. 189년 후한의 정권을 장악하였던 동탁이 전횡을 하게 되자 각지의 군벌들이 나타났다. 그때 동탁은 현도군의 관리로 있던 선비족 공손탁을 요동 태수로 임명하였다.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공손탁은 자립하여 그 세력을 키워 요동과 요서 그리고 바다 건너 산둥 반도(山東半島) 동래군의 여러 현을 뺏기도 했다. 공손씨는 그 후손인 공손강과 공손연을 거치며 238년까지 요동 지방에서 군벌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공손씨와 고구려는 관계를 가졌다. 그 중 산상왕의 형 발기는 형으로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자 197년 공손탁에게 가서 군사를 빌려 고구려로 쳐들어온 일이 있다. 공손탁이 발기의 청을 들어 주어 군대를 내주었다. 고구려를 침공한 발기를 막기 위해 산상왕은 막내 동생 계수를 보냈다. 결국 발기는 계수의 꾸지람을 듣고 자살하였다. 그 때문에 공손탁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장악하지는 못했다.

한편 후한이 망한 후 중국에는 위(魏)·오(吳)·촉(蜀)의 삼국시대가 전개되었다. 당시 고구려는 위나라·오나라와 관계를 가졌다. 당시 위나라는 그 영역이 가장 컸고, 위나라의 유주는 랴오둥 반도(遼東半島)와 낙랑군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먼저 고구려와 위나라의 관계를 볼 수 있다. 고구려에 먼저 화친을 청한 것은 위나라였다. 동천왕 8년(234) 위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와 화친을 청한 것이 그것이다. 동천왕 10년(236) 2월 오왕 손권이 사신 호위를 보내 서로 화친하기를 청했다. 동천왕은 그 사신을 잡아두었다가 가을 7월에 머리를 베어 위나라에 보냈다. 이듬해인 237년에는 고구려가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연호를 고친 것을 하례했는데 그 해가 경초 원년이었다.

238년에는 위나라 태부 사마선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공손연을 토벌하므로 동천왕이 주부와 대가를 보내 군사 1,000명으로 위나라를 돕게 했다. 공손연은 공손탁의 아들이었다. 이러한 공손연이 오나라의 번국(藩國)임을 칭하자 손권은 사신을 요동에 보내 공손연을 연왕으로 삼았다. 그때 공손연은 손권이 보낸 사신들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위나라에 보낸 일도 있다. 그러한 공손연은 하나의 군벌로 고구려에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

위나라는 238년 공손연 세력을 제거하고 요동 지역을 장악했으며 낙랑군과 대방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로써 고구려와 위나라가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동천왕 16년(242) 왕이 장군을 보내 요동의 서안평을 엄습하여 부셨다.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서안평을 고구려가 장악하게 되면 위나라는 낙랑군과 대방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진다. 이에 위나라는 고구려에 대한 침공을 하게 되었다.

동천왕 20년(246) 8월 위나라는 유주 자사 관구검(毌丘儉)을 보내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현도군을 거쳐 침입하였다. 이내 동천왕은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비류수 상류에서 맞아 싸워 이를 물리치고 3,0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또 군사를 이끌고 다시 양맥곡에서 싸워 위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3,000여 명을 참획하였다. 이때 왕은 여러 장수들에게 말하기를 “위나라의 대병은 오히려 우리의 소병보다 못하다. 관구검이라는 자는 위나라의 명장이지만 오늘 그의 목숨은 우리 손 안에 있지 않은가?” 했다.

곧 철기군 5,000명을 이끌고 나아가 그들을 치자, 관구검은 방형의 진을 치고 결사적으로 싸웠다. 이에 고구려군은 크게 패하여 죽은 자가 1만 8,000명이나 되었다. 왕은 1,000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압록원으로 도망하였다.

겨울 10월에 관구검은 환도성을 함락시켜 도륙을 하고 장군 왕기를 보내 동천왕을 추격케 하였다. 왕은 남옥저로 도망하여 죽령에 이르렀는데 군사들이 분산되어 거의 없어지고 오직 동부 밀우 혼자 옆에 있다가 왕에게 지금 추격병이 심히 급박하여 형세가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으니 자신이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하며 왕에게 도망하라고 말했다. 그는 결사대를 모집해 적진으로 나아가 힘써 싸웠다. 왕은 셋길로 탈출하여 가다가 산골짜기에 의지하여 흩어진 군사를 모아 자신을 지키며 말하기를 만약 밀우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후한 상을 내릴 것이라 했다. 하부 유옥구가 왕에게 나아가 자기가 찾겠다고 했다. 마침내 전쟁터에 나아가 땅에 쓰러져 있는 밀우를 업고 돌아왔다. 왕은 밀우를 무릎에 눕혔더니 한참 만에 깨어났다.

왕은 셋길을 이리저리 헤쳐 남옥저에 이르렀으나 위나라의 군대가 계속 추격해왔다. 그때 동부 유능이 계책을 말하자 왕은 그것을 승낙했다. 유능은 위나라 진영에 가서 왕이 항복할 것이라 하며 먼저 자기를 보냈다 하고 물건을 드려 시종하는 사람에게 대접하겠다고 했다. 위나라 장군이 그 말을 믿었는데 유능은 식기에 감추었던 칼을 꺼내 위나라 장군의 가슴을 찌르고 그와 함께 죽었다. 이에 위나라 군대가 어지러워지자 왕은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급히 쳤다. 위나라 군대는 물러났다. 이 전쟁에서 위나라 장군은 숙신 남쪽 경계에 이르러 돌에 공을 새겨 기록하고 또 환도산에 이르러 불내성에 공을 새기고 돌아갔다.

동천왕의 신하 득래는 왕이 중국을 침략하여 배반하는 것을 보고 여러 차례 간했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이에 득래는 이 땅에 쑥대가 나는 것을 머지않아 보게 될 것이라 했다. 득래는 마침내 먹지 않고 죽었다. 관구검은 모든 군대에 명하여 득래의 묘를 헐지 못하게 하고 묘의 나무도 베지 못하게 하며 사로잡았던 그의 처자들을 모두 풀어주게 했다.

동천왕 20년에 있었던 위나라의 침략은 위력적인 것이었다. 물론 위나라가 고구려를 정복하여 직접 지배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고구려는 위기를 맞았던 것이다. 동천왕은 파괴된 환도

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평양성(국내성)을 쌓아 백성들과 묘사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진(晉)나라(265~316년)와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진나라는 265년 12월 위나라 원제가 사마염에게 선위하여 선 나라다. 진나라는 위나라에 이어 낙랑군·대방군을 통제했다. 미천왕 3년(302) 9월 왕이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현도군에 쳐들어가 8,000여 명의 포로를 잡아 평양으로 끌고 갔다. 미천왕 16년(315) 2월에는 현도성을 공파하여 죽이고 사로잡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고구려로서는 선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현도군을 제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고구려와 선비족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요동군과 요서군의 북쪽에 선비족이 있었다. 그들 선비족 모용씨 세력은 점차 커졌다. 285년 모용선비의 추장 모용외가 요서 지역을 공격하자 부여 왕 의려가 자살하는 일이 있었다. 모용외는 부여의 수도를 파괴하고 1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때 부여 왕가의 일부가 옥저로 도망하여 동부여가 섰다고 할 정도다.

선비족 모용외가 고구려를 침공한 것은 봉상왕 2년(293) 8월이었다. 봉상왕은 신성으로 가서 적을 피하려고 나아가 곡림에 이르렀다. 모용외가 봉상왕이 나온 것을 알고 병사를 이끌고 추격하여 거의 미치게 되자 왕은 두려워했다. 그때 신성 태수 북부 소형 고노자가 기병 500명을 이끌고 왕을 맞으러 나가다가 적을 만나 그들을 물리쳤다. 모용외의 군대가 패하여 돌아가자 왕이 기뻐하여 고노자에게 작(爵)을 더하여 대형(大兄)으로 삼고 곡림을 식읍으로 주었다.²⁷

선비 모용외는 현재 중국의 랴오닝 성(遼寧省) 조양현(朝陽縣)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서진 말 정치적 통제가 약화된 것을 기회로 삼아 요동으로 진출을 꾀한 것이다. 그 때문에 고구려와 모용외 세력이 요동을 둘러싸고 다투게 되었던 것이다. 봉상왕 5년(296) 8월 모용외가 와서 침범하여 고국원에 이르러 서천왕의 무덤을 보고 사람을 시켜 이를 파게 했다. 일꾼 중 갑자기 죽는 자가 생기고 또 무덤 광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오자 신이 있을까 두려워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 이에 봉상왕은 군신들에게 모용씨의 병마가 강성하여 여러 번 우리의 강역을 침범하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했다. 국상 창조리가 고노자를 중용하도록 추천했다. 왕은 고노자를 신성 태수로 삼으니 그가 선정을 베풀어 위엄을 떨치므로 모용외가 다시는 침범하지 못했다.²⁸

27)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봉상왕 2년.

28)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봉상왕 5년.

고구려와 모용씨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미천왕 20년(319) 12월 진나라 평주 자사 최비가 고구려에 도망한 일이 있다. 그 전에 최비는 몰래 고구려·단씨·우문씨를 달래 함께 모용외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삼국의 군대가 극성으로 쳐들어오니 모용외는 성문을 닫고 지키며 우문씨에게만 유독 술과 고기를 보냈다. 이에 두 나라는 돌아가고 우문씨의 실독관 혼자 모용외를 공격하게 되었다. 모용외는 강한 군대로 실독관과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두었다. 이 소식을 들은 평주 자사 최비는 형의 아들 최도를 극성으로 보내 거짓으로 축하하였다. 모용외가 군사 위엄으로 대하니 최도가 모든 것을 자백하자 모용외가 최도에게 말하기를 최비가 자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계책이고 달아나는 것은 졸렬한 계책이라 했다. 모용외가 군사를 이끌고 뒤따르니 최비가 고구려로 도망한 것이다. 모용외가 아들 모용인에게 요동을 지키도록 하니 시장과 마을들이 평온해졌다. 고구려가 장군 여노로 하여금 하성을 지키게 하자 모용외가 장군 장통을 보내 습격하여 그를 사로잡고 무리 1,000여 호를 포로로 하여 극성으로 돌아갔다. 미천왕이 군사를 보내 자주 요동을 공격하자 모용외는 모용한과 모용인을 보내 이에 맞서 싸우게 했다. 미천왕이 맹약을 펼치자 모용한과 모용인은 돌아갔다.²⁹

미천왕 21년(320) 12월 왕은 군사를 보내 요동을 경략하니 모용인이 막아 싸워 고구려병이 패했다.³⁰ 고구려와 모용씨의 전쟁은 고국원왕 대에 더욱 격렬해진 바 있다. 한편 미천왕 31년(330) 왕이 사신을 후조(後趙) 석륵에게 보내 호시(楛矢)를 전한 일이 있다.³¹

앞에서 고구려가 국내로 천도한 기원후 3년부터 미천왕 대(300~331년)까지의 기간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영토 확장과 대외 관계에 대하여 보았다. 이 시기 고구려는 성장 과정에 있었다. 그 결과 이웃한 나라들을 정복하여 그 영토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나갔다. 그렇다고 이 시기의 고구려가 우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같이 대륙을 지배한 고구려가 된 것은 아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과의 관계도 전개하여 나갔다. 이 시기 중국의 정치적 변동이 컸다. 따라서 고구려는 그와 같은 정치적 변동에 따라 대중국 관계의 대상을 달리 했다. 또한 고구려의 영토가 확장되고 인민이 늘어남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29)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미천왕 20년.

30)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봉상왕 21년.

31)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봉상왕 31년.

첫 시기인 기원후 3년에서 53년까지 고구려는 압록강 중·상류 지역과 그 지류에 위치한 예맥의 소국들 중 가장 강력한 국가였다. 그러나 예맥의 소국들을 모두 병합한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 고구려는 예맥의 소국들을 병합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다. 국내 천도 자체가 바로 그러한 준비의 하나였다. 한편 이 시기, 고구려는 부여와 대외 관계를 가졌다. 그런가 하면 이웃한 황룡국과 같은 나라들과 대외 관계도 맺었다.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 군현과 관계가 많았다.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현도군과 책구루 체제를 가졌던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두 번째 시기인 태조대왕에서 신대왕까지 고구려는 영토 확장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고구려는 예맥 지역의 소국들을 모두 정복했다. 그런가 하면 옥저를 정복하여 동해안 지역으로 진출했다. 서쪽으로는 현도군과 같은 중국 군현과 경계를 접하고 현도군을 서쪽으로 몰아냈다. 남쪽으로는 살수(현재의 청천강)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북쪽으로는 부여와 경계를 접했다. 고구려는 한나라 중앙 정부와 관계를 가졌다. 또한 중국의 서쪽 군현과 군사적 관계와 내속 관계를 가졌던 것을 주목할 수 있다. 고구려는 현도군이나 요동군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 현도군이나 요동군에 내속 관계를 가져 교역의 창구를 열어두었던 것이다. 이 시기 고구려는 대체로 압록강 하구 지역까지 그 영역을 넓히기도 했다. 그로 인하여 중국은 낙랑군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낙랑군이 위축되기도 했다. 이 시기 고구려는 선비와 동맹을 맺어 한나라를 공격하기도 했다.

세 번째 시기, 고구려는 낙랑군과 대방군을 소멸시켰다. 물론 남쪽의 현들은 백제가 장악하기도 했다. 이로써 고구려와 백제·신라의 삼국 관계가 전개될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이 시기에 고구려가 태백산맥 동쪽의 신라 경계를 침범한 일이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삼국 관계는 다음 시기에 전개되었다. 고구려는 후한, 공손씨 세력, 위나라, 오나라, 진나라, 선비 모용씨와 관계를 가졌다. 중국의 정치적 변동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졌다. 그 중 요동 지역의 세력으로 등장했던 공손씨나 모용씨와의 관계는 중국 본국이 아닌 지방 군벌들과의 관계였다.

이 시기 고구려는 성장을 하여 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대륙을 지배한 고구려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었다.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대성산성 남문 문루

대성산성은 평양시에서 동북쪽으로 92km 떨어진 대성산에 위치하고 있다. 복원된 남문은 기둥머싯기, 직선 문길, 깎음식 홍예, 배부른 기둥, 우진각 겹지붕, 인자형 대공, I자형 고임목, 사구와 타구가 있는 평여장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고구려는 4세기 초 봉상왕 때, 두 차례에 걸쳐 전연의 침입을 받는 등 위기를 겪다가 313년 미천왕 때에 이르러 서안평을 확보하고 낙랑군과 대방군을 정복하며 한반도에서 한사군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고조선의 옛 땅을 회복했다. 이에 따라 왕권 강화의 기반이 마련되고, 5부 체제가 해체되며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되기에 이른다. 371년 왕위에 오른 소수림왕은 불교 공인과 태학 설립, 율령 반포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왕실의 권위를 강화했다. 이처럼 안정된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즉위한 광개토대왕은 '용병술을 비상하게 구사하는 걸출한 군인 왕'으로서 면모를 떨치며 잇달아 영토를 확장해나감으로써 요동을 완전하고 거란 등 주변 종족을 복속시켜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하기에 이른다. 3부에서는 4~5세기 초에 이루어진 고구려의 국가 체제 정비와 영역 확대 과정을 살펴본다.

체제의 정비와 영역의 확대

- I. 전연·백제와의 대결과 시련
- II. 중앙 집권 체제의 확립
- III.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과 광개토대왕릉비

3
부

【전연·백제와의 대결과 시련】

강 선

1. 선비족의 남하와 모용선비

『후한서(後漢書)』 기록에 의하면 선비족(鮮卑族)은 본래 동호(東胡)의 한 지파로 선비산에 의지해 살았기 때문에 선비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한다. 1979년 대싱안링[大興安嶺] 동록(東麓)의 알선동(嶺山洞)에서 선비족의 초기 유적으로 추정되는 석실(石室)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따라 이 일대가 선비족의 초기 거주지로 추정되고 있다.

기원전 2세기 한(漢)이 흉노를 격파한 후 북방 초원 지대가 혼란에 빠지자 이 기회를 이용해 선비족은 차츰 남하를 시작하여 1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내몽골과 지린 성(吉林省) 서북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그 후 후한(後漢) 시기에 이르러 선비족은 뛰어난 지도자 단석괴(檀石槐)의 영도 하에 부족 연맹을 기반으로 막강한 세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부족 간의 다툼으로 연맹이 와해되고, 선비족은 단부(段部)·우문부(宇文部)·모용부(慕容部)·탁발부(拓跋部) 등 4부로 재편되었다. 그들의 분포 지역을 보면 모용부는 요서 지구, 단부는 모용부의 서쪽, 우문부는 시라무렌 유역, 탁발부는 우문부의 서쪽에 있었다.¹⁾

한편 고구려와 선비족의 첫 접촉은 기원전 9년에 일어났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기록을 통

1) 손진기(1995), 「고대 동북아 민족의 분포」, 『동북아민족사론 연구』, 중주고적출판사, 173쪽.

해 당시 선비의 침입이 고구려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알 수 있다.

11년(기원전 9년) 여름 4월 왕(유리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선비가 지형이 험함을 믿고 우리(고구려)와 화친하지 않는데, 유리하면 나와서 도적질하고 불리하면 들어가 지키니 나라의 큰 근심거리이다. 만약 이들을 꺾는 자가 있다면 내가 장차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했다. 부분노(扶芬奴)가 나와서 말하길 “선비는 험하고 견고한 나라로 사람들이 용감하나 우둔하니 힘으로 싸우기는 어렵고 피로 굴복시키는 것이 쉽습니다.”라고 했다. 왕(유리왕)이 말하길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부분노가 대답하기를 “적(선비)의 땅에 간첩을 들여보내 우리나라(고구려)는 땅이 좁고 군사가 약하여 겁이 나 움직이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면 선비는 반드시 우리(고구려)를 만만히 여겨 수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 틈을 타서 정병을 거느리고 지름길로 들어가 산림 속에 숨어서 성을 노리고 있겠습니다. 이때 왕(유리왕)께서 약간의 군사를 시켜 적의 성 남쪽으로 간다면 적들(선비)은 반드시 성을 비우고 멀리 쫓아올 것이니 이때 제가 정병을 거느리고 그들의 성으로 뛰어 들어가고 왕(유리왕)께서 용감한 기병을 거느리고 양쪽에서 공격하면 곧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선비가 과연 성문을 열고 군사를 출동시켜 쫓아올 때 부분노가 군사를 거느리고 성으로 뛰어 들어가니 선비가 바라보고 크게 놀라 도로 성으로 달려 들어갔다. 부분노가 성에서 버티고 대항해 싸워서 목 베어 죽인 적들(선비)이 매우 많았다. 왕(유리왕)이 깃발을 들고 북을 울리며 앞으로 나아오니 선비는 앞뒤로 적을 맞게 되어 계책이 아득하고 힘이 모자라 항복하고 속국이 되었다.

남하한 선비 집단 중 고구려 서북 지역에 정착한 선비가 일찍부터 고구려와 접촉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들이 기습적으로 고구려의 변경에 쳐들어와 자행하는 약탈은 당시 고구려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부분노가 선비의 습성을 자세히 알고 유인책을 써서 그들을 물리치려는 계략을 꾸민 것은 당시 이미 고구려인들이 선비와 자주 접촉하며 그들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었음을 뜻한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유리왕은 부분노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비와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제압했던 것이다.

원래 고구려는 건국 직후부터 주변의 여러 정치 세력을 통합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기 때문에 선비의 호전적인 행동은 고구려의 성장에 큰 장애가 됐을 것이다. 선비를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한다면 고구려는 국가 발전에 큰 시련을 맞게 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했다. 고구려는 국왕이 이끄는 군대를 동원할 만큼 전력을 다해 전쟁에 임하여 선비를

제압했던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가 선비와 전면전 대신 유인책을 써서 공격한 것은 당시 선비의 세력이 만만치 않아 상대하기 버거운 상대였음을 의미한다. 어쨌든 고구려는 선비를 성공적으로 제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후 『삼국사기』와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고구려와 선비가 연합해 후한의 변경을 침입한 기록이 보인다. 이는 후한 말기 후한이 쇠약해진 틈을 타서 고구려가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벌인 군사 행동에 선비가 군사력을 제공하여 가세했던 상황을 전하는 기록으로 이해된다.

고구려와 선비의 본격적인 접촉은 모용선비(慕容鮮卑)가 요서 지역에 정착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문부와 단부의 틈바구니에서 자주 침입을 받으며 시달리던 모용부는 3세기 말 청산(靑山: 지금의 랴오닝 성 의현(義縣) 동쪽)을 중심지로 하였다가 얼마 후 극성(棘城: 지금의 랴오닝 성 금주(錦州))로 옮기고 고구려를 침입하였다.

봉상왕(烽上王) 2년(293) 8월 모용외(慕容廆)가 이끄는 모용선비가 고구려에 쳐들어왔다. 이때 봉상왕이 신성으로 피신하다가 곡림에 이르렀는데, 모용외의 군대가 추격해오자 신성 재(宰)인 북부 소형(小兄) 고노자(高奴子)가 5백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나와 왕을 맞이하고 적을 격퇴하였다. 이에 봉상왕이 고노자의 작위를 올려 대형(大兄)이라 하고 곡림을 식읍(食邑)으로 주었다. 그 후 3년 뒤 모용외는 다시 고구려를 침공하여 서천왕(西川王)의 모를 파헤치다 무덤 안에서 소리가 나는 등 괴이한 일이 일어나자 그냥 물러갔다. 2차에 걸친 모용외의 침입은 별 성과없이 끝났지만 호전적인 모용선비의 행동은 고구려를 긴장시켰다. 고구려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모용외의 1차 침입 시 큰 공을 세운 고노자를 신성 태수로 삼아 모용외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3세기 말 두 차례에 걸친 모용선비의 고구려 침입은 그 원인이 확실치 않지만 당시 모용선비를 둘러싼 주변 정세에서 추측해볼 수 있다. 『자치통감』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모용선비는 우문선비의 침입을 받아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은 선비족 내의 주도권 다툼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것인데, 모용선비가 우문선비의 침입을 격퇴하였지만 양자 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모용선비는 우문선비가 동쪽의 고구려를 끌어들이자 자신을 협공할 것을 우려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 단부와 우문부 그리고 고구려가 연합해 모용선비에 대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마도 우문부와 고구려가 연합해 자신을 공격할 것을 우려한 모용외가 일종의 군사 시위를 통해 고구려를 위협하고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봉상왕은 일단 모용선비의 침입을 물리치자 실정을 거듭했다. 지진과 가뭄 등 자연

재해로 곤경에 처한 백성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징발해 궁실을 수리하는 등 사치를 일삼았다. 국상 창조리(倉助利)는 국내의 허술한 틈을 타 적이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간(諫)했으나 오히려 봉상왕은 창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창조리는 여러 대신들과 의논해 봉상왕을 폐위시키고 미천왕(美川王)을 새 왕으로 추대하였다. 결국 모용선비의 침입으로 인한 대외적 위기와 국왕의 실정으로 야기된 불안한 정세는 봉상왕의 폐위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2. 전연의 건국

4세기 초 중국에서는 영가(永嘉)의 난(서진(西晉) 말기인 회제(懷帝)의 영가 연간(307~312)에 흉노(匈奴)가 일으킨 큰 반란)를 계기로 서진의 통치 질서가 문란해져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자 이민족들이 대거 중국 대륙에 진출하여 이른바 5호 16국시대가 시작되었다. 몰락한 서진의 잔여 세력은 양쯔 강(揚子江) 이남으로 쫓겨나 다시 왕조를 회복하여 동진(東晉)을 세웠는데, 이로써 중국 대륙은 양쯔 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의 이민족 정권과 남쪽의 한(漢)족 정권이 대립하는 형세를 이루었다. 이러한 중국의 분열은 고구려가 활발히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였다.

미천왕은 요동 지역을 사이에 두고 모용선비와 다투었다. 원래 요동 지역은 예로부터 중국 대륙과 한반도를 잇는 중간 요충지이자 문화와 농업 경제가 발전하여 인구가 밀집한 곳이었다. 때문에 고구려는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여 국가 발전의 터전으로 삼고자 했다. 마침 서진의 몰락에 따른 중국 대륙의 혼란은 고구려가 요동으로 진출하는 데 대외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고구려의 요동 진출은 요서 지역을 본거지로 하고 있던 모용선비에게는 심각한 위협일 수밖에 없었다. 요동 지역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와 모용선비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처음 고구려와 모용선비의 충돌에서는 모용선비가 밀리는 형세였다. 모용선비와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잡게 된 미천왕은 고구려 주변의 중국 군현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311년 요동 서안평에 대한 공격을 시작으로 313년 낙랑군 침입, 314년 대방군 침입, 315년 현도성 격파 등 고구려를 둘러싼 중국 군현 세력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고구려의 팽창에 대외 활동이 위축된 모용정권은 서진 멸망 후 발생한 대규모의 한족 유민을 받아들여 내부 정비에 힘을 쏟았다. 이를 통해 모용정권은 주변의 우문부나 단부를 견제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모용정권의 한족 유민 흡수 정책은 동진과 갈등을 일으켰다. 동진의 평주 자사 최비(崔毖)는 자신의 관할 지역 내 백성들이 자꾸 모용정권으로 넘어가자 이에 불만을 품고 모용정권을 무너뜨리고자 고구려, 우문부, 단부 등을 끌어들여 전쟁을 공모하였다. 전쟁에서 이기면 땅을 나누어 갖자는 최비의 제안에 연합군은 곧 결성되었다.

319년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그 전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동진) 평주 자사 최비가 도망해왔다. 처음에 최비는 비밀리에 우리나라(고구려)·단부·우문씨를 설득하여 모용외를 공격하게 했다. 이에 따라 세 나라가 극성으로 진공하였다. 모용외는 성문을 닫고 수비하면서 우문씨에게 쇠고기와 술을 보내 위로하였다. 다른 두 나라는 우문씨와 모용외 사이에 모의가 있다고 의심하여 각각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우문 대인 실독관이 “두 나라는 비록 돌아갔으나 내가 혼자 힘으로 극성을 빼앗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용외가 그의 아들 모용황으로 하여금 장사 배역과 함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선봉에 서게 하고 자신은 대부대를 거느리고 뒤를 따랐다. 실독관은 대패하고 몸만 간신히 빠져나갔다. 최비가 이 말을 듣고 형의 아우 도로 하여금 극성에 가서 거짓으로(승리를) 치하하였다. 모용외가 군사를 거느리고 (도를) 접견하였다. 도는 (이를 보고) 겁을 내어 자복하였다. 모용외는 곧 도를 돌려보내면서 최비에게 “항복하는 것이 상책이오, 도주하는 것은 하책이다.”라고 하였다. (모용외는) 군사를 이끌고 도의 뒤를 따랐다. 최비가 기병 수십 명을 데리고 집을 버리고 우리(고구려)에게 도망해왔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모용외에게 항복하였다. 모용외가 그의 아들 모용인으로 하여금 요동 관부에 진을 치게 하였다. 시장과 마을이 예전과 같이 평안하였다.

우리[고구려] 장수 여노가 하성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모용외가 장군 장통을 보내 습격하여 사로잡고 주민 1천여 호를 포로로 잡아 극성으로 돌아갔다. 왕(미천왕)이 여러 번 군사를 파견하여 요동을 침입하자 모용외는 모용한과 모용인을 보내 우리(고구려)를 공격하였다. 왕(미천왕)이 화평을 맺을 것을 요구하자 모용한과 모용인이 이에 돌아갔다.

위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연합군 결성을 주도한 최비는 전혀 군사를 제공하지 않고 고구려를 비롯해 단부와 우문부를 끌어들여 병력을 동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모두 모용부의 세력



확대에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의 결성은 어렵지 않았겠지만 일을 주도한 최비가 실제 전쟁에서 빠짐으로써 결속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간파한 모용외는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고 연합군을 이간질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우문부를 회유하여 연합군을 와해시키려는 작전은 그대로 성공하여 고구려와 단부가 모용외와 우문부 사이를 의심하고 군대를 철수하였다.

또한 최비가 직접적인 당사자였으므로 고구려와 단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연합군이 쉽게 와해된 측면도 있다. 결국 우문부만 무모하게 나섰다가 대패하였고, 그 여파는 고구려에도 미쳐 모용부의 침입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전쟁을 주도적으로 모의한 최비가 고구려로 달아난 것은 모용외를 자극하여 고구려와 모용부 사이를 더 불편하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성에 쳐들어와 고구려의 장수 여노를 살해한 모용부의 장군 장통이 주목된다. 장통은 전에 미천왕이 낙랑군과 대방군을 쳤을 때 고구려군과 싸우다 패하여 모용부로 귀부한 인물이었다. 때문에 장통은 고구려에 원한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모용외는 이런 장통을 고구려 침입의 선봉에 내세워 고구려에 타격을 입혔던 것이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모용정권의 위상을 높여주었고, 고구려는 연합군을 물리쳐 대외 문제에 자신감을 얻게 된 모용부와 화평을 맺어 충돌이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날로 세

력이 강성해지고 있는 모용정권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이 시기 고구려는 후조(後趙)에 사신을 보냈는데, 이것은 모용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취한 외교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후조의 통치자 석륵은 모용외와 마찬가지로 한족을 등용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민심을 수습하여 세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아마도 고구려는 이런 후조와 연계하여 국제적으로 모용부 정권을 견제하고자 했던 것 같다.

그 후 모용외가 죽고 모용황(慕容皝)이 모용부의 지도자가 되자 모용정권의 움직임이 주시하고 있던 고구려는 곧바로 서부 국경 지역의 군사 요새인 신성(新城)을 축조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고구려가 모용정권의 침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취한 조치였을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의 예상과 달리 모용정권의 침입은 즉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모용정권의 내부 사정 때문이었다.

모용외가 죽은 후 모용황이 모용정권의 지도자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모용황의 동생 모용인(慕容仁)이 양평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모용황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사를 보냈지만 오히려 모용인의 무리에게 대패하고 말았다. 형제 간의 권력 쟁탈전으로 모용정권이 혼란에 빠지게 되자 요동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 일부 세력이 모용황으로부터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져 모용황은 즉위 초부터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우문부와 단부 등 다른 선비 부족들이 모용인을 후원하는 사태까지 일어나자 모용황은 더욱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단부와 우문부가 모용인에게 보낸 사신이 평곽 밖에 머무르다 모용황이 보낸 병사들의 습격을 받고 죽거나 사로잡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336년 드디어 모용황은 모용인을 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싸움 결과 모용인은 사로잡혀 죽게 되고 그 휘하의 동수와 광충은 고구려로 도망하였다. 반란 세력을 성공적으로 진압하게 되자 모용황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듬해인 337년 모용황은 부하들의 건의로 연왕(燕王)에 즉위하여 전연(前燕) 왕국이 탄생하였다. 이로써 모용정권은 단순히 선비족 내의 한 부족 집단이 아니라 국왕을 정점으로 지배 체제가 갖추어진 왕국이 된 것이다.

한편 전연이 건국될 즈음, 선비족 내의 세력 다툼도 치열하였다. 단부가 모용황 세력을 공격하자 우문부가 단부를 지원하였고, 이에 맞서 모용황은 후조와 연합하였다. 싸움은 모용황 측의 승리로 끝났으나 전리품 분배 과정에서 후조가 불만을 품게 되어 연합 관계는 깨지고 양자 간에 전쟁이 일어났다. 싸움의 와중에 전에 모용황의 부하였다가 후조에 투항하였던 동이교위(東夷校尉) 봉추(封抽)와 호군(護軍) 송황(宋晃)은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고구려로 도망하였다. 싸움이 모용황의 승리로 끝나자 후조는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모용황을 칠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338년 후조는 고구려에 곡식을 운반해 놓고 전쟁 준비를 했으나 이 전쟁 역시 후조가 패배하였다. 고구려는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후조에게 전쟁 기지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모용황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3. 전연의 침입과 고구려의 시련

전연의 건국으로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고구려와 전연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전연이 건국되기 전, 모용황은 주변의 적대 세력을 제압하느라 고구려를 압박할 여력이 없었지만 왕국의 탄생과 더불어 요동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와 본격적인 각축전을 벌이게 되었다. 특히 후조가 전연을 침입했을 때 고구려가 전쟁 기지를 제공했던 사건은 전연을 자극하여 곧바로 고구려에 대한 침입으로 나타났다.

연왕 모용황이 고구려의 서북 국경 요새인 신성에 쳐들어오자 고국원왕(故國原王)은 맹약을 청하여 전면전을 피했다. 이 충돌이 확대되지 않았던 것은 당시 전연이 처한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주변이 적대 세력으로 둘러싸인 전연은 고구려와 전면전을 벌일 경우 오히려 고구려를 중심으로 반(反)전연 세력이 형성되어 위기를 자초할 위험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전연은 고구려에 대해 일종의 군사 시위를 통한 경고를 하고, 전면전은 피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 입장에서라도 날로 세력이 강성해지고 있는 전연을 상대로 무모한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 사건이 있는 후 고구려는 전연에 고국원왕의 세자를 입조(入朝)시켰는데, 이는 전연의 내부 사정을 살피려는 고구려의 의도가 있었겠지만 전연이 이미 강국으로 성장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연은 341년 수도를 용성(龍城: 지금의 랴오닝 성 조양)으로 옮기고, 이 해에 모용황이 동진으로부터 연왕에 책봉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그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모용황에 대한 동진의 연왕 책봉은 이미 전연이 북중국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

전연의 국제적인 위상이 이처럼 급부상하자 고구려는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국원왕은 342년 환도성(丸都城)을 수리하고 이곳으로 옮겨가 살았다. 고국원왕이 평지성인 국

내성을 대신해 산성인 환도성으로 거처를 옮긴 것은 이미 전쟁을 예견하고 취한 조치였다.

환도성은 국내성이 있는 집안시(集安市)에서 서북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산봉우리 능선을 연결해 6,951m에 달하는 성벽을 돌로 쌓은 산성이다. 중국 정부는 2001~2003년까지 환도산성에 대한 발굴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는데, 궁궐터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발굴되었다고 한다. 궁궐터 주변에서는 수면(黠面)·인동문(忍冬紋)·연화문(蓮花紋) 및 문자가 새겨진 각종 기와가 출토되었고, 그밖에 다양한 종류의 도기(陶器)·철기(鐵器) 등도 출토되었다.² 환도산성은 궁궐을 갖추고 있었던 만큼 비상시에는 왕을 비롯한 지배층들이 옮겨 들어와 임시 수도의 기능을 했던 산성이었다. 산성 밖에는 대규모의 산성하 무덤떼가 있는데, 이 곳은 고구려시대 때 지배층들의 집단 매장지로 추정되고 있다.

전연의 고구려 침입은 이 해 겨울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전쟁의 전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겨울 10월 연왕 모용황이 용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입위(立威)장군 모용한이 모용황에게 “먼저 고구려를 빼앗고, 다음에 우문씨를 멸해야만 중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고구려에는 두 길에 있는데, 북쪽 길은 평탄하고 넓으며 남쪽 길은 험하고 좁아서 사람들이 북쪽 길로 가고자 하였다. 모용한이 “적국(고구려)은 일반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대군이 반드시 북쪽 길로 오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쪽 길을 중시하고 남쪽 길을 가볍게 취급할 것입니다. 왕께서 마땅히 정예 부대를 이끌고 남쪽 길로 가서 불의의 공격을 한다면 북쪽 도성은 공격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별도로 소부대를 북쪽 길로 보내면 다소 차질이 있더라도 그들의 심장부가 이미 무너졌으므로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모용황은 이 말을 따랐다.

11월 연왕 모용황이 직접 강병 4만 명을 거느리고 남쪽 길로 진군하였다. 모용한과 모용패를 선봉으로 삼고, 별도로 장사 왕우 등으로 하여금 군사 1만 5,000명을 거느리고 북쪽 길로 진군하게 하여 (우리나라(고구려)를) 침범하였다. 고국원왕은 아우 무로 하여금 정예 부대 5만 명을 이끌고 북쪽 길을 방어하게 하고, 자신은 약한 군사를 거느리고 남쪽 길을 방어하였다. 이때 모용한 등이 먼저 와서 전투를 벌였고 이어서 모용황의 대군이 도착하자 우리(고구려) 군사가 대패하였다. 좌장사 한수가 우리(고구려) 장수 아불화가도를 죽이자, 모든 적들이 승세를 타고 드디어 환도성으로 쳐들어왔다. 고국원왕은 단기(單騎)

2)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 편저(2004), 『환도산성』 2001~2003년 집안 환도산성 조사 시굴 보고, 북경 : 문물출판사 참조.

로 단웅곡으로 도주하였다. (연나라) 장군 모여니가 따라와서 고국원왕의 어머니 주씨와 왕비를 잡아 돌아갔다. 이때 (연나라) 장군 연우 등은 북쪽 길에서 (우리(고구려) 군사와) 싸우다가 모두 전사하였다. 이 때문에 모용황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 고국원왕을 불렀으나 가지 않았다.

모용황이 돌아가려 할 때 한수가 “고구려 땅은 (우리(전연)가 남아) 지키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입금이 도주하고 백성이 흩어져 산골짜기에 숨어 있으나 (우리(전연) 대군이 물러간 후에는) 틀림없이 다시 모여 나머지 군사를 수습할 것입니다. 이는 충분히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국원왕 아버지의 시체를 신고, 고국원왕의 어머니를 사로잡아 갔다가 고구려 왕 스스로 돌아와 사죄하기를 기다린 후에 돌려주어 은혜와 신의로써 무마하는 것이 상책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모용황이 그 말에 따라 미천왕의 무덤을 파서 그 시체를 신고, (대궐) 창고에 있는 역대 보물을 약탈하고, 남여 5만여 명을 사로잡고, 궁실을 불태우고, 환도성을 헐어버리고 돌아갔다.

위의 기록에서 전연이 고구려를 침입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다. 먼저 모용한의 작전이 주목된다. 고구려의 남도와 북도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고구려의 방어가 북도에 치중될 것을 예상해 남도로 쳐들어가는 작전을 짠 것은 고구려의 허를 찌르는 전략이었다. 통화를 거쳐 국내성에 이르는 북로는 길이 평탄하고 넓어 많이 이용되는 공격로였지만 환인을 거치는 좁고 험한 남로는 대규모 군대가 이동하기에 상대적으로 불편한 공격로였다. 그래서 고구려는 전연 군대가 당연히 북로로 침입해 오리라는 예상을 하고 그곳의 방어에 치중한 반면 남로 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 모용황은 어떻게 고구려의 방어 작전과 관련된 지리적인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까?

모용한은 모용황이 연왕에 즉위할 때 평소 자신의 무예를 시기하던 모용황에게 화를 당할까 염려하여 단부를 거쳐 우문부로 피신해 있다가 전연으로 돌아온 인물이었다. 모용한은 우문부에서 지낼 때 사람들의 경계를 따돌리기 위해 미친 척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산천을 살피고 공격로를 익혀 두었다.³ 아마도 모용한은 자신이 우문부에서 지내던 시절, 고구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연이 건국되기 전부터 우문부와 고구려는 모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우문부에는 고구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었을

3) 『晉書』 卷109 載記9 慕容皝



것이고, 그 중에는 귀중한 군사 정보도 있었을 것이다. 모용한은 이를 고구려 침입에 최대한 이용한 것이다. 또한 모용한은 전연에서 모용황의 신임을 얻고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전쟁에서 공을 세워야 했다. 모용황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던 고구려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모용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우문부에 있던 모용한이 귀국하게 된 것도 모용황이 몰래 사람을 보내 모용한을 살펴보다가 그가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귀국하게 했다. 이런 정황을 통해 볼 때 모용황은 고구려를 침입하기에 앞서 정보를 얻고 또 모용한의 뛰어난 무예를 이용하고자 그의 귀국을 적극적으로 도왔을 것이다.

한편 고구려는 전연의 예상대로 대부분의 주력 부대를 북로에 집중하여 남로로 쳐들어온 전연의 군대에 패배하였다. 그러나 북로에서 거둔 고구려의 일방적인 승리는 환도성을 함락 시킨 전연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즉 고구려의 반격을 염려하여 고국원왕의 어머니를 비롯한 대규모 인질을 사로잡고 환도성을 파괴한 후 서둘러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의 결과는 전연의 승리였지만 이것은 작전의 성공에 기인한 것이었지 군사적인 우세에 따른 승리가 아니었다. 조속한 철수를 주장한 한수의 말처럼 전연의 군대가 고구려 땅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반드시 고구려군의 반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한 상황은 결코 전연에게 유리하지 않

은 것이었다. 대신 전연은 왕의 어머니를 포함한 대규모 인질을 잡아감으로써 고구려를 압박하는 전략을 세웠던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 이듬해, 고구려가 전연에 고국원왕의 아우를 사신으로 보내 칭신(稱臣)하고 수천 가지 진귀한 물품을 바치자 전연은 미천왕의 시체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고국원왕의 어머니는 돌려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연이 여전히 고구려를 경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전연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주변에 우문부와 단부 등 여전히 적대 세력이 건재하고 있는 한 고구려에 대해 일방적인 강경 정책을 취할 수 없었고, 적절히 견제하며 충돌을 피하는 것이 유리한 정책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미천왕의 시신은 돌려보내고 고국원왕의 어머니는 계속 인질로 잡아둠으로써 효과적으로 고구려를 견제하였다.

수도가 함락되는 위기를 겪은 고구려는 완전히 파괴된 환도성이 더 이상 수도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자 평양 동황성(東黃城: 지금의 자강도 강계)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어 동진에 사신을 파견했는데, 이는 전연의 팽창 기세에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동진과 연 대해 전연을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진 외교 조치였을 것이다. 고구려는 비록 전쟁에 지고 수도를 옮겨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여전히 전연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 활동에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의 이러한 외교 활동 때문이었는지 전연은 고구려와 연대할 수 있는 세력을 제거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것 같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일단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전연은 그 기세를 몰아 345년 우문부를 쳐서 멸망시켰다. 이때 우문부의 우두머리 일두귀(逸豆歸)는 막북(漠北)으로 달아났다가 고구려로 도망하였다. 이 사건이 전연을 자극했는지 전연은 다시 고구려의 남소성(南蘇城)을 침입해 수비군을 두고 돌아갔다.

아직 고국원왕의 어머니가 전연에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고구려가 전연과의 싸움에 져 도망쳐온 우문부의 일두귀를 받아주고 전연에 돌려보내지 않은 것은 여전히 고구려가 전연에 대항할 여력이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왕의 어머니가 인질로 잡혀 있는 이상 고구려로서는 전연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기도 어려웠다. 고구려는 전연에 전 동이호군 송황을 돌려보내 전연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전연은 가장 큰 적대 세력 중 하나였던 우문부를 멸망시킨 데 힘입어 고구려에 대한 정책을 보다 유리하게 펼칠 수 있었다. 더군다나 고국원왕의 어머니를 여전히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연과 고구려의 관계는 고구려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가 왕의 어머니를 송환시키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했다.

그런데 342년 전연이 고구려를 침입할 때 모용한은 고구려를 치고 우문부를 멸망시킨 후 최종 목적이 중원 진출임을 밝혔었다. 즉 전연의 고구려 침입과 뒤따른 우문부와의 전쟁은 중원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초전이었던 것이다. 전연의 입장에서 동쪽의 고구려와 북쪽의 우문부 세력은 늘 전연에 적대적이었으므로, 이들과의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중원 진출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전연은 고구려를 패배시키고 우문부를 멸망시킴으로써 후방의 안전을 도모한 후 적극적으로 중원 진출을 시도할 수 있었다. 348년 모용황이 죽자 모용준(慕容儼)이 전연 왕에 즉위하였는데, 그는 352년 수도를 용성에서 계(薊: 지금의 베이징[北京] 서남 지역)으로 옮겼다. 이때 전연 왕 모용준은 스스로 황제의 위에 오르고 원새(元璽)라는 연호를 제정하여 전연은 왕국에서 제국(帝國)으로 발전하였다. 이로써 전연은 본격적으로 중원 대륙에 진출하여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미 중원에 진출하여 제국으로 발전한 전연에 대해 고구려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었다. 이전 시기 고구려가 전연을 견제할 때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우문부까지 멸망한 마당에 고구려는 전연에 대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고구려는 왕의 어머니를 무사히 귀환시키고 전연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수모를 감수해야만 했다. 이후 전연이 멸망할 때까지 고구려는 전연에 다시는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아마도 고구려가 전연에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수모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리한 충돌을 피하고 고국원왕의 어머니를 무사히 귀국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을 것이다. 또한 전연이 이미 고구려가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상대로 성장한 측면도 있지만, 이 시기 백제가 고구려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도 고구려의 전연에 대한 정책을 위축시킨 한 요인이었다.

그 후 370년 전진(前秦)과의 싸움에서 전연이 대패하여 멸망하게 되자 전연의 실력자 모용평이 고구려로 도망해왔는데, 고구려는 그를 전진에 돌려보냈다. 이로써 한때 고구려를 위협하며 큰 시련을 안겨주었던 전연이 사라져 고구려는 대외적으로 안정을 되찾은 듯했지만 백제의 팽창은 다시 고구려를 위기로 몰아갔다.

4. 백제의 침입과 고구려의 시련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일종의 완충 지대로 남아있던 낙랑군과 대방군 등의 중국 군현 세력

이 4세기 초 고구려에 의해 멸망하자 고구려와 백제는 직접 국경을 맞대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가 전연과의 관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백제에 유리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연의 침입으로 환도성이 함락되는 국가적 위기 속에 고구려의 대외 활동은 위축되었고, 서부 국경에서의 긴장은 고구려로 하여금 남부 지역에 관심을 집중할 수 없게 하였다.

반면에 백제는 고구려가 전연과의 관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동안 착실히 내실을 다지며 성장하였다. 4세기 중반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실의 압력 속에 즉위한 근초고왕(近肖古王)은 활발한 대외 정복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왕권 강화를 추구하였다. 근초고왕은 신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남부 지역에 남아 있던 마한의 잔여 세력을 통합하고 가야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왜와도 활발히 교류하였다. 이를 통해 백제는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백제의 성장과 팽창은 고구려를 긴장시켰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완충 지대였던 낙랑군과 대방군이 멸망한 후 국경을 맞대게 된 양국은 서로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할 때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는 전연이 본격적으로 중국 대륙 경략(經略)에 주력하며 양국 간에 긴장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 백제의 움직임에 주시하였다. 백제의 팽창은 고구려의 남부 국경 지대를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고구려는 전연과의 충돌 위험이 사라지자 본격적으로 백제에 대한 공세를 취하였다.

369년 고구려의 고국원왕은 보병과 기병 2만 명으로 구성된 대군을 거느리고 백제의 치양(雉壤)으로 쳐들어갔다. 그러나 근초고왕의 태자가 이끄는 백제 군대를 맞아 5,000여 명의 군사가 붙잡히는 등 오히려 패하고 말았다. 고구려는 전열을 가다듬고 2년 후에 다시 백제에 쳐들어갔다. 이번에는 전연이 멸망함으로써 서부 국경 지대에 긴장이 사라진 상태여서 고구려가 백제와의 전쟁에 전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패하(溟河)에 숨어 있던 백제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또 다시 패하였다. 백제를 제압하여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던 고구려의 기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백제와의 관계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고구려의 침입을 잘 막아낸 백제는 자신감을 얻고 이번에는 고구려를 선제공격하였다.

근초고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 군사 3만 명으로 구성된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평양성으로 쳐들어오자 고구려도 고국원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와 백제에 맞서 싸웠다. 그러나 고국원왕이 화살에 맞아 전사함으로써 고구려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승

리하자 백제는 대외 문제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 활동 무대를 국제적으로 확대하였다. 358년 백제는 처음으로 동진(東晉)에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이것은 백제가 활동 무대를 한반도에서 중국까지 확대한 것이었다.

근초고왕 대에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는 백제가 우세를 점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의 선제공격으로 양국 간에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백제는 고구려의 침입을 잘 막아냈고, 오히려 근초고왕이 고구려로 쳐들어와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이 시기 고구려가 백제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은 당시 백제가 비약적인 발전기에 들어서서 주변으로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고구려는 전연과의 전쟁에서 수도가 함락되는 등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선제공격을 한 것은 어느 정도 백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국원왕의 전사로 고구려가 일방적으로 밀리는 형편이었지만 그런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근초고왕 말년에 고구려는 백제의 북쪽 변방에 있는 수곡성을 쳐서 함락시켰다(360년). 드디어 전열을 재정비한 고구려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동북아시아 군사 강국 고구려를 상대로 하여 앞으로 백제가 겪어야 할 시련의 시작에 불과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부 강사

II 중앙 집권 체제의 확립

노중국

1. 중앙 집권 체제 확립 배경

1) 5부 중심 체제의 해체

3세기 중엽 경까지 고구려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왕권이 5부(部) 세력들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이른바 부체제(部體制)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부의 유력자인 대가(大家)들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사자(使者)-조의(卓衣)-선인(先人)으로 이루어진 독자적인 지배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전 왕족인 소노부의 적통 대인(嫡統大人)은 종묘를 세우고 영성(靈星)과 사직(社稷)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 제가들은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등 군사 권도 일정하게 행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직할지를 제외한 지역은 제가들을 통해 다스려지는 간접 지배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시기 고구려는 이원적인 지배 구조 속에서 정치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운영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고국천왕(故國川王, 179~197년) 대부터이다. 왕비족인 연나부 세력은 그 출신인 좌가려(左可慮)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평정됨으로써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전 왕족인 소노부도 고국천왕 사후 일어난 왕위 계승 싸움에서 받기

(發岐)를 지지하였다가 패배함으로써 그 위세가 약화되었다. 왕비족과 전 왕족의 세력 약화 추세 속에서 서천왕(西川王, 270~292년) 이후부터는 왕위에 도전할 수 있는 왕제들이 제거되기 시작하여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¹ 이렇게 지배 세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봉상왕(烽上王, 292~300년)은 지방의 중요 거점에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지방에 대한 지배도 5부의 족장들을 통한 간접적인 지배에서 벗어나 왕권에 의한 직접 지배의 형태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봉상왕은 지나치게 전횡을 하다가 귀족들의 반발을 사게 되어 국상 창조리(倉助利)에 의해 폐위되고 미천왕(美川王, 300~331년)이 옹립되었다. 즉위 후 미천왕은 연나부 출신 여자를 왕비로 맞이하던 종래의 관행을 버리고 주씨(周氏)를 왕비로 맞이하여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였고, 족장적 성격이 강한 국상(國相) = 상가(相加)를 폐지하고 임기 3년의 대로(對廬)를 의장으로 세웠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미천왕은 12년(312)에 서안평현을 공격하여 취하였고, 14년(313)에는 낙랑군을, 15년(314)에는 대방군을 멸망시켜 한반도 내에 설치되었던 중국 군현을 완전히 축출하여 영역을 넓혔다. 이리하여 왕권은 귀족 회의를 초월하는 지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는 곧 5부 중심의 정치 운영 체제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 고국원왕의 전사와 위기 의식

비록 5부 체제가 해체되고 권력의 집중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제도화·체계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5부 체제적 유습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또 고구려를 구성한 다양한 족속들은 아직까지 고구려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² 백제 개로왕이 북위(北魏)에 올린 국서에 고구려에 살고 있는 북연의 풍족(馮族)들이나 낙랑 등 중국 군현민들이 고향에 묻히고자 하는 수구지심(首丘之心)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은 이민족들이 아직 고구려민으로 동화되지 못한 모습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위한 고국원왕(故國原王, 331~371년)은 5년(335)에 신성을 신축하고, 12년(342) 8월에 환도성으로 이거(移去)하여 전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그러자 전연(前燕)의 모용황은 342년 10월에 고구려를 공격하여 왕도를 함락하고, 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왕모 주씨(周氏)를 포로로 잡아갔다. 고국원왕은 부왕의 시체와 어머니의 송환을 위해 신하를 자칭하면

1) 이기백(1959), 「고구려 왕비족고」, 『진단학보』 20, 진단학회 참조.

2) 김현숙(1996), 「체제 정비」, 『한국사』 5, 삼국의 정치와 사회1-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49쪽.

서 전연으로부터 낙랑공고구려왕(樂浪公高句麗王)의 책봉을 받았다. 그 결과 고구려의 서쪽 진출은 일시적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서진(西進)이 좌절되자 고국원왕은 후반에 와서 남진(南進)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백제는 먼저 369년에 군사 작전을 전개하여 신라 및 가야제국과는 우호 관계를 맺고 영산강 유역을 영역으로 확보하여³ 후방 지역에 대한 안전을 도모한 후 고구려의 남진 압력에 적극적으로 맞섰다. 그리하여 양국 사이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고국원왕은 39년(369)에 2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백제를 쳤지만 치양에서 패배하였으며, 41년(371)에는 평양성에서 3만의 백제 정병을 맞아 싸우다 화살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다.

예기치 못한 왕의 죽음으로 고구려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지배층의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모순이 표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배층을 결속하고 나아가 영역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고구려민이라는 의식을 갖게 하여 왕실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래와는 다른 체제를 확립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임무를 부여받은 왕이 소수림왕(小獸林王, 371~384년)이었다.

소수림왕의 즉위를 전후하여 이제까지 정치적·군사적으로 고구려에 압박을 가해왔던 전연이 370년에 전진(前秦)의 부견(符堅)에 의해 멸망하였다. 고구려는 망명해온 전연의 태부 모용평을 사로잡아 전진에 보내 전진과의 우호 관계를 수립하였다. 한편 백제는 375년 근초고왕 사후 일단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고구려는 남부 국경에 대한 근심을 덜게 되었다. 이로써 국내 체제를 정비할 수 있는 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한편 4세기 전반에는 요동 지방을 둘러싸고 여러 세력들이 각축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한인 출신 관료들이나 장수들이 전쟁을 피하거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고구려로 망명해왔다. 336년에는 전연의 모용인이 형 모용황과 권력 다툼을 하다가 부하인 동수·곽충과 함께 망명해왔고, 338년에 전연의 봉추, 송황, 유흥 등 고위 한인 관료들이 망명해온 것이 그 예가 된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중국식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인 관료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⁴ 이러한 바탕 위에서 소수림왕은 불교의 수용, 율령의 반포, 태학의 설립 등 집권 체제 확립의 기반이 되는 일련의 개혁적인 조치들을 단행할 수 있었다.

3) 『日本書紀』 卷9 神功紀 49年條.

4) 이기백·이기동(1983), 『한국사강좌』 1-고대편, 일조각.

2. 소수림왕의 개혁 정책

1) 불교의 공인과 초부족적 정신 세계의 수립

소수림왕의 개혁 정책과 관련하여 먼저 주목되는 것은 불교의 공인이다.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 고구려에서는 족단별·지역별·정치 집단별로 재래 신앙이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왔다. 각 족단별로 자기 조상을 섬기는 조상 신앙이라든가, 각 집단이 자신의 근거지가 되는 지역의 산천에 기원하는 산천 신앙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신앙은 상대적으로 지역별·정치 집단별로 분립적인 성격을 강하게 유지하게 하였다. 때문에 국가 차원의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립성을 해체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전진으로부터 불교가 전해졌던 것이다.

소수림왕은 2년(372)에 전진에서 승려 순도(順道)가 불경과 불상을 가지고 오고, 4년(384)에 승려 아도(阿道)가 오자 이듬해(375)에 초문사(肖門寺)를 세워 순도를 안치하고,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세워 아도를 안치하였다. 물론 고구려에 불교가 알려진 것은 이보다 앞선다. 동진(東晉)의 승려인 지둔(支遁)이 고구려 도인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불교의 전래와 이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단계를 달리한다. 따라서 소수림왕이 승려와 불상·불경을 받아들이고 사찰을 세운 것은 바로 불교의 공인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수림왕의 뒤를 이은 고국양왕(倣國壤王, 384~391년)은 8년(391) 봄에 “불교를 믿어 복을 구하라.”는 교서를 내렸고, 광개토태왕은 2년(392)에 평양에 9사(寺)를 창건하였다. 이리하여 불교는 지방에까지 확산되어 갔다.

불교는 고차원적이고 보편적인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래 신앙도 포섭하는 포용성이 강한 신앙 체계였다. 또 왕즉불(王即佛) 사상, 즉 왕이 곧 부처라고 하는 북조의 불교는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주민을 통합하는 데 적합하였다. 불교의 공인과 지방으로의 확산은 왕실과 민으로 하여금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였다. 왕즉불 사상은 왕은 부처와 같으므로 신도는 부처를 받들 듯이 국왕을 받들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하였으며, 각 지역 집단이나 족단들로 하여금 점차 배타성을 버리고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지방민들은 종래 족장을 매개로 하여 국왕과 연결되던 사회 관계를 청산하고 국왕에게 직접 충성하는 형태로 바뀌어갔다. 이렇게 볼 때 불교의 공인과 확산은 고구려민들을 국왕 중심으로 결집하게 하고 지역별로 나타나는 분립적 성격을 극

복하게 하여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사상적 토대를 놓아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유학 교육의 강화와 인재 양성

4세기에 들어와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고 정복적 팽창으로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증가된 영토와 늘어난 인구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고구려는 중앙 및 지방 통치 조직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관청과 관직이 설치되고 자연히 관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실은 새로운 관료들이 국왕에게 충성하도록 하여야 했다. 이 충성은 종래처럼 족장과 족원(族員)과의 유대 관계에서 생겨나는 충성이 아니라 변화된 사회 관계에 맞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 충성이어야 하였다. 이러한 이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충효(忠孝)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유교 정치 사상이었다.

한편 관청 조직의 확대·정비에 따라 관청과 관청 사이, 중앙과 지방 사이에 오가는 문서 행정과 중국과의 빈번한 교섭과 교류에 의한 문서 행정이 크게 늘고 복잡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국서를 작성하거나 중국에서 보내온 국서를 읽고 해독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문서 행정을 수행할 때 그 수단이 바로 한문자(漢文字)이다. 따라서 한문자를 알고 한문 문장을 지을 수 있으며 문서 행정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소수림왕은 2년(372)에 유학 교육 기관인 태학(太學)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 고구려는 전연 및 그 뒤를 이은 전진과 빈번한 접촉을 하였다. 이 나라들은 모두 태학을 세워 유학 교육에 힘을 쏟았다. 특히 전진 왕 부견은 직접 태학에 가서 박사들과 경전에 대해 토론할 정도였다. 이는 고구려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 최초의 태학은 동진의 제도를 본받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전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태학은 북위의 명원제(409~432년) 때에 오면 국자학(國字學)-태학-사문학(四門學)으로 개편되었다. 이 시기에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강력한 왕권 확립을 추진하면서 북위와 긴밀한 교류 관계를 가졌다. 이로 미루어 보면 장수왕은 북위의 교육 제도를 받아들여 태학을 국자학-태학제로 재편성한 것으로 보인다.⁵⁾ 이는 『한원(翰苑)』에 인용된

5) 고명사 저·오부윤 역(1995), 『한국 교육사 연구』, 대명출판사, 34쪽.

『고려기(高麗記)』에 국자박사와 태학박사가 나오는 것에서 확인된다.

태학에서 가르친 유교 경전은 처음에는 오경(五經)이 강조되었고, 그 후 삼사(三史) 즉 『사기(史記)』·『한서(漢書)』·『후한서(後漢書)』도 교수되었으며, 후기에 와서는 자전류(字典類)와 문선(文選)까지 교수되었다. 이것은 고구려가 유학과 중국 문화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태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한 직책은 박사였고 그 아래 조교는 실무를 담당하였다. 태학을 통한 유교 정치 사상의 교육은 전통적인 귀족들로 하여금 새로운 관료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의식을 전화시켜 갔고 또 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귀족들을 관료적 성격으로 변화시켜 나갔다.

3) 율령의 반포와 일원적 법체계의 수립

고구려는 미천왕 이후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도 많아졌지만 지역에 따라 또는 집단에 따라 관습이 달라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웠다. 즉 종래의 관습법만으로는 넓어진 영토와 복잡하고 다양해진 여러 구성원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데 한계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고구려는 중국의 율령제를 받아들여 체제 정비를 도모하였다. 율령은 중국에서 성립되고 발전한 성문법이다. 율(律)은 형벌법이고 영(令)은 민정법이라 할 수 있다. 고구려 율령의 모범이 된 것은 서진(西晉)의 태시율령(泰始律令)으로 추정되고 있다.

율령을 반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하나는 유교 사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율령은 유교의 인(仁)의 실천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일원적인 법체계에 의해 영역을 지배할 수 있는 집권력이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⁶ 소수림왕 대는 태학을 설치한 것에서 보듯이 유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미천왕 이후 중앙 집권화를 추진하여 왕권 강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소수림왕은 율령을 반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율령을 반포함으로써 이전의 다원적이고 다양하였던 관습법은 일원화되었고, 각종 제도들은 법제화되어 국가는 일원적인 법체계에 의해 운영될 수 있었다.

이때 반포된 율령에는 형벌법뿐만 아니라 관료들의 상하 질서를 규정한 관등제, 관청과

6) 노중국(1979), 「고구려 율령에 관한 일시론」, 『동방학지』 2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참조.

그 내부에 설치된 관직제, 조세 수취와 관련한 조세제, 하늘과 땅에 대한 제사와 관련한 제의 규정, 장례와 관련한 상장(喪葬)제, 교육과 관련한 학제, 음악과 관련한 악제, 공복이나 의관과 관련한 의복제 등 정치 운영과 사회 생활 전반을 규제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구려의 율령은 비록 중국 율령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독자적인 면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형벌을 적용하는 데 엄격하였다든가, 유교 사상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든가 하는 것은 고구려 율령의 개성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고구려가 전통적인 관습법을 시대 상황에 맞도록 변화시켜 율령 속에 포함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중앙 및 지방 통치 조직의 정비

1) 중앙 통치 조직

(1) 관등제와 관직의 정비

중앙 집권적 통치 조직의 정비에서 일차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관등제(官等制)의 정비이다. 관등은 귀족 관료들의 상하 서열을 규정한 제도이다. 5부 체제 하에서 관제는 왕권이 아직 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왕 아래에 상가-대로-패자-고추가-주부-우태-승-사자-조의-선인이라는 조직과 대가들이 스스로 둔 사자-조의-선인이라는 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⁷ 그러나 왕권이 확립되면서 이원적인 관제는 왕권 중심으로 일원화되었다. 고구려 관등제의 기본 틀은 미천왕 대에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자·조의·선인 가운데 사자는 점차 분화·격상되어 갔으며, 족장을 의미하는 우태는 형으로 개칭되었다.⁸ 그리고 소수림왕 대에 율령이 반포되면서 관등제도 제도화되었다.

이 시기 관등제의 구체적인 모습은 『위서』 고려전에 나오는 알사(謁奢)=태대사자, 태사(太奢)=대사자, 대형(大兄), 소형(小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기사는 고구려의 관등이 기본적으로 사자(使者) 계열과 형(兄) 계열의 관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사자 계열의 관등은 태대사

7)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高句麗條.

8) 김철준(1975), 『한국고대사회연구』, 지식산업사.

자-대사자-사자로, 형 계열의 관등은 태대형-대형-소형으로 분화된 것을 보여준다. 이외에 증원고구려비에는 주부(主簿)와 발위사자(拔位使者)가 나온다. 이를 종합하면 4~5세기의 관등제는 대로(對盧)를 제일로 하고, 그 아래에 알사-태사-대형-소형과 서열의 선후를 모르는 주부와 발위사자가 있었고, 하위에 조위와 선인이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1 고구려 관등의 변천

『위서(魏書)』 고려전	『주서(周書)』 고려전	『수서(隋書)』 고려전	『신당서(新唐書)』 고려전
알사(謁奢) 태사(太奢) 대형(大兄) 소형(小兄)	대대로(大對盧) 태대형(太兄) 대형(大兄) 소형(小兄) 의사사(意侯奢) 오졸(烏拙) 태대사자(太大使者) 대사자(大使者) 소사자(小使者) 욕사(褥奢) 예속(翳屬) 선인(仙人) 욕삼(褥薩)	태대형(太兄) 대형(大兄) 소형(小兄) 대로(對盧) 의후사(意侯奢) 오졸(烏拙) 태대사자(太大使者) 대사자(大使者) 소사자(小使者) 욕사(褥奢) 예속(翳屬) 선인(仙人)	대대로(大對盧) 울절(鬱折) 태대사자(太大使者) 의두대형(衣頭大兄) 대사자(大使者) 대형(大兄) 상위사자(上位使者) 제형(諸兄) 소사자(小使者) 소형(小兄) 선인(仙人) 고추대가(古雛大加)
『한원(翰苑)』 고려기		『삼국사기』직관지(職官志) - []는 신라 관등	
대대로(大對盧) - 토졸(吐卒) 태대형(太兄) - 막하하라지(莫何何羅支) 울절(鬱折) - 주부(主簿) 대부사자(大夫使者) - 알사(謁奢) 조의를대형(佐衣頭大兄) - 중리, 의두대형(中裏, 衣頭大兄) 대사자(大使者) - 대사(大奢) 대형(大兄) - 힐지(纒支) 발위사자(拔位使者) - 유사(儒奢) 상위사자(上位使者) - 계달사사자, 을사(契達奢使者, 乙奢) 소형(小兄) - 실지(失之) 제형(諸兄) - 예속, 이소, 하소환(翳屬, 伊紹, 河紹還) 과절(過節) 부절(不節) 선인(先人) - 선완, 서인(先元, 庶人)		주부(主簿) - [일길손(一吉濬)] 대상(大相) - [사손(沙濬)] 위두대형(位頭大兄) - [급손(級濬)] 중대상(從大相) - [급손(級濬)] 소상(小相) - [나마(奈麻)] 적상(狄相) - [나마(奈麻)] 소형(小兄) - [대사(大舍)] 제형(諸兄) - [사지(舍知)] 선인(先人) - [길차(吉次)] 자위(自位) - [오지(烏知)]	

4~5세기 관등제를 보면 사자 계열의 관등이 형 계열보다 상위에 있다. ‘형’은 연장자·가부장적 족장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 계열의 관등은 족장 계열의 중앙 귀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사자는 왕명을 봉행하는 왕의 직속 관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 씨족원 가운데 행정적인 관료로 성장한 귀족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행정 관료적 성격이 강한 사자 계열의 관등이 형 계열보다 서열이 높은 것은 왕권 중심으로 정치 운영을 하겠다는 소수림왕의 의지를 반영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6세기에 들어오면 형 계열의 관등이 한 군(群)을 이루면서 상위를 차지하고 사자 계열의 관등은 그 아래에 놓였다. 4~5세기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 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의하면 안장왕(安藏王, 519~531년)은 피살된 것으로, 안원왕 말기에는 외척 사이에 왕위 계승전이 일어나 추군(麤群) 세력이 세군(細群) 세력을 물리치고 어린 양원왕(陽原王, 545~559년)을 옹립한 것으로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유력 귀족들은 종래의 전제적인 국왕 중심 체제보다는 귀족 중심의 국정 운영을 이루려 하였다.⁹ 이리하여 족장의 의미를 지니는 형계 관등이 상위로 격상되고 반면에 사자계 관등은 그 아래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구려는 평원왕(平原王, 559~590년) 28년(586)에 장안성(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겼고, 영양왕(嬰陽王, 590~618년)은 11년(600)에 『신집(新集)』이라는 역사책을 새로 편찬하였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왕권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왕권이 귀족들의 힘을 완전히 압도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왕권과 귀족 세력 사이에 일정한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 <표 1>에서 보듯이 7세기에 와서 형 계열의 관등과 사자 계열의 관등이 엇갈려 배치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영역의 확대와 인구의 증가는 국가 업무를 확대시켰고 이로 말미암아 그러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관청과 관료 조직도 확대 개편되었다. 고구려의 관청 가운데 그 존재가 분명한 것은 유학 교육 기관으로서의 태학이다. 여기에는 국자박사와 태학박사가 두어졌고 소형 이상의 관등 소지자가 맡았다. 다음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관청은 중외부(中畏府)이다. 중외부는 관료의 선발과 승진 등과 같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그 연원은 고국천왕 때까지 올라가며, 천남생(泉男生) 묘지명이나 고자(高慈) 묘지명에 보듯이 후기에 와서는 중리부(中裏府)로 개칭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⁰ 여기에 중외대부가 설치되어 인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막부로서 장군부이다. 중국의 남북조시대에는 황제권이 미약한 가운데 주의 자사(刺史)는 장군을 겸하여 독자적으로 장군부를 개설하고 막료를 두었다. 이를 부관(府官)이라 한다. 고구려에서 중국식 작호는 고국원왕이 전연으로부터 정동대장

9) 이 기사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노태돈(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395~400쪽 참조.

10) 武田幸男(1978), 「高句麗 官位制とその展開」, 『朝鮮學報』 86집, 朝鮮學會 참조.

군영주자사낙랑공고구려왕(征東大將軍營州刺史樂浪公高句麗王)을 받은 것이 처음이다. 그 후 광개토대왕은 후연으로부터 평주목요동대방이국왕(平州牧遼東帶方二國王)으로 책봉을 받았고, 막부를 열어 장사·사마·참군을 두었다. 이러한 막부 관료들은 대외 관계나 군사 업무와 관련하여 참모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 소속된 관청은 알 수 없지만 그 업무를 추정해볼 수 있는 관직이 몇 개 있다. 발고추가(拔古鄒加)는 당의 흥려경에 비견되는 것으로서 외교 사절 접대 업무를 관장하였고 태대사자 이상의 관등을 가진 자가 임명되었다. 사인과 통사와 전객은 소형 이상의 관등 소지자가 맡았다. 사인은 궁중의 일을 관장하는 근시직으로, 통사는 왕명 출납과 같은 전령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객은 발고추가 아래에서 외국 사신의 접반(接伴) 업무를 관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신분제

고구려는 3세기 이후 생산력 증대와 정복 활동을 통한 영역 확대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고 사회 분화가 진전되어 갔다. 이에 따라 5부의 족장들은 중앙의 지배 체제 속에서 점차 대소 귀족으로 전환되어 갔고, 이와 동시에 사회 편제의 기본 단위가 되는 읍락은 공동체적 성격을 벗어나게 됨으로써 그 구성원들은 호민, 하호, 노복으로 분화되었다. 고구려는 이렇게 변화된 사회 관계를 정리하여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분제가 마련되었다.

고구려의 신분제는 크게 귀족 신분층, 평민층, 천인층으로 나눌 수 있고 각 신분층은 내부적으로 다시 몇 개의 층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고대 사회에서 관등제는 신분제에 의해 규제되었다. 때문에 귀족 신분의 경우 신분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관등에 한계가 두어진, 이른바 관등 승진의 상한선제에 의해 몇 개의 층으로 세분화해볼 수 있다. 이를 추정하는 데 단서가 되는 것이 실권자 연개소문의 아들 남생이 처음 선인의 관등을 받은 후 소형으로, 대형으로, 조위두대형으로 승진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소형, 대형, 조위두대형이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¹¹⁾ 그렇다고 하면 귀족 신분은 조위두대형 이상으로 오를 수 있는 층, 대형 이상으로 오를 수 있는 층, 소형 이상으로 오를 수 있는 층, 소형 이하의 관등까지 오를 수 있는 층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조위두대형까지 오를 수 있는 최고 귀족 신분층은 왕족과 왕비족을 비롯하여 5부의 장들과 연결되는 가문들로 이루어졌다.

평민층도 호민층과 일반민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호민은 민 가운데 호강한 자들로서 국을

11) 武田幸男(1967) 참조.

이나 읍락의 유력자 층이었으나 중앙 귀족화하지 못하고 재지 세력으로 남은 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지방관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다. 일반민은 하호라고도 하였는데¹²⁾ 주로 농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국가에 대해 조세 납부와 노동력 제공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천인층은 노비층과 천민 집단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노비는 비자유인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물건과 같이 취급되었다. 노비 소생은 노비가 되었고, 전쟁 포로나 부채를 진 자와 중대한 죄를 범한 자들도 노비가 되었다. 천인 집단은 주로 고구려에 정복되는 과정에서 예민화된 자들로서 집단을 이루어 살았으며 사회적으로 천시되었다.

(3) 귀족 회의제

고구려의 국가 운영은 왕권과 귀족 세력과의 역학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국사를 논의하는 귀족 회의제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왕권과 귀족 세력과의 역학 관계는 시기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귀족 회의제의 존재 양상이나 기능에도 변화가 있어왔다.

먼저 5부 체제 하에서 귀족 회의제는 제가(諸加)회의라 할 수 있다. 가(加)는 족장을 의미하므로 제가회의는 족장적 성격의 회의제였다. 이 시기에는 왕권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회의가 정치 운영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였다. 그 의장이 상가인데 이는 『삼국사기』의 국상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¹³⁾ 상가 = 국상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종신이었다.

4세기에 들어와 5부 체제가 해체되고 국가 업무를 처리하는 여러 관청과 관직이 설치되면서 국왕은 관료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종신직이었던 상가 = 국상은 폐지되고 그 대신 대로가 의장이 되었다. 대로의 임기는 3년이었기 때문에 귀족 회의체에 대한 국왕의 발언권이 종래보다 더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6세기 초반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문자왕(文咨王, 492~519년) 대까지는 강력한 왕권 중심의 정치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귀족 회의체는 정치 일선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문자왕 이후 안장왕은 피살되었고, 안원왕 말년에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싸움에서 승리한 추군이 어린 양원왕을 옹립하여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를 계기로 실권 귀족들은 점차

12) 하호에 대해서는 홍승기(1974), 「1~3세기의 '민'의 존재형태에 대한 일고찰 - 소위 '하호'의 실체와 관련하여 -, 『역사학보』 63집, 역사학회 참조.

13) 국상을 군신회의(君臣會議)의 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종욱(1979), 「고구려 초기의 좌·우보와 국상」, 『전해중 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일조각 참조.

귀족 회의체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을 주도하였다. 이 시기 국정의 최고 핵심체는 오관(五官)회의체였다. 이 회의체는 조위두대형에서 대대로에 이르는 5개의 관등을 소지한 자들로 구성되었는데, 군사 기밀을 비롯하여 행정권·인사권·군사권도 관장하였다. 이 회의체의 의장이 바로 대대로(大臺)였으며 그 임기는 3년이었다.

대대로의 임기는 비록 3년으로 제한되었지만 후기에 와서는 능력이 있으면 임기에 구속받지 않았다. 나아가 대대로의 자리를 둘러싸고 유력한 귀족들 사이에서 무력 분쟁이 일어나 이긴 자가 대대로에 취임하였다. 왕은 이러한 무력 분쟁을 제어할 힘이 없어 이긴 자를 대대로로 추인해주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귀족 연립적 정치 운영이 이루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2) 지방 통치 조직

5부 체제 하에서 지방 통치는 왕의 직할지 이외의 지역은 5부의 족장들을 통해 지배되는 간접 지배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왕권 중심의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자 5부 족장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읍락들은 성이나 곡(谷)으로 편제되고 여기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그에 따라 지방에 대한 지배도 점차 직접 지배로 바뀌어 갔다. 그러나 지방관 파견이 일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먼저 국경 요지에 성을 쌓은 후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지방 행정과 군사 업무를 겸하게 한 것이 초기의 형태였다. 봉상왕 대에 신성을 쌓고 북부 소형 고노자를 신성재(新城宰)로 임명하여 지키도록 한 것이 그 예다.

4~5세기 대의 고구려의 지방 통치 조직의 구조는 광개토대왕릉 비문에 나오는 58성, 700촌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성은 촌보다 상위의 단위이며, 성과 촌의 비율이 대략 1:10 정도 되므로 하나의 성이 10개의 촌 정도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교통로를 중심으로 이러한 성들을 축조하고 행정 단위로 편제하여 지방 통치 조직을 확대하여 나갔다. 모두루 묘지명에 나오는 '북도성민곡민(北道城民谷民)'이라는 표현은 북부 지역이 북도란 교통로를 중심으로 성과 곡이라는 행정 단위에 의해 통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방 통치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초기에 지방관의 명칭은 북부 소형 고노자가 신성재에 임명된 것에서 보듯이 재(宰)였다. 그런데 고구려는 475년에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가 551년에 백제에게는 6군(郡)을, 신라에게는 10군을 빼앗겼다. 6군·10군의

존재는 5세기에 고구려가 군(郡)제를 실시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⁴ 이 시기에 군에 파견된 지방관의 명칭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광개토대왕릉 비문과 모두루 묘지명에 나오는 수사(守事)가 대형의 관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수사는 후대의 군 태수와 동일한 성격의 지방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5세기의 지방 통치 조직은 수사(태수)-재라고 하는 2단계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

고구려의 지방 통치 조직은 6세기에 들어오면 보다 정비된다. 이 시기 지방 통치 조직을 보여주는 것이 『수서(隋書)』 고려전에 나오는 '내평외평오부육살(內評外評五部褥薩)'이다. 내평은 왕도를, 외평은 지방을 의미하며, 오부육살(五部褥薩)은 내평과 외평이 5부로 구성되었고 그 장관이 육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평 5부는 지방이 크게 5개의 행정 구역으로 편제되고 거기에 육살이 파견된 것을 보여준다. 이 5부 아래에 대성-제성-제소성-성으로 구분되는 여러 등급의 지방 통치 조직이 만들어졌다. 대성에는 육살이, 제성에는 처려근지가, 제소성에는 가라달이, 성에는 누초가 파견되었다.

대성에 파견된 육살을 표기할 때 부의 명칭이 앞에 붙기도 하고 부의 치소가 되는 성 이름이 앞에 붙기도 하였다. '남부육살 고혜진'은 부명이 앞에 붙은 사례이며 '오골성육살'은 치소인 성 이름이 앞에 붙은 사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관은 성 이름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육살에 임명될 수 있는 자는 제5위의 관등인 조의두대형 이상의 관등을 소지한 자였다.

육살 아래에 두어진 처려근지는 도사라고도 하였는데, 당(唐)의 자사에 비견되는 존재로서 대형 이상의 관등 소지자가 임명되었다. 그 치소는 비(備)라고 하였다. 처려근지가 두어진 성으로는 대당 전쟁 때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안시성, 백암성, 개모성, 건안성, 부여성, 비사성 등이 추정되고 있다.¹⁶

가라달은 당의 장사에 비견되는 지방관인데, 처려근지의 직할지를 관장하는 막료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삼국사기』에 보이는 요동성 장사는 요동성의 성주라기보다는 성주를 보좌하는 직책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누초는 당의 현령에 비견되는 존재로서 최하위 지방 행정 조직의 장관이었다. 가라달과 누초에는 소형 이상의 관등 소지자가 임명되었다.

14) 노태돈(1999), 266~274쪽.

15) 김현숙(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281~284쪽.

16) 여호규(1998), 『고구려 성』 I·II, 국방군사연구소.

4. 군사 조직과 방어 체계

1) 군사 조직

『삼국지』 동이전에 의하면 압록강·훈장 강(渾江) 유역 일대에 자리한 고구려는 넓은 들이 없어 식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변국들을 자주 침범한 것으로 나온다. 즉 고구려는 약탈 전쟁을 통해 전쟁 포로와 전리품을 획득하고, 정복 전쟁을 통해 피정복 지역으로부터 공납물을 수취하여 부족한 생산물을 보충하였던 것이다. 이는 고구려가 일찍부터 군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음을 보여준다.

5부 체제 단계에서 고구려의 군사 조직은 전사단(戰士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사단은 일종의 명망군(名望軍)으로서¹⁷ 그 구성원은 좌식자(坐食者)인 호민 이상의 존재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집에 무기를 둘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졌으며 전쟁에 참여한 대가로 전쟁에서 얻어지는 노획물을 분배받거나 군공에 대한 포상으로 식읍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반면에 일반민인 하호는 군수 물자를 운반하고 공급하는 책임을 졌다. 그러나 이 시기에 5부 족장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는 등 전사단에 대한 지휘권의 일정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다.

4세기에 들어와 왕권이 강화되면서 군사권은 점차 왕권 아래로 일원화되어 갔고 또 정복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전쟁의 규모도 확대되었다. 이는 대규모의 군사와 물자 동원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 때문에 전사단 체제만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고구려는 민들도 군대에 동원하였다. 이리하여 고구려 노비를 제외한 모든 민들이 군역에 동원되는 국민 개병제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동원된 군대는 광개토대왕릉 비문의 ‘왕당(王幢)’, ‘관군’이란 표현에서 볼 수 있듯 귀족들의 사적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왕권 하에 편제된 공적인 군대였던 것이다.

고구려군은 주둔지에 따라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눌 수 있다. 중앙군은 상비군적인 성격의 군대로서 수도에 주둔하여 치안을 맡고 유사시에는 변방에 파견되었다. 따라서 수도 5부는 행정 조직임과 동시에 군관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삼국사기』 온달 열전에 나오는 전렵(田獵: 사냥)에 동원된 5부병(部兵)이나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킬 때 동원한 부병은 바로

17) 이기백(1977), 『한국의 전통사회와 병제』, 『한국학보』 6, 일지사 참조.

5부에 주둔한 중앙군이라 할 수 있다.

중앙군을 지휘한 최고의 군관직이 대모달(大模達)이다. 대모달은 대당주 또는 막하라수지라고도 하였는데 중국의 위장군에 비견되었다. 이 직은 조위두대형 이상의 관등 소지자가 맡았으며, 왕궁 숙위의 임무를 담당할 것 같다. 말객은 중랑장에 비견되는데 대형 이상의 관등 소지자가 맡았으며, 병사 1천 명을 거느렸다. 말객(末客)의 다른 이름이 군두(郡頭)이기 때문에 말객=군두를 군(郡)에 속한 군대를 지휘하는 군관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중랑장은 중앙에 주둔한 군대의 지휘관이었다. 따라서 말객의 다른 이름인 ‘군두(郡頭)’는 ‘군두(軍頭)’의 오기가 아닐까 한다. 백두(百頭)는 명칭으로 미루어 100명을 거느린 우두머리라는 의미의 칭호이다. 중국의 경우 100명 단위의 부대를 당(幢)이라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백두는 군사 100명을 거느린 무관으로 추측된다.¹⁸

지방군은 지방 통치 조직과 연계되어 조직되었다. 때문에 지방 행정 조직은 군관구적 성격도 지녀 지방관은 행정관임과 동시에 지방에 주둔한 군대를 지휘하는 군관의 기능도 겸하였다. 지방군 가운데 육살이나 처려근지가 파견된 성에 주둔한 군대는 상비군적인 성격을 지녔지만 대개의 지방군은 일정 기간 복무한 후 교대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군역에 1회 복무하는 기간은 백제나 신라의 예에서 미루어 볼 때 3년으로 추정된다.

2) 병종과 방어 체계

광개토대왕릉 비문에 의하면 고구려군의 병종(兵種)은 보병·수군·기병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병과 보병은 실제 전투에서는 합동 작전을 전개하였을 것이다. 수군은 낙랑·대방군을 멸망시킨 후 이 지역의 해상 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보병은 무기에 의해 도부수(刀斧手)와 창수(槍手), 궁수(弓手)대로 나눌 수 있다. 고구려의 병종과 무기·무구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 고분에 그려진 벽화이다. 벽화를 보면 보병의 경우 칼, 짧은 창, 도끼, 갈고리, 화살 등이 주된 무기였고 일부는 투구와 단갑으로 무장하기도 하였다. 기병은 궁시(弓矢)·긴 창·칼을 주 무기로 하였으며, 찰갑(札甲)과 투구로 온 몸을 가린 개마(鎧馬) 기병과 그렇지 않은 일반 기병으로 나눌 수 있다.¹⁹

18) 임기환(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40~241쪽.

19) 고구려의 무장에 대해서는 김기웅(1985), 『무기와 마구』, 『한국사론지』 15집, 국사편찬위원회 참조.



••• 지도 1 고구려의 주요 산성

군사 조직의 정비와 더불어 고구려는 방어 체계로서 성을 많이 축조하였다. 성은 본래 군사적 방위 시설물로서 크게 평지성과 산성으로 나눌 수 있다. 평지성은 평상시에 지배층이나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고, 산성은 외적의 침입 때 주민들이 입거하여 방어하는 기능을 하였다.

고구려가 방어 체계를 마련하면서 가장 힘을 들인 부분이 도성의 방어이다. 효율적인 도성 방어를 위해 고구려는 평지성과 산성을 결합하는 형태로 도성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초기의 수도인 환인의 졸본성은 평지성인 하고성자성과 산성인 오녀산성으로 이루어졌고, 국내성의 경우 평지성인 국내성과 산성인 환도산성 = 산성자산성으로 이루어졌다. 평양성 역시 평지성인 인화궁성과 산성인 대성산성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지방의 산성은 군사적 요충지나 중요한 교통로상의 지역에 축조되었는데, 영역이 확장되고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이 빈번하고 규모도 커짐에 따라 성의 축조도 더욱 많아졌다. 낙랑

군과 대방군을 축출한 미천왕 대에는 신원군의 장수산성이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광개토대왕 대에는 국남에 7성을, 국동에 6성을 축조한 기사가 나온다.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한 후 수도 방어를 위해 남포의 동진성·황룡산성·청룡산성, 서흥의 대현산성, 평산의 태백산성, 봉산의 휴류산성·태봉산성 등을 축조하였다. 그리고 요동 지역을 영역으로 확보한 이후에는 행정적 거점과 교통로상의 요충지에 신성, 요동성, 개모성, 백암성, 안시성, 건안성, 비사성 등을 축조하여 중국의 침입에 대비하였다.²⁰

성의 대다수는 석축성이며 토축성은 많지 않고 때로는 흙과 돌을 섞어서 쌓기도 하였다. 성의 방어력과 관련된 시설물로는 용성(甕城), 치(雉), 여장(女牆, 女牆), 각루(角樓) 등이 있고 성 안에는 우물, 봉수대, 창고, 병영 등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성들은 대개 험준한 지세를 이용하여 축조되었기 때문에 공략이 쉽지 않았다. 고구려는 산성에 의지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외적의 침입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

5. 제의 체계 정비와 왕실 권위의 강화

1) 제의 체계의 정비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가 갖추어지면서 제의(祭儀) 체계도 정비되었다. 제의 체계의 중심이 된 것은 종묘와 사직이다. 종묘는 역대 왕들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고 사직은 토지신과 곡신을 모신 사당이었다. 5부 체제 단계에서 종묘와 사직은 계루부 왕실만이 아니라 전 왕족인 소노부의 적통 대인도 세울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에는 제의가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이원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4세기로 들어와 5부 체제가 해체되고 제의가 왕실 중심으로 일원화되면서 고구려 왕실 이외에는 아무도 종묘와 사직을 세울 수 없게 되었다.

이후 고국원왕 대에 와서 전연의 공격을 받아 국도가 함락됨으로써 종묘와 사직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고국양왕은 8년(391)에 해당 관청에 명령을 내려 국사(國社)를

20) 임기환(1996), 「지방·군사제도」, 『한국사』 5, 삼국의 정치와 사회1-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184~189쪽.

세우고 종묘를 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고구려의 종묘와 사직제는 재정비되었다. 중국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종묘는 왕궁의 좌측에, 사직은 우측에 두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시조 주몽과 시조의 어머니 하백녀에 대한 제의 체계의 정비이다. 고구려는 종묘와는 별도로 시조와 시조의 어머니 하백녀를 모시는 사당을 각각 세우고 나무로 신체(神體)를 만들어 모셨다. 시조신은 등고신(登高神)이라고도 하였다. 그런데 『당서(唐書)』 고려전에는 가한신(可汗神)이 나오는데 가한은 북방 유목민 사회에서 수장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가한신은 시조 주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시조신을 모시는 사당은 왕도 이외에 지방에도 두어졌다. 요동성의 주몽사가 그 예가 된다. 고구려인들은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면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하백녀의 사당은 처음에는 동부여에 세워졌다. 때문에 왕이 동부여에 직접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지만 후에 동부여를 병합하자 수도에 새로이 사당을 세우고 부여신으로 추앙하였다. 시조신과 하백녀의 신격화는 왕실 시조인 주몽과 하백녀가 전 고구려민의 시조로 숭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동맹제이다. 동맹제는 국중대회(國中大會)로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또 나라 동쪽의 수혈에서 수신(隧神)을 모셔다가 제사를 지냈다. 그 시기가 10월이었으므로 이 제의는 추수감사제적 성격의 제의였다. 『당서(唐書)』 고려전에 나오는 일신(日神)은 바로 추수감사제의 대상이 된 천(天)이라 할 수 있다. 이 동맹제는 고구려 말기에 이르기까지 거행되었다.

동맹제와 더불어 오랜 전통을 갖은 것이 산천에 대한 제의이다. 산천 제의는 국가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전국의 명산대천을 제의의 대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삼국사기』 온달열전에 의하면 고구려에서 3월 3일이면 늘 낙랑 언덕에서 전렵을 하여 잡은 돼지와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에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 이는 고구려에도 산천에 대한 제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라의 경우 산천에 대한 제사는 그 중요도에 따라 대사, 중사, 소사로 나누었는데 고구려도 이와 유사하였을 것이다. 대사의 대상이 된 산천은 국도(國都)에 위치하여 국도를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지방에 위치한 산천은 중사나 소사에 편제되었는데, 지방의 산천을 제의 체계에 포함시킨 것은 그 지역의 민들을 포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의의 대상이 된 산천 가운데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은 전렵지의 하나로 나오는 낙랑 언덕을 들 수 있다.

한편 고구려는 중국과 문화적 교류를 하면서 중국적 제의 체계도 받아들였다. 그 예로서 교사(郊祀)를 들 수 있다. 교사는 천신과 지기(地祇)에 대한 제사이다. 중국의 경우 전한 시기

에는 천자가 정월에 남교에서 천지를 합사하였고, 동지와 하지에는 담당 기관이 남교와 북교에서 천신과 지기를 제사하였다. 후한 대에는 남교 제사는 매년 정월에, 북교 제사는 10월에 드렸는데 동진 이후 남조에서는 남교는 정월에, 북교는 남교 제사 10일 후에 지냈다.²¹ 고구려에서도 교사가 행해졌다는 것은 유리왕 19년(기원후 1) 조에 교시(郊豕)를 하늘에 제사 드리는 희생물로 표현한 것에서 확인된다. 중국과 백제의 예에 비추어 볼 때 고구려도 남교와 북교에 단을 쌓고 천지에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이때 사용된 희생물은 돼지였다.

이외에 고구려에서 행해진 특이한 제의로는 『당서』 고려전에 나오는 기자신(箕子神) 신앙을 들 수 있다. 기자는 은나라 왕족으로 은이 주 무왕에 의해 망하자 조선으로 피난을 와서 8조의 법금을 행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기자는 고구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기자신을 숭배한 것은 기자의 8조 법금이 문명을 열어준 것으로 보고, 고구려가 이제 문명국이 되었음을 과시하면서 그 기원이 기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2) 왕실 권위의 강화

중앙 집권력의 강화는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높이는 쪽으로도 진행되었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왕실의 출자와 계보를 현재의 왕실을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왕실의 출자는 광개토태왕릉 비문에 시조 추모왕이 북부여에서 나온 것으로 기록된 것에서 보듯이 북부여 출자를 공식화하였고, 시조 추모왕의 아들은 2대 유류왕이고 그 아들은 3대 대해주류왕이라는 왕실 계보도 확립하였다. 나아가 시조 주몽은 천제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라는 건국 신화를 확립하여 시조의 핏줄을 이은 왕실의 존엄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시조 출자설과 왕실 계보는 늦어도 소수림왕 대에는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역사서 편찬이다. 고구려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역사서는 『유기(留記)』이다. 100권으로 이루어진 이 『유기』의 편찬 시기는 소수림왕 대로 추정되고 있다. 『유기』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정리한 왕실 계보와 이 왕실을 중심으로 종래 귀족들이 지냈던 다양한 경험들이 재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영양왕은 11년(600)에 유기 100권을 산삭(刪削)하여 5권의 『신집』을 만들었다. 100권이 5권으로 압축된 것에서 미루어 볼 때, 『신집』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21) 중국의 교사에 대해서는 김창석(2005), 「한성기 백제의 유교문화와 그 성립과정」, 『향토서울』 65집, 57~58쪽 참조.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을 것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본문에 나오는 제1대 동명성왕, 2대 유리명왕, 3대 대무신왕이라고 하는 아화(雅化)된 왕호가 바로 그 사례가 아닐까 한다.

셋째, 왕에 대한 칭호의 격상이다. 광개토대왕릉 비문에는 호태왕·호태성왕·영락태왕 등의 칭호가 나오고, 중원고구려비에는 태왕이, 모두루 묘지명에는 호태왕·호태성왕·성태왕 등의 칭호가 나온다. 이러한 칭호들은 왕에 대한 존칭 내지 미칭으로서 강화된 왕권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또 종래에는 장지명을 따서 왕호를 붙인 것과는 달리 광개토대왕부터는 왕이 생전에 이룬 업적이나 특성 등을 나타내는 시호적 성격의 칭호를 왕호로 하였다. 그리하여 광개토대왕의 공식 명칭은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으로 표기되었다.

넷째, 독자적인 연호의 사용이다. 광개토대왕이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영락태왕이라 불린 것이 그 예가 된다. 이외에 신라 호우충에 새겨진 연수(延壽)와 영가7년명불상에 새겨진 영가(永嘉)도 고구려 연호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고구려는 대내적으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대외적으로 자주국임을 표방하였다.

이 시기 고구려의 국력은 주변 국가들도 모두 인정하였다. 북위가 각국 사신들을 위한 사저(使邸)를 만들 때 남제 사신의 것을 제1위로 하고 고구려의 것을 제2위로 하였다든가, 신라가 고구려를 대국으로 표현한 것 등이 그 예가 된다. 그리하여 5세기에 들어와 고구려는 동아시아 세계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여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확립하였다. 이 천하관에 의해 고구려는 백제·신라·동부여 등을 속민으로 인식하였으며, 중원고구려비에서 보듯이 조공국인 신라를 동이로 부르면서 그 왕과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Ⅲ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과 광개토대왕릉비

이도학

1. 영토 확장

1) 광개토대왕의 기상

광개토대왕릉 비문에는 광개토대왕의 공식 시호가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처럼 길게 열거된 광개토대왕의 시호를 통해 광개토대왕릉과 광개토대왕릉비가 소재한 지역이 ‘국강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널리 영토를 개척하여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주었다.”는 구절은 광개토대왕의 치적(治績)을 명시해준다. 그리고 ‘호태왕’은 광개토대왕뿐 아니라 다른 고구려 왕호에서도 확인되는 미칭(美稱)이다.

시호에 응결되어 있는 광개토대왕의 치적은 “나면서부터 (체격이) 우람하고 훌륭한 활 달한 뜻을 가졌었다.”¹⁾ 라고 한 성품과도 잘 연결된다. 백제 진사왕(辰斯王, ?~392년)이 “담덕(광개토대왕)이 용병(用兵)에 능하다는 말을 듣고는 나가서 대항하지 못하여 한수 북쪽의 부락들을 많이 빼앗겼다.”²⁾ 라고 했을 정도로 그의 군사적 능력은 탁월했다. 비록 광개토대왕에게

1) 『三國史記』 卷18, 廣開土王 卽位年條.

2) 『三國史記』 卷25, 辰斯王 8年條.

압기(壓氣)되긴 했지만 “사람됨이 굳세고 용감했으며 총명하며 지략이 많았다.”라는 평을 받은 진사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개토대왕은 용병술을 비상하게 구사하는 걸출한 군인 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영토 확장’의 표상인 광개토대왕 시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거란 일대의 정벌

광개토대왕의赫赫한 전공을 수록한 금석문이 광개토대왕릉 비문(이하 ‘능비문’으로 표기)이다. 먼저 능비문 영락 5년(395)조는 광개토대왕의 염수 상(鹽水上)에 소재한 패려(裨麗) 친정을 기록하였다. 염수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³⁾ 고구려 서북 지역임은 분명하다. 염수는 문자 그대로 소금을 산출하는 호수로 보인다. 고구려는 염수를 장악하여 해염(海鹽)을 섭취할 수 없는 랴오허 강(遼河) 상류는 물론이고 내몽골과 대싱안링 산맥(大興安嶺山脈)을 포함한 거란 등 내륙 지역에 대한 고삐를 쥐고자 했다. 이 원정에서 고구려군은 3부락 600~700명(營)을 격파하는 한편 우마(牛馬)와 양 떼를 다대(多大)하게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고구려의 패려 정벌은 백제 원정에 필요한 동력원의 확보라는 측면도 고려된 것 같다.

그런데 패려를 『진서(晉書)』 동이전에 등장하는 비리국(裨離國)이나⁴⁾ 『위서(魏書)』 거란전의 필혈부(匹紮部)로⁵⁾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패려는 거란과 관련된 종족인 것 같다. 그런데 광개토대왕은 “(391년) 9월에 북쪽으로 거란을 정벌하고 남녀 500명을 사로잡았다. 또 (거란에) 잡혀갔던 본국 백성 1만 명을 불러 타일러 데리고 돌아왔다.”⁶⁾고 하였다. 이렇듯 고구려를 위협하는 거란의 제압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이듬해인 영락 6년에 단행할 백제 정벌의 후고를 덜기 위한 측면도 고려된 것 같다.

패려 정벌 후 광개토대왕의 군대는 염수에서 요양(遼陽)으로 이어지는 양평도(襄平道)를 따라 내려오면서 노획한 우마와 양 떼를 몰고 가기에 편리한 평탄한 북도(北道 : 훈허 강[渾河] 상류 → 류허 강[柳河] → 휘파허 강[輝發河] → 훈장 강[渾江] → 웨이사허 강[葦沙河]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3) 염수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소랴오허 강[小遼河]·타이즈허 강[太子河] 상류설·시라무렌 강 지역의 광제호(廣濟湖)·대요수설(大遼水說)로 나뉜다.
4) 李丙燾(1976),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387쪽.
5) 박시형(1966), 『광개토왕릉비』, 평양 : 사회과학원출판사, 154쪽.
6) 『삼국사기』 권18 광개토왕 즉위년조.

방향을 잡아 개선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구려군은 지금의 심양(瀋陽) 동쪽으로 꺾어져 회군하였다.⁷⁾ 이 사실은 고구려가 아직은 요동 지역을 온전히 점유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3) 백제 영역으로 진출

(1) 능비문 신묘년조의 해석

『삼국사기』에 보면 광개토대왕 대 고구려와 백제의 공방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⁸⁾

- 원년(391) 가을 7월에 남쪽으로 백제를 정벌하여 10성을 빼앗았다. 겨울 10월에 백제관미성(關彌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 성은 사면이 깎은 듯 강파르고 바닷물에 둘러싸여 있었다. 왕은 군사를 일곱 길로 나누어 공격한 지 20일 만에야 함락시켰다.
- 2년(392) 가을 8월에 백제가 남쪽 변경을 침략하므로, 장수를 시켜 막게 했다.
- 3년(393) 가을 7월에 백제가 침략해 오자, 왕은 정예 기병 5,000명을 이끌고 맞아 쳐서 패퇴시켰다. 나머지 적들이 밤에 도주하였다. 8월에 나라 남쪽에 7성을 쌓아 백제에 대비하였다.
- 4년(394) 가을 8월에 왕이 백제와 패수(俱水) 가에서 싸워 크게 격파하고 8,000여 명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위에 적힌 전쟁들은 능비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능비문에서는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을 영락 6년조에 처음으로 다음과 같이 적었다.⁹⁾

- ① 百殘新羅 舊是屬民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 來渡△破百殘△△[新羅以爲臣民
② 以六年丙申 王躬率水軍 討伐殘國 軍△△[首]攻取寧八城 白模盧城 各模盧城 幹氏利[城] △△城 閣彌城 牟盧城 彌沙城 △舍葛城 阿旦城 [...] 彌鄒城 [...] 古牟婁城 [...] 其國城 殘不服義 敢出百戰 王威赫怒 渡阿利水 遣刺迫城 △△[歸穴]△便[圍]城 而殘主困逼 獻出男女生口一千人 細布千匹 跪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 太王恩赦△迷之愆 錄其後順之誠 於是得五十八城村七百 將殘主弟并大臣十人 旋師還都

7) 李道學(1997), 「古代國家의 成長과 交通路」, 『國史館論叢』 74, 국사편찬위원회, 156쪽.
8) 능비문 기년예에 따라 『삼국사기』 광개토대왕 즉위 원년을 391년으로 설정하여 연대를 작성하였다.
9) 본고의 서술과 관련한 능비문 석문은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1992), 『譯註 韓國 古代金石文』 I 에 따랐다. 단 영락 6년조 가운데 ‘水軍’은 해당 석문의 ‘軍’을 취하지 않는다.

능비문 전쟁 기사는 전쟁의 동기에 해당하는 명분 격의 전치문(前置文)을 앞에 설정하였다. ①의 이른바 신묘년(391)조 기사가 바로 이와 잇대어 적혀 있는 영락 6년(396)조의 전치문이 된다.¹⁰ 영락 6년조는 고구려의 백제 정벌 기사이다. 그러므로 신묘년 조에는 고구려의 백제 원정 동기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즉 고구려의 입장에서 백제의 도발 행위를 기재한 게 분명하다. 그런데 일본 학계의 통설처럼 왜(倭)가 백제와 신라를 격파하여 신민으로 삼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고구려가 자국 중심의 조공 체제(朝貢體制)를 깨뜨린 왜는 정작 응징하지 않고 백제만을 공격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백제뿐 아니라 신라까지도 왜의 신민(臣民)이 되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고구려는 백제와는 달리 신라를 공격하지 않았다. 기존의 해석대로 한다면 그 이유 역시 능비문에서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능비문 영락 9년과 10년조에 의하면, 신라는 왜의 공격을 받아 고구려의 구원 대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신묘년 조에서 “(왜)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식의 해석은 수긍하기 어렵다. 신라가 신묘년에 왜의 신민이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기록이 능비문에 보이지 않는 한 ‘신민’ 관계가 존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신라는 영락 9년에야 왜의 침공을 받았다.

그리고 영락 6년에 백제가 고구려에 항복하면서 왜와 화통(和通)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바 있다.¹¹ 그렇다면 그 이전인 391년(신묘년)에는 양자가 서로 연계된 일종의 동반자 관계라는 말이 된다. 바꿔 말해 백제는 신묘년 이래로 왜가 종속시켜야 할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또 그렇다면 왜가 신묘년 이래로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를 격파한 후 신민으로 삼았다는 종전의 해석은 따르기 어렵다. 요컨대 백제와 왜는 능비문상 고구려에 대적하는 양대 동맹 세력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영락 6년 광개토대왕의 전격적인 수군 작전은 백제와 왜의 연결 고리를 끊으려는 의도가 명분상 작용했음을 알려준다. 능비문 영락 9년조의 분석을 통해 영락 6년에 고구려가 백제로부터 왜와 화통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토대로 하여 새로 작성한 석문과 띄어 읽기는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渡 每破 百殘 [叛侵新] 羅 以爲臣民”이 된다. 그리고 능비문 결락(缺落) 부분에는 ‘叛侵新’이라는 석문을 추정해 보았다. “倭以辛卯年來渡”의 해석은 ‘이래(以來)’의 뜻으로 파악한 기왕의 견해를 취했다. 이러한 구절 나누기에 의한 해석상 ‘을 때마다 격파하

였는데’의 주어는 말할 나위 없이 고구려가 되므로 그 대상, 즉 목적어는 왜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속민(屬民)이었으므로 이때까지 조공하였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 이래로 건너오자, (고구려가) 매년 격파하였으므로, (고구려의 속민이면서 왜와 연계된) 백제는 (고구려를) [배반하여] 신라를 [침략해서] 신민으로 삼았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¹²

즉 고구려는 강성한 수군력을 바탕으로 신묘년 이래 백제와 연결된 왜군의 침략을 저지하거나 격퇴하였다. 그러자 백제가 보복 차원에서 고구려의 속민인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았으므로, 영락 6년에 고구려의 백제 정토(征討)가 개시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요컨대 이 구절을 백제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했다. 이는 고구려가 백제를 정벌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으로 본 것이다. 즉 고구려가 조공 대상인 속민으로 삼았던 신라를 이제는 백제가 자국 주민을 가리키는 신민이라는 용어를 구사하며 지배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닐 뿐더러 고구려가 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작성한 명분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2) 능비문 영락 6년조의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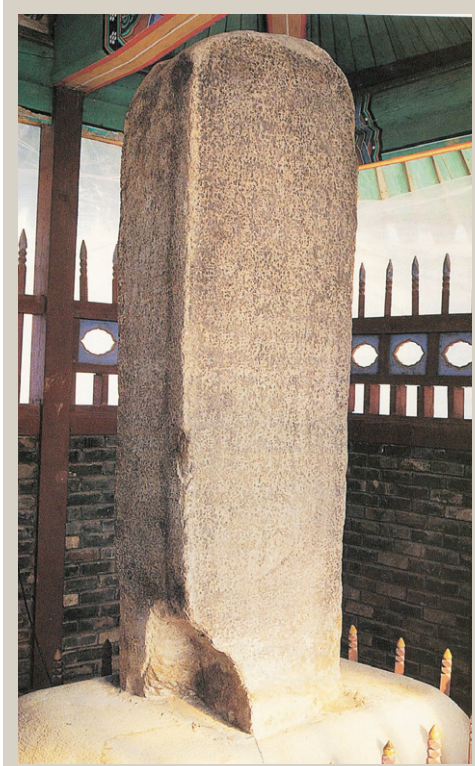
영락 6년조에 따르면 광개토대왕이 직접 이끈 수군 작전에 의해 지금의 한강인 아리수를 건너 백제 왕성을 급습·항복을 받아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속전속결에 의한 기습전이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때 백제 왕은 광개토대왕에게 영원히 노객(奴客)이 되겠다고 맹세를 하였다. 그리고 그는 남녀 생구(生口) 1,000명과 세포(細布) 1,000필 그리고 왕제(王弟)와 대신(大臣) 10명을 볼모로 바쳤다. 물론 능비문에는 광개토대왕이 이때 백제로부터 58성 700촌을 점령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능비문은 사실 전달 위주의 기록물이기보다는 정치 선전문으로서의 성격이 짙은 훈적비(勳績碑)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게다가 능비문은 정토의 명분을 앞세우고 있는 치밀한 구조문이므로 산발적인 백제와의 전투 사실까지 일일이 연대기 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그런 관계로 영락 원년에서 6년에 걸친 백제 공격의 성과를 영락 6년조에 일괄 기록하였다. 영락 6년은 광개토대왕이 친정을 통해 백제 아신왕(阿莘王, ?~405년)의 항복을 받아들임으로써 백제 공격의 대미(大尾)를 장식한 기념비적인 해였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영락 원년에서 5년에 걸쳐 공취(攻取)한 백제 성의 숫자까지도 광개토대왕의 친정년(親征年)인 영락 6년조

10) 池内宏(1947), 『日本上代史の一研究』, 東京: 近藤書店, 118~119쪽.

11) 李道學(2005a), 「高句麗와 百濟의 對立과 東아시아 世界」, 『고구려연구』 21, 고구려연구회; ____ (2006a),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서경, 102쪽.

12) 耿鐵華 著·李道學 譯(1993), 「廣開土王碑 ‘辛卯年’ 句節의 考證과 解釋」, 『韓國上古史學報』 14, 한국상고사학회, 427~439쪽.



●●● 그림 1 중원고구려비

에 일괄 기재하여 광개토태왕의 업적을 돋보이게 했다.¹³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검토한 결과 58개 성 중 영락 원년에서 5년에 걸친 대백제전의 전과는 27개 성이었다. 그리고 그 소재지는 대략 예성강에서 임진강 선으로 비정(比定)된다. 그러면 고구려는 나머지 31개 성을 어떻게 점령했을까? 여러 가지 추리가 가능하지만 허를 찌르는 일종의 기습전을 통하여 전격적으로 백제 왕성을 함락시켰다고 하겠다. 또 이때 점령한 성의 소재지가 백제 왕성의 북쪽이 아니라 동남부의 깊숙한 지역으로 비정된다. 그러므로 이들 31개 성은 영락 6년 광개토태왕 친정의 결과로서 아신왕에게 항복의 대가로 할양 받은 성들로 보인다. 능비문에서 58개 성 점유를 ‘공파(攻破)가 아닌 ‘득(得)’이라고 한 것은 할양 사실을 함

축한 표현으로 적합하다.

아울러 한인(韓人)과 예인(濊人)이 거주하는 이른바 신래한예(新來韓濊) 지역에 소재한 사조성(舍鳥城)이나,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일대로 비정되는 아단성(阿旦城) 그리고 충청북도 충주에 건립된 중원고구려비에 보이는 고구려 수사(守事)가 파견된 고모루성(古牟婁城)의 소재지 파악이 중요했다. 그 결과 31개 성에는 미추성(彌鄒城)을 비롯한 경기만 일부 지역도 포함되지만 대부분 남한강 상류 지역으로 소재지가 비정된 바 있다.¹⁴ 이와 관련해 아단성을 서울 광진구 아차산성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많다. 그렇다면 고구려군이 한강 남안을 굽어보는 상황이 된다. 그럼에도 한강 변의 풍납동토성과 몽촌토성이 백제 왕성으로 기능할 수 있을

13) 武田幸男(1979), 「高句麗廣開土王紀の對外關係記事」, 『三上次男頌壽紀念東洋史學論集』, 京都: 三上次男博士頌壽紀念會, 266~271쪽; 李道學(1988a), 「永樂 6年 廣開土王의 南征과 國原城」, 『孫寶基博士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耿鐵華 著·李道學 譯(1993), 366쪽.

14) 李道學(1988a); 李道學(2006a), 370~375쪽.

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단성 = 아차산성 설은 성립되기 어렵다. 나아가 고구려가 이때 점령한 지역으로 임진강~한강 하류 지역만을 지목한 설¹⁵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4) 낙동강 유역 출병과 국제전

(1) 능비문 영락 8년조와 능비문 10년조의 해석

영락 6년에 고구려가 백제로부터 할양 받은 31개 성 가운데 대부분이 남한강 상류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고구려의 신라·가야 경영 구상과 연계되어 있다. 즉 고구려가 소백산맥 이남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광활한 보급·수송길인 그 이북의 충주와 단양·제천을 비롯한 강원도 내륙 지역을 장악한 것으로 보겠다.

이와 관련해 능비문 영락 8년(398)조에 의하면 고구려는 소단위 부대를 파견하여 백신토곡(帛愼土谷)을 시찰하고 남녀 300인을 잡아가지고 옴으로써 다시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여기서 백신의 위치에 관해서는 지금의 무단 강(牧丹江) 이동(以東)의 연해주 지방으로 비정하는 등 고구려 동북 지역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백신(帛愼)’은 숙신(肅愼)을 가리킨다는 ‘식신(息愼)’으로 해독되지 않는다. 게다가 고구려가 이때 공략한 지역인 “帛愼土谷 莫△羅城 加太羅谷”에 보이는 ‘성(城)·곡(谷)’의 존재는 이곳을 지금까지 숙신 지역으로 지목했던 학설의 존립을 어렵게 한다. 지하 혈거(穴居) 생활을 하던 숙신의 거주 단위는 최소한 고구려와 같은 성·곡 체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백신토곡은 고구려와 교류가 깊고 그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락 8년조를 영락 6년 백제 정벌의 여파로 이해하는 동시에, 백신토곡을 백제와 인접한 남한강 유역이나 강원도 지방의 예지(穢地)로 간주하는 견해¹⁶를 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락 8년조 원정의 성격은 고구려가 소백산맥 이남의 진출 통로에 소재한 예인을 견제하여 한반도 중심부를 관통하는 내륙 교통로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일종의 무력 시위로 볼 수 있다.¹⁷

15) 李丙燾(1976), 379~382쪽.

16) 浜田耕策(1974),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研究」, 『古代朝鮮と日本』, 東京: 龍溪書舎, 58쪽; 王健群(1984), 『好太王碑研究』,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70쪽.

이 견해를 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쟁의 명분 격인 전치문이 없다는 점에서, 영락 8년 조는 독립된 전쟁 기사라기보다는 영락 6년조 백제 정벌 기사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게 타당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17) 李道學(1988b), 「高句麗의 洛東江流域 進出과 新羅·伽倻 經營」, 『國學研究』 2, 國학연구소; 李道學(2006a), 406쪽.

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安羅人戍兵”은 주어나 명사가 될 수 없다.

“安羅人戍兵”에 관한 기왕의 통념을 일거에 뒤엎은 견해는 ‘羅人’을 신라인으로 간주하여 “신라인을 안치하여 수병(戍兵)케 하였다.”²³는 해석이었다. 즉 고구려가 왜군을 토벌하고 빼앗은 성을 신라에게 돌려주어 수비하게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羅人戍兵’을 배치했다는 견해 자체는 타견이라고 본다. ‘安’의 용례는 능비문 수요인 연호조에 두 번이나 보이는데 ‘안치(安置)’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나인(羅人)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능비문에는 ‘羅’로 끝나는 국명이 신라(新羅) 외에 임나가라(任那加羅)도 보인다. 그러므로 ‘나인’만 놓고서는 신라인과 임나가라인 여부가 식별이 되지 않는다.²⁴ 게다가 이 설은 전후 문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녔다. 그밖에 “安羅人戍兵”의 ‘羅人’을 ‘나인(羅人)’으로 간주하여 “(고구려가) 나인(羅人)을 두어 수비케 하였다.”²⁵는 해석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나인과 수병(戍兵)이 서로 의미가 겹치므로²⁶ 동조하기 어렵다. 그러면 ‘나인’이 과연 신라인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 해결은 고구려가 정벌했다는 임나가라 지역에 신라군의 배치 여부가 관건이다. 그런데 “安羅人戍兵拔新羅城”이라는 석문에 따르면 신라인 수병이 자기 나라의 성인 신라성을 점령[拔]했다는 게 되어 모순이 된다.²⁷ 게다가 신라 영역도 아닌 임나가라 지역에 고구려인들이 자국인도 아닌 신라인들을 배치했다는 추론도 어색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인’을 임나가라인으로 지목하고자 한다.

능비문에는 ‘부여성(夫餘城)’을 ‘여성(餘城)’(영락 20년조)으로 약칭(略稱)하였듯이 국호를 끝 글자로 줄여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앞에서 한 번 사용한 명사를 약기(略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即歸服 安羅人戍兵(④-1)”이라는 문구를 보자. 여기서 나인(羅人)의 ‘羅’는, 그 앞에 적혀 있는 “任那加羅”를 생략하여 끝 자로 표기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삼자가 분별할 수도 없는 약칭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영락 10년조에는 고구려군이 임나가라군과 교전한 내용이 일체 보이지 않는다. 이 자체는 고구려군이 임나가라를 격파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고구려군은 임나가라로 퇴각한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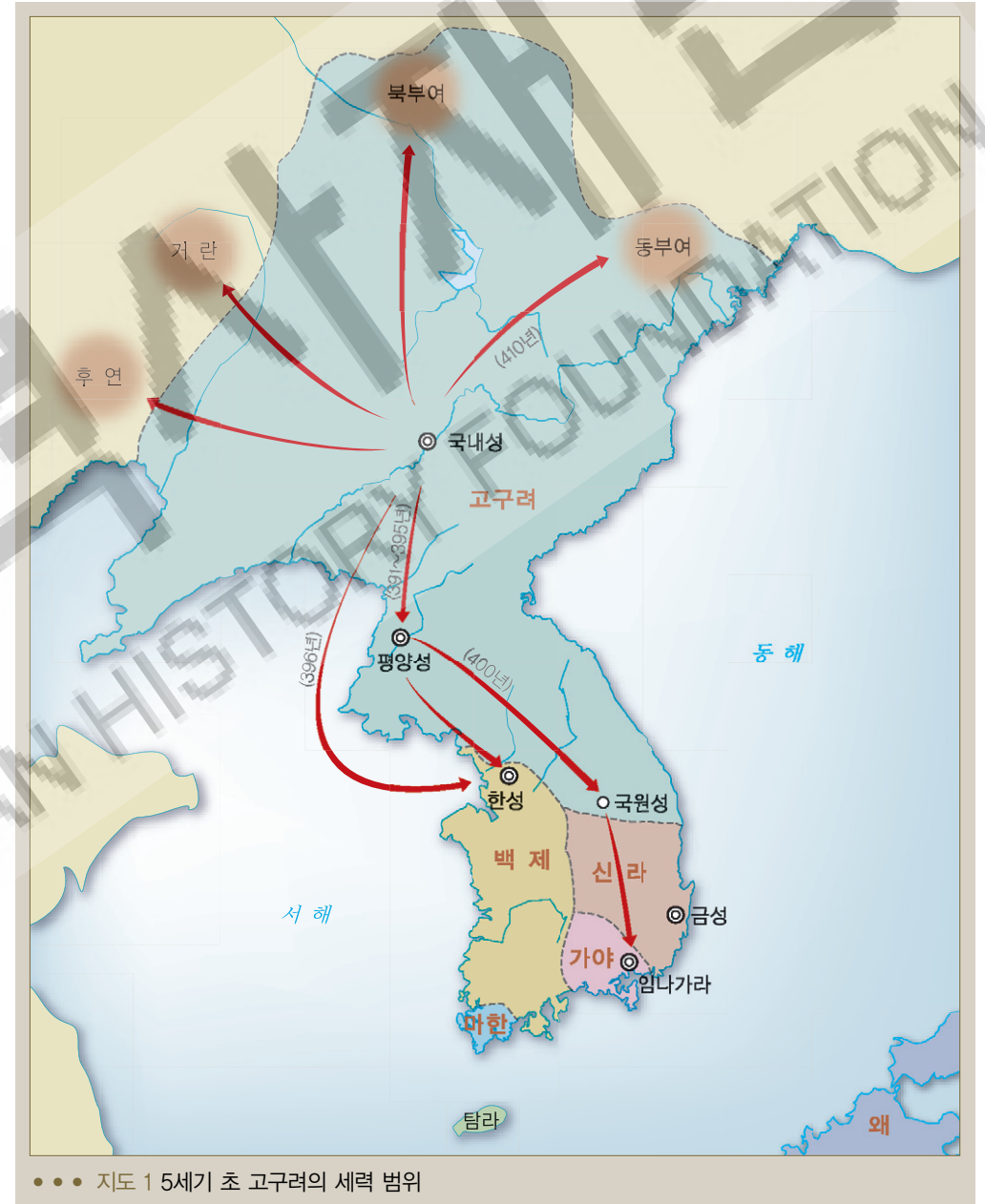
23) 王健群(1984), 178쪽.

24) 武田幸男(1989), 『高句麗史と東あし』あ, 東京: 岩波書店, 120쪽.

25) 高寬敏(1990), 『永樂10年 高句麗廣開土王の新羅救援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 論文集』 27, 161쪽.

26) 李容賢(2001), 『가야의 대외 관계』, 『한국 고대사 속의 가야』, 해안, 353쪽.

27) 朴眞爽(1995), 『好太王碑文의 일부 疑難文字들에 대한 考證』, 『中國 境內 高句麗遺蹟研究』, 예하, 342쪽.



군을 추격해서 격파했을 뿐이다. 더구나 능비문에서는 임나가라에 대한 멸칭(蔑稱)이나 적대적인 표현도 일체 보이지 않는다. 이 역시 임나가라가 고구려의 타멸 대상이 아님을 뜻한다. 따라서 영락 10년조는 고구려군이 신라와 임나가라 영토 내의 왜군을 격파하고 왜군으로 인해 전화(戰禍)를 입은 임나가라를 복구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즉 능비문은 고구려가 신라뿐

아니라 입나가라까지 구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여기서 고구려군은 일진일퇴가 아닌 언제나 완벽하고도 일방적으로 압승하는 상승군(常勝軍)으로서 깔끔한 면모를 보인다. 그리고 밀계(密計)로써 승리를 얻게 하는 걸출한 지모와 은자(恩慈)의 대명사이자 구원자인 광개토대왕의 휘황하고도 무비(無比)한 능력을 한껏 과시하고 있다.

그런데 고구려의 애초 구상과는 달리 예기치 않은 후연의 기습·공격으로 인해 후방의 본토가 교란됨에 따라 낙동강 하류까지 진출했던 고구려군 주력 부대의 회군이 불가피해졌다. 고구려의 가야 원정은 그 다대한 전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다만 고구려군 일부가 신라 보위를 명분 삼아 신라 지역에 잔류하였다. 그럼으로써 백제와 가야 그리고 왜의 동태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았다.²⁸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고구려의 군현(郡縣)이 영주·봉화·예안·임하·울진·영덕·평해·영해·청하 등지에 설치된 기록이 보인다. 죽령에서 영일만을 잇는 지역을 고구려가 직접 지배했음을 알려준다.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영락 10년 고구려군의 낙동강 유역 출병이었다. 또 이와 관련한 산물이 경주의 호우총(壺杆塚)에서 출토된 청동합(靑銅盒) 밑바닥에 “乙卯年國置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이라고 쓰인 명문이다. 여기서 을묘년인 415년은 광개토대왕이 세상을 뜬 지 3년 되는 해로, 그 사후에도 신라에 끼친 영향력을 암시해주는 일례라고 하겠다.

5세기에 접어들자 고구려는 이전의 별도(別都=부수도)였던 평양성만으로는 한반도 중심부까지 급속히 확대되는 남진 경영을 극대화시킬 수 없었다. 고구려는 396년에 남한강 상류 지역에 진출하였고, 400년 이후에는 정치적 영향력과 영토가 신라 동북과 낙동강 하류 지역까지 미쳤다. 때문에 남한강 상류 지역을 교두보로 한 소백산맥 이남의 신라 경영만을 전담할 또 다른 별도의 거점을 필요로 하였다. 그 결과 400~427년 사이 어느 때 당시 고구려 수도였던 국내성(國內城)처럼 ‘도성(都城)’의 의미가 내포된 국원성(國原城)이라는 행정 지명을 충주에 부여하였다.²⁹ 충주는 지리·경제·군사적으로 중요한 도회였기에 고구려의 별도가 될 수 있었다.

5) 후연과의 전쟁과 요동 지역의 확보

광개토대왕 대 고구려와 후연의 관계가 『삼국사기』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28) 李道學(2006a), 407쪽.

29) 李道學(1988a), 「永樂 6年 廣開土王之 南征과 國原城」, 『孫寶基博士停年記念韓國史學論叢』; _____(2006a), 378~383쪽.

- 9년(400) 봄 정월에 왕은 연(燕)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2월에 연왕(모용)성(盛)이 우리 왕의 빙례(聘禮)가 오만하다고 하여 몸소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습격했다. 표기대장군 모용희(慕容熙)를 선봉으로 삼아, 신성과 남소성 2성을 함락시키고 700여 리의 땅을 개척하고, 5천여 호를 옮기고 돌아갔다.
- 11년(402) 왕이 군사를 보내 숙군(성)을 공격하자 연의 평주자사 모용귀(慕容歸)가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 13년(404) 겨울 11월에 군대를 내어 연을 침공하였다.
- 14년(405) 봄 정월에 연왕(모용)희가 요동성을 침공해왔다. 막 함락되려 할 즈음에(모용)희가 장사들에게 “먼저 오르지 말라. 성을 깎아 편편하게 될 때를 기다려서 내가 황후와 함께 수레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라고 명하였다. 이로 인해 성 안에서 방비를 엄히 하여(연은) 마침내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 15년(406) 겨울 12월에 연왕(모용)희가 거란을 습격하려고(정월에) 형북(溼北 : 지린성 농안 북쪽)에 이르렀다가, 거란의 무리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여 돌아가려고 하였다. 드디어 무거운 짐을 버리고 가볍게 무장한 병력으로 우리를 습격하였다. 연의 군대는 3,000여 리를 행군했으므로 병사와 말이 피로하고 얼어 죽은 자가 길에 깔렸다. 우리 목저성(木底城 : 라오닝 성 신빈(新賓) 오룡산성(五龍山城))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 17년(408) 봄 3월에 사신을 북연(北燕)에 보내 종족(宗族)의 예를 베풀자 북연왕 운(雲)이 시어사(侍御史) 이발(李拔)을 보내어 이에 답례하였다.

고구려는 400년 2월에 후연이 무순(撫順) 부근의 신성과 남소성 등 700여 리를 약취한 데 대한 보복전을 즉각 전개하였다. 402년에 고구려 군대는 라오허 강을 건너 숙군성(宿軍城 : 라오닝성 의무리산(醫巫闔山) 동쪽의 북진(北鎭))을 공격했다. 숙군성은 후연이 보유하고 있던 몇 개 안되는 자사진(刺史鎭)의 하나로서 평주 자사(平州刺史)가 통치하던 곳이었다. 이때 평주 자사 모용귀는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럼에 따라 고구려군은 라오허 강 서쪽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404년과 406년에 고구려는 후연과 격돌한 후 요동 지역을 확실하게 지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비문에는 후연과의 전쟁이 일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고구려가 후연을 계승한 고운(高雲) 정권 및 풍발(馮跋)의 북연 정권과 우호 관계를 유지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풀이된다.³⁰

30) 박시형(1966), 79~80쪽.

6) 백제 · 왜와의 전쟁

능비문 영락 14년(404)조에 의하면 왜군이 선박을 동원하여 대방계를 침공하였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목을 벤 게 셀 수도 없었다(斬煞無數)”라고 했을 정도로 왜군을 크게 격파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전후 상황을 놓고 볼 때 왜 사신이 백제를 방문한 403년 2월에 백제와 왜 사이에 일정한 군사적 협력이 맺어졌음을 암시한다. 그 산물이 404년 왜군의 대방계 침공이라고 간주하는 게 정황상 맞을 것 같다. 백제와 연계된 왜가 고구려가 후연과의 전쟁에 국력을 기울인 틈을 타 그 심장부인 평양성의 앞마당을 급습하다가 궤멸된 것이다.

능비문에 의하면 영락 17년인 407년에 고구려 군대가 압승을 거두는 기사가 다음과 같이 보인다.

十七年丁未 教遣步騎五萬 △△△△△△△△師△△合戰 斬煞蕩盡 所獲鎧鉀一萬餘領
軍資器械不可稱數 遠破沙溝城 婁城 △[住]城 △城 △△△△△△城

위의 문구는 비문의 일부가 훼손된 관계로 종래 고구려 군대의 공격 대상에 관해서는 추측이 구구하였다. 예컨대 왜 혹은 가야 또는 후연을 지목하기도 하였다.³¹ 게다가 출정의 명분적인 전치문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407년에는 후연이 망하고 고운 정권이 세워졌기 때문에 영락 17년조를 후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영락 17년조는 백제와의 전쟁으로 지목된다.

이 점을 명확히 해주는 것은 고구려에 공파된 사구성(沙溝城)이니 누성(婁城)과 같은 성 이름이 되겠다.³² 이 가운데 누성은 영락 6년 조에 보이는 백제의 58개 성에 속한 모루성(牟婁城)·고모루성(高牟婁城)·△루성(△婁城)·연루성(燕婁城) 등 이른바 누자(婁字) 계통 성 이름과 관련성을 띤다. 더욱이 고구려군이 공파한 ‘사구성·누성·△[住]성·△성’ 등 4개 성에다가 결락된 부분에 2개 성 이름을 넣을 수 있다. 그러면 도합 6개 성이 기재된 것으로 드러난다.

31)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1992), 28쪽.

32) 武田幸男도 이들 성의 위치를 백제 영역으로 규정하였다(武田幸男(1989), 135쪽). 그런데 고구려 말기에 등장하는 설부루성(屑夫婁城)을 근거로 누(婁) 자 이름이 후연과 연관 있음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설부루성은 만주 집안(集安) 일대인 국내주(國內州) 관내의 성일 뿐 아니라 본래 이름은 초리파리홀(肖利巴利忽)이었다. 그러므로 시간상으로도 이름과 영역 면에서도 후연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으므로 관련 짓기 어렵다.

따라서 광개토대왕은 능비문 상 64개 성을 공파하였다. 그런데 영락 6년에 백제로부터 공취한 58개 성에다 영락 17년에 획득한 6개 성을 합치게 되면 64개 성이 된다.³³ 고구려는 오로지 백제로부터 64개 성을 공취한 것이다. 참고로 영락 17년 조의 결락자(缺落字)를 복원하면 대략 “教遣步騎五萬 往討百殘至△△城 王師與殘合戰”으로 추정할 수 있다.

7) 북부여와 동부여 경영

고구려 왕실은 시조의 출신지를 북부여로 인식하였다. 고구려는 370년경 전연이 멸망하자 지배권을 장악한 북부여에 수사(守勢)를 파견했다. 광개토대왕은 고구려 왕실의 고향인 북부여 지배를 위해 시조인 추모왕을 따라 내려왔던 이의 후손인 모두루를 파견하였다. 고구려 왕실의 연고지에 역시 연관 있는 가문의 증견 귀족인 모두루를 파견한 것이다.³⁴ 북부여는 이때 고구려의 영토로 편제되었다기보다는 그 존재를 명목상 존치(存置)시킨 선상에서 지배했던 것 같다.³⁵

반면 광개토대왕은 속민으로 간주했던 동부여가 중간에 배반하고 조공을 하지 않자 410년에 정벌을 단행하였다. 동부여의 소재지에 관해서는 함경남도 영흥만 일대를 비롯하여 몇 가지 견해가 있다.³⁶ 그러나 이곳을 두만강 하류의 혼춘(暉春) 방면으로 비정하는 견해를 취하고자 한다. 광개토대왕의 친정으로 고구려 군대는 동부여 왕성을 습격하여 일거에 함락시키고는 회군하였다. 이때 광개토대왕의 덕을 사모하여 미구루야로(味仇婁鴨盧) 등과 같은 지방 수장들이 따라왔다고 한다. 이 기사에 이어 “무릇[凡] 공파한 성이 64개, 촌이 1,400개”라는 구절이 적혀 있다. 혹간 이 수치를 동부여 정벌의 전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수치 앞에 ‘무릇’이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 능비문 전쟁 기사의 맨 끝에 적혀 있다. 그러므로 이 수치는 현행 통설처럼 능비문상의 총 전과로 보아야만 할 것이다. 능비문에 따르면 광개토대왕은 “중간에 배반하고 조공하지 않은(中叛不貢)” 동부여였지만 무력으로써만 굴복시키지 않았다. 광개토대왕은 덕화(德化)로써 동부여를 복속시켰음을 천명하고 있다.

33) 王健群(1984), 222쪽.

34) 武田幸男(1989), 345~348쪽.

모두루가 파견된 북부여의 소재지를 농안(農安)으로 비정하기도 한다(李道學(2006a), 53쪽; _____(2006b), 「고구려와 부여 관계에 대한 재검토」, 『고구려의 대외관계』, 서경).

35) 李道學(2006a), 54쪽.

36) 동부여의 소재지에 관해서는 孔錫龜(1990), 「廣開土王陵碑의 東夫餘에 대한 考察」, 『韓國史研究』 70, 한국사연구회, 19~20쪽에 소개된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살펴 본 능비문의 주된 골자는 백제와의 전승이며 그 전과를 최대 업적으로 현시하였다. 고구려의 백제 정벌은 영락 6년에 시작되어 영락 17년에 매듭지어 진다. 그리고 영락 5년 조와 영락 20년조라는 외피(外皮)를 벗기면 오로지 백제 내지는 그 영향권 세력과의 전쟁이었다. 요컨대 능비문은 고구려 최대의 숙적인 백제와의 관계 속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광개토대왕 대의 영역은 동쪽으로 두만강 하류와 연해주 일부, 서쪽은 랴오허 강, 남쪽은 남한강 유역과 소백산맥을 넘어 영일만을 잇는 지역, 북쪽은 농안과 송화 강(松花江) 유역까지 미쳤다.

이로써 고구려는 한족(漢族)이나 모용선비와의 뼈저린 투쟁의 목표였던 요동을 완점하게 되었다. 아울러 고구려는 거란 등과 같은 주변 종족을 복속시켜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2. 광개토대왕릉비

1) 광개토대왕릉 비문의 특징

고구려 수도였던 만주 집안(集安)에 소재한 광개토대왕릉비는, 6.39m의 높이에 37t의 무게를 자랑한다. 이는 우리 민족의 현존 비석으로는 가장 연대가 올라간다. 또 우리나라 왕릉 앞에 세워진 비석으로도 최초의 사례에 속한다. 그리고 화산암에 새겨진 비문의 글자는 크기가 무려 12cm에 이른다.

총 44행, 1,775자에 3개 문단으로 구성된 능비문은 건국 설화와 정복 전쟁 기사, 그리고 묘지기인 수묘인(守墓人)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정복 전쟁 기사는 '전쟁 명분 + 전쟁 과정 + 전쟁 결산'이라는 구조로 짜여 있다. 정복 전쟁 기사 앞에 적혀 있는 건국 설화는 광개토대왕이 무력을 행사한 배경과 근거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능비문 마지막 문단에는 무려 330가(家)나 되는 수묘인들의 출신 지역이 낱낱이 기재되었다.

국내성에 거주하는 고구려인들이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광개토대왕릉의 수묘인 가운데 3분의 2는 백제 영역에서 차출하였다. 이들은 광개토대왕 대에 기세를 올린 정복 사업의 현현한



그림 2 광개토대왕릉비

성과물이기도 했다.

광개토대왕릉이 분명한 장군총³⁷ 앞에 세워진 광개토대왕릉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기되었다.³⁸ 그렇지만 능비문에서 “이에 비석을 세워 훈적(勳績)을 명기(銘記)하노니 후세에 보여라.”라고 하였듯이 광개토대왕의 공적을 기록한 훈적비이다. 이러한 능비문의 저류에서 감지되는 정서는 고구려인들의 천하관에서 비롯된 긍지와 우월적 사고였다. 가령 ‘영락(永樂)’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여 중국과 대등한 입장임을 과시하면서 “(광개토대왕의) 위엄 있고 씩씩함은 사해(四海)에 떨쳤노라!”고 자랑하였다. 모두루 묘지에는 “하박(河泊)의 손자이시며 일월(日月)의 아들이신 추모성왕이 북부여에서

나셨으니, 천하 사방이 이 국도(國都)가 가장 성스러움을 알겠거니”라고 적었다. 여기서 사해와 천하 사방의 중심국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고구려를 가리킨다.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온 세상을 천하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랬기에 자국 시조에 대해 ‘천제(天帝)의 아드님’·‘황천(皇天)의 아드님’과 같은 최고 최상의 수식어를 총동원해 존엄성을 기렸다.³⁹ 그러한 신상에서 ‘왕’ 그것도 ‘태왕(太王)’으로 호칭한 대상은 광개토대왕뿐이었다. 백제와 신라 국왕은 ‘주(主)’ 혹은 ‘매금(寐錦)’으로 각각 폄훼시켜 표기하였다. 그뿐 아니라 고구려는 주변 국가들과 상호 조공 관계를 구축하였다. 증원고구려비에서 고구려가 신라를 동이(東夷)라는 멸칭으로 일컫

37) 李道學(2005b), 「太王陵과 將軍塚의 被葬者 問題 再論」, 『고구려연구』 19, 고구려연구회 ; _____(2006a), 305~351쪽.

38) 수묘인비·송덕비·신도비 등의 견해가 제기되었다.

39) 盧泰敦(1988), 「5세기 高句麗人의 天下觀」, 『韓國史市民講座』 3, 일조각, 77쪽.



••• 그림 3 장군총

고 의복을 하사한 것도 그러한 천하관의 산물이었다.⁴⁰ 그리고 능비문에는 백제와 신라 및 동부여가 속민으로 규정되어 있다. 속민은 고구려 중심의 세계관 속에 포함되어 조공을 이행하는 대상이었다. 고구려인들은 능비문에서 자국 중심의 질서 체계를 설정하는 한편 그것을 위배했을 때는 응징으로 이어진다는 명분을 세웠다.

이 같은 천하관과 짝을 이루며 자국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맹자』의 왕도정치(王道政治) 사상이 능비문에 나타난다. 『맹자』에 따르면 “인(仁)을 해치는 것을 적(賊)이라 이르고, 의(義)를 해치는 것을 잔(殘)이라 이른다.” 했다. 이는 능비문에서 고구려에 대적하는 공동 악역(惡役)으로 등장하는 양대 세력을 ‘왜적(倭賊)’과 ‘백잔(百殘)’으로 각각 폄훼시켜 호칭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인의(仁義)의 화신인 광개토대왕 군대는 그에 배치되는 백제와 왜를 정토한다는 정의관의 발현이기도 했다.

능비문에서 광개토대왕은 덕화군주(德化君主)의 이미지로 등장한다. 가령 영락 6년조에 백제 왕의 항복을 받아냈을 때 광개토대왕은 ‘은사(恩赦)’를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영락 9

40) 李基白(1979), 「中原高句麗碑의 몇 가지 問題」, 『史學志』 13, 단국대학교 사학회, 37~38쪽.

년조에는 광개토대왕의 ‘은자(恩慈)’로 인해 신라에 구원군을 출동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 이렇듯 능비문에는 광개토대왕의 ‘은사’와 ‘은자’가 현양되고 있다. 그러한 결과 ‘귀복(歸服)’·‘귀왕(歸王)’이 가능했음을 도출(導出)해내었다. 이러한 덕화주의의 본질은 『맹자』의 인의사상에 근거하였다. 능비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성왕(聖王)인 광개토대왕의 본질을 인의군주(仁義君主)로 현시(顯示)하는 것이었다. 인의군주가 거느린 관군(官軍)의 압승을 통해 인자(仁者)만이 천하를 얻고 다스릴 수 있음을 선언하였다. 능비문에는 『맹자』의 방벌사상(放伐思想)을 비롯하여 그것에 근거한 요소들이 산견되고 있다.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궁극적인 귀결은 왕도정치의 구현이었다.⁴¹

능비문에 따르면 광개토대왕은 덕화군주의 전형이었다. 그의 이름인 담덕(談德) 또한 ‘덕(德)’과 무관하지 않다. ‘덕’의 표상으로서 그의 이미지를 현시하고 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덕을 얻은 자만이 승전할 수 있다고 했다. 능비문에 보이는 광개토대왕의 군대는 언제나 일방적인 승리를 구가하는 상승군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언급한 덕화군주로서 광개토대왕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것이다. 황천으로부터 부여받은 덕을 소유한 광개토대왕은 사해의 주민들에게 덕을 베푸는 덕화군주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능비문에 보이는 왕은(王恩)·은사(恩赦)·은자(恩慈)·은택(恩澤)과 같은 ‘은(恩)’은 광개토대왕의 이미지가 광복한 정복군주가 아니라 따스한 체온이 감도는 덕화군주임을 환기시켜 준다.

당시 고구려는 거듭된 전란으로 인해 주민들의 심성과 국토가 황폐화된 상황이었다. 부여를 비롯한 끊임없는 징발은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전란에 대한 공포는 염전(厭戰) 의식을 유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읽은 고구려 지배층은 능비문 형식을 빌려 국면을 일거에 해결해준 성왕의 등장을 반추하였다. 또 그러한 성왕이 통치하던 시기와 영역에 대한 절대성을 강조하고 싶었다. 해서 광개토대왕이야말로 절대적 성인(聖人)의 품덕을 갖춘 이상적 덕화군주였음을 선포하면서 당대에 준비된 계획의 이행을 호소하고 있다. 즉 암묵적으로 평양성 천도의 이행을 호소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⁴² 그리고 추모왕의 건국 설화를 능비문의 첫머리에 기재함으로써 넓어진 영역과 확대된 주민을 기반으로 하는 제국(帝國) 고구려에서 창업주의 존재를 환기시켰다. 그럼으로써 왕실의 정당성과 절대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비록 영역과 주민은 광대해졌고 붙어났지만, 어디까지나 이 나라는 천제의 아

41) 李道學(2002), 「廣開土王陵碑文의 思想的 背景」, 『韓國學報』 106, 일지사, 221~223쪽; 李道學(2006a), 228~230쪽.

42) 李道學(2002a), 「廣開土王陵碑의 建立 背景」, 『白山學報』 65, 백산학회; 李道學(2006a), 197~205쪽.

들인 추모왕 후손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있다. 능비문에는 이례적으로 광개토대왕의 부조(父祖)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그를 시조인 추모왕의 17세손으로 명기한 것은 필시 이러한 연유에서였을 것이다.

2) 수묘인 연호 제도의 확립

능비문의 마지막 문단은 광개토대왕의 능을 관리하고 지키는 수묘인 연호에 관한 기록이다. 이에 대한 표를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1 구민(舊民) 수묘인 연호

	출신지	국연(國煙)	간연(看煙)		출신지	국연(國煙)	간연(看煙)
1	매구여민(賈勾余民)	2	3	8	배루인(非婁人)	1	43
2	동해고(東海賈)	3	5	9	양곡(梁谷)		2
3	둔성민(敦城民)		4	10	양성(梁城)		2
4	우성(于城)		1	11	안부련(安夫連)		22
5	비리성(碑利城)	2		12	개곡(改谷)		3
6	평양성민(平穰城民)	1	10	13	신성(新城)		3
7	차련(此連)		2	14	남소성(南蘇城)	1	
		계				10	100

능비문에 보이는 수묘인 연호에 관한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짜여 있다. 즉 수묘인의 출신 지역과 차출 연호의 종류와 인원 수, 광개토대왕 이전과 그 이후 수묘인 편성 내용, 묘 곁에 비를 세우게 된 배경과 수묘제의 유지를 위해 수묘인의 전매를 금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국연(國煙)과 간연(看煙)의 성격과 담당하는 일에 대한 문제, 수묘인의 신분 또는 사회적 위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수묘인의 거주 지역과 수묘역의 수행 방식 및 수묘제의 정비 시기와 능비문에 보이는 매매의 대상에 관한 접근이 있다. 그밖에 수묘인의 소속 왕릉이나 광개토대왕릉비의 성격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⁴³⁾

능비문에는 수묘인 연호를 배치하게 된 동기와 그 운영에 관한 구절에서 '조왕선왕(祖王先王)' 혹은 '조선왕(祖先王)'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막연히 '조상왕(祖上王)' 전체를 가

43) 金賢淑(1999), 「廣開土王陵碑文의 守墓制와 守墓人」, 『廣開土王陵碑文의 新研究』, 서라벌군사연구소, 141쪽.

● 표 2 신래한예(新來韓穢) 수묘인 연호

	출신지	국연(國煙)	간연(看煙)		출신지	국연(國煙)	간연(看煙)
1	사수성(沙水城)	1	1	19	두노성(豆奴城)	1	2
2	모루성(牟婁城)		2	20	오리성(奧利城)	2	8
3	두비압잡한(豆比鴨岑韓)		5	21	수추성(須鄒城)	2	5
4	구모객두(句牟客頭)		2	22	백잔남거한(百殘南居韓)	1	5
5	구저한(求底韓)		1	23	대산한성(大山韓城)		6
6	사조성한예(舍租城韓穢)	3	21	24	농매성(農賣城)	1	7
7	고모아라성(古模耶羅城)		1	25	윤노성(閔奴城)	2	22
8	경고성(景古城)	1	3	26	고모루성(古牟婁城)	2	8
9	객현한(客賢韓)		1	27	진성(津城)	1	8
10	아단성(阿旦城)		10	28	미성(昧城)		6
11	잡진성(雜珍城)			29	취자성(就咨城)		5
12	파노성한(巴奴城韓)		9	30	삼양성(參穰城)		24
13	구모로성(白模盧城)		4	31	산나성(散那城)	1	
14	각모로성(各模盧城)		2	32	나단성(那旦城)		1
15	모수성(牟水城)		3	33	구모성(句牟城)		1
16	간저리성(幹氏利城)	1	3	34	어리성(於利城)		8
17	미추성(彌鄒城)	1	7	35	비리성(比利城)		3
18	아리성(也利城)		3	36	세성(細城)		3
		계				20	200

● 표 3 수묘인 연호 합계

	국연	간연	계
구민	10가	100가	110가
신래한예	20가	200가	220가
합계	30가	300가	330가

리키는 호칭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이는 광개토대왕을 기준으로 한 조왕(祖王)과 선왕(先王)인 고국원왕과 고국양왕을 각각 가리킨다는 견해가 맞는 것 같다. 이들 3대의 능묘는 모두 국강상에 소재했다. 그렇다고 할 때 수묘인 연호 330가는 광개토대왕릉뿐 아니라 고국원왕릉과 고국양왕릉에 각각 110가씩 배당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국연은 '국도(國都)의 연(煙)'이라는 의미로 밝혀진다.⁴⁴⁾ 반면 간연은 국연과 대응 관계에 있는 '지방의 연'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간연은 '현재 거주하는 그곳의 호

44)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러한 수묘인제를 고려·조선조의 호수(戶首)·봉족(奉足) 관계로 설명하거나, 국연은 수공업 생산에, 간연은 농업과 어업(漁獵) 생산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기도 한다. 혹은 국연은 자연 촌락에서 지배층을, 간연은 그곳의 피지배층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한다. 국연은 수묘역에 한정되지 않고 국역 대상에 대한 보편적인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수묘인제에 관해서는 李道學(2002b), 「廣開土王陵碑文의 國煙과 看煙의 性格에 대한 再檢討」, 『한국고대사연구』 28, 한국고대사학회; 李道學(2006a), 293~295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구'를 가리키는 견호(見戶)와 동일한 뜻을 지녔다. 그런데 수묘인 연호를 “△△城 國烟△ 看烟△”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지역에서 국연과 간연이 한꺼번에 차출되고 있다. 여기서 국연은 고구려가 정복한 지역민 가운데 국도로 이주시킨 호이고, 간연은 원래 지역에 그대로 거주하는 호를 가리킨다. 국연과 간연은 현상적으로는 피정복민의 거주 지역의 차이를 뜻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신분적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⁴⁵

국도로 이주시킨 국연은 고구려의 피정복 지역에서 지배층이었다. 이로써 고구려의 피정복 지역에 대한 지배 방식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국도로 옮겨 거주하게 된 국연층은 5부민(鄙民)과 구분되었다. 국연층은 그 출신 지역에 거주하는 간연과 더불어 여전히 '△△성' 출신으로서 그와 관련된 국역 대상이었다. 요컨대 능비문에 보이는 고구려의 피정복민 지배 방식은 국도로 이주시킨 계층과 출신 지역 거주층으로 이원화되었음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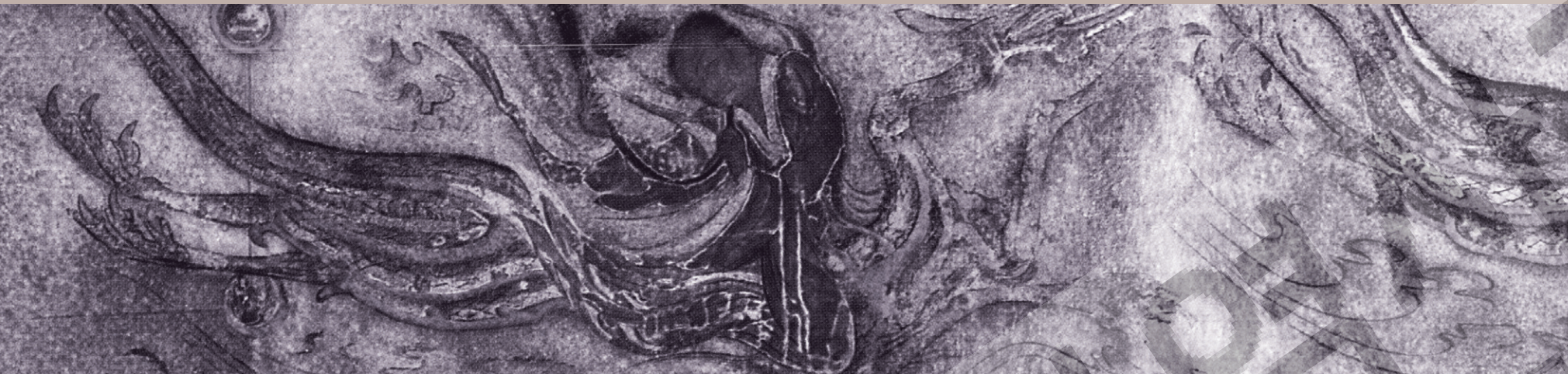
☞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유적학과 교수 ☜



돌무덤의 나라, 고구려

환도산성 입구에 있는 산성하 고분군이다. 고구려 수도였던 집안에 가서 놀라는 것은, 이 곳에 고구려의 무덤이 1만 2천기 이상 분포한다는 사실이다. 고구려 무덤의 대표적인 특징은 주검을 돌 속에 묻은 점인데, 이는 신라, 백제와 비슷하고 중국과는 다르다.

45) 李道學(2002b); _____(2006a), 296~304쪽.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장수왕이 추진한 제도 정비와 대외 정책 확대에 힘입어 고구려는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장수왕은 중국의 남·북조와 통교했고, 유연 등 세외(塞外) 민족과도 통교하면서 외교 관계를 확대해 중국을 견제했다. 또 427년 남진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해 집권적 정치 기구를 정비하고 국력을 신장시켰다. 전성기인 5세기경 고구려의 영역은 북으로는 쑹화 강 유역에 미쳤고, 서북으로는 칭안령 산맥에 이르렀다. 남으로는 한강 유역과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이르렀으며, 서로는 라오허 강 서쪽, 동으로는 연해주 지역으로까지 영역이 확장됐다. 이처럼 광대한 영토를 개척하고 지배하면서 강대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융성한 장수왕 대 고구려 중심의 국제 질서 구축 과정을 살펴본다.



고구려 중심의 국제 질서 구축

- I. 장수왕과 평양 천도
- II. 중국 남북조와의 관계
- III. 고구려의 남진과 백제·신라
- IV. 고구려의 부여와 말갈 통합

I 장수왕과 평양 천도

서영대

1. 장수왕의 생애와 업적

고구려 제20대 왕인 장수왕은 이름이 거련(巨連) 또는 련(連)으로 394년(광개토대왕 4) 광개토대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리고 15세 되던 408년(광개토대왕 18)에 태자로 책봉되어 일찌감치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쌓았다.

장수왕은 부왕의 뒤를 이어 20세 되던 413년에 즉위하여 79년 간 재위하였다. 재위 기간 중 왕의 업적은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외 정책으로는 우선 대중국 관계를 들 수 있다. 장수왕 재위 중의 중국은 5호 16국시대에서 남북조시대로 넘어가는 분열기였다. 장수왕은 이러한 중국의 분열을 이용하여 남북의 세력과 등거리 외교를 전개했다. 즉위 직후인 413년에는 동진(東晉)에 사절을 파견하여, 70년 만에 남중국 국가와 교섭을 재개했다. 나아가 남조의 국가가 동진에서 송(宋) → 남제(南齊)로 바뀌었지만, 이들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꾸준히 유지했다. 그리고 남조의 국가들은 장수왕에게 도독영주제군사(都督營州諸軍事)·도독평주제군사(都督平州諸軍事)란 직책을 부여함으로써, 동북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인정했다.

또 북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장수왕 즉위 당시 북중국의 국가는 북연(北燕)이었으며, 북연과는 광개토대왕 이래로 평화적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북연이 북위(北魏)와의 싸움에서

패하자 북연 왕 풍홍(馮弘: 재위 430~436년)의 망명을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화북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북위와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평화적 관계를 유지했다. 물론 북위와의 관계가 평화적으로만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436년(왕 24) 북위의 풍홍 소환 요청을 거절하면서, 또 466년(왕 54)에는 북위의 혼인 요청을 거절하면서, 한때 양국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기도 했다. 그리고 440~461년까지 20년 간 사절의 왕래가 중단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강성을 두려워한 북위는 끝내 사단(事端)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나아가 북위에서는 남제에서 온 사절이 항의를 할 정도로 고구려의 사절을 예우하였다.¹⁾

뿐만 아니라 몽골 고원의 패권을 장악한 유연(柔然)과의 관계를 수립했고, 이를 이용하여 479년(왕 67)에는 유연과 모의하여 신안령 산맥(興安嶺山脈) 일대에 거주하던 지두우족(地豆于族)을 분할 점령하고, 거란족에 대해 압박을 가하였다.²⁾

고구려는 건국 이후 끊임없이 중국을 비롯한 서방과 북방의 세력들과 대립·격돌하였지만, 장수왕 대로 오면서 이들과의 세력 균형 위에서 평화적 관계를 유지했다. 이 틈을 이용하여 장수왕은 백제와 신라 방면으로의 진출에 박차를 가했다.

먼저 백제에 대해서는 455년(왕 43)에 백제 비유왕이 죽고 개로왕이 즉위하는 틈을 이용하여 백제를 공격했다.³⁾ 그리고 승려 도림(道琳)의 계락을 들어 그로 하여금 백제의 국세를 궁핍하게 만든 다음, 475년(왕 63)에는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백제의 서울인 한성(평양토성)을 함락하고 개로왕을 잡아 죽였다. 이것으로 고구려는 17대 고국원왕이 백제의 근초고왕에게 죽임을 당한 선대의 원한을 풀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백제는 웅진(熊津, 지금의 공주)으로 천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 신라와의 관계를 보면, 부왕인 광개토대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라는 고구려에 대해 부용적(附庸的) 위치에 있었다. 그것은 신라가 가야와 왜의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때문이었다. 그래서 신라는 고구려에 인질을 파견했고, 고구려는 신라에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왕위 계승에도 개입하였다. 417년(왕 5) 실성 마립간과 대립하던 눌지(訥祗)를 왕으로 옹립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말한다. 이 시기 고구려와 신라의 상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이다. 이에 의하면 고구려는 신라를 동이(東夷)라 했으며, 신라 왕은 왕이 아닌 매금(寐錦)으로서 고구려에 조공을 바치는 존재였다.

1) 『南齊書』 卷58 東南夷傳 高麗國 ; 『資治通鑑』 卷136 齊紀 世祖 永明 2년 10월.

2) 『魏書』 卷100 列傳80 契丹.

3)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39년 10월.

그러나 신라는 자체의 국력을 충실히 하면서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또 고구려의 평양 천도에 위협을 느낀 백제가 433년 접근을 시도함에 따라 백제와 동맹을 맺으면서,⁴ 고구려에 대해 점차 적대적 입장으로 선회한다. 그래서 447년(왕 38)에는 사냥 나온 고구려의 장수를 신라 하슬라(何瑟羅 : 강릉)의 성주 삼직(三直)이 실직원(悉直原 : 삼척)에서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 고구려가 신라를 침범하는 사태가 발생했다.⁵ 이를 계기로 신라 방면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454년(왕 42)에는 신라의 북변을 공격했고,⁶ 481년(왕 69)에는 말갈과 함께 신라의 북변을 쳐 호명성(狐鳴城 : 경북 청송) 등 7성을 탈취했고, 미질부(彌秩夫 = 경북 흥해)까지 진격했다.⁷

이로써 고구려는 서쪽으로는 랴오허 강, 동쪽으로는 북간도 혼춘(暉春), 북쪽으로는 개원(開原), 남쪽으로는 아산만·남양만에서 죽령에 이르는 넓은 판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구도 약 2세기 전에 비해 3배로 늘어나는 일대 전성기를 누렸다.

다음으로 장수왕의 국내 정치를 언급할 차례인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427년(왕 15)의 평양 천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언급하기로 하자.

장수왕은 재위 79년, 나이 99세로 사망했는데, 태조왕에 이어 가장 장수한 고구려 왕이며, 시호는 강(康)이다. 그러나 그의 무덤에 대해서는 중국 지린 성(吉林省) 집안(集安)의 장군총설, 태왕릉설, 평양의 전동명왕릉(傳東明王陵)설로 나뉘어 있으며, 아직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2. 장수왕의 평양 천도

427년 고구려가 평양으로 왕도를 옮겼음은 웬만한 한국사 개설서에서 모두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실이다. 이것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장수왕 15년조의 “평양으로 도읍

4) 『삼국사기』 권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17년 7월 ;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毗有王 3년 7월.

5) 『삼국사기』 권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34년 7월 ; 『삼국사기』 권18 高句麗本紀6에서는 장수왕 28년(440)의 사건이라 했으나, 신라본기에 따른다.

6) 『삼국사기』 권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38년 8월 ; 『삼국사기』 권18 高句麗本紀6 장수왕 42년 7월.

7) 『삼국사기』 권3 新羅本紀3 炤知祗麻立干 3년 3월.

을 옮겼다(移都平壤.)”란 기사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듯 고구려의 평양 천도는 사실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기사가 소략하기 그지없는 것이지만 그 사실성은 의심할 수 없다.

그것은 414년(장수왕 2)에 건립된 광개토태왕릉비가 지금의 중국 지린 성 집안현에 위치하고 있어 그때까지 고구려의 국도가 집안현 지역이었음을 말해주지만, 437년 북중국의 국가 북위의 사신이 장수왕을 만나러 올 때에는 평양성으로 왔다는 기록이 있어 414년과 437년 사이에 고구려가 왕도를 옮겼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427년에 고구려가 천도한 평양이란 대동강 하류에 위치한 지금의 평양 지역을 가리키는 것임은 확실하다. 그런데 중국 북주(北周)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북주서(北周書)』란 책에 의하면, 고구려의 국도 평양성은 평상시에는 왕이 거처하지 않고 무기와 군량을 비축해 두었다가 전쟁 때와 같은 비상시에만 거처하는 산성이며, 평상시에 거처하는 궁성은 그 근처에 따로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상시에 거처하는 산성은 어디이며, 평상시에 거처하는 궁성은 어디일까?

평양 부근에는 고구려 시대의 성터로 확인된 곳이 몇 군데 있으니, 현 평양 중심부에 있는 평양성, 청암리 토성, 대성산성, 안학궁 터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현 평양의 중심부에서 동북방 6~7km 지점의 대성산(九龍山이라고도 함)에 있는 대성산성이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임은 거의 확실하다. 왜냐하면 대성산성은 성벽의 총둘레가 7,218m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발굴 조사 결과 4세기 말 내지 5세기 초의 유물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궁성에 대해서는 청암리 토성설과 안학궁 터설로 나누어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 청암리 토성은 대성산성의 정문과 도로로 연결되며 대성산성에 나온 것과 같은 시기의 기와조각들이 발견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그러나 대성산성과 3km나 떨어져 있고 발굴 조사 결과 중심부가 사찰 터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한편 후자의 설은 안학궁 터가 대성산성과 거리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 성터 내에서 총 건평이 3만 1,458㎡에 달하는 52동의 건물 터가 확인되는 등 유리한 점이 있지만, 발견된 유물들이 평양 천도 시기보다 상당히 후대의 것들이란 점에서 이 역시 문제가 없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청암리 토성이나 안학궁 터 둘 중 하나가 당시의 궁성임이 거의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427년의 평양 천도란 고구려가 그 중심지를 현 평양의 대성산 일대로 옮긴 것이라 하겠다. 이들 산성 및 궁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3절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고구려가 평양 일대를 차지한 것은 이 지역에 중심부를 두고 있던 낙랑군을 멸망시킨 313

년부터였다. 그러나 점령 당초에는 고구려가 이 지역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4세기 이상이나 중국의 군현이 설치되어 있었던 까닭에 고구려와는 문화적 차이가 많은데다가, 낙랑군 이래 뿌리 깊은 사회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움직여 온 토착 호족 세력이 아직 강력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낙랑군 멸망 직후부터는 서쪽에서 선비족의 일파인 모용부와의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었던 만큼,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배를 피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므로 고구려는 토착 호족 세력을 중심으로 한 낙랑 지역 기존 질서의 상당 부분을 용인하는 소극적인 지배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고구려로서는 이 지역을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할 수 없었다. 게다가 342년(고국원왕 12) 모용부와의 충돌에서 패배하여 서방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남쪽으로 세력 확장을 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고, 또 백제가 남쪽에서 이 지역을 노리는 마당에 남쪽에서의 세력 확장을 위한 군사적 거점이란 면에서도 평양 지역을 확실히 장악해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고구려는 평양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나가는데, 그것은 광개토대왕(391~413년) 때 오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즉 평양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를 다른 지역으로 옮김으로써 이 지역의 기존 사회 질서를 해체하고 토착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기도 했으며, 왕이 직접 이곳을 순수(巡狩)하여 군사적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광개토대왕 2년에는 평양에 9개의 사찰을 건립하기도 한다. 한국 고대 사회에 있어 불교는 고대국가의 정신적 기반이었다. 바로 이러한 불교 신앙의 중심지를, 그것도 9군데를 거의 같은 시기에 건립했다는 것은 평양 지역에 대한 통제력 강화라는 점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평양 천도를 염두에 둔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고대국가의 왕도는 정치적·군사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인 바, 평양에다가 9개씩이나 되는 사찰을 같은 시기에 건립하였다는 것은 이곳에 정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427년의 평양 천도는 이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조직적인 경영의 결과이며, 나아가서 천도를 위한 기반 조성이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고구려가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은 압록강의 지류인 통자 강(通佳江) 유역의 졸본(卒本:랴오닝성 환인)이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는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도읍을 옮긴 것으로 되어 있다. 기원후 3년(유리왕 22) 졸본으로부터 국내성으로 천도한 것을 위시하여, 209년(산상왕 13)의 환도성 천도, 247년(동천왕 21)의 평양성 천도, 342년(고국원왕 12)의 환도성 천도, 343년(고국원왕13)의 평양 동황성(東黃城) 천도가 그것이다.

이 중 국내성과 환도성이 어디인가는 한때 고구려사 연구에서 쟁점이 되었던 적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양자는 이름만 다를 뿐 사실은 같은 곳이란 견해와, 양자는 같은 왕도 내에 있지만 환도성은 산성이며 국내성은 평상시 왕이 거처하는 궁성이란 견해로 나뉘어 있으나, 환도성과 국내성을 모두 압록강 중류 지역에 있는 집안현 일대에서 구하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그러나 247년에 천도한 평양성과 343년에 천도한 평양 동황성에 대해서는 정설이란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의 천도는 사실성마저 의심스러운 데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문헌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같은 『삼국사기』 내에도 이를 부인하는 듯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설사 이 두 번의 천도를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의 평양 일대로의 천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247년에는 지금의 평양 일대가 낙랑군의 영역이었고, 343년에는 비록 낙랑군이 소멸되었다고는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구려의 지배력이 왕도를 옮길 만큼 강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또 고대에는 한 지명이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신라에도 평양주(平壤州)란 곳이 있고 지금의 서울을 남평양(南平壤)이라고도 했으므로, 이때의 평양을 꼭 지금의 평양에 한정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247년과 343년의 평양성 천도를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때의 평양이란 지금의 평양이 아니고 압록강 중류 유역의 어딘가였으라 생각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구려는 427년 이전에도 몇 차례 왕도를 옮긴 적은 있었지만, 결코 압록강 중류 지역을 크게 벗어난 적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427년의 평양 천도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고구려의 정치적·군사적 중심지가 압록강 중류 지대에서 대동강 하류로 바뀌는 고구려사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400년 이상 중심을 두고 있던 압록강 유역을 떠나 평양으로 천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낙랑 고지(倣地)의 잔존 토착 호족 세력을 제압해야 하는 것이 그렇고, 왕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막대한 인력과 재력을 동원해야 하는 것이 그랬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고구려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해가며 천도를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이 점에 대해 고대의 기록들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남진 정책이란 고구려 대외 정책

의 변화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많다. 즉 고구려가 남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것이다.

사실 고구려는 평양으로 천도하기 이전부터 남방 진출에 상당히 역점을 두었다. 광개토대왕릉비에 보이는 바와 같이 광개토대왕은 남방 진출에 적극적이었다. 또 광개토대왕이 재위 때 북중국의 후연(後燕)과 몇 차례 전투를 벌여 상당한 전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장수왕이 414년에 광개토대왕릉비를 건립하면서 부왕의 이런 업적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남진의 성과만 부각시킨 것도 장수왕이 남진에 대한 관심이 깊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고구려의 남진의 대표적 성과인 백제 도성인 한성 함락과 한강 이남으로의 영역 확장이 평양 천도 이후이고 보면,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평양으로 천도하던 427년 당시, 북쪽으로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것은 북연(北燕)이었고, 고구려와 북연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그러므로 북방의 위협이 줄어든 427년이라면 남진에 더 적극성을 보일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기록의 누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고구려는 평양 천도 이후 한동안 남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록은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남진 정책을 위해 천도를 단행했다는 데에는 좀 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집안 지역이 광개토대왕의 정복 활동 결과 영토가 크게 확대되었음에 비해, 국도로서는 너무 협착했다는 지적이 있다. 고구려인은 농경 민족이다. 그런데 압록강 중류 지역은 산악 지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전체 면적의 15%도 안 된다고 한다. 그에 수반된 문제점은 3세기 문헌인 『삼국지(三國志)』 동이전에 이미 “힘써 농사를 지어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다.”고 지적되어 있다. 이러한 생산력의 한계는 고구려의 국가 발전을 크게 저해했을 것이며, 특히 광개토대왕을 전후한 시기의 고구려의 비약적 발전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했을 것이다. 여기서 고구려는 국가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때 평양 지역이 주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동강 하류 지역은 강을 끼고 비옥한 충적 평야가 발달하여 농경에 비교적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며, 또 고조선 이래의 황해를 중심으로 한 교역권을 장악할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양 천도에 집안 지역의 협착성이 작용했다는 것은 충분히 수긍될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의 평양 천도의 동기를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간과되어온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지 거의 반세기가 다 되어가는 472년에 백제의 개로왕이 북중국의 북위에 보낸 국서에 장수왕이 대신강족(大臣疆族)들을 많이 살육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중국 측 기록들은 고구려의 지배 세력들이 고구려를 이탈하여 북위로 투항했음을 전하고 있다. 이것은 장수왕 때 고구려 귀족들이 왕권에 심각하게 반발하였음을 의미하지만, 여기에는 평양 천도를 둘러싼 양자 간의 이해의 상충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양자 간의 이해의 상충이란 무엇인가? 고구려는 고대국가로의 성장 과정에서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의 정비를 서둘러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고구려를 구성하고 있던 부족의 독자성을 축소시켜 나가면서 족장 세력을 중앙 귀족 세력으로 흡수해나갔다.

이들 중앙 귀족들은 비록 족장으로서의 독립성은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귀족 회의를 구성하여 왕을 폐위하는 등 상당한 정치적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의 강화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귀족세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고구려가 왕권 강화 및 중앙 집권 체제의 정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귀족 세력을 누르거나 이들의 견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고구려의 귀족 세력들 대부분은 왕도인 집안을 비롯한 압록강 유역에 강력한 자기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도읍을 옮기는 것이었다. 때문에 천도를 둘러싸고 왕권과 귀족 세력의 대립이 표면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장수왕의 평양 천도는 왕권 강화, 즉 중앙 집권 체제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3. 대성산성, 안학궁 터, 청암리 토성

1) 대성산성⁸⁾

대성산성(大城山城)은 평양시 동북방 7km에 위치한 대성산에 건설한 고구려 산성으로,

8) 채희국(1964), 『대성산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관한 연구』, 유적발굴보고 9, 평양:사회과학출판사; _____(1973), 『대성산의 고구려유적』,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대성산성(大聖山城)’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대성산의 남쪽 4km 거리에는 대동강이 활 모양으로 들판을 감싸며, 서쪽에는 합장강이, 동쪽으로는 장수천이 흘러 성의 방어력을 강화해 주고 있다.

산성은 주봉인 을지봉(乙支峰: 274m)을 비롯한 소문봉(蘇文峰)·장수봉(長壽峰)·북장대·국사봉·주작봉 등 6개의 산봉우리를 연결하여 쌓은 포곡식(包谷式) 산성이며, 산성 안에는 두 개의 계곡이 있다. 자연의 지세를 최대한 이용한 포곡식 산성이란 점에 있어서는 평양 천도 이전의 수도였던 환인의 오녀산성(五女山城)이나 집안의 산성자산성(=환도산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성벽은 자연 지세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남문지(南門址) 부근의 성벽 160m 구간을 제외하고는 사암(砂巖)이나 화강암 같은 돌을 이용하여 쌓았다. 성의 둘레는 7,076m이고, 겹성을 포함한 성벽의 총 길이는 9,284m에 달한다. 성벽 하단부에는 큰 석재를 사용하였고,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며, 성돌은 사각뿔(四角錐) 모양으로 다듬어 사용하였다. 성벽의 두께는 소문봉 부근의 경우 8m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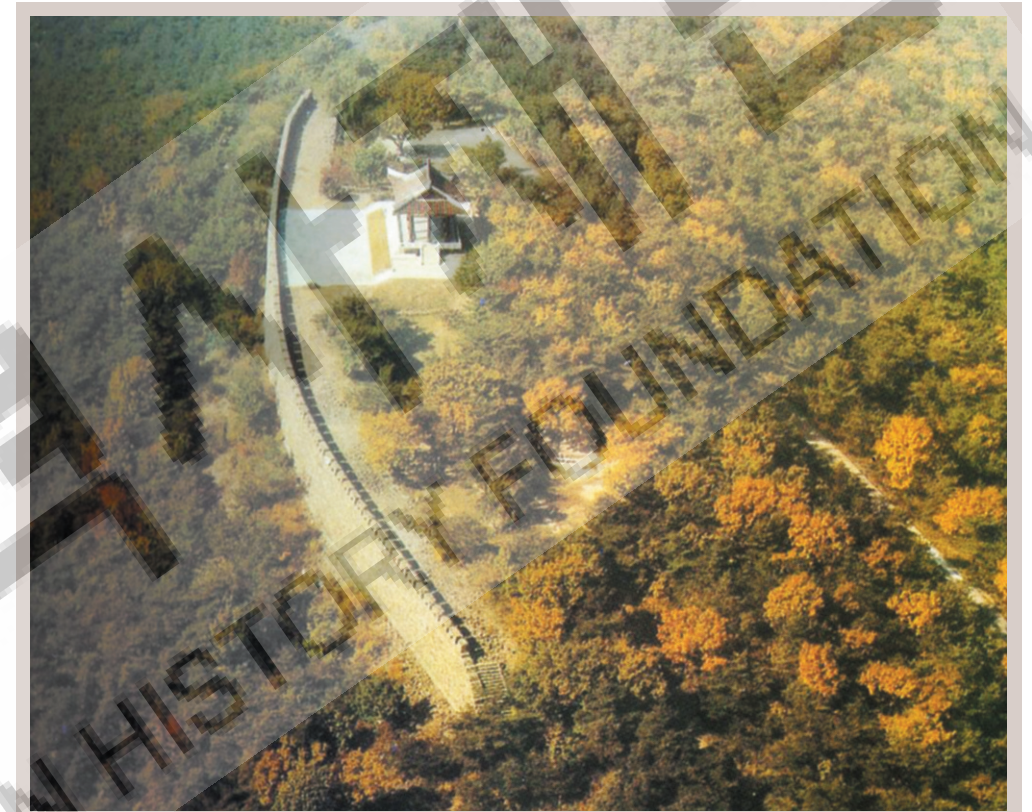
1958~1961년 6차에 걸친 조사 결과, 문지(門址)·치(雉)·옹성(甕城)·호(濠)·황(隍)·장대(將臺)·각루(角樓)·연못 및 식량 창고와 무기고가 확인되었다.

문지는 정문인 남문지를 비롯하여 사방에서 19개 소가 확인되었다. 남문지는 산성에서 가장 낮은 소문봉과 주작봉 사이의 계곡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또 성벽에는 성의 방어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65개의 치(雉)를 설치하였는데, 평균 109m마다 하나 꼴로 다른 산성에 비해 세 배나 된다.⁹⁾ 이 중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소문봉 치의 경우 성벽에서 직각으로 돌출되어 있고, 그 규모는 길이 12m, 너비 10.3~9.8m이다.

건물지는 18곳이 확인되었는데, 행궁 터·병영 터·곡식을 저장하던 창고 터 등으로 추측되고 있다. 곡식 창고 터의 지표 1.5m 아래에서는 탄화된 곡식과 목탄으로 덮인 지층이 길이 약 80m 정도로 확인되었다. 탄화된 곡식은 주로 조, 수수, 밀이다.

또한 크고 작은 연못이 10여 개 소 확인되었는데, 잉어못·시슴못·구룡못 등에는 조사 당시에도 물이 고여 있었다. 이것은 고구려에서 성벽을 축조할 때 수원 확보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9) 김덕성(2005), 「고구려평양천도의 역사적배경과 대성산성일대의 역사유적을 통하여 본 고구려의 문화발전, 『대성산일대의 유적을 통하여 본 고구려의 강성』,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5~16쪽.



●●● 그림 1 대성산성 소문봉 성벽

대성산성의 축조 연대는 출토된 기와 등으로 미루어, 4세기 말~5세기 초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연대는 평양 천도가 단행된 427년에 접근한다. 따라서 대성산성은 평양 천도 당시 왕도의 산성으로 이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안학궁 터¹⁰⁾

안학궁(安鶴宮)은 4대성산 소문봉의 바로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평면 방형의 토성이다. 성벽은 굽도리에 돌을 놓고 그 위에 흙을 다져 쌓았는데, 그 동·서·남·북 네 성벽의 길이는 각각 622m이고, 둘레는 2,488m이며, 면적은 38만 m²가 넘는다.

10) 주 8의 논문 및 고구려연구재단 편(2006), 『고구려 안학궁 조사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참조.

성문은 동·서·북쪽 성벽에는 각각 한 개씩 내고, 남쪽 성벽에는 세 개를 냈다. 남쪽 성벽의 세 개 성문 가운데서 남중문이 정면 7칸(37.5m)·측면 2칸(10m)으로서 제일 크다. 남·북 성벽에는 수구문(水口門)도 있다. 성벽의 현존 높이는 4m이나, 원래는 5m쯤 되었던 것 같다. 성벽 밖에는 해자(壕子)를 돌려 성의 방비를 강화하였다. 성 안에서는 52채의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전체 건평은 3만 1,458㎡에 달한다.

남북 중심축을 따라 외전·내전·침전이 차례로 놓이고, 침전 좌우에는 동궁과 서궁이 웅장한 규모로 배치되어 있었다. 각 궁전에서 기본 건물들은 중심축 상에, 다른 건물들은 그에 대칭되게 배치하여 위엄을 돋웠다. 확인된 건물 중에서는 내전의 1궁전이 제일 큰데, 정면은 87m, 측면은 27m나 된다. 이러한 규모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것이었다. 궁전 터의 지형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조금씩 높아지는데, 이에 맞추어 뒤로 가면서 건물들을 차츰 높게 하여 웅장감을 더하게 했다.

안학궁의 각 궁전들은 회랑으로 서로 연결되었다. 회랑의 정면 넓이는 외전·내전·침전으로 들어가면서 차츰 좁아졌는데, 그것은 궁성을 실제 이상으로 더 깊어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안학궁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정원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서 궁성 안 동쪽 낮은 지대 남쪽에 자리 잡은 정원이 제일 크고 화려하였다.

안학궁 건축에 사용된 건축 부재들은 매우 다양하고 우수하였다. 안학궁에서는 무늬가 서로 다른 15종의 수키와 막새(처마 끝에 꾸미는 데 쓰이는 장식 기와)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용마루에 얹는 치미(鷓尾:용마루 양쪽 끝에 올리는 장식용 기와)가 4개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는 높이 210cm, 너비 180cm인 것도 있다. 이것은 발해 동경성에서 발견된 치미의 두 배의 크기이다.

안학궁에 대해 북한에서는 427년 평양 천도 당시부터 586년 장안성으로 천도할 때까지 왕도의 궁성 내지 평지성이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학자들은 안학궁에서 출토된 기와가 후대의 것이란 점을 들어, 장수왕 천도 당시의 왕궁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¹¹⁾ 따라서 안학궁이 유사시에 들어가는 대성산성과 한 조를 이루는 궁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더 검토의 여지가 있다.

11) 田村晃一(2001), 「高句麗の寺院址に関する若干の考察」, 『樂浪と高句麗の考古學』, 東京: 同成社, 37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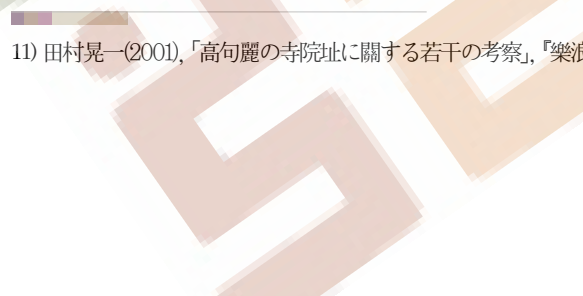
3) 청암리 토성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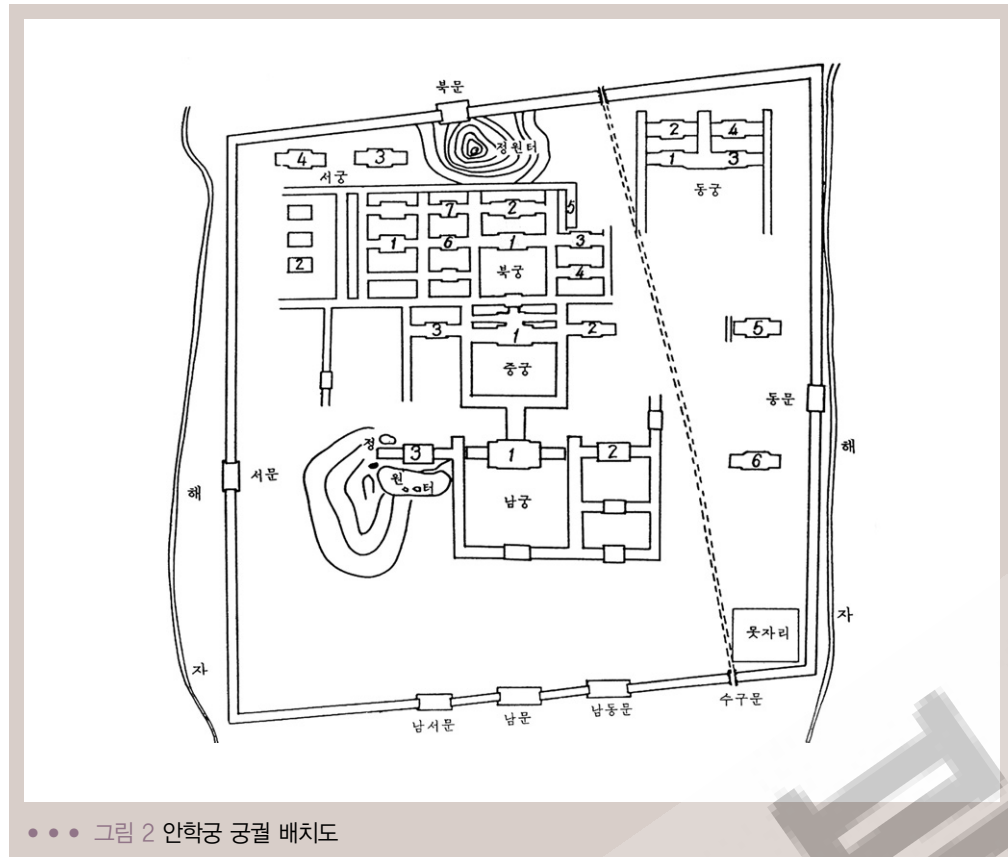
평양시 대성 구역에 위치한 성이다. 성의 남쪽으로는 대동강, 동쪽으로는 합장강, 북쪽으로는 합장강과 보통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류들이 흐르므로, 세 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방어에 좋은 조건을 갖춘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평면은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은 반달 모양이며, 둘레는 약 3,450m 정도이다. 성의 서쪽 성벽은 능선을 따라 쌓았고, 동쪽은 대동강 기슭에 생긴 절벽을 성벽으로 이용하였다. 그래서 서쪽에서 보면 구릉지대의 언덕을 이용하여 쌓은 평지성 같고, 동쪽에서 바라보면 대동강을 낀 절벽 위에 쌓은 산성 같이 보인다.

청암리 토성(淸岩里土城)은 아래 성벽과 위 성벽으로 구분되는데, 붉은 기와가 나오는 위 성벽이 바로 고구려 시기의 것이다. 그리고 위 성벽은 세 번에 걸쳐 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벽은 대부분 돌로 쌓았고 일부분만 흙을 다져가면서 쌓았다.

성의 동·서·남·북 네 면에는 규모가 큰 문지(門址)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작은 문지가 몇 개 있다. 그 가운데 남문지는 남쪽으로 금수산 줄기를 따라 평양성 북성의 북문인 현무문으로 가는 길과 통한다. 그리고 북문지는 이 성의 북쪽 주암산이 마주 바라다 보이는 평탄한

12) 김경찬(2005), 「청암리토성발굴과 그 의의」, 『대성산일대의 유적을 통하여 본 고구려의 강성』,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92~96쪽.





●●● 그림 2 안학궁 궁궐 배치도

곳에 있다. 여기에는 대성산성 남문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된 큰 도로가 1920년대까지 남아 있었다고 한다. 동문지는 남쪽의 청루벽과 북쪽의 주암산 절벽이 서로 연결되는 낮은 골 안에 위치하며 대동강과 통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는 수문을 내고 인공적으로 강기슭을 파서 배들이 드나들도록 한 운하 터가 있다.

청암리 토성 안에서는 일제시대 때 절터[寺址]가 확인되었다.¹³⁾ 남쪽으로부터 중문(中門)·8각형의 목탑(木塔)·목탑의 북쪽과 좌우에 하나씩 배치한 금당으로 이루어진 1탑 3금당 식의 가람이었다. 발굴 당시 이 절터는 498년(문치왕 7)에 세운 금강사(金剛寺)로 추정되었지만, 5세기 이전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즉 청암리 절터에서 출토된 기와편은 장군총 출토 기와보다 늦고 장안성 출토 기와보다는 앞서고 있어, 5세기 이전으로 올라가지 않을 가능

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구려 시대 금강사(金剛寺) 터가 아닐 수 있다.

또 광복 이후에는 성 안의 서부 지역에서 가로 20m, 세로 5m 규모의 건물지가 발견되었고, 또 건물지에서는 벽화 조각이 나왔다. 지금까지 고구려 고분 벽화는 많이 발견되었지만, 건물 벽화가 나온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이밖에도 청암리 토성에는 건물의 초석·기와·치미·토기·돌절구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청암리 토성이 고조선 시기부터 존재했다고 한다. 그리고 위의 성벽은 3세기 중엽~4·5세기까지 쌓았다고 한다. 이러한 편년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으나, 청암리 토성에서 붉은 기와가 나왔다는 점에서 안학궁 터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며, 대성산성과 시기적으로 더 접근한다. 또 기와나 건물 벽화로 미루어 중요한 건물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성 안에 대규모의 절 터가 있다는 것이 왕궁으로 보는데 회의적으로 만든다. 따라서 대성산성과 한 조를 이루는 궁성 내지 평지성이 안학궁 터인지 청암리 토성인지는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라 하겠다.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13) 小泉顯夫(1940), 「平壤靑岩里廢寺址の調査」, 『昭和13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保存會, 5~19쪽.

II 중국 남북조와의 관계

이성제

1. 다원적 국제 질서와 중국 남북조를 상대로 한 교섭

1) 중국 남북조를 중심으로 한 다원적 국제 질서의 등장

고구려의 대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는 중국 왕조였다. 긴 설명을 할 것도 없이 조위(曹魏)와 전연(前燕)의 침입으로 왕도(王都) 국내성(國內城)이 두 차례나 파괴되었다는 사실은 고구려의 발전에서 대중국 관계가 차지한 비중을 가늠케 해준다. 대중국 관계의 중요성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으로 대표되는 고구려의 전성기에 들어서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이 시기 대중국 관계에서 고구려는 유례 없는 평화를 유지하였다. 405년 후연(後燕)과의 교전을 끝으로 6세기 후반까지 중국을 상대로 한 안정적 관계는 고구려가 동북아시아 세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뒷받침이 되어주었다.

이처럼 5~6세기 고구려의 대중국 관계가 이전의 시대와 후대에서 보이는 대결의 양상과는 판이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세력도 쉽게 넘볼 수 없었던 고구려의 국력을 배경으로 한 것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동아시아 세계의 국제 정세가 다원적 국제 질서로 재편되고 있던 상황과도 무관할 수 없었다.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이 한창 전개되던 무렵, 중원을 중심으로 한 중국 대륙에서는 '5호 16국시대'로 일컬어지는 분열과 전쟁의 시대가 서서

히 끝을 맺고 있었다. 그리고 뒤따라 북중국을 통일한 북위(北魏)가 동진(東晉)의 뒤를 이은 송(宋)·제(齊) 등의 남조(南朝)와 대치하는 '남북조시대'가 등장하였다. 바로 이들 남북조의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하여 고구려는 대중국 관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대중국 관계는 언뜻 비춰지는 것과는 달리 순탄하게만 전개되지는 않았다. 도리어 군사적 긴장감이 항상 감돌았고, 때로는 전면적인 충돌의 위기에 직면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즉 북위에서 북제(北齊), 그리고 수(隋)에 이르기까지 북중국 제 왕조가 라오허 강(遼河) 저편에 등장할 때마다 고구려는 매번 라오허 강 일대로 밀려든 이들의 힘과 맞닥뜨리곤 하였다. 더욱이 고구려의 대중국 관계는 경계를 마주한 이들 북조 세력과의 관계로서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었다. 북조 세력과의 관계,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북조와 대립하거나 혹은 연계를 피한 인접 세력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는 데 고충이 있었다.

남북조 간의 직접 대결은 황허 강(黃河), 뒤에 가서는 화이수이 강(淮水)을 사이에 두고 펼쳐졌지만, 남북조의 영역 바깥에 자리잡고 있던 인접 세력들도 남북조의 대결 관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장성 북쪽의 유연(柔然)이 남조와의 연계를 피하여 북위에 적대하였다든지 현재의 청해성(青海省) 일대에 있던 토욕혼(吐谷渾)이 남북 양조를 상대로 교섭과 충돌의 극단적 관계를 넘나들었다는 사실은 이 시기 국제 질서가 다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조와의 연결로 인해 피아간의 대립으로 나아갔던 특징을 알려준다.

한편 고구려가 상대하고 있던 주변 세력들의 움직임도 이 시기부터 고구려의 대중국 관계와 연동되기 시작하였다. 4세기 이래 상쟁하고 있던 백제와 고구려 북쪽에 있던 신생의 물길(勿吉)이 북위에 청병(請兵)하였다는 사실은 훗날 고구려 멸망에 결정적 힘을 발휘한 나당연합(羅唐聯合)을 연상케 한다. 고구려로 보아서 대중국 관계의 문제가 서번의 위기로 그치지 않고 고구려 세력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차원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이 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고구려의 대중국 관계가 앞과 뒤의 시대와 다를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당대의 국제 정세와 그 변화의 흐름에 유기적으로 호응하는 대외 정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국 관계의 많은 실례가 장수왕 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수왕 대에 고구려는 중국을 상대로 한 대외 정책을 왕성하게 시도하였으며, 장수왕 이후 대중국 관계에서 보이는 안정이란 전대의 정책이 거둔 성과로서 이해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따라서 고구려의 대중국 관계가 장기간 안정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을 알고자 한

다면 마땅히 장수왕 대의 대외 정책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도 대개 그러할 것이다.

이제 435~438년에 걸쳐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랴오허 강 이서에 자리 잡고 있던 북연은 고구려와 북위 사이에 끼여 있는 작은 국가였다. 이 나라의 운명을 두고 고구려와 북위, 그리고 송이 벌였던 각축과 수습의 과정은 고구려의 대중국 관계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전개되었는가를 잘 드러내줄 것이다.

2) 대북위 외교와 책봉·조공 관계의 성립

435년 6월 북위의 수도 평성(平城), 북위 황제와 일단의 신료들이 모인 조당에는 낯선 사람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동쪽 국경 지대에서 이들의 방문을 알려온 보고가 있는 뒤부터, 북위 궁정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던 이들이었다. 예를 갖추기 위한 일단의 절차가 끝나고 일행의 선두에 선 우두머리가 올린 서장의 내용이 알려지자, 일순간 조당 안에 흐르고 있던 긴장감은 사라졌다. 모였던 북위 중신들의 얼굴에는 걱정거리를 털었다는 기색이 완연하였다. 용상의 황제 태무제(太武帝)조차 기쁨을 드러내며 환대의 뜻을 밝혔다.

이 날 북위 조당에 모습을 보인 이들은 멀리 동쪽에서 온 고구려 사신단이였다. 고구려와의 공식적인 교류가 없던 터이지만, 북위 조정에도 고구려가 랴오허 강 이동에 자리잡고 있는 만만찮은 국가라는 것쯤은 익히 알려져 있었다. 더욱이 415년 북위군의 발길이 동으로 향하기 시작한 이래, 고구려의 존재는 조금씩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동방 경략의 진행도로 보아 조만간 대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상대였기 때문이다. 그런 차에 고구려가 사절을 보내왔다는 것은 파견 그 자체만으로 북위 조정의 관심을 살 만한 일이었다.

고구려 사절의 방문 목적에 대해 궁금증이 인 것은 당연하였다. 그런데 막상 조당에 바친 고구려 왕의 서장은 표문(表文)이었다. 고구려 장수왕이 북위의 태무제에게 신하를 칭하며 공손한 어투의 글을 보내왔던 것이다. 내심 고구려의 항배에 안도하게 된 북위 태무제는 곧바로 고구려 장수왕에게 ‘도독요해제군사 정동장군 영호동이중량장 요동군개국공 고구려왕(都督遼海諸軍事 征東將軍 鎮護東夷中郎將 遼東郡開國公 高句麗王)’의 책봉호를 주기로 결정하고, 따로 이 책봉사를 선발하여 고구려 사절의 귀국 길에 동행시켰다. 전무하다시피 했던 그동안의 양국 관계로 보아서는 일사천리로 진행된 교섭이었다. 이로써 고구려와 북위 양국 사이에는 책봉·조공의 관계가 성립되었다.

위 이야기는 『위서(魏書)』 고구려전에 전하는 기록에 따라 장수왕 23년 고구려와 북위 양국 간에 있었던 공식적 교섭의 첫 장면을 그려본 것이다. 장수왕이 상대한 북위는 부왕인 광개토대왕 대까지만 해도 이름 없는 유목 세력에 불과하였다. 그랬던 북위가 세력을 확장해 오더니 어느 틈엔가 고구려의 서변에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435년에 이르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에 이르러, 마침내 고구려는 사절을 보내 북위와의 외교 관계를 열었던 것이다.

그런데 관련 기록 어디에도 고구려가 조공 사절을 보내야 했던 까닭을 속 시원히 설명해주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다만 북위의 세력 확대가 고구려의 서변에 자리 잡고 있던 북연을 상대로 한 것이었고, 바로 이듬해 북연이 붕괴 위기에 몰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아, 정황상 고구려가 북위를 상대로 한 교섭에 나서게 된 데에는 랴오허 강 이서 지역에서 일고 있던 정세 변화가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 한편 중국 사서와는 달리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는 이보다 앞서 425년 무렵 고구려가 북위에 사자를 보낸 적이 있음을 전하고 있다. 북연 너머의 정세 변화가 몰고 왔던 파장을 감안하면 잘못된 기록으로 볼 수만은 없고, 고구려가 교섭을 시도한 적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기록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견사여위공(遣使如魏貢)’의 구절과 연결되는 북위 측의 대응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고구려의 사절 파견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고구려와 북위는 435년에 가서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것도 고구려의 조공을 계기로 한 것이었음을 보면, 당시 고구려는 위기에 몰려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랴오허 강 일대로 다가오던 북위의 위협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전개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¹⁾

한편 북위를 상대로 한 고구려의 교섭이 책봉·조공 관계의 성립으로 일단락된 것은 아니었다. 고구려는 6월의 사절 파견에 뒤이어 같은 해 가을에도 한 차례 사절을 보내었다. 이듬

1) 막북의 유목 세력에 불과했던 북위는 395년 참합피(參合陂:내몽고자치구 양성현(涼城縣)전투를 통해 후연군을 격파하여 위협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황허 강 이북을 장악해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423년 즉위한 북위 태무제는 화북 제패를 당면의 목표로 삼고 적극적인 경략을 추진해나갔다. 그 결과 430년대에 이르면 화북에는 북연·북량(北凉)·구지(仇池)만이 남게 되었고 북위의 압박은 날로 거세지고 있었다.

특히 북위의 동진은 고구려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던 북연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협적이었다. 북위군의 거듭된 공격에 대해 북연의 저항은 날로 약해져 갔다. 432년 무렵에는 북연 왕자 풍송(馮崇)마저 “북연이 장차 망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할 정도로 북연이 처한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었다.

해인 436년과 437년 그리고 439년에도 고구려의 대북위 외교가 이어졌다. 그러다가 462년까지의 단절기를 거친 뒤에는 몇 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사절을 파견하였는데, 한 해에만 두세 차례였던 적도 적지 않았다. 이로 보아 이 시기 고구려는 대중국 관계, 특히 대북위 교섭에 적극성을 띠었다고 판단된다. 교섭의 횟수나 빈도 면에서 같은 시기 남조를 상대로 한 외교를 능가할 뿐 아니라 다른 시기에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이다.

한편 교섭에 나선 쪽은 고구려만이 아니었다. 장수왕의 뒤를 이어 문자왕(文咨王)과 안장왕(安藏王), 그리고 안원왕(安原王)에 이르기까지 고구려 역대 국왕은 모두 북위의 책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장수왕의 서거로부터 이후의 고구려 국왕들에게는 북위의 추증(追贈)도 이어졌다. 이로 보아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는 435년 성립된 책봉과 조공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다음의 사건은 책봉·조공 관계의 성립이 양국 관계의 공식적 시작에 불과했음을 알려준다.

3) 북연 왕 영입과 대북위 교섭

436년 4월, 기세등등한 북위의 군대가 성 밖을 에워싼 가운데, 북연의 왕도 화룡성(和龍城: 현재의 랴오닝 성[遼寧省] 조양) 안에는 불안감이 가득하였다. 북위군의 침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이번 공세는 남달랐다. 고육지책으로 북위에 표문(表文)을 바치고 변국(藩國)임을 자처함으로써 북위의 공세가 멎는가 했는데 얼마 전부터 공격이 재개되었고 한층 매서워졌던 것이다. 게다가 소식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 나서기 전 북위는 사절을 인근 국가들에 보내 곧 있을 군사 행동을 알리고 협력을 요구했다고 하였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국왕 풍홍(馮弘)의 명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았다. 도리어 몇 년 전부터 세를 점하고 있던 항복파 무리들이 무기를 들고 북연 왕과 그의 측근들을 공격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윽고 항복파가 성 안을 장악하고 북위군 진영이 막 움직이려 할 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수만 명의 군대가 나타나더니 북연 왕 측근이 열어준 성문을 통해 입성했던 것이다. 그리고는 북연 왕을 공격하던 무리들을 소탕하더니 순식간에 화룡성을 점거하였다. 기습적인 군대의 출현에 당황한 북위군 진영이 간신히 알게 된 것이라곤 성 안에 들어간 군대가 고구려군이라는 사실뿐이었다.

며칠 뒤 북위군 진영을 당황하게 하는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 엄정한 기치와 무장을 갖춘 대열이 한참을 나오더니 동으로 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대열의 후미에는 고구려군이 배치



●●● 그림 1 화룡성에서 나온 북연 왕과 화룡성민이 건넌을 라오허 강 전경 (랴오닝 성 영주시, 고구려는 이들을 인근의 평광(랴오닝 성 개주시)에 머물게 하여 북위를 견제했다)

되어 사나운 기세로 대열을 재촉하고 있었다. 장장 60여 리의 긴 대열이 고구려 영토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동안, 북위군은 텅 빈 성을 접수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위의 장면은 『위서』 고구려전의 기록을 토대로 436년 4월에 일어났던 고구려의 북연 왕 영입(迎入) 사건을 그려본 것이다. 435년 6월 고구려가 북위에 사절을 파견한 일로부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고구려군이 북연으로 출병하였고, 북위군과 교전 직전의 상황까지 나아갔던 것이다. 그러면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가 일촉즉발의 험악한 국면으로까지 나아간 배경은 어디에 있었을까?

북위가 북연을 멸하기로 결정한 것은 435년 고구려 사절이 북위 조정에 나아간 직후의 일이었다. 북위군의 공세 재개로 궁지에 몰리게 된 북연 왕은 이때에서야 고구려에 밀사를 보내 맞아들여 줄 것을 청하였다. 북연 왕의 요청에 고구려 장수왕은 즉각 군대를 보내 북연 왕 영입에 나섰다. 북연 왕 밀사의 인도를 받은 고구려군은 북연 영내로 진입할 수 있었고, 화룡성을 장악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고구려군이 기왕에 확보한 화룡성 일대에 주둔하지 않고

귀환하였던 것으로 보아, 고구려의 관심은 북연 왕과 화룡성민의 확보에 시종일관 놓여 있었다고 짐작된다.

고구려군이 북연의 수도에 입성하였다는 점도 그러하지만 북연 국왕을 영입하였다는 사실은 이 무렵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일 것이다. 북연의 군주였던 풍홍은 북위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고, 그와 운명을 함께 하게 된 화룡성민은 북연의 중추를 이루는 왕도 출신들이었다. 이로써 고구려는 북연의 지배층을 대거 포섭한 데 반해, 북위는 점령지 통치에 협력해줄 조력자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풍홍은 “동으로 가서 고구려에 의지하여 훗날의 거사를 도모하겠다.”고 할 정도로 북국(復國)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북위로 보아서 그의 존재가 특히 문제되었던 것은 고구려가 강력한 국력으로써 그를 뒷받침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고구려의 도전적 행동에 맞서 공격을 논의하기도 하였지만, 북위는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없었다. 화룡성 공략에 나서기 직전 북위는 고구려에도 사절을 보내 협력을 강요한 바 있었다. 당시 북위의 태도는 고구려를 위압하는 것이었고, 그만큼 세력 관계에서 우위를 자신하고 있었다. 그러던 북위의 입장이 고구려가 북연 왕을 영입한 이후 달라졌던 것이다. 화룡성 입성을 통해 북위에 정면으로 맞섰고 이제는 북연 왕이라는 억지력마저 갖춘 고구려에 대해, 북위는 선불리 대응할 수 없었다.

결국 435년의 대북위 외교로부터 고구려군의 화룡성 입성 그리고 북연 왕 영입으로 이어진 일련의 조치들은 고구려가 북위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장수왕은 외교적 조치로 불리해지고 있던 정세를 돌려놓았고, 영입한 북연 왕을 북위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제어 수단으로 삼을 수 있었다. 이것은 고구려의 전략이 거둔 성과라고 보인다.

한편 고구려가 군사 행동에 나섰다고 해서, 그 의도가 북위와 정면으로 대결하겠다는 데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고구려의 군사 행동은 제한적 의미의 군사력 사용, 즉 무력 시위에 한하였다. 과감하고 신속한 행동으로 북위군의 기세를 제압했으면서도 끝내 교전을 애써 피하였다는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고구려의 무력 시위는 북위의 행동에 분명한 선을 그어두는 것으로, 북위의 세력 확대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고구려가 북위에 대해 보인 강경한 태도 가운데 가장 분쟁거리인 역시 송과 이후의 남조 국가들에 대한 외교일 것이다. 북위에 있어서 송은 중원 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각축을 하고 있던 적대국이었다. 그러한 관계임을 변연히 알면서도 고구려는 대송 외교를 전개하였고, 송의 뒤를 이은 제(齊)와 양(梁)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었다.

2. 고구려의 대송 외교와 그 의미

5~6세기 고구려의 대중국 관계를 이해하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고구려가 대북위 외교와는 별개로 남조를 상대로 하여 교섭하였다는 사실이다. 415년 장수왕이 동진에 조공하여 ‘사지절·도독영주제군사·정동장군·고구려왕·낙랑군공(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句麗王·樂浪郡公)’의 책봉을 받은 이래, 고구려는 송과 그 뒤를 이은 제·양·진(陳)의 남조²에 조공하였고, 장수왕과 뒤를 이은 고구려 국왕들은 남조로부터 책봉을 받았던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고구려의 대중국 관계에서 북조와의 교섭이 중시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북조처럼 경계를 마주한 상대가 아닌 남조에 대해서도 고구려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송서(宋書)』에 따르면 420년 건국 직후 고구려 장수왕을 책봉했던 송은, 422년 장수왕에게 ‘산기상시·독평주제군사(散騎常侍·督平州諸軍事)’의 새로운 관작을 더하여 주었다. 고구려가 사절을 보내지 않고 있던 것을 보면, 송이 굳이 가호(加號)하였다는 사실은 책봉을 내세운 송의 적극적인 외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던 양국의 관계는 436년 6월 고구려의 사절 파견으로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북연 문제를 둘러싸고 북위와 대립하기 시작하면서 고구려가 대송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황해의 해로를 이용해야 하는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대송 외교에 나섰다. 다가오는 북위의 위협을 배경으로 하였음이 분명하다. 앞서 송이 보인 적극적인 외교도 고구려가 대송 외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송으로서도 북위의 남진을 막아내고 나아가 중원을 회복하기 위해 고구려와의 연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고구려를 상대로 한 외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고구려의 대송 외교는 북위를 견제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였고, 북위와 송의 대립이라는 중국의 정세를 활용한 측면이 강하였다.

450년 무렵의 기록에는 ‘대북위 포위 전선’을 구성했던 송과 인접국들 간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전제되고 있다.³ 송 문제(文帝)에게 보낸 글에서 북위 태무제는 송과 연결을 꾀했던 국

2) 436년에서 송이 멸망한 479년까지 고구려의 사절 파견은 모두 17차례였다. 송의 뒤를 이은 제(479~502)에 대해서는 481년과 484년 그리고 496년의 사절 파견이 있었다. 그리고 양(502~557)에 대해서는 13차례(519년과 532년에 각각 2차례씩)에 걸쳐 사절을 보내었다.

3) “그대가 지난날 북으로 연연과 통모하고, 서로는 혁연·몽손과 연결하며, 동으로 풍홍과 고려와 연합하였는데, 무릇 이들 몇 나라는 내가 모두 멸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그대가 능히 홀로 서 있을 수 있겠는가.” 『宋書』 卷95, 2346쪽.

가들로서 북위의 북쪽에 위치한 유연(柔然), 서쪽의 하(夏)·북량(北凉), 동쪽의 북연과 고구려를 지목하였다. 또한 태무제가 “송과 연결을 꾀하던 국가들을 멸하였고, 이제 유연만이 남아 있기에 유연을 먼저 멸한 뒤, 송을 상대하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으로 보아, ‘대북위 포위 전선’에 송과 연결한 국가들을 선제 공략함으로써 송을 고립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북위에 비해 열세였던 송은 북위를 둘러싸고 있던 주요 인접국들과의 연계를 추진하였다. 북위에 공동으로 대항하자는 이른바 ‘대북위 포위 전선’의 구축을 위해 송과 인접 국가들의 교섭은 주로 군사적 협력 관계를 주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 만큼 ‘대북위 포위 전선’은 북위에 위협을 주는 것이었고, 북위의 반격이 이어졌던 것은 당연하였다. 실제 북위의 공세로 하·북량·북연 등은 패망하였고, 막북(漠北)의 유연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었다. 따라서 북위군의 공세가 대북위 포위 전선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군사 행동이었다는 사실은 고구려와 북위 그리고 송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송을 중심으로 한 ‘대북위 포위 전선’과 북위의 관계로 보아 고구려가 북위와 대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북위가 송과 유연 등의 견제를 받아서라기보다는 고구려의 전략이 다른 인접 국가들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의도했던 바에 있어서 고구려의 대송 외교는 다른 국가들과 송이 추구했던 연계와는 분명 차별적인 것이었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송서』 고구려전에는 438년 북연 왕의 항배를 두고 고구려와 송 간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던 사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북위라는 공동의 위협을 눈앞에 두고 있던 상황에서조차 양국의 이해관계가 달랐음을 시사한다. 또한 송이 요동에 출병하여 고구려의 보호 아래 있던 북연 왕을 건네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은 송의 의도가 북위의 동방에 제2전선을 구축하는데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로써 송은 북위의 위협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했겠지만, 고구려로서는 가뜰이나 불안한 대북위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한 위협천만한 일이었다. 고구려는 북연 왕 일가를 제거함으로써 송의 의도에 따를 뜻이 없음을 드러내었다.

교전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사태의 확대를 바라지 않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진 했지만, 이 사건 이후 송은 더 이상 고구려를 상대로 한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북연 왕 영입을 위해 송은 7,000명의 병력을 대동한 사절단을 보낸 바 있었다. 그러던 송이 463년까지 고구려에 단 한 차례도 사절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시기 ‘대북위 포위 전선’의 구축과 관련하여 송이 고구려와의 연대 가능성에 기대를 걸지 않았음을 알려준다.⁴

한편 송의 요동 출병은 북위와 송의 대결 관계에서 고구려의 전략적 중요성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북위와의 대결 관계에 고구려를 끌어들이려던 송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것은 고구려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문제였다. 풍홍의 제거가 고구려가 망명 세력을 앞세워 북위에 공세를 가할 의도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고구려가 송과의 갈등을 수습해갔던 과정은 반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송의 사절을 돌려보내면서 양국 관계를 이어나가려 하였다. 그리고 439년에는 송의 요청에 따라 군마 800필을 보냄으로써 직접적인 군사적 제휴 관계로 나갈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⁵ 이와 함께 고구려는 대송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행동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로써 고구려의 대송 외교는 만일에 있을지 모를 북위의 적대 행동을 견제하는 안전판의 구실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대송 외교는 송에 제휴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었지만, 고구려의 이러한 태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던 쪽은 다름아닌 북위였을 것이다. 고구려는 대송 외교를 추진하면서도 북위의 동방을 위협하려 하지 않았다. 북위의 위협에 맞서 송 측에 기우는 경향을 보였지만, 어디까지나 견제의 선을 넘지 않았던 것이다. 북위와 송의 대결 관계에서 고구려는 중립에 가까운 태도를 표방하였고, 이 점에서 대송 외교를 앞세운 고구려의 전략은 다른 국가들의 그것과 달랐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고구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적대 입장에 선 것이 분명한 국가들보다는, 북위가 고구려의 항배를 더욱 의식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던 대송 외교는 462년을 전후로 하여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북위에 내란이 일어나 남북조의 형세가 변모하게 되는 523년까지 고구려가 송과 그 이후의 제·양에 보낸 사절은 모두 9차례에 그쳤다. 이처럼 고구려의 대남조 외교가 줄어들게 된 배경에는 대북위 외교의 재개가 관련이 있을 성싶다. 이 무렵 고구려는 462년 북위를 상대로 한 외교를 재개하면서

4) 예컨대 443~451년에 걸친 기간에는 대규모 격전이 북위와 송 그리고 유연 사이에 벌어졌다. 특히 450년의 대결에서는 늘 수세에 몰려 있던 송이 모처럼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섰다. 송으로서의 북위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고구려가 북위의 동방을 위협해준다면 송의 공세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과 고구려의 군사적 유대를 엿볼 수 있는 흔적은 고사하고 송의 사절 파견조차 없었던 것이다.

5) 고구려가 송에 군마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고구려와 송의 관계에서 보이는 몇 안 되는 구체적 교섭의 사례이다. 고구려와 송의 관계가 긴밀했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이를 송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 지원 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연계로 평가한다.

거의 매년 사신을 파견하다시피 하고 있었다. 대송 외교는 새로운 위협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제 기능을 다하였으나, 5세기 후반기로부터 새롭게 전개된 정세 변화에 발맞추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이 무렵에 이르러서는 남북조 간의 역학 관계도 이전에 비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송에서 제를 거치면서 남북조의 경계는 이미 화이수이강 이남으로 남하해 있었고 남조에게는 실지(失地)를 회복할 역량조차 부족한 형편이었다는 정세도 대남조 외교의 변화에 한몫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아서는 그러한 대북위 외교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남조 국가들과의 교섭을 단절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나아가 북위가 뚜렷한 우세를 점하게 된 중국 내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남조의 열세로 말미암은 위기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점도 간취할 수 있다. 이는 고구려가 남북조 간의 대결 관계에 대해 중립에 가까운 태도를 고수해왔던 결과였고, 대송 외교로 거둔 또 다른 성과였다고 보인다.

3. 대북위 외교의 재개와 책봉·조공 관계의 정립

1) 북위의 간섭 전략과 대북위 외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구려는 5세기 중반 북위와의 관계에서 꽤나 긴장감 높은 모습을 적지 않게 시도하였다. 그러면서도 고구려가 위기의 국면을 타개하고 대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남북조가 대결하고 있던 중국의 정세를 배경으로 한 것일 뿐 아니라, 북위의 위협을 견제해나갈 수 있는 역지력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던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북연 왕 문제로 야기된 험악한 국면을 뒤로 하고 고구려는 대북위 외교를 중단하였고, 이로부터 단절된 양국의 관계는 23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그러던 양국 관계가 462년 이후 긴밀한 교섭의 관계로 나아갔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고구려가 북위와의 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했던 배경에는 한강 이남에서 백제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고, 고구려의 영향력이 드리워져 있던 신라마저 도전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었던 사정도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를 둘러싸고 있던 백제 등의 위협과 관련하여, 고구려가 대북위 외교를 재개하였다는 것은 당시 고구려가 직면했던 문제의 소재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고구려가 462년에 대북위 외교를 재개하였고 이후 장수왕이 서거하는 491년까지 거의 매년 사절을 보냈음을 전하고 있다. 이로 보아 고구려는 그동안의 긴장과 대립의 관계에서 벗어나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고, 우호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북위도 472년부터 사절을 보내오기 시작하였고, 그 파견의 횟수는 남조 다음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양국 관계는 이전에 비해 분명 우호적인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절의 왕래가 곧바로 양국의 우호 관계를 이끌어냈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사적인 사실은 472년 북위의 사절 파견이 백제가 고구려 공격을 요청해온 것을 계기로 삼았다는 점이다. 『위서』 백제전에 따르면 북위 황제는 백제의 고구려 공격 요청을 거부하였지만, 백제에 국서를 보내 “고구려와 주변국의 분쟁을 해결해주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천명하였다. 그리고는 분쟁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고구려에 사절을 보내왔고, 백제 사절의 귀국 길을 육로로 잡아 고구려에 영내 통과를 강권하였다. 비록 고구려의 강경한 거부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에서 드러난 북위의 입장은 결코 우호적인 것이라 할 수 없었다.

또한 북위를 상대로 한 백제의 교섭이 전무했던 그간의 사정으로 보아, 백제가 북위에게 군사적 협력 관계를 바랄 수 있던 것은 북위와 고구려의 불편한 관계를 틈타보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북위가 고구려와 그 주변 국가 간의 관계에 개입함으로써,⁶ 고구려를 압박하려 한다는 확실한 정보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바닷길로 사절을 보낸 적”이 있음을 인정한 국서의 구절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 여겨지는데, 북위의 간섭 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462년 백제 사절의 고구려 경내 통과를 시도한 북위의 행동이었다.

한편 『위서』 물길전은 이 무렵 물길이 고구려를 상대하여 교전하고 있었으며, 북위에 지원을 요청해왔음을 전하고 있다. 고구려의 북변을 어지럽히고 있던 물길조차 북위와의 연계를 통해 고구려에 대항하려는 자세를 보였다는 것은 이제 북위의 향배가 고구려와 그 주변 국가

6) 광개토태왕릉비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당대 고구려인들은 인근 국가들을 고구려 국왕이 지배해야 할 속국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고구려인의 입장에서 보기에 고구려가 영향력을 드리우고 있던 신라와 같은 국가는 물론이고 백제처럼 저항을 계속하고 있던 국가들도 고구려의 세력권에 포함되는 세력이었다.

간의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462년 이후 전개된 고구려의 대북위 외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구려 세력권 내에서의 도전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고구려에 압박을 가하려던 북위의 전략에서 비롯되어 보다 위협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라가 적대 세력 백제와 보조를 맞추려 한다는 것이나 북쪽에서 물갈이 등장하여 북변을 소란케 했다는 것은 고구려가 대응해야 할 상대가 늘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방면에 한하고 있던 도전의 움직임이 북위의 개입에 따라 전 방면에 걸친 것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점에 있었다. 그러므로 고구려로서는 북위로 인해 미구(未久)에 불어 닥칠 위기를 사전에 저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고구려가 462년 대북위 외교의 재개 이래 거의 매년 사절을 보내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우호를 꾀하고자 했던 배경은 위와 같이 세력권 내 적대 세력과 북위의 연결 움직임으로 인해 북위를 상대로 한 관계가 고구려의 일부 국경만이 아니라 세력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나가려면 그동안의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북위와의 관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고구려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한편 대북위 외교를 구성한 중요한 요소는 사절의 파견과 더불어 '조공'이었다. 조공이란 주변 국가의 군장이 중국의 황제에게 신복하여 내조(來朝)하는 일종의 정치적·의례적 형식이다.⁷⁾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와 남북조 특히 북위와의 관계가 과연 조공의 본질 그대로 한쪽을 종주국으로, 조공국을 종속국으로 하는 종속 관계였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종주국이 조공국에 대해 규제력을 갖고 있어 조공의 의무를 강요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양국 관계에서 보이는 조공은 북위 측의 강요가 아닌 고구려의 의지에 의해 행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435년에 보이는 양국 관계 성립 과정이나 양국 관계의 단절과 462년의 재개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이 시기 고구려의 조공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비록 형식상에 그친 것이라 해도 고구려가 북위와의 상하 신속 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음도 알려준다. 앞에서 살펴본 양국 관계의 성립 과정에 따르면 435년 북위에 간 고구려 사자가 표문과 방물을 바친 데 대해, 북위의 책봉이 뒤따르면서 양국은 공식

7) 조공은 책봉을 동반하여 제도적 외교 관계를 이룬다. 중화적 세계관의 산물인 책봉과 조공은 본래 중국 내부의 정치 질서였지만, 중국의 황제가 주변 국가의 지배자에게 특정 관직과 물품을 수여함으로써 그의 지위를 공인하여 신속시키는 외교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적인 외교 관계를 열었다고 한다. 또한 북위의 책봉에 대해 장수왕이 사은(謝恩)의 사절을 보내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 고구려는 조공과 책봉의 결합을 통해 성립되는 책봉·조공 관계에 대해 적지 않은 이해를 갖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재개된 고구려의 대북위 외교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견사조공(遣使朝貢)'은 '예물 증여(禮物贈與)'의 의례적 행위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외교적 행위라고 보여진다. 조공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조공 사절의 지속적인 파견이 책봉·조공 관계의 유지에 전제되는 요건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 고구려가 양국 간의 책봉·조공 관계를 긴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가 책봉·조공 관계를 중시하게 된 까닭은 대중국 관계의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위가 고구려를 공격해달라는 백제의 제안을 거부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위서』 백제전에 따르면 북위는 고구려가 선대로부터 번신(藩臣)이라 칭하며 조공해오고 있는 북위의 조공국이며, 백제의 청원과는 달리 명백한 죄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백제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위가 선뜻 응하지 않게 된 근저에는 고구려와 북위의 책봉·조공 관계, 그로부터 쌓여진 우호가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하여볼 수 있다.

따라서 책봉·조공 관계는 고구려가 북위의 적대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북위의 간섭 전략이 불려올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한편 위의 기록은 당시 북위 조정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에서 고구려를 대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특히 북위의 간섭 전략은 고구려 세력권 내의 갈등 관계를 부추기려 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를 도모의 대상으로 간주하던 종래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북위의 간섭 전략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다른 방도가 모색되어야 함은 당연하였다.

2) 책봉·조공 관계의 정립

한편 양국의 교섭이 긴밀해져 감에 따라, 책봉·조공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둘러싸고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472년 북위가 백제 사절의 귀국을 위해 고구려 영내 통과를 시도했던 것은 요서 이동의 세계에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북위의 강권에 대해 고구려는 완강히 거부하였고, 백제인을 대동한 북위 사절 일행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로 보아 고구려는 북위가 고구려와 백제 사



●●● 그림 2 시라무렌 유역의 전경

이의 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북위와 책봉·조공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것이 북위 황제의 지배에 순응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도리어 고구려의 의도는 형식적 상하 관계를 인정하는 대신, 실제에서 있어서는 대등하고 독립적인 관계의 형성을 바라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관계는 책봉·조공 관계의 보편적 의미로 보아서도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었고, 대북위 외교의 목표이기도 하였다.

반면 북위의 입장은 고구려의 현실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으로 보아 고구려와의 관계를 대등하고 독립적인 것이 아닌 종속적인 것으로 바꾸려는 데 있었다고 믿어진다. 『위서』 고구려전에 따르면 475년 고구려는 장수왕의 왕녀를 북위의 후궁으로 맞이하겠다는 제의에 대해 응하였다가 결국 혼인을 무산시켰다.⁸⁾ 북위가 내세운 양국의 우호라는 것은 표

8) 납비(納妃) 문제와 관련하여 『위서』 정준전에는 납비를 제안한 쪽이 고구려였다고 하여 고구려전의 기록과 다른 내용도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이 일어난 연대가 『삼국사기』에는 466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북위가 고구려에 압박을 가하고 있던 사정으로 보아, 475년으로 기재된 『위서』의 기록이 옳다고 본다.

면적인 것이고 고구려를 경략해보려는 내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과거 혼인을 내세워 북연을 도모했던 전례로 보아서는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하였다.

위의 사례들은 책봉·조공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둘러싸고 양국이 입장을 달리함에 따라 크고 작은 갈등이 촉발되곤 하였음을 보여준다. 북위는 양국 관계를 보다 종속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였고, 그때마다 고구려는 북위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거부하였다. 예컨대 475년 고구려 왕녀의 납비 문제에서 고구려는 납비를 강권하러 온 북위 사자를 억류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로 보아 고구려가 대북위 외교를 전개하였지만, 그것이 북위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가 바라던 방향으로 양국 관계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위서』 거란전(契丹傳)에는 479년 고구려와 북위의 접경 지대, 즉 시라무렌 유역과 대싱안링 산맥(大興安嶺山脈) 일대에 자리 잡은 고막해(庫莫奚)와 거란(契丹)이 그 북방에서 내려온 지두우(地豆于)의 침략을 피해 북위 경내로 밀려들어가 일대 혼란이 일어났음을 전한다. 이들 세력이 근거지를 버려야 했던 원인은 고구려가 유연과 모의하여 지두우를 분할했기 때문이었다.⁹⁾

이 일로 북위가 동방 일대에 구축해온 안정은 크게 훼손되었고 자연스럽게 이 일대에 대한 북위의 영향력도 실추되었다. 북위로 보아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고구려가 북위의 적대 세력인 유연을 상대로 한 연계를 시도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두우 분할이 모의 수준에 머물렀고 추가의 군사 행동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고구려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무력 시위에 가까운 행동이었다고 보인다.

9) 고구려의 대송 외교와 달리, 고구려와 유연 간의 교섭을 알려주는 자료는 많지 않다. 적어도 지두우의 분할을 모의하기 전까지 양국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으로는 두 가지 사례를 들 수 있겠다. 먼저 백제 개로왕이 청병의 표문에 고구려가 북위를 속이고 유연과 교섭하고 있음을 언급했던 것과, 463년 송이 고구려 장수왕에게 보낸 책봉문에 고구려가 송과 유연의 교섭을 중개해주었음을 암시하는 구절(通譯沙表 克宣王獻)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백제의 처지로 보아 백제 측의 고변이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함께 책봉문의 문구 역시 고구려와 주변 국가 간의 관계를 언급한 당사자의 처지를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한다. 463년 이전까지 송이 고구려에 보인 냉담한 입장으로 보아, 송과 유연의 교섭에서 고구려의 역할이란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을 것이다. 또한 고구려에 대한 송의 사절 파견은 고구려의 대북위 외교가 재개된 사실에서 촉발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점에서 새삼스러운 송의 진봉(進封)은 잠재적 우군을 잃지 않기 위해 고구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해줄 필요에서 취해진 조치였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보다 앞서 고구려는 3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백제를 공격하였고, 백제 왕을 처형하고 왕도 한성(漢城)을 함락하는 등 커다란 타격을 준 바 있었다. 고구려군의 백제 공략은 고구려의 남방 진출이 그 정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북위의 간섭 전략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이러한 백제 공략에 뒤이어 북위의 동방을 뒤흔드는 군사 행동이 시도되었다는 사실은 이 무렵 고구려의 대북위 외교가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군사 행동과 짝하여 대북위 외교가 484년까지 중단되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렇지만 고구려는 북위를 직접 겨냥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북위와의 대립을 최소화하였다. 이로 보아 고구려의 강경한 행동들은 어디까지나 북위를 타협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압력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었다. 470년대 고구려가 북위를 상대로 전개한 강경 노선이 양국 관계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제 고구려의 대북위 외교가 강경한 노선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양국 관계에 대한 북위의 입장도 변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480년 고구려가 신생의 남제(南齊)에 보낸 사신이 해상에서 북위 측에 사로잡혔고, 520년에도 강남의 양을 다녀오던 사절이 귀국 길에 북위군에게 잡혀갈 등이 빚어졌음을 전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고구려와 남조 간의 교섭이 세상에 드러난 실례였고, 특히 480년 남제와의 통교 문제는 바로 전 해의 일로 보아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북위는 사태를 확대시키려 하지 않았다. 고구려 사절의 방환(放還)이 이를 말하여준다.

이로부터 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되어 나갔고, 고구려의 대북위 외교는 그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대우를 받기에 이르렀다. 『남제서(南齊書)』 고려전에 의하면 북위는 외국 사절에게 연회를 베풀 때 고구려 사신의 자리를 남제 사자와 나란히 앉게 배치하였고, 그 숙소를 제일 큰 남제의 사신의 것에 이어 제2위로 대우하였다고 한다. 외교적 의전상의 이러한 면모는 북위의 대외 관계에서 고구려가 남제와 동등하게 대우받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북위가 동방 경략의 거점 영주(營州)에 설치해두었던 '동이교위(東夷校尉)'의 관이 사라지고, 대신 고구려 국왕의 책봉호에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음이 유의된다. 조위(曹魏)시대 이래 중국의 동방 사회에 대한 대외 업무를 관장하던 동이교위가 고구려 왕에게 위임되었다는 사실은, 북위가 책봉을 통해 고구려의 독자 세력권을 인정한 결과로 보이기 때문이다.¹⁰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고구려의 독자성이 책봉·조공 관계를 통해 인정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장수왕의 긴 치세 동안 고구려가 전개한 대외 정책은 북위를 주요 상대국으로 삼은 것이었다는 점에서 서방 정책(西方政策)이라 부를 만한 것이었고, 무력 시위와 책봉·조공 관계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북위와 충돌하지 않고서도 그 세력 확대를 저지하여 서변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 바깥의 주요 국가들이 예외 없이 남북조의 대결 관계에 휘말려 있던 것과는 달리, 국제 정세의 혼돈으로부터 벗어나 중국 및 유목민 세계와 대등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독자 세력권을 형성해나가는 데 기여하였다.

뒤에 가서는 북위가 고구려 세력권 내의 도전 세력과 연계함으로써 야기되었던 위기를 타개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었다. 의미하는 바에서 차이는 있지만, 책봉·조공 관계의 성립과 무력시위는 북위와 대립하지 않고 타협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서로를 보완하며 고구려의 대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갔고, 중국에 가서는 고구려의 독자적 세력권을 공인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남북조 모두 고구려가 다른 국가와 통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남북조가 간섭하기에 고구려의 실제 세력은 너무나 강성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요서 이동 세계에서 고구려의 독점적 지위는 중국에 의해 주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고구려가 거둔 진정한 성과는 중국을 상대로 하여 고구려의 독자적 세력권이 인정된 책봉·조공 관계를 이룩하였다는 데 있었다.

이러한 책봉·조공 관계의 정립이 가진 의미는 장수왕 이후, 6세기 중엽의 위기 국면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안장왕과 안원왕 대 연거푸 일어난 왕위 계승전으로 고구려는 내분에 휩싸였고, 한강 유역의 상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신라·백제의 도전도 거세지고 있었다. 때마침 고구려의 서변에 들어선 북제로 인해, 그 전과는 다른 대외적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그러나 전대에 확립된 책봉·조공 관계를 토대로 고구려는 북제의 동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고구려의 적대 세력들로부터 북제를 돌려놓을 수 있었다. 북제는 고구려의 위기와 그 도전 세력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적대 세력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 동북아역사재단 부연구위원 ☒

10) 동이교위 관련 책봉은 518년 문자왕의 뒤를 이은 안장왕에 대한 것이어서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이미 490년대부터 동이교위의 모습이 자취를 감추었던 사실로 보아, 실제의 인정에 뒤이은 제도적 조치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III 고구려의 남진과 백제·신라

공석구

1. 고구려의 남진과 백제

1) 고구려의 선제 공격과 고국원왕의 죽음

고구려는 백제 방면으로의 진출을 기도하였다. 그것은 백제와의 사이에 있는 낙랑·대방군 지역에 대한 정치적 지배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록에 따르면, 두 나라가 처음으로 마주치게 된 것은 4세기 후반경(369년)에 이르러서이다. 두 나라 간의 첫 만남은 치열한 전쟁으로 시작된다. 그때의 상황을 『삼국사기(三國史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고국원왕이 기병과 보병 2만 명을 거느리고 치양(雉壤)에 와서 진을 치고, 민가를 약탈하였다. 근초고왕이 태자(나중에 백제의 근구수왕)를 보내, (치양에서) 이들을 공격하여 5,0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도망하는 적을 추격하여 수곡성(水谷城)의 서북방까지 이르렀다.

고구려가 먼저 백제를 침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이를 물리쳤던 것이다. 양국 간의 첫 번째 전쟁을 좀 더 추적해보자.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면서 처음으로 진영을 설치한 치

양(雉壤)이란 지명은 어느 곳일까? 학자들에 따르면 오늘날의 황해도 배천(白川) 지역에 해당된다고 한다. 배천(치양)은 예성강 하류 지역에 위치하는데, 강 유역에 발달한 연백평야의 경제적 생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교통로상으로도 예성강 하구를 따라 내려와 서해로 나오면, 백제가 관리하던 한강이나 임진강 방면으로 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성강 하구를 장악하게 되면 백제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군사적 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배천은 고구려가 백제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라 하겠다.

그러면 이때의 고구려군은 어떤 경로를 따라서 공격해왔을까? 당시 고구려군의 공격로를 추적하려면 평양에서 배천에 이르는 고대의 교통로를 알아야 한다.

고구려군 2만 명은 당시 평양을 출발하여 자비령을 넘어 서흥, 평산을 거쳐 예성강을 따라 내려와 배천까지 이동해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길은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평양에서 한양(서울)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로서 활용되었다고 한다.

한편 백제군은 치양 전투에서 고구려군 5,0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는 등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예성강을 따라 도망하는 고구려군을 추격하여 수곡성(황해도 신계) 지역까지 진출했음을 알 수 있겠다. 이 전투 상황을 다른 기록에서 보충해보면, 추격하던 백제군은 막고해 장군의 건의에 따라서 수곡성 서북쪽 지역에서 군대를 멈추었다. 이때 백제군은 추격했던 지점마다 돌을 쌓아 표시를 해두었다고 한다. 추격을 멈춘 이유는 아마도 수곡성 서북 지역에 가로놓인 자비령이라는 험준한 지형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이처럼 양국 간에 벌어진 첫 번



지도 1 한강 북쪽에 만들어진 고구려군의 진지

째 전쟁에서 고구려군의 선제공격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이를 물리쳤을 뿐 아니라 퇴각하는 고국원왕의 군대를 추격하여 고구려의 영역까지 점령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시기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꾸준하게 추진되어 오던 고구려의 요동 진출 정책이 요서 지방에 세력을 가지고 있던 국가인 전연(前燕)에 의해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때문에 고구려는 대외 진출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게 되었고,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나타난 것이 백제 공격이었던 것이다.

고국원왕은 백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2년 후인 371년에 또 다시 백제 공격을 감행한다. 이때의 전투 상황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백제본기에 각기 실려 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 상대편 기록인 백제본기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을 확인해보자.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백제 근초고)왕은 패하(溍河) 강변에 군대를 매복시켜 기다리고 있다가 기습 공격하니, 고구려 군대가 패배하였다. (그 해) 겨울에 (근초고)왕과 태자는 정에 병사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쳐들어가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왕 사유(斯由: 고국원왕)가 힘써 방어하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근초고)왕은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다.

『삼국사기』 백제본기2 근초고왕 26년(371)

백제 측의 자료에 이와 같이 생생한 기록이 남게 된 사연은 아마도 백제가 고구려 왕을 죽인 이 전쟁을 오래도록 기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전쟁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쟁은 고구려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고구려군은 2년 전의 공격로를 따라 재차 백제를 공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백제는 사전에 고구려의 공격 소식을 알고서 기다리고 있었다. 패하 강변¹⁾에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기습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그 해 겨울(10월)에 왕과 태자가 이끄는 정에 병사 3만의 백제군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 평양성까지 진출하였고, 평양성에 주둔해 있던 고구려군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 전쟁은 백제 측의 완전한 승리라 하겠다. 하지만 백제군은 평양성에서 철군하였다. 고구려 땅 깊숙이 군대를 장기간 주둔시킨다는 점이 부담스

1) 패하(溍河)는 예성강을 말하는데, 이 전쟁이 벌어졌던 위치는 황해도 평산 동쪽을 흐르는 저탄(渚灘)을 패강(溍江)이라고 한다는 문헌 기록을 통하여 평산 지역임을 짐작할 수 있다.

러웠을 것이다. 이로 볼 때 당시 백제는 고구려에 대하여 군사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것은 백제 고이왕 대부터 근초고왕 대에 이르는 내정 정비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근초고왕 대 비약적인 영역 확장, 신라와의 외교적인 협력 추진 등 전제 왕권을 바탕으로 하여 표출되는 강력한 기운은 결국 고구려의 일방적인 선제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를 격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면 두 나라가 충돌한 지점은 오늘날 어디쯤일까? 이때 등장하는 지명들을 분석해보면 당시 양국 간의 국경선을 짐작해볼 수 있다.

치양(雉壤)·수곡성(水谷城)·평양성(平壤城)·패하(溍河)

이 중 평양성은 오늘날의 평양에 해당된다. 또한 치양은 수곡성보다 남쪽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수곡성의 위치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기록을 근거로 할 때 황해도 신계 부근이다. 또한 치양은 황해도 배천, 패하는 오늘날의 예성강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당시 양국은 멸악산맥과 언진산맥이라는 자연적으로 구분된 경계선 부근에서 충돌했다. 이 시기 고구려는 멸악산맥을 넘어와 백제를 공략하였고, 양국은 오늘날의 예성강을 사이에 두고서 황해도 배천·신계 지역 등을 무대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음을 짐작케 된다.

2) 양국의 치열한 공방전

고구려는 오히려 고국원왕이 전사하게 되자 큰 충격을 받았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소수림왕이 뒤를 이었다. 소수림왕은 먼저 국가에 닥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하였다. 소수림왕 초기에 시행된 불교 도입, 교육기관인 태학의 설립, 국가의 통치 기반인 율령²⁾의 반포 등이 그것이다.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성공한 소수림왕은 이제 적극적으로 백제 공략을 추진해나갔다. 『삼국사기』에서 소수림왕의

2) 율령(律令)이란 율령격식(律令格式)이라고도 한다. 율(律)은 형벌 법규이고, 영(令)은 행정 법규를 의미한다. 율령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근본적인 법규이다. 하지만 율령은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 격(格)과 식(式)은 율과 영을 각기 보완해주는 법이다. 격은 수시로 내리는 왕의 명령(칙령)을 모은 법전이고, 식은 율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칙을 정한 규정이다.

대의 관계 기록을 살펴보면 전진(前秦)과 2회, 백제와 3회로 나타난다. 여기서 전진과의 관계는 화친을 목적으로 한 사절 파견 기사인데 비하여, 백제와의 관계는 모두가 침공 기사로 일관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고구려의 대외 정책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소수림왕은 전진과의 화해를 도모함으로써 서쪽 국경 지역에서 국력 소모를 줄이고, 모든 역량을 백제 공격에 집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국왕을 살해한 백제야말로 고구려에게는 원수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편 백제는 고구려의 보복 공격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경 지역인 청목령(靑木嶺, 개성 지역)에 성곽을 축조하였다. 예성강 이남에 위치한 개성 지역이 백제의 주요한 거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고구려군은 강하게 밀고 내려왔다. 소수림왕은 375년 백제의 수곡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고, 계속하여 376년에는 또다시 백제의 북쪽 변방 지역을 공략하였다. 이렇듯이 고구려는 수차례에 걸쳐 백제를 적극적으로 공략하였다. 그렇지만 백제의 반격도 만만치는 않았다. 377년 10월 백제 근구수왕은 군사 3만을 동원하여 고구려 평양성을 공략하였다. 이때 백제의 공격은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오히려 고구려의 깊숙한 전략적 요충지인 평양성까지 전선을 확대시켰던 것이다.

이 시기 고구려는 백제 공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갔지만, 백제를 제압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이때의 충돌 지점(수곡성·평양성)을 통하여 볼 때 양국의 국경선은 이전과 변함이 없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계속되는 고구려의 침공은 백제 측에 상당한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소수림왕의 뒤를 이은 고국양왕 대에 이르러서도 백제 공략은 꾸준히 지속되었다. 하지만 고국양왕 즉위 초기에는 백제 공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것은 당시 요동 지방의 세력 판도에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요동 지방을 지배해 오던 전진과 고구려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 고구려는 전진과 평화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주적이 되어버린 백제를 적극적으로 침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384년 요동을 장악해오던 전진(前秦)이 선비족의 일파인 모용씨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그 지도자인 모용수가 세운 후연(後燕) 세력이 요동 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해왔다. 이와 같은 요동 지방의 세력 변화를 고구려는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고구려는 후연 세력이 요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직전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등 요동 지방 진출을 전격적으로 추진하였다. 385년 고국양왕은 4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 후연의 요동군과 현도군을 빼앗고 1만여 명을 포로로 삼는



●●● 그림 1 적을 찔살하는 고구려 병사(통구2호묘)

등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고구려의 기습적인 공격에 후연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후 후연과 고구려는 요동 지방을 놓고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게 된다.

고구려가 요동 진출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이제까지 추진되어오던 백제 공략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요동 지방의 상황이 안정된다면, 고구려의 백제 공략은 언제든 재연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백제로서는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삼국사기』를 보면 “(386년 백제의 진사왕은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봄에 나라 안의 15세 이상 남자를 징발하여 관방(關防)을 설치하였다.”라 한다. 관방이란 오늘날의 만리장성, 휴전선처럼 한 줄로 길게 이어진 장애물을 말한다. 구체적인 관방의 정체는 청목령(개성)부터 북쪽으로는 팔곤성까지, 서쪽으로는 서해까지 이어진 긴 장애물이었다고 한다.

고구려는 요동 지방의 전선이 일시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서, 백제를 공략하였다. 386년 고국양왕은 백제의 북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하지만 준비를 하고 있던 백제의 대응도 만만치는 않았다. 389년에 백제가 고구려의 남쪽 변방을 침범하여 노략질하였고, 390년에는 백제 진사왕이 달솔 진가모를 보내 고구려를 정벌케 하여 도곤성을 함락시키고 200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등 반격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고구려와 백제가 벌여온 일진일퇴의 팽팽한 공방전은 더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백제와 신라 사이의 외교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서 드러났다. 한동안 우호 관계가 지속돼오던 양국 관계가 대립 관계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백제의 독산성주(禿山城主)가 300명을 이끌고 투항해오므로 (내물)왕은 받아들여 육부(六部)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이에 백제 왕이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두 나라가 화합하여 형제가 되기를 약속하였는데, 이제 대왕께서는 도망한 우리 백성을 받아들였으니 이는 (양국의) 화친과는 거리가 있으며 (내가) 대왕에게 바라던 바도 아니니, 돌려보내기를 요청합니다.”[...] 백제가 이를 듣고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

『삼국사기』 신라본기3 내물 이사금 18년(373)

신라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고구려와의 외교 관계를 모색하였다. 이처럼 고구려-신라 간에 성립된 우호적인 관계는 고구려가 백제 공략을 추진해나가는 데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반면에 백제로서는 국력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양국의 우호 관계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392년 실성을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는 등 인질 외교로 발전한다. 이러한 관계는 광개토대왕 대 이후까지도 계속되었다. 고구려-신라 사이에 조성된 우호적인 외교 관계의 성립은 광개토대왕 대에 이르러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3) 광개토대왕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된 백제 공략

광개토대왕 대에 들어오면서 이제까지 유지되어오던 힘의 균형은 고구려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광개토대왕 시대의 백제 관계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료는 『삼국사기』와 광개토대왕릉비가 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사료를 비교해보면 같은 시기의 역사적인 상황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첫째로, 『삼국사기』에는 광개토대왕 4년조(395)를 마지막으로 하여 백제 관련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광개토대왕릉비는 양국 관계를 396년 이후의 사건으로서 기록하고 있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삼국사기』를 보면 392년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여 석현성을 포함한 10여 성과 한강 이북의 많은 부락을 점령하였다. 이 공격의 와중에 백제의 군사적 요충지인 관미성(關彌城) 공격이 포함되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고구려의 공격에 대하여 백제는 크게 반발하였다. 고구

려에 대한 백제 측의 반격은 393년 관미성 수복을 위한 공격, 394년 고구려 공격, 395년 패수 전투 등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그러나 『삼국사기』는 백제의 공격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 『삼국사기』에 나타난 광개토대왕 대의 백제 관계를 요약해보면 군사적 우위가 고구려 쪽으로 기울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삼국사기』 내용과 비교하여 광개토대왕릉비를 보면 백제 관련 기록이 396년(영락 6)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여러 차례(392~395년)에 걸친 고구려의 공격 사실을 영락 6년조(396)에 일괄하여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로, 광개토대왕릉비와 『삼국사기』의 백제 관계 기록은 성격상 차이를 보인다. 『삼국사기』는 광개토대왕 대 백제에 대한 고구려의 군사적 우위를 짐작할 수 있는 정도로 기록되었다. 반면에 광개토대왕릉비는 고구려의 절대적인 우세라고 기록하였다. 다시 말하여 『삼국사기』는 광개토대왕에 의해 추진된 백제 공격이 반격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성공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데 비하여, 광개토대왕릉비는 그것을 백제 측의 일방적인 패배로서 새겨놓았다. 그 기록을 잠시 인용해보자.

(영락) 6년 병신년에 (광개토)대왕께서는 몸소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하였다. 대군이 백제의 국경 이남에 도착하여 영팔성(寧八城), 구모노성(臼模盧城), 각모노성(各模盧城) [...] 등을 공격하여 탈취하고는 나아가 백제의 도성을 핍박하였다. 이에 백제가 감히 맞서 싸우니, (광개토대)왕께서 크게 노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아리수를 건너 선발대를 진격시켰다. 백제 병은 도성 안으로 도망해 갔고 곧이어 도성을 포위하였다. 백제 왕은 궁핍해지자 남녀 생구(生口) 1,000명과 세포(細布) 1,000필을 헌납하며, 왕의 면전에 꿇어앉아 스스로 서약하기를 “지금부터 영원히 (당신의) 노객(奴客)이 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태왕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용서하며 후에도 그가 공순한 성의를 보일 것인지 살피기로 하였다. (광개토대왕은 이번 원정에서) 58개의 성(城)과 7백 개의 촌(村)을 획득하였으며, 백제 왕의 동생과 대신 10인 등을 데리고 군대를 이끌고 도성으로 돌아왔다.

광개토대왕릉비, 영락 6년(396)

이 기록은 광개토대왕의 백제 원정으로서 유명해진 사건이다. 광개토대왕이 직접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군이 물길을 따라서 백제를 공격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때의 수로라면 예성강을 생각할 수 있다. 예성강에서 한강에 이르는 지역을 공격하였던 것인데, 그때의 공격은 대략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예

성강 하류로 내려와 서해로 나와서 강화도 부근을 지나 한강 하류로부터 거슬러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고구려군이 북한강, 남한강 지역을 따라 서울로 진격하였을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의 군사 작전 범위는 크게 달라진다. 고구려군의 작전 반경이 한강 이북 지역 나아가서는 남한강, 북한강 지역까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이 전쟁은 고구려군의 일방적인 승리로서 기록되었다. 고구려군이 백제 도성을 포위하자, 백제 왕이 항복하게 되었고, 왕의 동생과 10여 명의 대신을 인질로 잡는 등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전개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때 고구려군이 빼앗은 백제 측의 영역이 58개 성(城)과 700개 촌락이었다고 한다. 광개토대왕릉비는 고구려 당대의 사료라는 관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릉비가 광개토대왕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훈적비로서 어느 정도 과장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고구려군의 백제 공략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왜(倭)의 존재이다. 광개토대왕릉비에는 백제와 왜가 연합하여 고구려와 전쟁을 벌인 사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반면에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와 왜가 전쟁을 벌인 기록이 일체 나타나지 않는다. 일본(日本)이라는 국호는 7세기 중반 이후에 생겨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왜라고 하였다. 따라서 해외의 정치 세력이 고구려-백제 간의 갈등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은 당시의 국제 관계로 볼 때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고구려군에 의해 국도가 공격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백제는 왜·임나가야 등과 연합하여 대항하려고 시도하였다. 백제는 왜와 연합하여 왜·가야 연합군으로 하여금 신라를 공격케 하였으나(영락 9년), 광개토대왕의 반격으로 오히려 고구려군이 신라·가야 지역까지 진출하였다(영락 10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광개토대왕릉비 영락 14년조(404년)의 기록에 들어 있다. 그것은 “백제와 왜군이 연합해서 황해도 지방의 대방 지역을 공격하여 석성을 함락시키자, 광개토대왕이 평양에서부터 군대를 이끌고 연합군을 공격하여 물리쳤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록에 대하여 당시 왜의 등장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고구려가 백제를 정벌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조



●●● 그림 2 서울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전형적인 고구려 토기

작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광개토대왕릉비에 기록된 백제 관계 기록을 살펴보면, 고구려가 백제에 대한 불타는 증오를 가지고 있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 배경은 다름 아닌 고국원왕의 전사라고 하는 국가적 치욕에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삼국사기』에는 이 시기 고구려와 왜가 전쟁을 벌인 기록이 일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삼국사기』 기록을 통하여 왜의 존재는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백제 아신왕이 397년 태자인 전지(후일 백제 전지왕)를 왜에 사신으로 파견한 기록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앞의 광개토대왕릉비 기록과 연관시켜 백제가 왜와 연합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많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광개토대왕 대의 백제 관련 기사에 대하여 살펴보자. 광개토대왕은 394년 병사 4만 명을 이끌고 백제의 북쪽 변경을 침공하여 석현성을 비롯한 10여 성을 함락시켰다. 이때 한강 이북의 여러 부락이 상당수 함락되었다고 한다. 광개토대왕은 나아가 백제의 군사적 요충지인 관미성까지 함락시켰다. 백제 아신왕은 393년 관미성을 수복하기 위하여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백제는 394년, 395년 계속해서 고구려를 공격하였지만 광개토대왕의 반격에 의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와 같은 양국의 전투에 나타난 충돌 지점을 분석해보면 양국 간의 국경선을 대략 짐작해볼 수 있다. 광개토대왕 대 양국 간의 충돌 지점을 『삼국사기』에서 뽑아보자.

석현성(石峴城), 관미성(關彌城), 수곡성(水谷城: 지금의 황해도 신계 지역), 패수(溍水: 지금의 예성강), 청목령(靑木嶺: 지금의 개성 지역)

석현성은 예성강 이남 한강 이북 지역에 위치하는데, 그 위치를 황해도 개풍군 지역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백제가 그렇게 중요시하던 관미성은 어디일까? 『삼국사기』는 관미성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성의 사방이 절벽과 같이 험준하고, 바닷물로 둘러싸인 곳이다.”라고 기록하였다. 그 위치는 강화도 부근 또는 예성강 하류의 어느 지점이 아닐까 한다. 이와 같은 충돌 지점과 그 위치 관계를 검토해볼 때 종래 임진강과 예성강의 주변 지역에 형성되어 있던 양국의 국경선이 광개토대왕 대에 이르러 한강 유역까지 확대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시의 양국 관계를 분석해 보면 광개토대왕릉비의 기록에서처럼 고구려 측이 일방적으로 우세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한편 고구려의 군사적 우세는 396년(영락 6) 고구려의 백제 공격 이후 변화된 조짐을 보이게 된다. 백제는 398년, 399년에 계속하여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동안

수세에 몰려있던 백제가 적극적으로 고구려를 공격하게 된 것은 국내외 정치 상황에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백제 외교 전략의 변화와 함께 나타났다. 백제는 고구려의 침공에 대항하기 위해서 왜와 연합을 추진해왔던 것이다. 당시 왜는 신라의 해안 지대를 계속 침략하고 있었는데, 백제는 왜를 끌어들여 대고구려 전을 수행하려 하였다. 이 계획이 구체화된 것은 397년 백제 아신왕이 태자인 전지를 왜에 인질로 파견하면서였다. 403년에는 “왜에서 사신이 오자 백제 아신왕이 극진하게 대해주었다.”라는 『삼국사기』 기록도 이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이는 백제와 왜가 “서로 화통(和通)했다.”고 표현한 광개토대왕릉비의 문구에서도 확인해지는데, 구체적으로 404년(영락 14) 백제·왜 연합군의 대방계 침입 기사에 잘 나타난다. 이외에도 광개토대왕릉비 영락 9년, 영락 10년조를 보면 백제와 왜의 연합 관련 기록이 있다. 또한 『삼국사기』에 나타난 398년, 399년 백제의 고구려 침입 시도에 관한 기록 등이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하나는 396년을 계기로 하여 고구려의 대외 전략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이제까지는 주로 백제를 공격하였는데, 그 방향이 후연 쪽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는 광개토대왕 9년 이후의 대외 관계 기사가 모두 후연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에서 추론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원인은 요동 지방의 정세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즉 후연은 서쪽에서 북위의 압력으로 계속 밀리게 되자 대외 전략을 전환하여 동쪽 즉 고구려 방면으로 영역 확장을 기도하였다. 즉 후연왕 모용성과 그 뒤를 이은 모용희가 여러 차례 고구려 침략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구려는 후연의 침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대백제 방면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삼국사기』에 나타난 398년, 399년의 고구려 공격 기사는 이 틈을 타 행해진 백제의 반격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볼 때 광개토대왕 대의 국제 관계는 고구려와 신라 그리고 왜와 백제가 서로 한편이 되어 대립했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광개토대왕릉비와 『삼국사기』 기록을 비교·검토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광개토대왕이 남진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대의 적은 백제였다. 당시 고구려가 백제를 얼마나 중요하고 있었는지는 광개토대왕릉비에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비문의 가장 많은 부분을 대백제전에 대한 기술로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백잔(百殘)’, ‘잔주(殘主)’ 등과 같은 경멸에 찬 어투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광개토대왕릉비에 기록된 왜에 대한 고구려의 인식도 백제가 끌어들인 이질적인 존재로서 항상 과장되게 표현하였고, 이를 통해 백제와 왜에 대한 출정의 명분과 정당성을 찾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4) 장수왕의 백제 왕성 함락

장수왕이 왕위를 계승한 이후에는 당분간 백제 지역으로의 남진 정책이 소강 상태로 들어갔다. 그 이유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때문이다. 중국에는 새로이 북위(北魏)라는 강자가 등장하였다. 북방의 유목민이 세운 북위는 사방으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북위의 팽창은 인접해 있는 고구려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고구려 장수왕이 북위와의 우호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갔던 배경을 추적해보면 이와 같은 북방의 정세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중국 쪽의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강력한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구려 조정이 추진한 남진 정책의 적극적인 표현으로 나타난 평양 천도는 고구려와 오랜 원수지간으로 지내던 백제에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백제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433년 신라와 우호 관계를 맺는 데 성공하였다. 양국 간에 맺어진 우호 관계는 이후 양국이 고구려의 남진에 공동 대응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즉 455년에 고구려가 공격해오자 백제 개로왕은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였고, 백제·신라 구원군이 고구려를 물리친 것은 양국 간 군사 협력의 시작이 되었다.

백제 개로왕은 신라뿐만 아니라 왜, 중국의 송과도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추진하였다. 백제는 고구려에 대한 봉쇄 전략의 마지막 승부수로 북위와의 연결을 추진하였다. 472년 개로왕이 친히 중국 북방의 패자인 북위에 친서를 보내, 고구려 공격을 위한 군사 원조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개로왕의 외교 전략을 비롯한 내부 사정은 장수왕이 파견한 간첩이었던 승려 도림에 의해서 날날이 고구려에 보고되고 있었다. 한편 고구려의 강성함을 알고 있던 북위로서는 백제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못했다. 하여 두 나라가 사이 좋게 지내라는 조서를 보냈을 정도였다.

한편 고구려로서는 백제가 북위와 연결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었다. 이에 장수왕은 친히 3만의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이때 고구려군은 평양을 출발하여 개성에서 장단을 거쳐 양주를 지나 서울의 중랑천이나 왕숙천을 끼고 남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군은 아차산 일대에 교두보를 확보하고는, 한강 남쪽에 위치한 한성을 공략하였다. 이 사건을 『삼국사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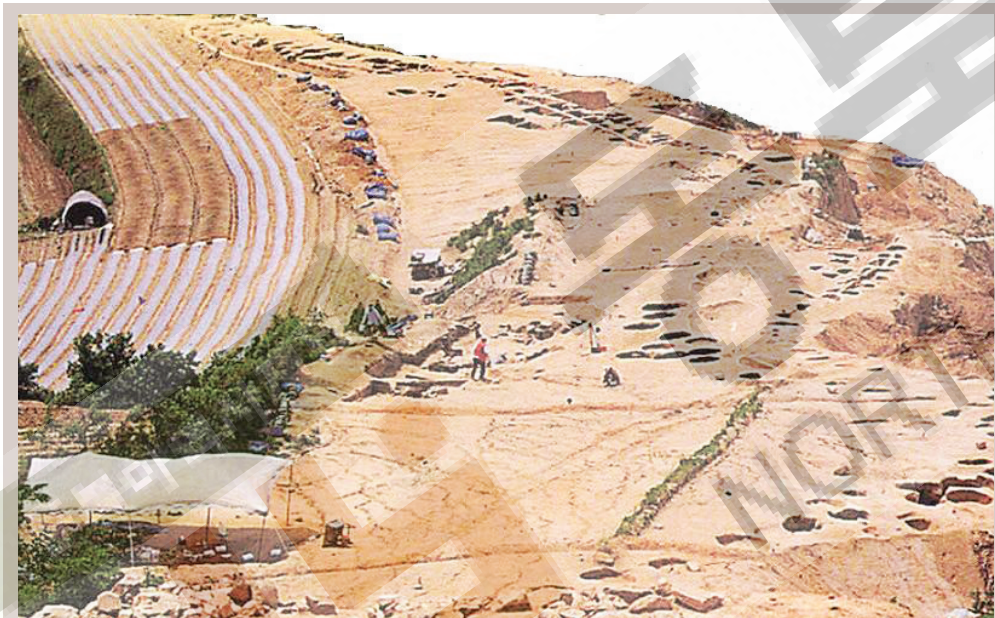
고구려 왕 거련(장수왕)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와서 왕도 한성을 포위하였다. 왕은 성문을 닫고서, 나가 싸우지를 못했다. 고구려 병이 군사를 네 갈래로 나누어 협공하였고, 또 바람을 이용하여 성문을 불태웠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항복하려는 자도 있었다. 왕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수십 기를 거느리고 성문을 나서 서쪽으로 달아나매 고구려인이 쫓아가 살해하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3 개로왕 21년(475)

위 기록은 475년 고구려군이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한 사실과 개로왕의 비극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다. 전쟁의 목표를 달성한 장수왕은 주력군을 이끌고 평양으로 귀환하였다.

한편으로 고구려군이 공격해오자 백제 개로왕은 태자 문주를 신라에 파견하였다. 문주가 신라 구원군 1만과 함께 한성에 도달하였지만, 한성은 이미 함락된 상태였다. 돌아갈 곳이 없어진 문주는 공주로 천도하여 나라의 명맥을 이어나갔다.

마침내 고구려는 장수왕 대에 이르러 숙원이던 한강 유역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남양만에서 충청도 북부 지역에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면 한강 이남의 경기도 및 충청남북도 일부 지역이 고구려의 영토로서 기록되어 있다. 즉 경



●●● 그림 3 충청 지방에서 확인된 고구려군의 진지(남성골 산성)

기도 여주·안성 및 화성군 일대와 충청북도 진천·음성·괴산·충주 그리고 충청남도 직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고구려는 새로 편입된 이들 지역을 지방 행정 통치 조직에 편입시켜 전면적이고도 평면적으로 지배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고구려는 몇몇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연결하는 중요 교통로를 중심으로 이들 지역을 경영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들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는 6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고구려의 한강 유역 확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서울의 몽촌토성 북쪽 아차산 일대 및 그 주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보루성을 비롯한 고구려 유적의 존재이다. 이들 보루성에서는 백제나 신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모양의 고구려 토기가 다량 발견되고 있다. 고구려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한강 유역 일대를 방어하였던 것 같으며 백제·신라와 대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다 남쪽인 충청북도 청원군의 금강 주변에 소재한 남성골산성에서도 고구려 성이 발견되어, 당시 고구려군의 남진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해준다. 5세기 후반 고구려는 백제 지역 진출에 성공한 이후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백제 지역을 강타한 장수왕은 481년 신라마저도 공격하여 일시적이지만 경상도 깊숙한 지점까지 진출하였다. 이로써 장수왕은 백제와 신라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고구려의 압박이 강화될수록,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친밀해졌다. 493년에는 양국이 혼인 관계를 맺게 된다. 개로왕의 피살이라는 치욕을 당한 백제는 신라와 가야를 끌어들여 고구려 공격을 준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왜도 백제를 지원한 정황이 포착된다. 이후 양국은 한강 유역을 놓고서 치열한 공방을 전개하였다. 마침내 551년, 백제 성왕은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가 점령했던 한강 유역을 탈환하였다.

2. 고구려의 남진과 신라

1) 광개토대왕의 남진

고구려는 5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신라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다. 고구려는 대백제 전락의 일환으로서 신라가 필요하였고, 신라 또한 고구려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하여 국가적

안정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양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고구려는 신라를 끌어들이었다. 이는 백제 독산성주의 신라 망명 사건(373년)을 놓고 백제-신라 사이가 소원해진 틈을 타서 고구려가 먼저 접근하였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두 나라가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 계기는 381년에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전진에 사신을 파견하면서부터다. 이렇게 형성된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광개토대왕은 친선 사절을 파견하였고, 신라 내물왕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실성(후일의 실성왕)을 인질로 파견하였다(392년). 이로부터 신라는 고구려에 인질 외교를 벌이게 된다.

이처럼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됨에 따라 우호는 계속 유지되어 갔다. 그러던 와중에 백제와 왜·가야 연합군이 신라를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구려에 저자세 외교를 벌이고 있던 신라는 광개토대왕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자년 출병’이 단행되었다. 그때의 사건을 광개토대왕릉비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영락) 10년 경자에 태왕께서는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토록 명령하였다. 남겨성에서부터 신라성에 이르기까지 왜군이 가득 차 있었는데, 관군이 도착하니 왜적은 퇴각하기 시작했다. (관군은) 왜적의 배후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야의 종발성까지 이르렀다. 이 성은 즉시 항복하였는데 (태왕은) 신라인으로 하여금 (이 성을) 지키게 하였다. (이어서) 신라성과 염성을 공격하자 왜구가 크게 무너졌다. 성 안에 있던 열에 아홉 가량은 모두 죽이거나 강제로 율기고 신라인에게 지키도록 했다. [...] 나머지 왜구는 모두 흩어져 도망갔다. 또한 △성을 탈취하고 신라인에게 지키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라왕이 직접 와서 조공 문제를 이야기한 바가 없었는데 △△△광개토경호태왕 때 (이르러) (신라) 왕이 [...] 조공해왔다.

광개토대왕릉비, 영락 10년(400)

위의 사료에 따르면 광개토대왕은 400년 즉 경자년에 군사 5만 명을 신라에 파견하였다. 그 결과 신라 내물왕이 몸소 고구려에 가서 조공까지 하게 된다. 고구려 원정군은 신라의 구원에 명분을 두었지만, 실제로는 신라뿐만 아니라 임나가야 지역까지 주둔군을 파견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고구려군의 가야 원정은 신라뿐만 아니라 가야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



●●● 그림 4
고구려의 남진을 말해주는
중원고구려비

다. 갑자기 나타난 고구려의 중무장한 기병을 경험한 가야는 이를 계기로 하여 무기 체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다. 신라, 가야 지역에서 발견되는 마구나 갑옷 등은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때 파견된 고구려 5만 군은 어느 길을 이용하여 경주까지 갔을까? 사실 그렇게 많은 군대가 통과할 수 있는 교통로라면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진 길이었을 것이다. 그 통로는 분명치 않지만, 백제의 영역을 피해서 오늘날의 강원·충청 지역을 통과하였을 것임은 충분히 추정해볼 수 있다. 좀 더 추정해보자면 고구려군은 철원-춘천-원주-충주를 거쳐 소백산맥을 넘어 신라 땅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로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 사이에 거주하면서 세력을 가지고 있던 말갈 세력에 대한 지배 또는 우호적인 관계를 들 수 있다. 이때 고구려는 신라로 통하는 길을 개척하였고 이후에도 이 교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지배를 관철시켜 나갔을 것이다. 고구려는 죽령 동남쪽 일부 지역을 세력권 내로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라 지역 깊숙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5세기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양국은 고구려의 일방적 우위 아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선진 문물을 대량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신라가 왕권 국가로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되었다.

광개토대왕은 신라뿐만 아니라 백제 등을 고구려가 주도하는 질서 체계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질서 체계는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고구려는 신성한 국가로서 하늘의 혈통을 이어 받은 후계자들이 계속 통치해나가는 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즉 고구려는 주변의 국가와 종족을 대표하는 중심 국가였다.

2) 장수왕의 신라 공략

고구려는 평양 천도 이후 남진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내륙 교통의 요충지인 충주에 국원성을 설치함으로써 신라 진출 의도를 드러낸 것도 이때를 전후한 시기의 일로 생각된다. 이 시기 고구려는 강력한 힘을 배경으로 하여 신라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심지어는 왕위 계승 문제에까지도 깊숙하게 간섭하고 있었다. 『삼국유사』를 보면 고구려군이 왕실 문제에 개입하여 실성왕을 죽이고 놀지를 새로운 신라 왕으로 세우고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은 고구려의 압박은 신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위협을 느낀 신라는 백제와의 연합 즉 동맹 관계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려고 시도하였다. 433년 백제와 신라의 동맹 관계가 성립

되면서 고구려와 신라 관계에는 틈이 벌어졌다.

한편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신라의 노력은 고구려 장수의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하여 표면화했다. 450년 고구려의 변방에 근무하던 장수가 실직(삼척 지방)의 들판에 와서 사냥을 하였는데, 신라의 하슬라(강릉 지방) 성주가 공격하여 살해하였던 것이다. 신라의 의도를 알아챈 고구려는 이제까지의 우호 관계를 파기하였다. 454년 처음으로 신라를 공격하였다. 그렇지만 그동안 축적된 신라의 힘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변화시켰다. 455년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자 신라는 지원군을 파견하여 고구려군을 물리쳤다. 이어 464년(자비왕 7) 신라는 왕경 부근에 주둔하면서 내정 간섭을 해오던 고구려군 100여 명을 몰살시키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양국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이처럼 신라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고구려가 당시 백제와의 심각한 소모전 때문에 신라 경영을 소홀히 한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는 소백산맥 일대의 영월-단양-중원으로 이어지는 방어선을 구축하여,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신라의 도발을 경계하였다. 한편 신라는 고구려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비책을 서두르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신라는 보은에 삼년산성을 축조하여 추풍령 방면으로의 침공을 대비하였다.

고구려는 이와 같은 신라의 행동을 응징하려고 하였다. 468년(장수왕 56) 고구려는 '말갈'을 동원하여 신라 북방의 요충지인 실직성(삼척)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신라 공격은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469년 신라는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공략한다. 한편 신라에 대한 영향력의 감소를 겪으면서까지 백제 공략에 힘을 기울이던 고구려는 475년(장수왕 63)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공격하여 한강 이북 지역을 확보한 이후 신라에 대한 본격적인 공략에 나서게 된다. 『삼국사기』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쪽 변경을 침입해와 호명(狐鳴) 등 7성을 탈취하고 다시 미질부(彌秩夫)로 진군하여 [...] 우리 군대는 백제, 가야 구원병과 함께 길을 나누어 막았다.

『삼국사기』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3년(481)

즉 481년(장수왕 69)에 고구려군은 호명성을 장악하고 미질부까지 진군해 내려왔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호명성은 경북 청송 지방, 미질부는 경북 흥해 지방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시 고구려군은 경주 부근까지 진출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고구려군이 단기간에 경상도 지역 깊숙한 지점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라 땅에 주둔했던 고구려 당주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고구려의 공격은 일시적으로 큰 효과를 보았다. 하지

만 신라·백제·가야 연합군의 반격을 받았고, 고구려군은 곧 퇴각하였다. 이 사건을 전후해서 신라 영역에 있던 고구려 세력은 소백산맥 이북으로 밀려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고구려와 신라는 소백산맥 이북 지역에서 자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소백산맥의 죽령 이남에서 영일만에 이르는 지역인 경상북도 울진·영덕, 진보·임하·청송 등의 지역이 고구려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광개토대왕 대의 경자년 출병 이후 장수왕 대에 이르는 기간 어느 시기에 고구려가 이들 지역 에까지 영토를 넓혔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구려는 백제-신라의 연합에도 불구하고 이들 양국의 북부 교통로를 차단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부 내륙 지방까지 장악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5세기 말 6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충주에 건립된 중원고구려비는 이때의 사정을 증언하고 있다. 비석의 내용 중에는 신라를 동쪽 오랑개(東夷)라고 칭하고, 신라에 의복을 하사하는 등 고구려의 종주국 의식이 표현되어 있다. 또한 신라 땅에 고구려 주둔군(高句麗 幢主)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삼국사기』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이 다수 나타나 있다.

고구려 세력이 신라 땅에서 물러난 이후 양국은 소백산맥을 경계로 하여 대립하였다. 기록을 보면 강원 및 충청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양국의 공방전이 지속되었다. 백제와 신라는 서로 갈등하였지만, 공동의 적은 고구려였다. 551년 백제 성왕이 신라·가야와 힘을 합쳐 한강 유역을 차지하자, 신라는 거칠부를 파견하여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죽령 이북 지역의 10성을 점령하였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553년 신라는 백제의 동북 변방을 빼앗고, 이 지역에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신주가 서울 지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신라는 백제가 탈환했던 한강 유역을 점령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은 고구려의 퇴조와 6세기 중엽 이후 신라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냈다.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IV 고구려의 부여와 말갈 통합

이인철

1. 고구려의 부여 통합

285년(태강 6)에 부여는 모용선비(慕容鮮卑)의 공격을 받았다. 부여는 진(晉)의 동이교위부(東夷校尉府)에 구원을 요청하고 침공군에 저항하였으나 실패하여 부여 왕 의려(依慮)는 자살하였다. 왕의 자제 등 부여국의 중심 세력은 북옥저로 달아나 목숨을 구하였다. 이듬해 의려를 이어 부여 왕이 된 의라(依羅)가 진의 동이교위부의 지원을 받아 모용씨의 군대를 격파하고 본국으로 돌아와 나라를 회복하였다. 이때 북옥저로 피신했던 부여 세력 중의 일부는 계속 그 자리에 남아 나라를 이루었다. 고구려에서는 녹산(鹿山)으로 돌아가 복국(復國)한 부여를 북부여(北扶餘), 북옥저에 세워진 부여를 동부여(東扶餘)라 불렀다.¹⁾ 녹산에 거주하던 부여는 주변 세력의 공격을 받아 서쪽으로 전연(前燕) 가까이 옮겼다가 346년에 연왕 모용항의 침입을 받았다. 이때, 전연의 지배하에 들어간 부여는 전연이 망한 370년까지 그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1) 盧泰敦(1989), 「扶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 『國史館論叢』 4, 국사편찬위원회, 46~47쪽. 이와는 달리, 346년에 서쪽 연(燕) 가까이로 옮긴 후에 부여 전기 왕성을 중심으로 한 부여를 동부여라고 하였다는 견해도 있다(李健才(2000), 「三論北夫余, 東夫余即夫余의 問題」, 『社會科學戰線』 6, 長春: 吉林省社會科學院, 177~181쪽).

모두루 묘지명에 따르면 모두루의 조부 염모(冉牟)가 국강상왕(國岡上王) 즉 고국원왕 때 모용선비의 침입과 관련하여 공을 세웠고 그로 인하여 북부여 대형이 되었으며, 모두루는 광개토대왕 대에 '북부여 수사(北夫餘守事)'를 역임했다고 한다. 모두루의 조부인 염모가 모용선비와 싸워서 공을 세운 시기는 전연이 망할 무렵인 370년 전후로 생각된다. 고구려는 이때 전연에 빼앗겼던 북부여를 다시 점령하였다.

북부여 수사를 두어 북부여를 지배해오던 고구려는 영락 20년(410)에 두만강 유역의 동부여를 정복했다. 광개토대왕릉 비문에서는 동부여가 옛적에 추모왕의 속민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여 조공을 하지 않으므로 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였다고 적고 있다. 동부여의 소재지로는 단결(團結) - 크로우노프카 문화를 남긴 두만강 유역의 북옥저 지방이 가장 유력하다.²⁾

『위서(魏書)』 권100 고구려전에 따르면, 장수왕 23년(435)에 고구려에 왔던 북위의 사신 이오(李敖)는 “고구려가 요동에서 남으로 1천여 리에 있는데, 동으로는 책성(柵城), 남으로는 소해(小海), 북으로는 구부여(舊夫餘)에 이르며, 민호(民戶)는 전위(前魏) 때보다 3배가 많았다.”고 하였고, 『삼국사기』에 인용된 가탐(賈耽)의 『고금군국지(古今郡國志)』에서는 “발해국의 남해·압록·부여·책성 4부는 모두 고구려의 옛 땅이다. 신라 천정군에서 책성부까지 39개역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구부여 곧 북부여와 책성이 있는 두만강 유역의 동부여가 5세기경에 고구려의 영역이었다.

『삼국지(三國志)』에서 말하는 부여의 영역은 대략 북으로 님장 강(嫩江)과 송화 강(松花江) 일대까지 포괄하면서 서쪽으로 조을하(洮兀河) 하류의 건안·장령·쌍요 등지를 경계로 하였고 서남으로는 요동의 중국 세력과 접하고 있었으며 동으로는 위호령을 경계로 무단 강(牧丹江) 유역에 이르고, 남으로는 합달령을 경계로 휘발하 이북에 이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부여를 점령한 고구려 영토는 5세기 전반경에 북쪽으로는 님장 강과 송화 강 일대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조을하 하류를 거쳐 요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479년 고구려는 부여국 서북쪽의 싱안링 산맥(興安嶺山脈) 동쪽에 있던 유목민 집단인 지두우(地豆于)를 유연(柔然)과 함께 분할하려 하였다. 이런 고구려의 시도는 농안 일대를 그 세력권 아래 복속시킨 뒤, 그를 발판으로 서북쪽 방면으로 팽창을 기도한 데 따른 결과이다. 고구려의 세력하에서 부여국은 일종의 번국(藩國)으로 고구려에 금 등의 공납을 바쳤으며, 고구려

2) 宋基豪(2005), 「扶餘史 연구의 쟁점과 자료 해석」, 『한국고대사연구』 37, 한국고대사학회, 33쪽.

는 이 지역 부여인을 회유할 정치적 목적으로 이 전통 깊은 왕국의 명맥을 유지하게 하였다.³⁾

이처럼 북부여와 동부여가 모두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음에도 452년에 부여가 북위에 한 차례 조공하였다는 기록과,⁴⁾ 문자명왕(文咨明王) 3년(494)에 부여 왕이 처자(妻子)를 이끌고 나라를 들어 항복해왔다는 기록이 있다.⁵⁾ 이는 고구려가 부여를 정복하였으면서도 직접 지배하지 않고 간접 지배 방식을 택한 때문이다. 고구려는 옥저나 동예에서 시행한 것과 유사한 간접 지배 방식으로 북부여를 통치하였다. 이에 북부여는 고구려의 간접 통치하에 있으면서 한 때 북위에 조공을 하였던 것이다.

5세기 말 물길(勿吉)이 발흥함에 따라 부여국의 명맥은 결정적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아성 부근에 중심을 두고 있던 물길이 세력을 뻗쳐 동류 송화 강 유역을 장악하고 고구려의 북경을 공격하였다. 동류 송화 강과 합류하는 북류 송화 강 하류 지역이 물길에 의해 장악되니 자연 농안 지역은 물길의 공세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자위 능력이 없는 부여 왕실은 안전한 고구려에 투항하여 내지(內地)로 옮겨졌고 부여국은 소멸하게 되었다. 부여국이 소멸된 후, 농안 일대는 물길에 점령됨에 따라 인구가 적은 지역에 물길-말갈계 집단들이 이거해 들어왔다.⁶⁾

『위서』 권100 열전88에서 두막루국(豆莫婁國)은 물길국 북쪽 천 리에 있는데, 옛 북부여라 하고, 『당서(唐書)』 권20 달막루전(達莫婁傳)에서는 “스스로 말하기를 북부여의 후예라 한다. 고려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자, 부여의 유민(遺人)들이 나하(那河)를 건너가 거주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고구려가 5세기 말 이전에 동류 송화 강 부근까지 장악하였으며, 이로 인해 북부여의 일부 세력이 동류 송화 강을 건너가 살게 되었음을 뜻한다. 5세기 말 이후 고구려가 이 지역을 탈환할 때까지 동류 송화 강 일대가 물길에 점령당했다. 두막루국이 물길국 북쪽 천 리에 있다는 『위서』의 기록은 이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말갈에게 농안 일대의 북부여 지역을 빼앗겼던 고구려는 그로부터 100년쯤 후인 594년경에 이를 다시 탈환했을 뿐 아니라 말갈을 복속하여 그 지배하에 두게 된다.

그 후 고구려는 영류왕 14년(631)에 당(唐)의 침입에 대비하여 부여성(扶餘城)에서 바다에 이르는 천리장성(千里長城)을 쌓았다. 또 보장왕 27년(668)에는 당나라 장수 이적(李勣)이 부여성

을 함락시켰는데 이때 부여천(扶餘川) 중의 40여 개 성이 항복을 청하였다. 당에 빼앗긴 부여성은 연남생이 곧바로 군사 5만 명을 보내 구하였다. 이에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7 지리4에는 압록강 이북의 아직 항복하지 않은 11개 성 가운데 북부여성주(北扶餘城州)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6세기 말 이후 고구려가 망할 때까지 고구려가 북부여 지역에 40여 개의 성을 쌓고 동류 송화 강 이남 지역을 지배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0여 개 성 가운데 부여성은 넓은 평야 지대의 한가운데에 있어 그 경제적 중요성과 함께 동쪽에 있는 삼림 종족인 말갈족과 서쪽의 유목 종족인 거란족의 연결을 차단하여, 고구려 서북부 일대의 안정을 보장하는 전략적 요충이었다. 부여성이 지닌 그러한 전략적 측면은 발해시대에도 이어져 이곳에는 거란을 방어하는 중심지로서 부여부가 설치되었다. 실제 요(遼) 태조인 야율아보기의 발해에 대한 침공도 부여부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요 역시 부여부에 황룡부를 설치하는데 이곳은 요의 입장에서는 그 동쪽의 세력을 방어하는 데 중심이 되는 곳이었다. 황룡부가 일시 폐해졌다가 다시 1013년에 이 지역에 설치되었던 것도 그 무렵 점차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동부 만주 지역의 여진 세력에 대처키 위한 것이 그 한 요인이었다. 이렇듯 중부 만주 지역의 전략적 요충인 이곳은 후기 부여국의 왕성, 고구려 말기의 북부여성주, 발해의 부여부, 요의 용주 황룡부, 금의 용안부로 이어지게 된다.⁷⁾

2. 고구려의 말갈 정복과 지배

1) 고구려에 정복되기 이전의 말갈

말갈은 일찍이 숙신·읍루·물길 등으로 불리었다. 중국 사서를 통해서 보면, 전한(前漢) 시기까지는 숙신(肅慎) 혹은 식신(息慎)이라 하였고, 후한(後漢)과 삼국시에는 읍루(挹婁)라 하였으며, 진대(晉代)에는 다시 숙신이라 불렀고, 후위(後魏) 때에 와서 물길이라 불렀다. ‘말갈(靺鞨)’ 이 기록상 처음 보이는 것은 『북제서(北齊書)』 권7 무성제기 하청(河淸) 2년(563)이다. 『북제

3) 노태돈(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523쪽.

4) 『魏書』 卷5 高宗 太安 3년 11월.

5)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文咨明王 3년.

6) 노태돈(1999), 523쪽.

7) 노태돈(1999), 525쪽.

서』에는 그 후 말갈이 10회 정도 북제에 사신을 보내 조공한 것으로 전하여진다. 말갈을 처음 열전으로 입전한 중국 정사는 『수서(隋書)』였다. 『구당서(舊唐書)』 말갈전에서는 말갈을 대개 숙신의 땅이라 하고 후위 때에 물길(勿吉)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이러한 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말갈은 숙신·읍루·물길로 이어지는 동일 종족이라 할 수 있다.

『신당서』 발해전에서는 숙신의 고지에 상경 용천부를, 읍루의 고지에 정리부와 안변부를 두었다고 하여, 숙신과 읍루가 다른 지방에 살고 있던 별도의 종족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에 숙신·읍루·물길을 동일 종족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려는 견해도 있다.⁸ 그러나 큰 범주에서 보면 숙신과 읍루는 중국 동북 지방에 거주하고 후대의 말갈이라 불리게 되는 동일 종족으로 서로 통일되지 아니하여 세부적으로는 지역을 달리하고 그에 따라 문화적 차이도 있는 정치 세력이었다. 단지 종족 내부 세력의 성쇠에 따라 숙신이 말갈을 대표하기도 하고 읍루가 말갈의 주도 세력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중국 사서에서도 명칭을 달리하여 입전하였던 것이다.

『위서(魏書)』와 『북사(北史)』를 통해서 보면 말갈은 6세기 전반에 물길이라 불렸다. 『위서』 본기에는 478년·486년·488년·493년·503년·507년·508년·509년·510년·511년·512년·513년·514년·515년·517년·518년·521년·536년·540년·541년·544년·546년·547년에 모두 23회에 걸쳐 사신을 보내 조공한 것으로 전한다. 또 『위서』 물길전에는 연흥(471~475) 연간, 태화 초기, 태화 9년에 사신을 보낸 기록이 더 있다. 이에 최소한 물길은 26회 이상 북위에 사신을 보냈다. 그러나 이 기간에 북위에 사신을 보낸 물길은 말갈 전체가 아니라 속말말갈(粟末靺鞨)이었다. 6세기 후반 말갈에 대해서는 『수서』 말갈전에, 7세기 이후 말갈에 대해서는 『구당서』와 『신당서』 등에 기록이 전한다.

『위서』 물길전에서 물길국은 고구려 북쪽에 있으니 옛 숙신국이라고 하였다. 백두산 북방에 거주하던 속말말갈이 백돌말갈을 정복하여 북류 송화 강 하류 동쪽과 동류 송화 강 이남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북위에 사신을 보냈는데, 『위서』 물길전은 바로 그 물길의 사신 을력지(乙力支)가 북위에 와서 보고한 바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다. 을력지는 지금의 지린을 출발하여 송화 강과 년장 강을 거슬러 올라와 시라무렌 강을 건너 거란 서쪽을 지나 화룡(조양(朝陽))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물길이 거란 서쪽으로 돌아서 북위에 올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동류 송화 강 이남, 거란 동쪽이 옛 부여 땅으로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었고, 당시

에 고구려와 물길의 관계가 좋지 않아 물길 사신이 고구려 영내를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을력지가 북위에 사신으로 왔던 연흥(延興, 471~475) 연간은 『책부원구(冊府元龜)』 권969 외신부 조공문에 의하면 475년이다. 472년에 백제는 북위에 고구려 정벌을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고구려 북쪽에 있던 물길과도 연결하여 고구려를 공격하려 하였다. 하지만 물길은 여러 세력으로 나누어져 통일되지 못하고 부(部) 단위로 생활하고 있던 까닭에 그 중의 1부가 단독으로 북방에서 고구려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전쟁 수행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물길에서도 475년에 북위에 사신을 보내, 그 가부를 물었지만 만족스런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위서』 거란국전에 따르면 고구려는 태화 3년(479)에 연연(蠟蠟)과 모의하여 지두우(地豆于)를 취하여 분할했다. 지두우는 실위(室韋) 서쪽 1천 리에 있고, 거란이 고구려의 침략을 두려워하여 백랑수(白狼水) 동쪽으로 옮겼다고 하는 바, 479년 이후 486년까지 물길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지 못한 것은 고구려의 지두우 분할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고구려가 실위 서쪽 1천 리에 있는 지두우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부여가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 문자명왕 3년(494)에 부여 왕과 그 처자가 나라를 들어 항복해왔다고 하고, 『위서』 고구려전에는 문자명왕 13년(504)에 고구려 사신 예실불(芮悉弗)이 북위 세종에게 황금은 부여에서 나고 가옥(珂玉)은 섭라(涉羅)의 소산인데 부여는 물길에 쫓기고 섭라는 백제에 병합되었다고 말할 기록이 있다. 이는 고구려의 간접 지배하에 있던 부여 왕이 494년에 고구려에 항복해왔고, 부여는 물길의 지배하에 들어갔는데 그 주민 일부가 물길에 대항하다 쫓겨 다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길은 494년에 부여를 점령하고 이통허 강(伊通河) 유역으로 진출했다. 그리고 503년부터 547년까지 19회나 북위에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 북제(北齊)에도 563년·564년·565년·566년·567년·568년·570년·572년·573년·575년에 각기 사신을 보냈다. 하지만 563년 이후 572년 단 1회를 제외하고 물길이 아닌 말갈이라는 이름으로 조공했다. 6세기 전반에 돌궐이 일어나 547년경에 이통허 강 유역에서 농안을 거쳐 조양에 이르는 지역을 점령하고⁹ 계속하여 양원왕 7년(551)에는 고구려의 신성과 백암성까지 공격해왔다가 격퇴되었다.¹⁰ 이

9) 日野開三郎(1991), 「靺鞨七部の前身とその屬種」,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15, 東京: 三一書房, 106~107쪽·151쪽.

10) 『삼국사기』 권19 양원왕 7년.

8) 孫進己 著·林東錫 譯(1992), 『東北民族源流』, 東文選, 314~325쪽.

시기를 전후하여 물길 대신에 말갈이 사서에 나타나는 현상은 돌궐의 침입으로 물길의 지배층이 교체되고 새로운 지배층이 말갈을 자칭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75년 이후 6년 동안 중국에 사신을 보내지 않던 말갈은 581년·583년·584년에 수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그 후, 다시 6년 동안 사신을 보내지 않다가, 591년·592년·593년에 사신을 보낸 것으로 『수서』에 전한다. 다시 한동안 사신을 보내지 않던 말갈은 615년에 단 한 차례 수(隋)에 사신을 보냈다.

돌궐은 수나라의 이이제이책(以夷制夷策)에 의해 개황 3년(583)에 동·서 돌궐로 양분되었고 동돌궐은 수의 경략으로 곤경에 처하였다.¹¹⁾ 『수서』 말갈전에서 개황 초에 말갈의 서북쪽이 거란과 서로 닿아 있어서 늘 서로 침략하였다고 기록한 부분은 돌궐의 약화를 틈타 말갈이 다시 이통허 강 유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거란과 상호 간에 전쟁이 많았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수서』 고려전에서 597년에 수문제가 고구려 영양왕에게 내린 새서(詔書)에서 고구려가 말갈을 구휼하고 거란을 고금(固禁)하였다고 한 기록은 당시에 거란과 말갈이 고구려에 정복·통합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 동안 고구려도 말갈을 정복하여 수(隋)와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2) 고구려의 말갈 정복

고구려는 영양왕 9년(598)에 말갈인 1만 명을 거느리고 수나라의 요서 지방을 공격하였다. 말갈이 고구려에 동원되어 수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598년 이전에 고구려가 말갈을 정복·지배했어야 한다. 591년·592년·593년 계속해서 수에 사신을 보내던 말갈이 594년에 사신을 보내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의 말갈 정복은 594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헤아려진다. 부여 지역이 그동안 말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594년 고구려의 말갈 정복은 부여를 수복하였을 뿐 아니라 말갈 자체까지도 점령하였음을 의미한다. 612년에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편성한 행군 가운데 우군(友軍) 12대의 공격 대상에 속신이 들어 있음도 6세기 말 이후 말갈이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고구려가 말갈을 군사적으로 정복하였는지, 다른 방법으로 통합하였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은 없다. 하지만 말갈이 고구려군의 앞잡이로 수·당과의 전쟁에 동원되고 있음을 통해

11) 日野開三郎(1991), 142쪽.

서 볼 때 군사적으로 정복되었던 것으로 봄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서』 말갈전에는 말갈 7부가 아직 고구려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수서』 말갈전 자체가 594년 이전의 말갈을 그 서술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수나라가 581년에 건국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하면 『수서』 말갈전은 581~594년경까지 말갈 7부의 모습을 기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말갈은 고려의 북쪽에 있다. 읍락마다 추장이 따로 있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모두 7종이 있다. 그 첫째는 속말부(粟末部)로서 고려와 인접하여 있는데 정병이 수천 명으로 용감한 병사가 많아 늘 고려를 침입하였다. 둘째는 백돌부(伯咄部)로서 속말의 북쪽에 있으며 정병이 7천이다. 셋째는 안거골부(安車骨部)로서 백돌의 동북에 있다. 넷째는 불열부(拂涅部)로서 백돌의 동쪽에 있다. 다섯째는 호실부(號室部)로서 불열의 동쪽에 있다. 여섯째는 흑수부(黑水部)로서 안거골부의 서북쪽에 있다. 일곱째는 백산부(白山部)로서 속말의 동남쪽에 있다. 정병이 모두 3천 명에 불과한데 흑수부가 가장 굳세고 건장하였다. 불열에서부터 동쪽은 화살이 모두 석축인, 즉 옛 속신씨이다.

이처럼 『수서』 말갈전에서는 말갈이 모두 7종(種)이라 하고 그 7종을 7부(部)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말갈 7종이 비록 말갈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종족이었음을 의미한다. 추장도 각기 따로 있고, 군대도 제각기 움직였다.

말갈 7부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¹²⁾ 그 중에 왕승례(王承禮)의 견해를 통해서 보면, 속말부는 지금의 길림시를 중심으로 송화 강 중류의 광대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고, 백돌부는 그 북쪽인 지린 성[吉林省] 서란현과 헤이룽장 성[黑龍江省] 오상(五常) 일대에 있었다. 안거골부는 백돌부의 동쪽인 헤이룽장 성 영안~목단강시를 중심으로 한 무단 강 유역에, 불열부는 지금의 싱카이 호[興凱湖] 부근에, 호실부는 소련 연해주에 분포하였다. 흑수부는 송화 강과 헤이룽 강의 합류 지점과 헤이룽 강 하류의 광대한 지역에 분포하였다. 백산부는 속말부의 동남쪽인 지금의 연길(延吉), 훈춘(琿春)을 중심으로 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광

12) 金賢淑(2003), 「6~7세기 高句麗史에서 靺鞨」, 『강좌 한국고대사』 제10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56~157쪽. 최근 馬一虹은 속말부는 길림시를 중심으로 한 제2송화 강 중류의 양안지구, 백돌부는 길림 유수·부여·헤이룽 강 쌍성·오상 경내, 안거골부는 아슈허 강[阿什河] 유역, 불열부는 장광재령 이 동 무단강 유역, 백산부는 도문(圖們)·훈춘 일대, 흑수부는 헤이룽 강 중류로 그 위치를 비정했다(馬一虹(2004), 「靺鞨部族分布地域考述」, 『中國文化研究』 夏卷, 北京:北京语言文化大学, 67~70쪽).

대한 지역에 분포하였다.¹³

『수서』 말갈전에서 불열의 동쪽은 화살에 석촉(石鏃)을 쓰며 옛날 숙신씨라고 한 것은 지금의 싱카이호 부근과 소련 연해주 일대에 살던 불열부와 호실부 그리고 그 동북쪽에 살던 흑수부와 안거골부만이 숙신이고, 그 외의 말갈은 숙신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말갈은 여러 민족의 총칭이며 진정으로 여진족의 선조가 된 이들은 흑수부·호실부·안거골부·불열부였다.”는 견해도 이러한 기록에 근거를 두고 있다.¹⁴ 하지만 석촉의 사용 여부는 철기 문화의 전파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불열 동쪽만 숙신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말갈 7부 가운데 백산부가 있던 지금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일대는 과거에 북옥저와 동부여가 자리했던 곳이다.¹⁵ 동부여가 마지막으로 고구려에 정복된 시기는 광개토대왕 20년(410)이었다. 그 후 물길(속말말갈)이 강성해져서 494년경에 북부여를 정복하게 되는데 동부여도 이 시기를 전후하여 물길(속말말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백산부(白山部)로 불리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동부여는 북부여의 일부가 갈라져 나간 것이므로 양자를 같은 종족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백산부에는 북옥저 계통의 주민도 상당수 살고 있었으므로 백산부와 북부여 계통 주민이 완전히 동일한 종족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좀 더 큰 범주에서 보면 북옥저와 북부여 계통 주민은 같은 예맥족으로서 동부여로 불리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당서』 발해전에서는 동경용원부를 예맥의 고지(故地)라 하였고,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서는 부여에 ‘예왕지인(濊王之印)’과 예성(濊城)이 있어 대개 본래 예맥의 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백산부와 부여의 주민이 같은 예맥족이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또 『삼국지』 동이전에서 동옥저는 남쪽으로 예맥과 접하였고, 고구려도 남쪽으로 조선·예맥과 접하였다고 하면서, 예(濊)는 북으로 고구려·옥저와 접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삼국지』 동이전 동옥저·고구려전에서 말하는 예맥은 동예(東濊)이다. 『신당서』 발해전에서 동경용원부를 예맥의 고지라 하였으므로 동예와 백산부가 같은 예맥이 된다. 『신당서』 발해전에서는 이 지역을 책성부라고도 한다고 하고, 『위서』 고구려전에서는 고구려의 영토가 책성에 이르렀다고 하

는 바, 백산부에는 고구려인들도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¹⁶ 결국, 백산부 주민 상당수는 부여·옥저·동예·고구려 계통의 예맥족이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이들이 백산말갈이라 불린 까닭은 이 지역에 숙신 계통의 주민도 상당수 있었던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말갈과 전혀 관계없는 종족을 말갈이라 기록했을 까닭이 없는 것이다.

속말말갈조차 예맥 종족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¹⁷ 그 근거로 『구당서』나 『오대회요(五代會要)』에 발해를 고구려의 별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거나 『속일본기(續日本記)』 권10에서 대무예가 스스로 부여의 유속(遺俗)이 남아 있다고 한 기록을 들고 있다. 실제로 속말말갈이 분포하고 있던 길림시 일대의 송화강 중류는 옛 부여의 영역이었다.

6세기 중반에 이통허 강 유역의 물길 가운데 일부가 돌궐의 지배를 받았으나 6세기 말에 고구려가 길림시 일대와 이통허 강 유역을 다시 점령하였다.¹⁸ 이 때 속말말갈 거장 돌지계가 수에 투항하였다. 이는 곧 그동안 부여를 지배해온 물길이 속말말갈이었다는 의미가 된다. 『북변풍속기(北蕃風俗記)』를 통해서 보면 속말말갈은 여러 부로 구성되었다.

처음 개황 중에 속말말갈이 고구려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궤계부(厥稽部) 거장(渠長) 돌지계(突地稽)가 궤계부·구사래부(句使來部)·굴돌시부(窟突始部)·월계몽부(越稽蒙部)·월우부(越羽部)·파원부(破爰部)·보보괄리부(步步括利部) 등 무릇 여덟 부(部)의 정병 수천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부여성 서북쪽에서 부락을 들어 관내로 귀부해오자 이들을 유성에 거처하게 하였으니 그곳이 곧 연군의 북쪽이다.¹⁹

이 사료에 따르면 돌지계는 속말부의 추장이 아니라 궤계부의 거장이었다. 그가 거느린 부(部)가 여덟이었다고 하는데, 그 여덟 부에도 각기 거장이 있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 속말부에는 돌지계가 거느린 8부 외에도 수많은 부가 있었을 것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돌지계가 거느린 8부에 속하지 않은 속말말갈 오소고(烏素固) 부락이 『구당서』 지리지2 신주(慎州)조에 보이고 있는 것도 8부 이외에 여러 부로 속말부가 구성되어 있었다는 명백한

16) 「고자묘지명(高慈墓誌銘)」에 667년에 태어난 고자(高慈)의 조부 양(量)이 ‘책성도독위두대형(柵城都督位頭大兄)’을 역임했다는 기록이 있어 백산부에 고구려 관리나 군대가 주둔하였던 것이 확인된다(韓國古代社會研究所(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509~515쪽).

17) 孫進己 著·林東錫 譯(1992), 279~280쪽; 日野開三郎(1991), 85~1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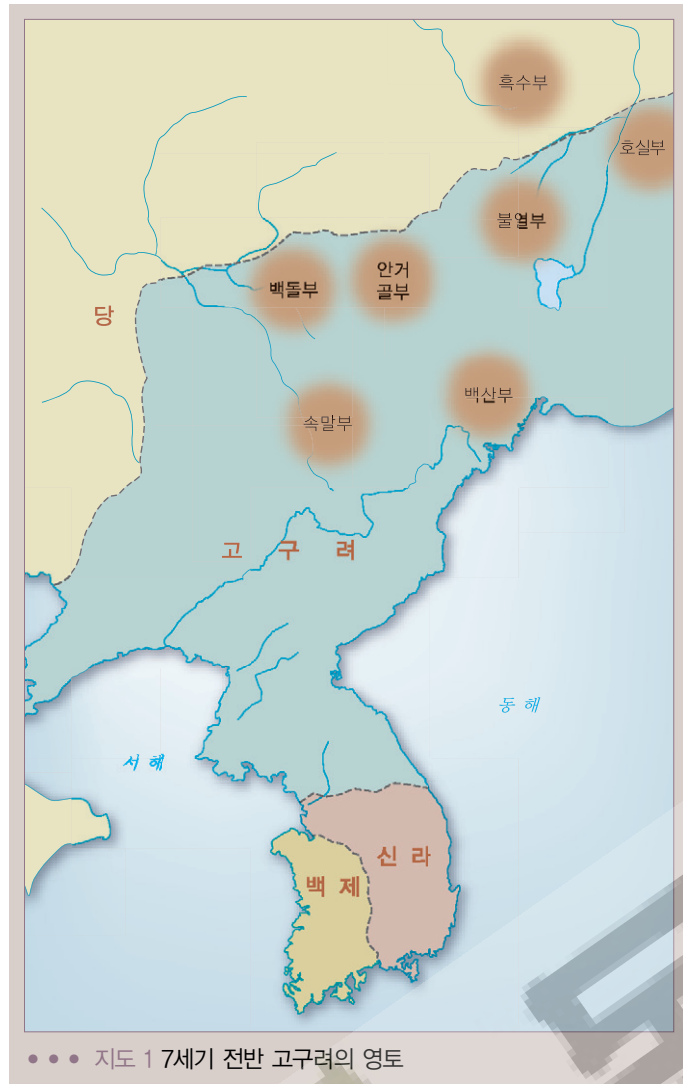
18) 용담산성 등 고구려식 산성은 이곳이 고구려의 점령지였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19) 『太平寰宇記』 卷71 河北道 燕州.

13) 王承禮 著·宋基豪 譯(1987), 『발해의 역사』, 翰林大學 아시아文化研究所, 49~51쪽.

14) 孫進己 著·林東錫 譯(1992), 314~325쪽.

15) 손진기도 백산부를 옥저부의 이칭(異稱)으로 보고 옥저는 예맥계라 하였다(孫進己 著·林東錫 譯(1992), 283쪽).



증거가 된다. 속말부 자체가 하나의 통일된 부가 아니라 수십 개의 작은 부로 이루어진 총체였던 것이다.²⁰

고구려의 북진으로 부여 지역에서 물길은 축출되었다. 돌지계가 거느린 8부가 수나라에 투항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그동안 옛 부여 지역을 지배해오던 속말말갈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지금의 길림시를 중심으로 송화 강 중류 지역에 속말말갈이 분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참고해보면 고구려의 북진으로 이 통허 강 유역에 진출하였던 속말말갈은 북류 송화 강 유역 동쪽으로 그 세력이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길림시 일대는 본래 부여의 영역이었지만 북류 송화 강 동쪽, 후대의 현덕부 일대는 본래 속말말갈 지역이었다. 이 속말말갈이 송화 강을 건너 부여를 점령하였으니 그것이 후위 때의 물길이었다. 그러나 한 대에 226년경까지 부여가 읍루를 지배한 적도 있고, 백돌말갈이 길림시 일대에 들어와 살았던 사실에서 부여·고구려·속신 계통 주민이 속말부 내에서 각기 다

20) 河上洋 著(1983), 「渤海の地方統治體制——一つの試論として」, 『東洋史研究』 42-2(임상선 편역(1990),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98쪽).

른 부를 이루고 살았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²¹ 속말부 내에서는 북류 송화 강 동쪽 지역에는 속신 계통의 주민이, 서쪽 지역에는 부여 계통 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같은 부 내에 다른 계통의 주민이 별도의 부를 형성하고 있는 현상은 백산부의 경우에도 그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백산부에서는 북옥저, 동부여, 동예, 고구려, 속신 계통의 주민이 별도의 부내부(部内部)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구당서』 말갈전과 『신당서』 흑수말갈전을 통해서 보면 여진족의 진정한 조상으로 생각되는 흑수부 역시 16부로 나누어져 있다. 백돌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어 그 내부 사정을 잘 알 수는 없지만 다른 말갈부와 마찬가지로 여러 부로 나누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 종족 계통에 대해서는 부여 유민이라는 견해도 있지만²² 백돌말갈이라 하여 말갈의 명칭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중시한다면 역시 속신 계통으로 파악함이 옳을 듯하다. 『수서』 말갈전에 기록된 말갈 7부 가운데 속말부와 백산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部)는 속신이었고, 속말부에는 속신계 이외에 부여·고구려계가 섞여 있고, 백산부에는 북옥저·동부여·동예·고구려 계통의 주민도 상당수 있었지만 속신계 주민도 상당수 있었다는 것이며, 각 부는 다시 여러 부로 나누어져 있어 계통이 다른 종족이 각기 별도의 부내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속말부·백산부·백돌부를 예맥계로, 흑수부·불열부·안거골부·호실부를 속신계(여진계)로 분류하고 말갈은 처음에 예맥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뒤에 속신계를 포함하는 동북 지역 각 부의 통칭이 되었으며, 당(唐) 대에 말갈이라는 범칭 아래 예맥·속신뿐 아니라 그 외의 일부 민족까지 포함하게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²³ 하지만 이는 전혀 계통이 다른 민족이 말갈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설명이 되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소위 '말갈 7부'가 '말갈'이라는 범칭을 갖게 된 데에는 그럴만한 공통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주민 구성 비율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속신계 주민이 말갈 7부에 모두 분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 공통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말갈은 지역적으로는 주로 송화 강·무단 강·헤이룽 강 중·하류 지방에 살았고, 언어는 알타이어계의 만주-통구스어족에 속하며, 경제 생활은 목축업·농업·수렵이 병존하는 경

21) 노태돈은 이 지역 거주 속말말갈족의 일부가 고구려와 근접해 살게 되면서 고구려화되어 갔다고 보았다 (盧泰敦 著·歷史學會 編(1985), 「渤海國의 住民構成과 渤海人の 族源」,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일조각, 279쪽).

22) 孫進己 著·林東錫 譯(1992), 286쪽.

23) 孫進己 著·林東錫 譯(1992), 323~324쪽.

제유형이고, 혈거(穴居)·편발(編髮)·토장(土葬)의 공통된 풍습을 가졌던 민족이었다는 견해도 있다.²⁴ 하지만 이러한 공통성은 말갈족에 해당하는 것이며, 백산부·속말부에 살고 있던 예맥종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말갈이라는 범칭은 송화 강·무단 강과 헤이룽 강 중·하류 지방에 살고 있던 대표적인 종족 명칭에 따라 붙여진 것이며, 구체적으로 부(部) 내부의 종족 분포나 문화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하겠다.

3) 고구려의 말갈 지배

6세기의 말갈은 여러 부로 나누어져 통일되지 않은 세력이었으며, 그 부는 다시 여러 개의 부내부로 나누어 있었던 것이다. 『수서』 말갈전의 말갈 7부 가운데 흑수부·백돌부·안거골부·호실부·불열부는 숙신 계통이었고, 속말부와 백산부는 숙신 계통과 예맥 계통의 주민이 부내부를 형성하고 있어서 말갈 7부는 숙신 계통 주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었다.

고구려 지배하에 들어간 말갈은 598년과 612년에 고구려의 대수 전쟁(對隋戰爭)에 동원되었다. 속말갈의 일부 세력은 수(隋)에 귀부하고, 길림 일대에 남아 있던 대부분의 속말갈은 고구려에 정복을 당하여 고구려의 대수당(對隋唐) 전쟁에 동원되었던 것이다.

『구당서』 말갈전에서 “그 나라는 모두 수십 부(部)나 되는데 각각 추수(酋帥)가 있어 더러는 고구려에 부용되었고, 더러는 돌궐에 신속(臣屬)되어 있다.” 하고, 또 백산부가 본래 고구려에 부용되었는데 평양이 함락된 뒤에 많은 무리들이 중국으로 들어왔다고 하여, 백산말갈이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백돌·안거골·호실 등의 부족도 고구려가 당에 함락된 뒤로는 뿔뿔이 흩어지고 미약해져 뒤에는 활동이 알려져 있지 않고 더러는 고구려 유민과 함께 발해에 편입되었다고 기술하여 이들 3부 또한 본래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전한다. 백산부·속말부·백돌부·안거골부·불열부·호실부가 수(隋)의 개황 말경부터 고구려의 세력 범위로 되었던 것이다.²⁵ 오직 흑수부만이 강성하여 16부로 나뉘고 또 남부와 북부를 구분하여 일컬었다는 『구당서』 말갈전의 기록은 흑수말갈만이 고구려의 지배를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서』 고구려전과 『수서』 고려전에서 고구려 땅의 동서가 2천 리, 남북이 1천여 리라고 기록하고 있음에 비하여 『구당서』 고려전에서는 고구려의 땅이 북으로 말갈에 이르는데 동서가 3천 1백여 리, 남북이 2천 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7세기 전반에 고구려가 남쪽의 신라·백제 방면으로 영토를 확장하지 못한 사실을 감안하면 고구려의 말갈 정복으로 인하여 그 영토가 장수왕 대에 비하여 북쪽으로 2배나 더 넓게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⁶ 이는 고구려가 7세기 전반에 흑수말갈을 제외한 대부분의 말갈을 정복하였음을 의미한다.

고구려의 지배하에 놓인 말갈은 고구려의 대수(對隋)·대당(對唐) 전쟁 및 대신라전(對新羅戰)에 동원되었다. 말갈 중에서도 속말갈과 백산말갈이 많이 동원되었다.²⁷ 고구려는 일찍이 말갈을 동원하여 수나라를 공격한 적이 있다. 안시성을 구하는 데에도 말갈병 15만 명을 동원하였다. 당시 고구려가 말갈병을 동원하여 전투를 수행할 경우에 병력을 혼합하여 부대를 편성하지 않고 별도의 조직으로 부대를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이는 고구려의 말갈 지배가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직접적인 지배를 실현한 것이 아니라 말갈의 기존 조직을 이용하고 그 지배층을 통해 간접 지배하였음을 보여준다. 연개소문 사후에 형제 간의 세력 다툼에서 패한 연남건이 그 휘하의 무리와 거란, 말갈병을 이끌고 당에 항복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또한 고구려의 말갈 지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배였을 가능성보다는 여러 말갈부를 분리 지배하는 방식이었음을 나타낸다.

말갈은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는 데에도 동원되었다. 『삼국사기』에는 기원전후기부터 말갈에 관한 기사가 나오지만 이들은 북방의 말갈이 아니라 동예(東濊)였다.²⁸ 그러나 고구려가 말갈을 정복한 6세기 말 이후 신라를 공격하는 데 동원된 말갈은 동예가 아니라 북방의 말갈이었다. 『삼국사기』에서 동예를 말갈이라 기록하고 있는 까닭은 동예도 오늘날의 강원도와 함경도 지역에 있었지만 7세기 이후에는 고구려에 동원된 말갈도 같은 지역을 배경으로 신라를 공격하였던 때문으로 생각된다.

태종무열왕 5년(658)에 고구려 장군 뇌음신(惱音信)과 말갈 장군 생해(生偕)가 군사를 연합하여 술천성을 공격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북한산성을 공격할 때에 고구려군은 북한산성 서쪽

26) 小川裕人(1937), 76쪽.

27) 고구려군에 참가한 말갈의 다수는 白山部였다는 견해(津田左右吉(1916), 『渤海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東京:東京帝國大學 文科大學, 106쪽)와 속말말갈이었다는 견해(日野開三郎(1992), 180~181쪽), 백산말갈과 속말말갈이었다는 견해가 있다(王承禮 著·宋基豪 譯(1987), 53쪽).

28) 이인철(2000), 『고구려의 대외정복 연구』, 백산자료원, 296쪽.

24) 馮繼欽(1986), 『靺鞨族共同體類型及其特征初探』(崔茂藏 譯(1988), 『渤海의 起源과 文化』, 藝文出版社, 9~21쪽).

25) 小川裕人(1937), 『靺鞨史研究に關する諸問題』, 『東洋史研究』 2~5, 京都:東洋史研究會, 77쪽.

에 진을 치고, 말갈은 북한산성 동쪽에 진을 쳤다고 한다. 이 역시 고구려군과 말갈이 별도의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지휘권도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고구려 지배하의 말갈은 독자적인 군사 조직을 유지한 채, 고구려와 연합 작전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가 멸망된 이후에 말갈이 고유의 부(部)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고구려가 말갈의 조직을 해체하여 직접 지배하지 않고 그 조직을 보존해주면서 그 지배층을 이용하여 간접 지배하는 방식을 취하였음을 나타낸다.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부터 발해가 건국된 698년까지의 말갈에 대해서는 『신당서』 흑수 말갈전에 전해진다.

흑수말갈은 [...] 남쪽으로 고려, 북쪽으로 실위(室韋)와 접해 있다. 수십 부로 나누어져 추장들이 각기 자치를 한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부(部)는 속말부로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여 태백산에 이른다. 도태산이라고도 하는데 고려와 서로 닿는다. 속말수의 연안에 의지하여 사는데 그 물은 서쪽에서 흘러나와서 북으로 타루하(它魯河)에 들어간다. 조금 동북쪽에 있는 것이 백돌부이고, 그 다음 것이 안거골부이며, 더 동쪽은 불열부이다. 거골의 서북쪽에 있는 것이 흑수부이고 속말의 동쪽에 있는 것이 백산부이다. 부와 부 사이는 먼 것은 3~4백 리이고 가까운 것은 2백 리이다.

이 사료는 고구려 지배하에 놓여 있던 속말부·백산부·백돌부·안거골부·불열부 등이 668년 이후에도 그들 고유의 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고구려가 이들 말갈의 부(部)를 해체하여 직접 지배하지 않고 그 부의 지배층을 이용하여 간접 지배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²⁹ 고구려 유민 이타인(李他仁)이 고구려 말에 책주도독 겸 총병마(柵州都督兼總兵馬)를 제수받아 12주(州) 고려(高麗)와 37부(部) 말갈을 관할 통치했음을 전하는 묘지명 역시,³⁰ 고구려 지역은 주(州)로 편제되었지만 말갈은 부(部) 체제로 다스려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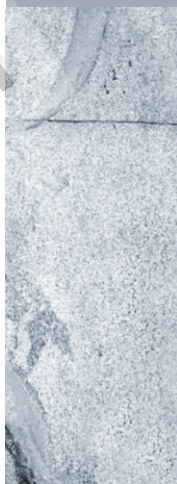
29) 盧泰敦(1981), 「渤海建國의 背景」, 『大丘史學』 19(『渤海史研究論選集』(1981), 白山資料院, 108쪽 재수록).

30) 고구려연구재단 편(2005), 『중국 소재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집』, 고구려연구재단, 288~289쪽.



철로 만든 말 조각

철로 된 소형의 말로 부장용품으로 추정된다. 말의 안장과 말머리, 다리, 꼬리 등은 매우 사실적이며 정교하고 아름다운 생명력이 용솟음치는 느낌을 준다.



고구려는 6세기 중엽 안장왕 이후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해 668년 마침내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을 함락함으로써 28대 보장왕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왕조는 멸망했지만 고구려인의 항전은 계속돼 각 지방에서 성 단위로 치열한 저항이 전개됐고, 한편으로 고구려 왕조를 재건하려는 부흥 운동도 일어났다. 이 같은 대당 항전은 이후 한반도 내에서는 신라와 당의 전쟁 과정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했으며, 만주 지역에서는 고구려의 실질적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발해의 건국으로 이어졌다. 5부에서는 6세기 중엽 이후 귀족 연립 체제의 성립과 연개소문의 집권, 수·당과의 전쟁, 고구려의 멸망과 이후 전개된 부흥 운동을 살펴본다.

고구려의 멸망과 계승

- I. 귀족 연립 체제의 성립
- II. 연개소문의 집권과 정권의 한계
- III. 국제 질서의 변동과 수·당과의 전쟁
- IV.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 운동의 전개

5
부

【귀족 연립 체제의 성립】

임기환

1. 왕권의 쇠퇴와 귀족 세력의 대립

1) 왕위 계승전의 전개와 왕권의 쇠퇴

545년 12월, 찬 바람이 몰아치는 평양성에는 날씨만큼이나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평소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던 거리에는 어느 때와는 달리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적막하였다. 고요한 정적을 깨고 마침내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서 수천 명의 무장한 두 무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더니, 이윽고 왕궁 앞에 이르러 한바탕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추군(麤群) 측 병사와 세군(細群) 측 병사들의 충돌이었다. 좀처럼 승패를 가리지 못하던 싸움이 하루 종일 계속되다가, 해가 저물면서 세군 측의 패배로 기울어졌다. 마침내 세군 측 무리들은 세군의 대저택으로 쫓겨 들어갔다. 추군 측 병사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세군 측 병사들을 뒤쫓아 세군의 저택을 포위하였다. 여기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3일 동안 계속되었다. 이윽고 힘이 다한 세군의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뒤이어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이 벌어졌다. 싸움의 결과는 참혹했다. 세군의 가족들은 여자와 어린아이조차 죽음을 면치 못하였으니, 모두 2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평양성 곳곳에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왕궁 깊숙한 곳에 위치한 왕의 처소에서는 깊은 병환에 시달리고 있던 안원왕(安原王)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형 안장왕(安藏王)이 정쟁으로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다시 왕권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음을 앞두고 외척들 간의 치열한 정쟁을 마냥 손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자신이 한탄스러웠다. 얼마뒤 세군 집안의 몰살로 싸움이 끝났음을 알리는 시종의 보고를 들은 안원왕은 끝내 혼절하고 말았다. 이틀 뒤 안원왕은 불과 재위 15년 만에 붕어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1월 중부인의 소생인 양원왕(陽原王)이 8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면서 치열했던 정쟁도 일단 마무리되었다.

위 이야기는 『일본서기(日本書紀)』 권19 흙명기(欽明紀) 6년·7년조에 인용된 백제본기(百濟本紀)에 전하는 기록에 의거하여 안원왕(531~545년) 말년에 일어난 왕위 계승전을 재구성해본 것이다. 안원왕은 세 부인이 있었는데, 정비인 대부인(大夫人)은 소생이 없었으며, 중부인(中夫人)과 소부인(小夫人)에게서 각각 자식을 두었다. 중부인의 아버지는 추군이었고, 소부인의 아버지는 세군이였다. 태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두 외척은 자신의 외손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는데, 재위 15년에 안원왕이 병이 들자, 마침내 후계를 노린 외척 추군과 세군 사이에 정쟁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이러한 정쟁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안원왕은 형인 안장왕(519~531년)이 자식이 없이 돌아가자 그 뒤를 이어 즉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안장왕은 동생 안원왕의 도량이 커서 매우 사랑하고 아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서기』에 인용된 백제본기에는 안장왕이 시해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황으로 보아 혹 안원왕은 안장왕을 시해한 세력에 의해 옹립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또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안원왕의 죽음에 대해서도 별다른 특이한 기색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장자인 평성(양원왕)을 재위 3년에 태자로 책봉하였고, 안원왕이 돌아가자 양원왕(545~559년)이 정상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양원왕은 즉위 시에 적어도 나이가 13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8세에 즉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 『일본서기』의 기사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듯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는 어떠한 정쟁의 흔적도 드러나지 있지 않는데, 아마도 이는 고구려 후기에 역사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 사실을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결과가 아닐까 짐작된다. 당시 고구려 측 정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던 백제 측 기록에 의거하여 편찬된 『일본서기』의 기사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훨씬 신뢰성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안장왕 말년과 안원왕 말년에는 귀족 세력 간에 정쟁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특히 안원왕 말년의 왕위 계승전에서 패배한 세군 측의 희생자가 2천여 명이 넘었다는 것을 보면, 당시의 정쟁에는 단지 외척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중앙 귀족이 대거 참가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대규모 정쟁의 발발은 당시 귀족 세력 간의 분열과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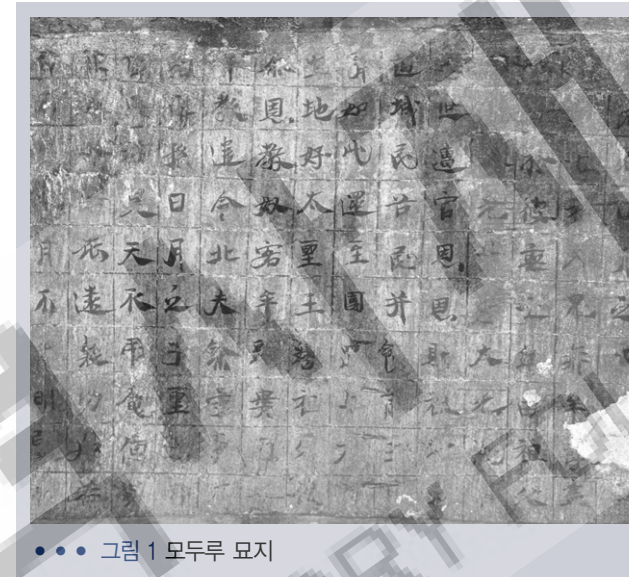
왕위 계승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드러난 귀족 세력 간의 갈등은 양원왕의 즉위로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다. 557년(양원왕 13)에는 환도성의 간주리(干朱里)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토벌되었다. 여기의 환도성은 곧 옛 수도인 국내성 지역이다. 그렇다고 이 세력을 단지 국내성 일대의 지방 세력에 한정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때 환도성의 반란은 고구려 전기 이래의 귀족 세력으로서 국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앙 정치 세력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당시 중앙에서 일어난 왕위 계승전의 여파는 지방에까지 심각한 파급을 일으키고 있었다. 『삼국사기』 권44 거칠부전(居柒夫傳)에 의하면 551년(양원왕 7년: 신라 진흥왕 12년)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이 한강 유역을 공격할 때 거칠부가 신라군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이때 고구려의 혜량법사(惠亮法師)가 문도를 이끌고 거칠부를 맞이하여 “지금 우리나라의 정국이 혼란하여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신라로 망명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혜량법사의 동향으로 볼 때,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상실한 데에는 중앙 정국의 혼란뿐만이 아니라, 중앙 정권에 불만을 품고 있거나 위기 의식을 느낀 지방 세력의 이탈도 주요한 배경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왕위 계승전을 비롯하여 중앙 정계에서 일어난 귀족 세력 간의 정치적 대립이 대외적 위기를 조성하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2) 신·구귀족 세력의 대립

그러면 이와 같이 6세기 중엽부터 왕권이 약화되고 정쟁이 잇따라 이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중기 왕권의 기반 및 정치 체제의 해체와 직결되며, 아울러 6세기 이후의 사회 변동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귀족 세력의 존재 방식과 관련하여 국내계 귀족 세력과 평양계 귀족 세력의 갈등 양상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4세기 이래 중앙 집권 체제의 정비 과정을 통하여 고구려 왕권은 크게 신장되었다. 왕권은



●●● 그림 1 모두루 묘지

관등·관직제의 정비를 통해 왕도(王都)로 결집한 중앙 귀족을 왕권 아래의 관료 체계 내로 편제해갔다. 소수림왕(371~384년)대에 적극적으로 추진된 율령 반포와 태학의 설립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관료 체제 운영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 광개토태왕릉비에 ‘왕당(王幢)’ ‘관군(官軍)’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는 과

거 귀족 세력들이 나누어 갖고 있던 군사력을 왕권 아래로 흡수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고국양왕(384~391년)대에는 종묘(宗廟)·국사(國社)를 설립하였고, 광개토태왕(391~412년)은 왕실의 수묘제(守墓制)를 정비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왕실 중심의 제의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념적으로도 왕실의 신성화를 추구하였다. 광개토태왕릉비에는 왕실의 시조인 주몽이 “천제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딸(天帝之子 母河伯女郎)”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모두루 묘지에는 “하백의 손자요 일월의 아들(河伯之孫 日月之子)”이라고 신격화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정비와 이념적 통일 과정을 통해 국왕의 초월적 권위가 확보되어, 강력한 왕권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 나부 체제가 해체되면서 각 귀족 세력들은 가문별 귀족 집단으로 분해되어 갔다. 모두루 묘지와 고자 묘지(高慈墓誌)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가계(家系) 의식은 이러한 변화상을 잘 보여준다. 현 중국 집안시에 위치하고 있는 모두루 무덤 안에 씌어 있는 묘지(墓誌)에 의하면 그의 가문의 선조는 북부여에서부터 시조 추모성왕을 수행하여 왔으며, 그 뒤 선조 염모(冉牟)는 모용선비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고 한다. 또 1923년 낙양(洛陽)에서 출토된 고구려 유민 고자의 묘지에는 그의 선조가 주몽왕을 따라 해동의 여러 오랑캐를 평정하여 고구려국을 세우고 대대로 공후장상이 되었으며, 모용씨와 전쟁을 치를 때에는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서 20대조 밀(密)이 홀로 분전하여 적군을 격파하고 고씨 성과 큰 상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모두루 가문과 고자 가문의 가계를 보면, 두 가문이 모두 선조를 주몽과 연결시키고 있음은 물론 염모와 고밀 등 고국원왕 대 모용씨와의 투쟁에서 활동한 인물을 중시하고 있다. 염모와 고밀은 그의 가문을 크게 일으킨 일종의 중시조(中始祖)와 같은 존재로서, 이들이 후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음은 대략 고국원왕 때를 전후한 무렵부터 고구려 귀족 세력들이 소가문 단위로 분해되어가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 이 두 가문이 모두 고구려의 건국과 국내성 시기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에 살펴보는 평양 천도 이후에 등장하는 귀족 세력과는 그 역사적 연원을 달리하고 있다는 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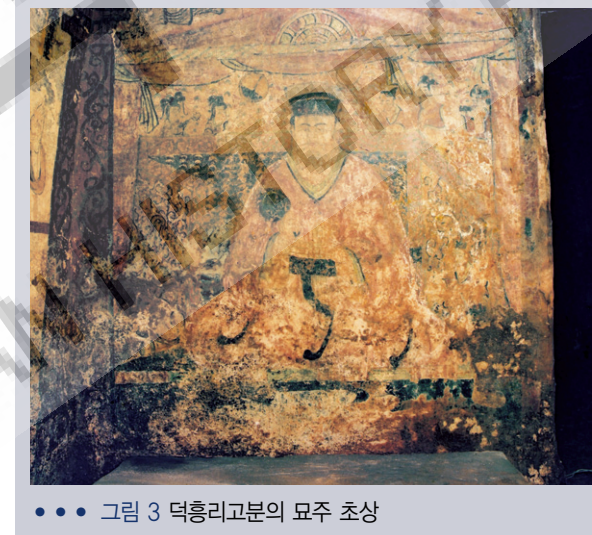
한편 장수왕(413~491년) 대에 이루어진 평양 천도는 왕권의 성장과 정치 세력 재편성의 일대 계기가 되었다. 4세기부터 고구려 왕권은 평양 지역에 대한 경영을 통하여 이 지역을 왕권의 직접적 기반으로 삼으려는데 힘을 기울여왔다. 따라서 평양 천도는 왕권 강화에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국내 지역에 세력 기반을 둔 귀족들에게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이에 평양 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장수왕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인 귀족들과의 갈등이 적지 않았으며, 결국 장수왕 60년경을 전후하여 귀족 세력에 대한 장수왕의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위서(魏書)』 백제전에 실려 있는 백제의 개로왕이 북위(北魏)에 보낸 외교 문서에서 “지금 연(燕: 장수왕)의 죄로 나라가 어육이 되었고, 대신들과 호족이 죽고 죽이는 것이 끝이 없어 죄악이 가득 쌓였다.”고 기록한 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장수왕의 왕권 강화책에 대한 귀족 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으니, 고구려 귀족 세력의 일부가 북위로 망명하기도 하였다.

평양 천도를 계기로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던 장수왕은 귀족 세력에 대한 숙청과 더불어 평양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을 대거 기용하여 왕권의 새로운 지지 기반으로 삼았다. 당시 새로 등장한 신진 귀족으로는 평양 일대의 호족 세력을 우선 염두에 둘 수 있다. 예컨대 현학금(玄鶴琴)을 제작하였던 왕산악(王山岳)은 장수왕 대의 인물로 추정되는데 제2상(第二相)을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양원왕·평원왕 대에 왕고덕(王高德)이란 인물이 대승상(大丞相)을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이들 인물은 그 성씨로 미루어 보아 낙랑군 이래의 호족 세력인 왕씨(王氏)계 인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제2상이나 대승상은 다른 기록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최상위 관직임은 분명하다. 즉 왕산악이나 왕고덕은 장수왕 혹은 양원왕·평원왕 대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본 측 기록인 『신찬성씨



●●● 그림 2 안악3호분 전경



●●● 그림 3 덕흥리고분의 묘주 초상

록(新撰姓氏錄)·『속일본기(續日本紀)』에서 고구려계 인물을 찾아보면, 고씨(高氏)·이리씨(伊利氏)·왕씨(王氏)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고씨는 고구려 왕족의 성이며, 이리씨는 후기의 집권 가문인 연씨(淵氏)이다. 따라서 고구려 후기에 왕씨 역시 이들 성씨와 버금갈 만큼 유력한 세력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중국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고구려로 망명해온 중국계 망명인들의 동향도 주목된다. 안악3호분의 주인공인 동수(冬壽)와 덕흥리고분의 피장자인 유주 자사를 지낸 진(鎭)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¹⁾ 이러한 중국계 망명객들은 대체로 고국원왕(331~371년) 대 이후 고구려 왕권의 지원 아래 낙랑·대방 지역에 세력 기반을 마련하여 이 지역의

지방 지배 및 대중 외교 관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예컨대 『송서(宋書)』 고려전에는 장수왕 대에 대중 외교 사절로 활동한 인물 중에 장사(長史)·마루(馬婁)·동등(董騰)이란 이름이 보이고 있고, 북연의 망명객 풍홍(馮弘)을 살해한 장군으로 손수(孫漱) 등의 이름이 보이는데, 이들은 그 성씨로 보아 중국계 망명인이나 낙랑·대방계 호족 세력으로 짐작된다. 즉 장

1) 이들 이외에도 진(晉)에서 평주 자사 동이교위(東夷校尉)를 지낸 최비(崔毖, 319년), 전연의 곽충(郭充, 336년), 동이교위 봉추(封抽, 338년)·호군(護軍) 송황(宋晃, 338년)·거취령(居就令) 유홍(游泓, 338년), 선비 우문씨(鮮卑 宇文氏)의 왕 일두귀(逸豆歸, 345년), 전연의 태부(太傅) 모용평(慕容評, 370년) 등이 차례로 정치적 이유로 고구려로 망명해왔다.

수왕 대에 대중국 외교의 일선에는 중국 왕조와의 접촉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이들 중국계 망명객이나 낙랑·대방계 세력이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평양 일대를 기반으로 한 이들 세력은 광개토대왕·장수왕 대에 전개된 남진 정복 활동에서 고구려 왕실에 경제적·군사적 기반을 제공하면서 성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광개토대왕 영락 6년(396)의 백제 공격 시에 수군(水軍)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 수군은 낙랑·대방 지역의 해상 세력일 것이다. 또 영락 10년(400)의 신라 구원전 때에도 가야 지역까지 고구려 대군이 남하하는데, 이러한 전략에도 과거 대방군 때부터 가야 지역(변한)과 교류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낙랑·대방 지역의 세력들이 뒷받침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들 중국계 망명인이나 낙랑·대방계 세력들은 평양 천도 이전부터 고구려 왕실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활동하였지만, 평양 천도 이후에는 국내계 귀족 세력들을 견제하려는 왕권의 뒷받침을 받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 정계로 진출하였을 것이다. 특히 왕고덕·왕산악 등이 대승상·제2상 등의 재상직을 역임한 것을 보면, 고구려 후기의 정계를 주도할 정도로 그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고구려 말기의 최고의 집권 세력으로 위명을 떨쳤던 연개소문(淵蓋蘇文) 가문도 평양계 신진 귀족 가문 출신으로 이해된다. 먼저 천남생 묘지(泉男生墓誌)에는 연개소문의 조상이 샘(泉)에서 생겨나왔다고 하여 독자의 시조 전승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루 가문이나 고자 가문과 같이 시조 추모왕을 시종하였다거나 모용씨와의 전쟁과 관련된 선조가 없다는 것은, 연개소문 가문에는 국내성 시기의 역사적 경험이 없음을 시사한다. 즉 연개소문 가문은 평양 천도 이후에 중앙 정계로 진출한 신진 귀족 가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평양 천도와 신진 귀족의 등장은 귀족 관료 전체의 존재 방식에도 일정한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지배 귀족층의 확대는 국가 집권력의 증대 과정에서 규모가 커지고 세분화된 관료 기구 및 관등·관직제를 운영하는 인적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다. 왕권의 후원 아래 등장한 신진 귀족들이 왕권 중심의 관료 체제를 뒷받침한 것은 물론이러니와, 본래의 세력 기반으로부터 유리된 국내계 귀족들도 천도 후 새로운 자기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료 체계 내에 적극적으로 편입되어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장수왕은 이러한 관료 체제 운영을 바탕으로 전체적 권력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왕권의 위상은 모두루 묘지에 왕과 귀족의 관계를 성왕(聖王)·태왕(太王)과 노객(奴客)의 관계로 표현한 데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장수왕 대의 정치 세력 재편 과정은 귀족 관료 내부에 갈등 구조를 잉태케 한 측면

도 있었다. 즉 일부 국내계 귀족 세력의 소외와 평양 천도 이후 등장한 신진 귀족의 정치적 성장은 양자의 대립 구도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기반을 갖는 귀족 세력의 혼재, 귀족 가문의 분화 등은 중앙 권력을 둘러싼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장수왕 대에는 이러한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율령 체제의 재정비나 이념적 통합이 어느 수준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사료의 부족으로 잘 알 수 없지만, 장수왕의 왕권 강화책은 근본적인 집권 체제의 정비보다는 신진 귀족의 등용과 이를 통한 구귀족 세력의 견제라는 측면에 보다 주력한 듯한 인상이다. 따라서 왕권이 귀족 세력을 적절히 통제·조절할 능력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 지위를 잃지 않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장왕·안원왕 대에 걸쳐 거듭된 왕의 시해와 왕위 계승전을 겪는 과정에서 귀족 세력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왕권은 급속도로 약화되었을 것이다. 다만 이때 귀족 세력들의 권력 투쟁이 왕위 계승전을 통해 표출된다는 것은 이제까지 왕권 중심의 권력 행사가 이루어져 왔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제적 권력을 행사하던 왕권이 6세기에 들어 약화되는 또다른 배경으로는 대외 정복 활동의 침체를 들 수 있다. 사실 광개토대왕·장수왕 대에 태왕권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소수림왕 이래 집권 체제의 운영 기반이 잘 정비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 왕 대에 대외 정복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광개토대왕릉비에서 보듯이 광개토대왕의 정복 활동은 고구려 전 시기를 통하여 최대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당대 고구려인이 그 시호에 ‘광개토경(廣開土境)’을 붙여 칭송할 정도였다. 장수왕 역시 요동 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남진 정책을 추진하여, 백제를 공파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나아가 남쪽 국경을 아산만에서 영덕을 잇는 선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대외 정복 활동의 성공은 왕권의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마치 전시 체제와도 같이 계속되는 외정은 고구려 사회 내 긴장감을 높여 왕을 중심으로 지배층을 결속시켰을 것이며, 군사력도 왕권 아래에 집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점에서 왕이 직접 전쟁에 나서는 친정(親征)은 주목된다. 광개토대왕릉비를 보면 광개토대왕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을 주도한 경우가 4회나 된다. 그리고 영락 10년의 신라 구원전에는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 해에 평양에 순수하여 원정군을 지원하고 있었다. 또 장수왕도 471년의 백제 한성 공격 시에 직접 3만 명의 군을 지휘했다.

이러한 친정의 성공을 통하여 왕의 권위는 더욱 높아졌으며, 관념적으로도 고구려 왕은 위엄을 사방에 떨치고 나라를 부강케 한 주인공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또 전쟁의 전리품들을 왕권 강화의 기반으로 삼거나, 전쟁 성과물의 분배를 통하여 귀족 세력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예컨대 광개토대왕릉비에는 “은택이 하늘에 미치고 위엄은 사해에 떨쳤으며, (나쁜 무리들) 쓸어 없애시니 백성이 각기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유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라고 왕의 훈적을 칭송하고 있다.

그런데 문자왕 대까지도 백제나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었으나, 점차 백제가 다시 국력을 회복하고 또 신라와 백제가 군사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함으로써 남진 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안장왕 대에 들어서는 그나마 대외 전쟁이 급격히 축소되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문자왕 대에는 백제와의 전쟁이 7회, 신라와의 전쟁이 3회임에 반하여, 안장왕 대에 들어서는 백제와의 전쟁이 2회에 그치고, 안원왕 대에는 더욱 축소되어 백제의 공격에 대한 방어 전쟁 1건의 기사만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대외 정복 활동이 침체된 원인은 잘 알 수 없으나, 그 결과 왕권의 권위와 위상에 상당한 손상을 주어 왕권의 약화를 초래하였을 것은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또 장수왕의 신진 귀족 등용책으로 지배층의 저변이 확대된 상황에서 대외 정복 활동의 성과가 지지부진하자, 귀족들의 관심이 내부의 권력 분배 문제로 쏠려 지배층 자체의 분열과 동요를 불러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로 역사적 연원과 세력 기반을 달리하는 국내계 귀족과 평양계 귀족 세력은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축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 이 시기 귀족 세력의 존재 방식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삼경제(三京制)의 실시이다. 평양 천도 후 고구려는 평양 도성 이외에도 국내성과 한성(漢城)을 부수도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삼경제의 운영은 지배층의 편제라는 정치·사회적 목적이 가장 중요하였으리라 본다. 국내성이 4백여 년에 걸친 고구려 전기의 수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양 천도 이후에도 국내성이 갖는 정치적 위상은 결코 간과될 수 없었을 것이다. 천도 이후에도 국내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은 단순히 지방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국내 지역과 연고를 맺고 있는 중앙 귀족까지를 모두 포괄한 하나의 정치 세력권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은 앞서 귀족 세력 간의 정쟁이 치열하였던 양원왕 대에 일어난 환도성의 반란에서 잘 드러난다.

새로 부수도로 설정된 한성의 정치적 배경도 국내성의 성격과 관련지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평양 천도는 평양 일대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의 성장을 촉진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과거 낙랑·대방군의 호족 세력이거나 중국계 망명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지역적 기반도 평양을 중심으로 지금의 평안도·황해도 일대에 확산되어 있었다. 평양을 수도로 정하였음에도 새로이 한성을 부수도로 운영한 것은 이 일대에 퍼져 있는 정치 세력들을 효율적으로 편제하려는 목적과 연관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양 천도 이후 고구려 지배층은 크게 기존의 국내계 귀족 세력과 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정치 세력이 양 축을 이루고 있었는데, 국내성이 국내계 귀족 세력의 배후 기반이라고 한다면, 한성은 평양계 귀족 세력의 정치적 기반으로 기능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2. 귀족 연립 정권의 성립 배경과 운영 체제

1) 귀족 연립 체제 성립의 배경 - 국제 정세의 변동과 대외적 위기

안장왕~양원왕 대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정쟁이 거듭 일어나면서 고구려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바로 한강 유역의 상실이었다. 551년,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한 북진군을 일으켰다. 백제 성왕이 이끄는 백제·가야 연합군은 한성을 공파함으로써 한강 하류의 6군을 차지하였고, 거칠부 등 8장군이 이끄는 신라군은 백제군의 승세를 타고 죽령을 넘어 고현(高峴: 강원도 철령 일대)까지 진출하여 한강 상류의 10군을 확보하였다.

백제와 신라 연합군의 기습적인 공격에 제대로 저항도 못해보고 한강 유역을 빼앗긴 고구려는 내부의 정쟁으로 혼란을 겪던 터라 양국 연합군의 북진을 현 수준에서 저지하기 위한 미봉책을 세우기에 급급하였다. 그 하나가 신라와 화평 관계를 맺은 것이었다. 이러한 수습책은 일단 주효하였다. 고구려로부터의 반격 위협이 사라지자, 553년에 신라는 동맹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백제가 탈환한 한강 하류 지역을 기습 공격하여 이를 차지하였다. 격분한 백제는 다시 전열을 정비하여 이듬해에 관산성(옥천)에서 신라와 격전을 벌였으나 성왕이 전사하는 치명적 패배를 당하였다. 이 전투로 나제동맹은 완전히 깨지고 오히려 이후 백제와 신라 간의 격돌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도 나제동맹의 결렬로 인해 백제의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비록 한강 유역을 잃기는 했지만, 남쪽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내부 귀족 세력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정국의 불안정이 계속되는 한 한강 유역을 다시 탈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백제·신라 연합군의 한강 유역 공격은 고구려의 국내 정세를 잘 파악하여 적절한 기회를 포착한 군사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당시 고구려에 닥친 대외적 위기는 백제와 신라의 공세만이 아니었다. 고구려의 서변과 북변에서도 국제 정세의 변동에 따른 새로운 대외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5세기 이래 고구려는 중국의 북위와 남조 송, 유목 세력인 유연과 더불어 당대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움직이



●●● 그림 4 553년 신라가 서울 지역을 차지한 후 쌓은 아차산성



●●● 그림 5 웅장한 성벽을 자랑하는 고구려 백암성(551년 돌궐의 공격을 받았다)

는 중심 세력이었다. 그 중 가장 세력이 강한 나라가 북위였는데, 북위를 남북에서 포위한 송·유연이 동맹을 맺고 북위를 견제함으로써 이 3자 간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고구려는 이들 3국과 등거리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평화로운 상황을 유지하였다. 북중국의 국가와는 5세기 초에 후연(後燕)과의 전쟁을 치른 이후 598년에 수와의 전쟁을 치르기까지 한 차례의 전쟁도 없었고, 북방 유목 국가와도 6세기 후반에 돌궐과 충돌하기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고구려가 남진에 주력할 수 있었던 것은 당대의 국제 질서 속에서 고구려의 서변이 안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6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서서히 변동하기 시작하였다. 523년 북위가 동위(東魏)와 서위(西魏)로 분열되어 북제(北齊)와 북주(北周)를 세웠다(550년, 557년). 고구려와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북위의 붕괴로 인해 그 전과는 다른 대외적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북방에서는 552년에 신흥 돌궐(突厥)이 유연을 격파하고 몽골 고원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하는 세력 교체가 일어났다. 돌궐은 본래 흉노족의 일부로 알타이산 남쪽에서 유목하면서 유연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6세기 중엽 이후 점차 강성해지면서 유연을 대파하고 돌궐국을 건설하였다. 이후로 돌궐국은 끊임없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동쪽으로 밀려왔다. 이에 따라 돌궐에 의해 격파된 유연의 남은 무리들이 동진 남하 이동하여 랴오허 강(遼河) 상류 지역의 거란족을 압박하면서 이 일대에 연쇄적인 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북제의 군사 행동이 계속되었다. 552년 북제는 고막해(庫莫奚)에 대한 정벌 끝에 문선제(文宣帝)가 영주(營州: 지금의 중국 조양)에 머물며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북위 말기의 혼란기에 고구려로 이주한 유민 5천 호를 쇠환(刷還)해갔다. 이듬해에도 거란족의 일부가 북제의 북경을 침략하자 북제의 문선제는 거란족에 대한 대규모 친정을 감행하면서 요서의 창려성까지 직접 순행하였다. 이는 내분에 이어 나제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있던 고구려의 대외적 약점을 포착한 무력 시위로 보인다.

요해(遼海) 지역 일대에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고구려로서는 이 일대에서 전개된 이러한 북제의 무력 시위에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 정세의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북제의 뒤를 이어 돌궐이 6세기 중엽부터 말엽에 걸쳐 요해 일대에 세력을 뻗어왔다. 북제의 공격으로 타격을 입은 거란은 뒤이어 돌궐 세력이 미쳐오자 그 세력이 크게 위축되어 일부는 고구려로 귀부해왔다. 이를 계기로 고구려는 주춤했던 요해 일대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580년을 전후한 무렵에는 돌궐의 이계찰(利稽察) 병단을 격파하는 등 돌궐과 충돌하게 되었다. 돌궐 역시 거란에 지방관을 설치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세력 확대를 늦추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또 이어서 대륙의 정세 변동에 따라 요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등 고구려는 남북 양쪽에서 조성된 대외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구려 지배층은 큰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으니, 우선 내부 분쟁을 수습하며 귀족 연립 정권을 성립시켜 대내적 정쟁과 대외적 위기를 수습하고자 하였다.

2) 귀족 연립 정권의 운영 체제와 귀족 가문의 기반

6세기 중반 왕위 계승전이 거듭 일어난 것은 이 시기에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들의 정치적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된 결과일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귀족들의 권력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정치 운영 체제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귀족 세력들은 대외적 위기 속에서 내부의 정쟁을 완화할 수 있는 귀족 중심의 새로운 정치 운영 체제를 모색하여 귀족 연립 정권을 성립시켰다. 귀족 연립 정권의 정치 운영 체제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변화의 하나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관등인 대대로(大對盧)의 선임과 집권적 관으로서 막리지(莫離支)의 등장이다.

『구당서(舊唐書)』 고려전에 의하면, 대대로의 임기는 3년인데 유력한 자가 있으면 임기에 구애 받지 않고, 교체하는 날에 순순히 내어놓지 않으면 서로 군사를 동원하여 정쟁을 벌여 이긴 자가 취임하는데, 이때 왕은 궁 문을 닫아걸고 이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당시 왕은 대대로의 선임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명목상의 존재였고, 귀족들 간에 실력 대결에서 승리한 자가 대대로에 올라 정치 운영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대대로의 선임이 반드시 무력 대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보통은 귀족 간의 세력 조정을 통해 평화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귀족 연립 정권의 정치 운영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대로라는 관직 자체보다는 권력을 분점하면서 대대로의 취임에 도전하는 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후보로는 관의 서열로 볼 때, 제2위의 태대형(太大人)이 유력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관등은 각 귀족들의 세력 기반의 비중에 따라 획득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고위 관등에 오른 자는 그만큼 큰 세력 기반을 갖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관등 체계상의 태대형을 후기 사료에 집권적 관직으로 등장하는 막리지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사료상 막리지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실권을 장악한 존재로 나타난다.²⁾

막리지의 정치적 위상을 뒷받침하는 기반의 하나는 군사권의 장악이었다. 『구당서』 고려전에는 막리지를 당의 병부상서 겸 중서령(兵部尙書兼中書令)에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막리지의 주요 직능 중에 군사권 장악이 포함되었음을 시사한다. 연개소문의 조부가 막리지로서

2) 막리지(莫離支)는 연개소문 당시의 강력한 집권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실체와 정치적 위상에 관하여 견해가 다양하다. 막리지를 최고 관등인 대대로(大對盧)와 같은 존재로 보는 견해, 제2위인 태대형(太大人)으로 보는 견해, 최고의 집권적 관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쇠를 잘 부리고 활을 잘 쏘아(良治良弓)” 군권을 쥐고 나라의 권세를 장악하였다는 기록이나, 연개소문의 아들 남생(男生)이 막리지 겸 삼군대장군(莫離支兼三軍大將軍)을, 남건(男建)이 막리지 겸 지내외병마사(莫離支兼知內外兵馬使)를 역임한 점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대대로의 취임 시에 무력 충돌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군사권을 장악한 막리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였을 것은 당연하다. 태대형 즉 막리지가 고구려 후기의 중심적 권력체로 떠오른 데에는, 각 귀족 집단의 개별적인 무력 배경이 요구되는 귀족 연립 정권 아래에서 그것이 갖는 군사권에 힘입은 바가 컸다.

그런데 막리지의 정원은 다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당시 임기 3년의 대대로는 다수의 막리지 중에서 교대로 선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은 지속적인 권력의 독점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치열한 정쟁을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었다. 물론 세력의 우세 여하에 따라 계속 역임할 수도 있고, 또 세력 관계 조정에 실패할 경우에는 군사를 동원한 정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기적인 대대로 선임 과정에서 각 귀족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조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극한적인 정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평원왕(557~590년) 대 이후 연개소문의 정변이 있기까지 80여 년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국이 유지되었던 배경은, 각 귀족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유력 가문의 대표자들이 다수의 막리지 직을 차지하고, 대대로의 주기적인 선출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와 세력 관계의 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귀족 연립적 정치 운영 체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대대로와 막리지는 정국 운영의 중심체로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귀족 회의체를 구성하며, 대대로는 이 귀족 회의체 의장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후기 귀족 연립 정권의 권력 구조는 대대로-막리지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³⁾

한편 귀족 연립 정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최고위 귀족 가문의 세력 기반을 재생산하는 방식이다. 그 하나가 관등·관직의 승계 방식이다. 『삼국사기』 연개소문전에 의하면 연개소문은 동부(또는 서부) 대인(大人)이었던 아버지가 사망한 뒤 아버지의 대대로 직을 마땅히 계승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귀족들이 반대하였기에 여러 차례 사죄하고 애걸하여 간신히 대대로가 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아버지의 관등·관직을

3) 고구려의 대대로와 막리지로 구성된 귀족 회의체와 관련하여 신라의 상대등(上大等)을 의장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귀족 회의체의 모습이 참고된다. “알천공·임종공·술종공·호림공·염장공·유신공이 있어 남산의 우지암에서 나랏일을 의논하였다.”(『삼국유사』 권1 진덕왕조)

아들이 계승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자 묘지에도 고자의 할아버지 고량(高量)이 “어려서 부조(父祖)의 가업을 계승하였다.”라고 하여 가문의 관직을 승계하는 사례를 전하고 있다. 이러한 승계 방식은 연개소문 가문에서 그의 아들들이 차례로 관직을 이어가는 예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연개소문의 아들 남생과 남산은 9·15·18·23세에 각각 선인·소형·대형·위두대형으로 승진하고 있는데, 이는 자식들이 연령에 따라 아버지의 관직·관등을 승계하는 방식이 마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개소문 가문에서 엿보이는 부직의 세습은 이 시기에 관의 획득이 각 가문의 세력 기반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당시 최고위 귀족 가문의 세력 기반은 여러 대에 걸친 관직·관등의 승계를 통해 재생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직·관등의 승계는 적장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차차 이하는 한 등급 낮은 관직·관등을 받았을 것이다. 여기서 같은 귀족 가문이라 하더라도 점차 분기화되어 가는 현상도 짐작해볼 수 있다.

아울러 관직·관등에 따라 고구려 귀족 사회가 계층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점이다. 『한원(翰苑)』에 인용된 고려기(高麗記) 기사에 의하면 7세기의 경우 위두대형·대형·소형이 각 관직에 취임할 수 있는 하한선을 이루고 있었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 관직에 취임할 수 있는 관등의 범위가 정해져 있음을 보여준다. 즉 고구려의 관직 체계 역시 귀족들의 신분 체계에 의해 성립·규제되었음을 의미한다. 대략 그 계층은 3계층이나 4계층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귀족 세력의 계층적 분화와 부직의 승계가 귀족 연립 체제 아래에서 귀족 가문들의 세력 기반이 재생산되는 장치가 되었다.

그런데 안정된 귀족 연립 정권이 유지되는 가운데 왕권의 위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濟世安民)을 자임하였다.”는 영양왕(590~618년)의 활동이 눈길을 끈다. 그는 598년 말갈군을 거느리고 요서를 공격하여 긴장되어가는 대수 관계에 불을 지르는 역할을 감행하였다. 그런데 대외 군사 활동에 있어서 왕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하는 형태는 아무래도 왕권의 강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대외 관계를 일정하게 주도할 수 있는 왕권의 면모가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영양왕 대에 이루어진 『신집(新集)』이란 역사서의 편찬도 어느 정도 안정된 왕권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물론 수 양제의 조서에서 영양왕 대의 고구려의 국내 사정을 “강신(強臣)과 호족(豪族)이 국권을 잡고 당파를 짓는 것이 풍속이 되었다.”라고 지적하듯이 아직 정국 운영의 주도권은 귀족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영양왕은 왕권 강화를 추진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것이다. 계속되는 수의 침공은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통합력을 높이고, 이에 따라 왕의 권위도 강화되었을 것이다. 또 전쟁 과정에서 귀족들의 희생은 귀족 세력의 재편 가능성도 열어놓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수와의 전쟁 중에 평양으로 침공해온 수나라의 수군을 격파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영양왕의 동생 건무(建武)가 영류왕(618~642년)으로 즉위한 데에서 짐작할 수 있다.

영양왕 대에 수와의 전쟁을 통하여 왕권의 위상이 어느 정도 강화되었는지는 짐작키 어렵다. 그러나 이제 왕권이 보다 안정된 기반을 재확립하려고 시도하면서, 왕권 및 각 귀족 집단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보다 복잡하게 얽히면서 전개되었을 것이다.

또한 대대로의 선임을 통한 귀족 연립 정권의 운영도 점차 그 기능에 한계가 나타났다. 예컨대 연개소문 가문은 여러 대에 걸쳐 막리지 지위를 차지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당대의 여러 귀족 가문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강하였다. 따라서 실력에 의해 대대로를 차지하는 정치 운영 구조에서 연개소문 가문의 독주 가능성이 커졌다. 귀족 간의 합의를 통한 귀족 연립 체제에서 한 가문의 독주는 귀족들 전체의 이익에 큰 위협이 되었다. 그래서 연개소문의 아버지 대대로 태조(太祖)가 죽은 것을 계기로 다른 귀족들은 연개소문으로 하여금 부직을 계승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한편 영류왕의 입장에서도 연개소문 가문의 독주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귀족들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왕권의 위상을 통해 적절히 조절력을 발휘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얻을 가능성이 있지만, 한 가문이 다른 귀족들을 압도할 경우 오히려 왕권의 지위마저 불안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류왕과 다른 귀족들은 연개소문 가문을 견제하는 데에 이해관계를 같이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연개소문이 부직을 계승하지 못하도록 시도하였으나, 이것이 실패하자 일단 연개소문을 변방의 천리장성 축조 책임자로 임명하여 중앙에서 내보낸 후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어, 오히려 연개소문의 반격을 받아 영류왕 등이 살해되고 말았다.

642년 정변을 통해 영류왕과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연개소문의 등장은 귀족 연립 정권의 운영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즉 영류왕을 포함하여 대신 100여 명을 살해한 대규모 정변이었기 때문에 그 뒤의 정국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정변 직후 연개소문은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반대파 귀족들의 세력 기반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당 태종의 침략을 물리친 안시성 성주는 연개소문 정변 시에 반대의 입장에 있었

는데, 연개소문도 이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타협하고 말았다.

이처럼 지방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반대 세력이 존재하는 한, 연개소문으로서도 권력 구조의 재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었다. 또 갈수록 고조되는 당과의 대외적 긴장도 대내 정치 투쟁의 확대를 주저케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정변 이후에도 연개소문은 반대파 귀족 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따라서 귀족 연립 체제의 성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으나, 연개소문은 과거의 대대로에 비하여 한층 강화된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였다.

연개소문은 집권 직후부터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일본서기』 황국천황 원년 2월조 기사에 의하면 정변 직후 연개소문은 같은 성씨인 도수류금류(都須流金流)를 대신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같은 집안의 인물을 최고의 자리에 내세웠다는 것부터가 향후 연개소문이 정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시사한다. 이후에 연개소문은 더욱더 사적 권력 기반의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는 태대대로(太對盧)·태막리지(太莫離支) 등의 새로운 관직을 만들어 취임하였는데, 이는 연개소문이 자신의 집권력을 계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 만든 일종의 초월적 지위를 갖는 종신직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연개소문의 아들들인 남생(南生)·남산(南産) 등은 보장왕 10년 이후 대형·위두대형 등을 역임하면서 연개소문의 핵심적인 세력 기반을 조성하였다. 남생·남산 등은 제7위에 불과한 대형(大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미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 자체가 연개소문 가문의 사적 권력 기반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연개소문은 태대대로·태막리지 등 집권적 관직을 신설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요직에 등용하면서 사적 권력을 강화하여, 대대로의 주기적인 선출을 통해 귀족 세력 간의 세력 조정과 합의에 기초한 정치 운영 체계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귀족 연립 정권의 정치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귀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귀족 세력의 반발은 연개소문이 사망한 후 그의 아들들의 권력 다툼 및 당과의 전쟁 과정에서 표면화되었다. 동생 남산·남건에게 쫓긴 남생과 국내성의 귀족 세력들은 국내성 등 6성과 10만여 호를 이끌고 당에 투항하였다. 당시 당으로 이탈하는 귀족 세력의 동향은 이외에도 고자 묘지에서 보이듯이 고자의 아버지가 당으로 망명한 예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러한 귀족 세력의 이탈은 당과의 전쟁 과정에서 고구려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남생이 국내성 귀족 세력 등을 이끌고 이탈한 이후에도 서북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신성 등 16

개 성과 부여성을 비롯한 40여 개 성이 차례로 당군에 항복하고,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淵淨土)도 12개 성을 이끌고 신라로 투항하였다. 결국 국내성·신성·부여성 등 서북방의 중요 거점들을 차례로 상실함에 따라 고구려는 더이상 저항할 힘을 잃고 말았다.

고구려가 당과의 전쟁에서 결국 패배하게 된 원인의 하나는 귀족 세력들의 분열과 이탈이다. 전쟁의 중요 무력 기반인 지방 세력의 이탈도 이와 관련된다. 그런데 이때 이처럼 귀족 세력 간의 모순이 극도로 심화된 이유는 기왕의 귀족 연립 정권의 정치 운영 체제를 붕괴시킨 연개소문가의 파행적인 집권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대대로-막리지 중심의 정치 운영 체제는 불안정한 면도 적지 않았지만, 당시 귀족 집단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분산적인 귀족 세력을 어느 정도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연개소문의 집권과 사적 권력의 강화는 이러한 정치 운영 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귀족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통로를 상실함으로써 귀족 세력 사이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고, 거듭되는 대외적 위기 속에서 끝내 귀족 세력의 분열과 이탈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II 연개소문의 집권과 정권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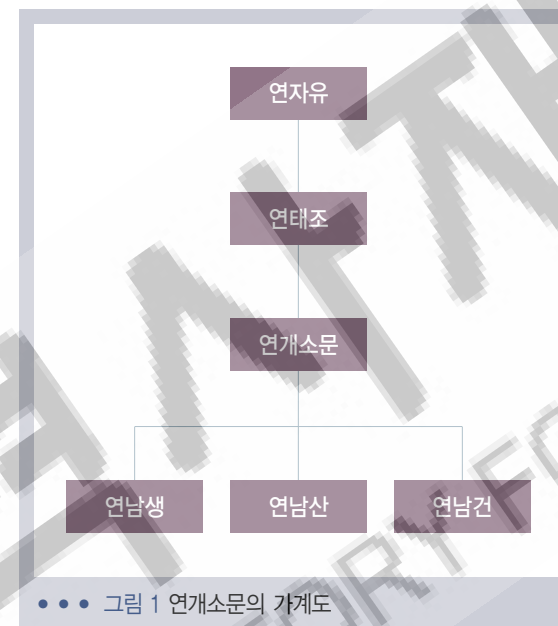
전미희

1. 연개소문의 집권

1) 연개소문의 등장

6세기 중반 이후 확립된 귀족 연립 체제는 연개소문(淵蓋蘇文)이 정권을 잡으면서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정치 권력과 군사력이 연개소문 일가에 집중되면서 여러 귀족들 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던 체제는 깨어지고 국왕의 존재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부의 변화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당과 신라에 대한 강경책을 가져왔으며, 이것은 결국 고구려가 멸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연개소문을 돌려놓고 멸망에 이르기까지 고구려 후기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고구려 후기사에서 연개소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연개소문은 『신당서(新唐書)』와 같은 중국 측 기록이나 그것을 따라 쓴 『삼국사기(三國史記)』, 그리고 그의 아들인 남생(男生)과 손자인 현성(獻姓)의 묘지명 등에는 개소문(蓋蘇文) 또는 개금(蓋金)이라고 나와 있으며, 성은 천(泉)씨였다고 되어 있다. 그 집안이 물 속에서 나왔으므로 성을 천(泉)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고구려가 망하기 직전인 666년에 무리를 이끌고 신라에 항복해 온 연정토(淵淨土)가 연개소문의 동생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연개소문의 성은 천씨가 아니라 연씨였음이 분명하다. 아마도 본래 연씨이던 것을 뒤에 당나라 고조



(高祖)인 이연(李淵)의 이름을 피해서 천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기록인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연개소문이 ‘이리가수미(伊梨柯須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때의 ‘이리(伊梨)’도 ‘연(淵)’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연개소문의 집안은 그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세력 있는 가문이었다. 연개소문의 할아버지인 자유(子遊)와 아버지 태조(太祚)는 둘 다 막리지(莫離之)를 지냈다. 나아가 아버지 태조는 당시 귀족들의 최고 수장 격인 대대

로(大對盧)를 역임하였다. 연개소문의 가문은 특히 고구려가 중국 수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크게 성장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연개소문 가문의 독주는 다른 귀족들에게 결코 환영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귀족 연립 체제 아래에서 여러 귀족들은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하여 귀족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며 세력 균형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어느 한 가문의 세력이 다른 귀족들을 누를 만큼 커지는 것은 다른 귀족들에게는 불안과 위협의 요소가 되기에 충분하였다.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귀족 연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점 커져가는 연개소문 가문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였다.

과연 귀족들은 대대로였던 연개소문의 아버지 태조가 죽자 그것을 기회로 연개소문 가문을 누르려는 움직임을 드러내었다. 연개소문이 당연히 이을 수 있는 아버지의 자리를 계승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 그것이다. 그들은 연개소문의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연개소문이 아버지의 직위를 이어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연개소문 가문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다른 귀족들이 일시적으로 단결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귀족들의 압박에 연개소문은 일단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귀족들에게 머리를 굽혀 절하고 사과하며, 일단 아버지의 자리를 잇게 하고 만약 잘못이 있으면 그때 물어도 좋지 않겠냐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연개소문의 간청에 귀족들은 마음을 움직여 연개소

문이 아버지의 직위를 잇도록 허락하였다. 이렇게 연개소문은 고구려 후기 귀족 연립 체제 아래에서 어렵게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2) 연개소문의 정변

여러 귀족들의 견제 속에서 간신히 아버지의 지위를 잇는 데 성공한 연개소문은 당초의 약속과 달리 귀족들에게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세력을 키워나갔다. 특히 연개소문은 당에 대한 정책을 둘러싸고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뉜 상황에서 대당 강경파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해나갔다. 중국 측 입장에서 서술된 『신당서』나 『삼국사기』에는 연개소문이 아버지의 직위를 이어받은 후 흉악하고 난폭한 일을 자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은 연개소문이 당시 고구려를 치고자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당에 대하여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쪽에서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에 대한 반대파 귀족들의 불안감은 다시 커져갔다. 애초부터 연개소문에게 경계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다시 힘을 합하여 이번에는 연개소문을 없애고자 일을 꾸몄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시의 국왕인 영류왕도 가세하였다. 영류왕 25년(642) 연개소문을 천리장성 축조의 감독으로 발령한 것은 그러한 모의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연개소문과 천리장성의 축조와 관련해서는 대외 강경파인 연개소문 가문이 출공 천리장성의 축조를 주도해왔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천리장성의 축조가 연개소문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연개소문이 군사적 실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연개소문은 그 명령을 받은 직후, 바로 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직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렇게 볼 경우 영류왕이 왜 이 시기에 이르러 새삼스럽게 연개소문을 천리장성 축조 감독으로 발령했는지도 의문이다. 자칫 군사력을 장악하게 될 수도 있는 자리에 과연 위협 세력인 연개소문을 임명하고자 하였을까.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영류왕 14년(631) 당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작해서 16년이 걸려 완공된 고구려의 장성이다. 축성 구역은 북쪽의 부여성에서부터 서남해안의 비사성에까지 이르는 북서쪽의 국경 지대이다. 따라서 연개소문이 그 직을 맡을 경우, 그는 수도인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가게 되어 도리어 정권의 중심부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연개소문을 천리장성 축조의 감독 자리로 발령한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

다. 즉 연개소문을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내보냄으로써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기회를 노려 궁극적으로는 연개소문을 제거하려고 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반대파 귀족들과 영류왕이 결탁함으로써 이러한 모의는 실행에 옮겨졌다.

당시 많은 귀족들이 연개소문을 없애고자 한 까닭은 앞서 연개소문이 아버지의 직위를 이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귀족 가문의 독주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국왕인 영류왕은 왜 이때에 이르러 이들 귀족과 합세하여 연개소문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일까?

물론 영류왕의 입장에서도 다른 귀족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가문의 독주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귀족들 사이에 적절한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서 중재와 조정을 통하여 왕권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가문이 다른 귀족들을 압도할 만큼 성장하고 나면 왕실은 유명무실해지고 자칫 왕위마저 불안해질 수 있다. 이 점에서 영류왕 역시 다른 귀족들과 일차적으로 이해를 같이했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영류왕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보다 절박한 상황, 즉 영류왕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을 만한 요소도 찾아진다. 영류왕의 아우인 태양왕(太陽王)의 존재가 그것이다. 『일본서기』의 기록을 보자.

(고구려) 사신이 물건을 바치고는 “지난해 6월 아우 왕자(弟王子)가 죽고, 가을 9월에 대신 이리가수미(伊梨柯須彌: 연개소문)가 대왕과 이리거세사(伊梨渠世斯) 등 180여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우 왕자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 ……”

『일본서기』 권24 황극천황 원년 2월 정미

『일본서기』는 태양왕이 죽은 직후 연개소문이 난을 일으켰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이어서 연개소문이 정변에 성공한 뒤 아우 왕자 즉 태양왕의 아들을 왕으로 삼았음을 전하고 있어서, 연개소문과 태양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연개소문의 정변 후 왕위에 오른 보장왕은 바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기 3개월 전에 죽은 태양왕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연개소문이 태양왕과 연합하여 영류왕의 왕위를 위협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연개소문을 제거하고자 한 영류왕과 귀족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들의 계획을 사전에 눈치 챈 연개소문이 영류왕 25년(642) 평양성 남쪽 성 밖에서 부(郚)의 군사들을 사열한다는 거짓 명목으로 귀족들을 불러 모은 뒤 정변을 일으킨 것이다. 연개소문은 그 자리에 참석한 1백여 명을 죽이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 영류왕을 죽인 후 영류왕의 아우인

태양왕의 아들 보장왕을 왕으로 세웠다. 그러나 왕은 어디까지나 이름뿐 국정은 막리지(莫離之)인 연개소문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었다. 이로써 고구려 후기 정치사는 형식뿐인 국왕과 연개소문 한 사람이 독주하는 체제로 들어가게 되었다.

2. 연개소문 정권의 성격

1) '막리지' 연개소문

연개소문이 집권하기 이전 고구려의 정치 체제는 귀족 연립 체제였다. 연개소문이 다른 귀족들에 의해서 견제와 제거의 대상이 된 것은 그의 가문이 이러한 체제를 위협할 만큼 큰 세력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연개소문은 귀족 연립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들 귀족 세력과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였다. 국왕마저도 연개소문에 의해서 세워진 상태에서 연개소문 혹은 그 일가에 적수가 되었을 만한 귀족 세력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전의 귀족 연립 체제가 연개소문의 집권과 함께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니었다. 연개소문 집권기에도 고구려의 정치 체제는 귀족 연립 체제를 근본적으로 벗어나지는 못했으며, 귀족 연립 체제라는 틀은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한동안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흔적은 연개소문의 집권 초기 여러 곳에서 엿보인다.

먼저 연개소문은 정변을 통하여 많은 귀족들을 죽이고 집권하였지만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반대파 귀족들의 세력 기반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하였다. 안시성(安市城) 성주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삼국사기』 보장왕 3년 4월의 기록이 그것을 말해준다.

안시성은 지형이 험하고 병사가 날래며 그 성주는 용감하고 재능이 있어 막리지의 난(연개소문의 정변) 때에도 성을 지키고 굴복하지 않아 막리지가 그를 쳤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그에게 성을 주었다.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3년 4월

즉 연개소문은 정변에 반대하는 안시성 성주를 끝까지 굴복시키지 못하고 타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안시성 성주 이외에도 더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반대 세력이 존재하는 한 연개소문으로서도 반대파를 완전히 제거하고 권력 구조를 재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나아가 정변 이후에도 연개소문은 반대파 귀족 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왕실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으며, 자신은 '막리지'가 되어 실권을 행사했을 뿐이었다.

사실 연개소문이 정변 직후 올랐던 막리지라는 지위만큼 초기 연개소문 정권의 성격을 정확하게 대변해주는 것은 없다. 막리지라는 말은 연개소문의 집권과 더불어 사료상 등장하고 있으며, 막리지는 곧 연개소문, 연개소문은 곧 막리지를 연상시킬 만큼 둘의 관계는 긴밀하다. 어떻게 보면 막리지의 실체에 대한 파악은 곧 연개소문 정권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막리지의 실체에 대한 논의는 크게 '막리지=대대로(大對盧)'라는 견해와 '막리지=태대형(太太兄)'이라는 견해로 나뉜다. 막리지를 각각 고구려 최고의 관직인 대대로 혹은 두 번째 관직인 태대형에 비정하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는 것이다. 한동안 막리지는 대대로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막리지를 대대로가 아니라 태대형으로 보는 견해가 보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막리지를 국왕의 근시직(近侍職)으로서 중리제(中裏制)의 최고위직인 중리태대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막리지를 대대로로 볼 것인가, 태대형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일단 연개소문이 정변 직후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가 아닌가를 가늠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현재 보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막리지=태대형' 견해에 설 경우 연개소문은 정변 직후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던 셈이 된다. 자신의 동족인 도수류금류(都須流金流)를 대신(大臣) 즉 대대로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대대로는 고구려의 최고 관직으로 오늘날의 국무총리 격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최고위직인 대대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2위의 관직에 있던 태대형이었다. 태대형은 군사권을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는데, 대대로가 한 사람이었던 데 반해서 태대형은 다수였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평화적으로 때로는 무력을 동원해서 대대로를 선임하였다. 대대로는 여러 명의 태대형 사이에서 교대로 선출되었던 것이다. 막리지는 바로 이 태대형에 비정되는 관직이다.

연개소문이 정변 직후 곧바로 대대로에 오르지 않고 막리지에 머물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무력으로 반대파 세력은 물론 왕까지 죽이고 정권을 잡은 연개소문이 원했

다면 대대로에 취임하지 못했을 까닭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동족인 도수류금류를 대대로로 내세우고 자신은 막리지가 되어 실권을 장악하였다.

물론 형식적으로나마 전체 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연개소문이 곧바로 대대로에 취임하기는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만한 제3의 인물을 내세우고 자신은 내실을 다져가는 편이 훨씬 실질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나아가 여기에는 연개소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개재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안시성 성주와 같이 군사력을 지닌 반대 세력이 여전이 건재한 상황에서 굳이 처음부터 대대로에 취임하는 것과 같은 무리수는 두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 점, 즉 정변 직후 연개소문이 대대로에 취임하지 못하고 막리지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적어도 집권 초기 연개소문 정권은 귀족 연립 체제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막리지 연개소문 아래에서 대대로는 물론 국왕도 단지 무력한 존재였다. 연개소문은 대대로를 그대로 두어 기존의 체제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대대로를 무력화시키고 새롭게 막리지 중심의 정치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그는 점차적으로 정치적·군사적 권한은 물론 국정 전반에 걸친 권력을 막리지에 집중시켜 나갔다.

이렇게 볼 때, 집권 초기 연개소문 정권의 성격은 귀족 연립 체제의 성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으나, 연개소문 개인이 최고의 실권을 가진 권력자로서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점차로 강화시켜 나가는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귀족 연립 체제를 허물고 연개소문 개인과 그 일가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작업이 서서히 진행되었다. 연개소문 집권기에 이루어진 대외 정책과 외교 진흥책도 이러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대외 정책

642년 세력을 잡은 이후 665년(혹은 666) 죽을 때까지 연개소문의 집권 기간 대부분은 당 및 신라와의 전쟁으로 점철되었다. 그만큼 연개소문은 전쟁도 불사하는 대외 강경론자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연개소문이 대당 정책에 있어서 집권 초기부터 강경한 자세를 견지한 것은 아니었다.

집권 직후 연개소문은 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도교를 청하기도 하는 등 당과의 대립을 피해보고자 한 노력이 엿보인다. 또한 보장왕 3년에는 당에 백금(白金)을 보내고 또 관리 50

명을 보내어 숙위케 할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집권 직후의 대당 친선 외교는 당 황실을 통하여 집권을 인정받고 나아가 귀족 세력의 반발을 무마해보고자 한 연개소문의 노력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연개소문은 신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백제의 잦은 침략에 시달리고 있던 신라는 642년 연개소문이 즉위하자 곧 김춘추를 사신으로 보내 고구려에 군사적인 도움을 청하였다. 그 해에 신라는 백제의 대규모 침입으로 대야성을 비롯한 서부 지역의 요충지 40여 개 성이 함락되는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신라로서는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연개소문은 신라가 빼앗아간 죽령 이북의 옛 고구려 땅을 반환해줄 것을 선행 조건으로 내세웠다. 거기에 신라가 응할 리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신라의 제의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연개소문은 왜 김춘추의 제의를 거부하였을까? 신라에 한강 유역의 반환을 협상 조건으로 내세워 성공시킴으로써 집권 초기 불안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고자 했던 것일까? 연개소문이 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고구려의 국운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온 잘못된 판단이 되고 말았다.

연개소문과의 담판에 실패한 김춘추는 당나라로 가서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하여 신라를 취하려 한다면서 원병을 요청하였다. 신라는 고구려와 당 사이의 대립 관계를 교묘하게 활용하여 당과의 관계에서 자기 나라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갔다. 이러한 신라의 노력은 중국 중심의 천하 질서를 유지하려는 당 태종의 욕망과 맞아떨어져 당으로 하여금 고구려를 공격할 명분 찾기에 돌입하게 하였다. 사실 연개소문의 당에 대한 화해책은 이미 서역 경략을 마치고 동쪽의 고구려에 눈을 돌려 고구려를 침략할 구실만을 찾고 있던 당 태종에게 쉽사리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었다.

당과의 전쟁을 피해보려는 연개소문의 노력을 거부하고 신라로서 임금을 죽였다는 이유를 들어 연개소문을 비난하였다. 또한 보장왕 3년(644)에는 사농승(司農丞) 상리현장(相里玄獎)을 고구려에 보내 신라에 대한 전쟁을 중지하라고 요청하면서 다시 신라를 치면 출병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당시 이미 신라를 쳐서 두 성을 격파하고 돌아온 연개소문은 신라가 탈취해간 땅을 돌려주지 않는 한 신라와의 전쟁을 그칠 수 없다고 하면서 당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또 당에서 장엄(蔣儼)을 파견했지만 그를 가두고 위협하였다. 연개소문으로서는 당나라의 침략이 이미 결정되고, 그 침략의 명분이 자신에게 정면으로 맞추어져 있는 이상 당과 전쟁을 불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내 귀족 세력들의 반발도 고려하여야 했다. 이 상황에서 당과 화평 관계를 도모하는 것은 연개소문의 실각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끝까지 당나라에 항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구려와 당 두 나라가 서로 상대방의 사신을 위협하고 별할 만큼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외교적 타협은 결렬되었다. 결국 연개소문 집권기에 이루어진 당과의 전쟁은 당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세력 기반의 약화를 극복하고 국내 세력의 불만을 전쟁을 통하여 해소시키고자 한 독재자 연개소문의 자구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내 정책 - 도교 진흥책 -

연개소문의 대내 정책 가운데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그가 집권한 후 도교를 육성했다는 점이다. 연개소문은 집권 직후인 보장왕 2년(643)에 이렇게 말했다.

“3교(유·불·선)는 술의 발과 같아서 그 중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교와 불교는 모두 성하지만 도교는 그렇지 못하니 천하의 도술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사신을 당에 보내어 도교를 구하여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2년 3월

연개소문은 이처럼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도교를 청하게 하였다. 고구려의 요청에 대하여 당 태종은 숙달(叔達) 등 8명의 도사와 노자의 도덕경 등을 보내주었으며, 보장왕은 크게 기뻐하고 그들을 전국의 사찰에 거주하게 하였다고 한다.

연개소문의 도교 장려는 상대적으로 기존에 큰 세력을 누리던 불교계에 대한 견제와 통하는 것이다. 또한 당시의 불교가 각 귀족 집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불교계에 대한 견제는 곧 귀족들에 대한 통제와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연개소문은 겉으로는 유·불·선의 균등한 발전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도교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불교계를 견제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연개소문은 도교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고 기존의 불교 중심의 사상계를 재편해보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귀족들은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도교는 아직 오두미교(五斗米教) 단계에 머물며 독자적인 사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연개소문은 당으

로부터 체계적으로 도교를 수용하여 분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던 도교를 일원적인 사상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그는 도교를 자신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삼고, 그것을 매개로 지방의 반대 세력들을 통제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이 사상계의 재편을 통하여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연개소문의 도교 정책은 자연스럽게 불교계나 귀족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삼국사기』 개소문전에는 그가 “사찰을 빼앗아 도시들을 거주하게 하였다.”고 나오는데, 당시 도교와 불교의 상반적인 관계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이다. 보장왕 9년(650)에 “나라에서 도교를 받들고 불교를 믿지 않았으므로” 백제로 망명한 보덕(普德)의 예는 당시 고구려 불교계의 입장을 잘 대변해준다고 하겠다.

3. 연개소문 정권의 한계

1) 고구려의 멸망과 연개소문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연개소문은 실패한 정치가요, 그 정권은 실패한 정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의 정권이 곧바로 고구려의 멸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연개소문이 죽은 지 3년(혹은 2년)도 지나지 않은 668년, 고구려는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왜 연개소문이 죽자마자 대국 고구려는 그렇게 쉽게 멸망의 길을 갔던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20년이 넘게 유지되었던 연개소문 독재 정권에서 그 요인을 찾지 않을 수 없다.

고구려가 당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멸망하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귀족 세력들의 분열이다. 그리고 귀족 세력 간의 분열은 기왕의 귀족 연립 체제를 부정하고 모든 정치 권력을 연개소문 일가에만 집중시킨 연개소문의 독재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정변 직후 연개소문은 모든 반대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고위직인 대대로가 아니라 막리지 자리에 올라 실권을 행사했고, 명목적으로나마 대대로 - 막리지 체제, 즉 귀족 연립 체제를 유지시켰다. 그러나 그는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나갔고, 점차적으로 모든 권한은 연개소문 일가에 집중되었다.

연개소문의 아들인 남생·남건·남산 등은 보장왕 10년 이후 대형(大兄)·위두대형(位頭大

문) 따위를 역임하면서 연개소문의 핵심적인 세력 기반을 이루었다. 그들은 제7위에 불과한 대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미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 자체가 연개소문가의 사적 권력 기반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드디어 연개소문은 집권한 지 20년 만인 661년에 아들 남생을 태막리지(太莫離支)에 임명하고 자신은 태대대로(太對盧)에 올랐다. 태대대로나 태막리지는 연개소문이 자신의 집권을 영속화시키기 위하여 신설한 일종의 초월적 지위의 종신직으로 보인다. 연개소문이 귀족 회의체의 장이자 귀족의 대표자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태대대로로 자리를 옮긴 것은 이제 반대 세력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의 권력 기반이 안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이름뿐으로나마 유지되던 귀족 연립 체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연개소문 한 사람과 그 일가에만 권력이 집중되는 독재 체제가 성립되었다. 당과의 전쟁을 주도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연개소문에 도전할 만한 귀족 세력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권력 집중은 그 핵심에 있는 연개소문이 건재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의 신변에 문제가 있게 되면 곧바로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연개소문 사후에 그것은 현실로 나타났다.

연개소문이 죽은 뒤 고구려의 귀족들은 연개소문의 아들들 사이의 권력 다툼과 당과의 전쟁 과정에서 급속히 분열하였다. 연개소문의 독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귀족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자생적인 통로는 사라지고 귀족 세력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갔다. 급기야 연개소문의 큰아들 남생이 동생 남산·남건에게 쫓기면서 국내성의 귀족 세력들과 함께 국내성 등 6개 성과 10만여 호를 이끌고 당에 투항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후 서북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신성 등 16개 성과 부여성을 비롯한 40여 개 성이 차례로 당나라 군대에 항복하였다.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는 12개 성을 이끌고 신라로 투항하였다.

이러한 귀족 세력의 이탈은 고구려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국내성·신성·부여성 등 서북방의 주요 거점들을 차례로 상실함에 따라 고구려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을 잃고 말았다. 거듭되는 대외적 위기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고구려 귀족 세력의 분열과 이탈은 결국 고구려의 멸망을 불러오고야 만 것이다. 고구려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연개소문 사후의 내부 분열과 갈등은 독재를 지향한 연개소문 정권의 근본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2)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

연개소문에 대해서는 항상 상반된 평가가 뒤따른다. 당과의 전쟁을 성공으로 이끈 영웅이라든지 아니면 고구려를 멸망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라는 평가가 그것이다. 이 중에 과연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잃어버린 고구려사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연개소문에 대한 원망이 커지며, 반대로 그것이 중국과의 자존심 문제로 되고 보면 연개소문을 치켜세우고 싶어진다.

역사적으로도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는 각 시대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달랐다. 먼저 『삼국사기』로부터 조선 후기의 『동사강목(東史綱目)』에 이르기까지 중세기의 사서에서 보이는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는 부정 일반도였다. 그는 임금을 죽이고 중국에 대항하여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 포악한 ‘난신적자(亂臣賊子)’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충(忠)’과 ‘사대(事大)’라는 관점에서 연개소문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후 근대적 민족주의가 새로운 시대적 이념으로 제기되고, 특히 국권을 상실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독립을 쟁취하는 방안으로 반외세 반봉건의 민족 혁명이 시대적 과제로 높이 받들어지게 되면서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의 충과 사대의 논리는 의미를 잃고, ‘민족’과 ‘자주’가 새로운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 20세기 전반 주요 민족주의 역사가들의 인식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먼저, 박은식은 연개소문을 독립·자주의 정신과 대외 경쟁의 담략을 지닌 우리 역사상 제1인자라고 크게 칭송하였다. 연개소문이 현실을 무시하고 추진한 대당 강경책이 결국 고구려의 멸망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도 그는 나름대로 해명을 내놓았다. 즉 고구려가 망한 것은 연개소문이 죽은 뒤 그 아들들 사이의 골육상쟁과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이는 행위 즉 내분과 반역 행위에 있었을 뿐, 만약 그들이 연개소문처럼 줄곧 독립·자주의 정신을 굳게 지켰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인 신채호와 문일평도 박은식과 같은 시각을 보여 주었다. 특히 그들은 연개소문의 정변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그것을 혁명이라고까지 평가하였다. 연개소문이 왕을 죽이는 등의 살육을 한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그는 위대한 반역아·혁명아였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연개소문은 진부한 충의 논리나 사대를 거부한 ‘천고영결(千古英傑)’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이 근대에 들어서면서 박은식, 신채호, 문일평 등과 같은 민족주의 역사가들이 그

동안 '난신적자'로 취급되던 연개소문을 당 태종 이세민과 천하의 패권을 두고 자웅을 겨루었던 빼어난 담력과 지략을 갖춘 '천고영걸'로까지 찬양하게 된 것은 확실히 큰 변화이다. 민족과 자주라는 관점에서 연개소문이 당에 대하여 취한 자주적인 자세는 그의 쿠데타 행위 까지도 신선하게 재인식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견해가 줄곧 지속되고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에서 주류를 이루어온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광복 후 신민족주의 사가인 손진태는 연개소문을 덕망이 없고 오만한 무단적인 인물로 다시 폄하하였다. 연개소문의 독재적인 폭압 정치와 사치로 인해서 백성들은 고통을 겪어야 했고, 타협과 융통성을 결여한 그의 경직된 대외 정책은 나라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는 한결같지 않다. 그러나 어느 편에 서더라도 연개소문은 역사상 완전한 영웅으로 대접받기 어려운 원죄를 지니고 있다. 그의 집권을 끝으로 우리 민족은 고구려라는 나라를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재 정권 유지에 대한 집착과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우리 민족사상 고구려라는 대제국을 사라지게 한 장본인이었다는 비난의 꼬리표를 연개소문이 완전히 떼어내기란 한동안 쉽지 않을 듯하다.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Ⅲ 국제 질서의 변동과 수·당과의 전쟁

임기환

1. 고구려와 수의 전쟁

1) 수의 등장과 국제 정세의 변동

5세기 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중국의 북위(北魏)와 남조(南朝), 북아시아 초원 지대의 유연(柔然) 및 서역의 토욕혼(吐谷渾), 동방의 고구려를 중심축으로 이들 국가 사이의 역관계에 의해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 질서를 배경으로 고구려·백제·신라 및 말갈(靺鞨)·거란(契丹) 등 여러 세력이 포진하고 있었던 동북아시아에는 북방과 중원 세력의 영향과 침투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서 고구려 중심의 세력권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6세기 중반부터 이들 5세기 이래 국제 질서 운영의 주인공들이 퇴진하는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가장 강력한 세력을 떨치던 북위가 분열되더니(534년), 이어서 북제(北齊, 550년)와 북주(北周, 557년)로 나뉘어 성립하였다. 남조에서는 양(梁)에서 진(陳)으로의 왕조 교체가 일어났으며(556년), 초원 유목 세계의 경우에는 유연이 쇠퇴하고 그 아래에 복속되어 있던 돌궐(突厥)이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는 세력 교체가 이루어졌다(552년). 고구려의 세력권 내에서도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551년), 뒤이어 신라가 한강 유역을 독자 지하면서 삼국 간 역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처럼 국제 질서가 전반적으로 변동하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세력 질서의 변화가 이어졌다. 575년에 북주가 북제를 정복하면서 다시 북중국을 통일하였는데, 곧이어 북주 내부에서 정권 교체가 이어졌다. 581년에 양견(楊堅)이 북주 정권을 탈취하여 국호를 수(隋)로 고치고 장안(長安)에 도읍을 정하였던 것이다. 그가 유명한 수 문제(隋文帝)이다.

수 문제는 즉위한 후 인심을 수습하기 위해 부역을 경감하고 법령을 간소화하였으며 여러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수의 국력은 급속히 강해졌으며, 이는 곧바로 대외적인 팽창으로 이어졌다. 588년 수 문제는 50만여 명의 대군을 출동시켜, 이듬해에 진(陳)을 정복하여 중국을 통일하였다. 수에 의한 진의 병합은 당시의 국제 질서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왜냐하면 가장 강성한 중국 세력이 통일되어 그 힘이 외부로 뻗어나갈 경우, 지금까지의 다원적인 국제 질서는 변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 건국 초기에 한때 수와 충돌했던 토욕혼은 진의 멸망 소식을 접하자, 먼 지역으로 중심지를 옮기고 조공을 바치면서 수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609년 수 양제에 의해 정복되고 말았다.

중국의 가장 큰 적인 돌궐도 수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돌궐은 등장 후 북주와 북제의 대립·상쟁을 이용하여 급속히 세력을 키워갔으나, 수의 등장으로 사정이 달라졌다. 581년에 수는 북방에 장성을 축조하여 돌궐의 침입에 대비하였고, 수의 예우에 분노한 돌궐의 사발락가한(沙鉢略可汗)은 582·583년에 거듭 수를 침공하였으나 격퇴되고 말았다. 오히려 수는 돌궐의 내분을 이용하여 이간책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585년에는 동돌궐과 서돌궐로 분열되었고, 이 기회를 틈탄 수의 공격이 계속되자 돌궐은 결국 수에 신하를 칭하고 조공을 바치는 지경이 되었다. 599년에는 서돌궐에 쫓긴 동돌궐의 계민가한(啓民可汗)이 수에 내항하였으며, 양제는 동돌궐에 대한 대규모 정벌을 시도하여 내몽고 사막으로 내쫓고 잔여 세력을 복속시켰다.

한반도의 삼국도 수의 등장과 중국의 통일에 곧바로 반응하였다. 백제는 581년에 수가 건국되자마자 곧 사신을 파견하여 수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 신라 역시 594년에 수와 교섭하고 611년에 고구려 정벌을 청하는 걸사표(乞師表)를 수에 보내는 등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수와의 교섭에 적극적이었다. 이처럼 백제·신라가 수와 연결됨으로써 삼국 간의 상쟁에 중국 세력이 침투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졌다. 물론 수 대에는 이러한 현상이 표면화하지는 않았다. 백제와 신라가 수나라와의 교섭에 적극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수는 백제나 신라를 대고 구려 정책을 이용하려는 외교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고구려는 북제·북주 때부터 서변에서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어 가자 중국 세력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수가 건국되자 새로 등장한 수와 우호 관계를 맺는 한편 남조인 진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수에 대한 외교적 견제를 꾀하였다. 그런데 589년에 수가 진을 병합하자 큰 충격을 받은 고구려는 수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대비책을 강구해갔다. 안으로 군사를 모으고 군량을 비축하는 한편, 중국인 무기 기술자를 몰래 데려와 병기를 수리하였으며, 고구려를 정탐하기 위해 파견된 수의 사신을 공관에 가두고, 또 몰래 사신을 파견하여 수의 정세를 탐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고구려의 동향을 눈치 챈 수 문제는 590년에 고구려에 경고성 국서(國書)를 보냈다.

짐이 천명(天命)을 받아 온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매, 왕에게 바다 한구석을 맡겨서 조정의 교화를 선양하여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저마다의 뜻을 이루게 하였소. 왕은 해마다 사신을 보내와 조공을 바치며 번부(藩附)라고 일컫기는 하나 정성을 다하지 않고 있소. 왕이 남의 신하가 되었으면 모름지기 짐과 덕을 같이 베풀어야 할 터인데도, 오히려 말갈을 몰아치고 거란을 완강하게 막았소. 여러 번국(藩國)이 머리를 조아려 나에게 신첩(臣妾) 노릇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다고 것처럼 착한 사람이 의리를 사모하는 것을 분개하여 끝까지 방해하오.[...]왕은 요수(遼水)의 폭이 장강(長江: 양쯔 강)과 비교하여 어떠하며, 고려의 사람 수가 진(陳)나라와 비교하여 어떠하다고 보고 있소. 짐이 만약 포용하여 길러주려는 생각을 버리고 왕의 지난날의 허물을 문책한다면, 한 명의 장수로도 족할 것인데, 무슨 많은 힘이 필요하겠소. 간절히 깨우치어 개과천선할 기회를 허락하노니, 반드시 짐의 뜻을 알아서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기를 바라오.

위에서 보듯이 이 국서의 내용은 고구려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수가 위협적인 자세로 나오자 일단 고구려는 591년에 영양왕의 책봉에 대한 사은의 사절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하여 수와의 교섭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현상일 뿐, 그 내면에서는 충돌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었다.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이 598년 고구려의 요서 공격이었다.

당시 고구려 영양왕(590~618년)은 친히 1만의 말갈병을 이끌고 요서를 공격하였다. 왜 말갈병을 동원하였으며, 공격의 목표도 요서 지역이었는가? 이는 당시 동북아시아의 화약고 가 바로 요서 지역이며, 그곳에 살고 있던 거란·말갈족에 대한 지배권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쟁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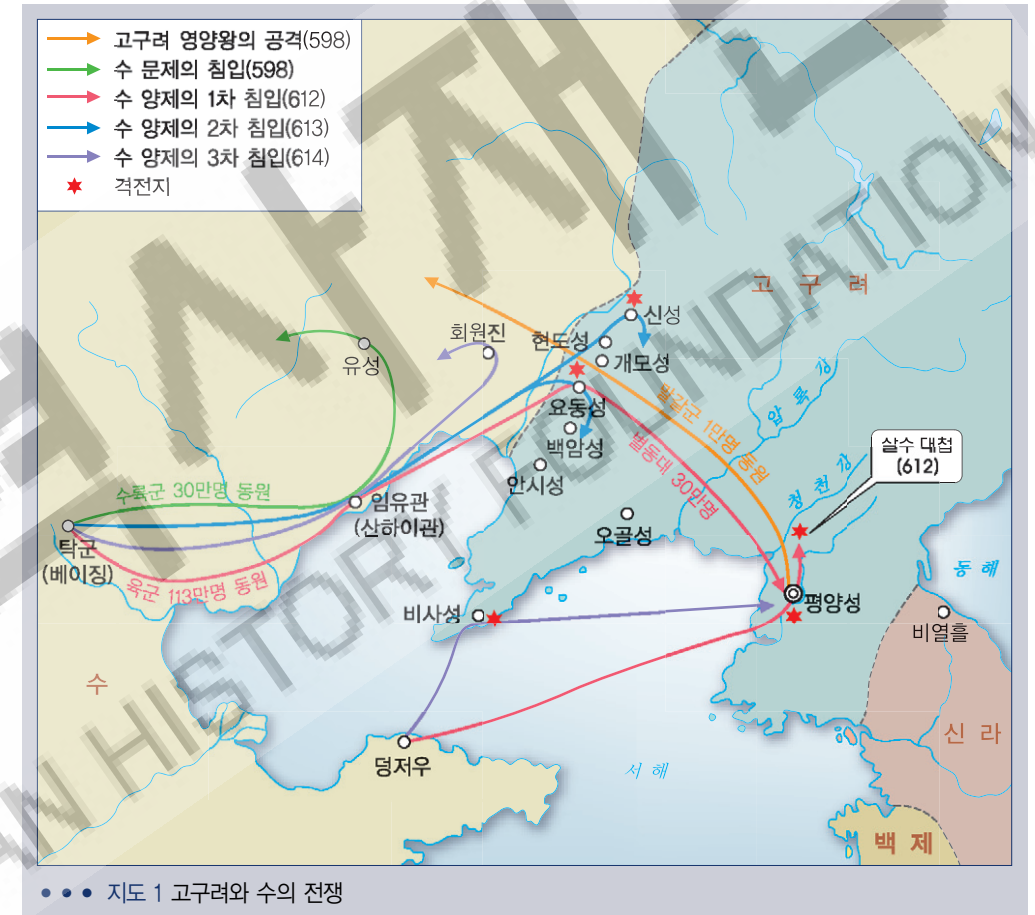
그런데 이런 갈등의 요소는 이미 6세기 중엽부터 싹트고 있었다. 당시 요해(遼海) 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고구려와 돌궐이 각축을 벌이고 있을 때, 수도 서서히 이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해왔다. 특히 중국을 통일한 후 수의 영향력이 증대되어가면서 고구려와 돌궐 아래에 있던 일부 말갈족과 거란족이 수로 귀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586년 거란족의 일부가 고구려를 등지고 수에 귀부하였으며, 584~586년경에는 고구려의 지배를 받고 있던 속말갈(粟末靺鞨)의 돌지계(突地稽) 집단이 수로 귀부해갔다. 593년에는 거란·해(奚)·습(霫)·실위(室韋) 등이 수에 사신을 보내는 등 요해 지역에서 수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 갔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와 수 사이에 충돌이 잦아진 듯하다. 앞에 인용한 590년 수 문제의 국서에서 “말갈을 몰아치고 거란을 완강하게 막았다(靺鞨驅逼契丹固禁)”라고 비난하고 있듯이, 수는 이 지역의 거란·말갈족에 대한 고구려의 세력 침투를 경계하고 있었다. 이처럼 거란·말갈에 대한 지배권 다툼이 계속되면서 고구려와 수 사이에는 소규모 군사 충돌이 거듭되었다. 영양왕의 요서 출격이 있기 전 해에도 이미 양국 사이에는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598년 고구려의 요서 공격은 이러한 충돌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특히 영양왕은 요서 공격 시에 말갈군을 내세웠는데, 이때의 말갈은 돌지계의 이탈 이후 고구려에 복속한 속말갈 갈임에 틀림없다. 이 전투는 그동안 말갈과 거란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양국 간의 쟁탈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후에도 고구려는 요해 지역으로의 세력 확대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605년에 거란이 요서의 중심지인 영주(營州)를 침공하자 수는 돌궐군을 동원하여 거란을 제압하였다. 이 사건은 거란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 강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요해 지역에 대한 주도권 다툼의 결과였다.

2) 고구려와 수의 전쟁

고구려의 요서 공격은 수를 크게 자극하였다. 중국을 통일하고 돌궐마저 복속시킨 수 문제는 명실공히 중원의 지배자로서 황제의 권위를 내세우며 중화(中華) 중심의 천하관을 표방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 고구려가 보여주었던 강경한 자세와 요서 공격은 이러한 수의 자존심에 손상을 주었다.

분노한 수 문제는 수륙 30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 정벌에 나섰다. 그러나 그의 네째 아들인 한왕 양량(楊諒)이 거느린 육군은 임유관(臨渝關)을 나와 요동으로 진격하다가 홍수를 만나 군량 보급이 끊기게 되어 군사들이 굶주리고 질병이 나돌아 많은 군사들을 잃는 타격을



••• 지도 1 고구려와 수의 전쟁

입었다. 또 주라후(周羅侯)가 거느린 수군도 평양을 향하다가 풍랑을 만나 많은 병선이 침몰하여 군사를 되돌리게 되었다. 결국 수의 1차 고구려 정벌은 고구려 영내를 밟아 보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수의 조정에는 다시 고구려 정벌을 주장하는 군신들이 있었으나, 애초부터 고구려의 국력이 만만치 않음을 두려워했던 유현(劉炫) 등의 반대로 중지되었으며, 양국의 관계는 다시 소강 상태로 들어갔다.

수의 1차 침입을 받은 고구려는 현실적으로 부각된 수의 위협을 깨닫게 되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해갔는데, 그 하나가 다양한 외교 전략이었다. 먼저 고구려는 왜와의 외교 관계에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고구려의 대왜 교섭은 570년대에 처음 시작되어, 영양왕 때에는 왜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두드러지게 활발해졌다. 특히 성덕태자의 스승이었던 고구려승 혜자(慧慈)는 595년부터 20년 간 왜에서 활동하면서 고구려의 대왜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고구려의 대외 교섭의 결과, 607년에는 왜 왕이 천자(天子)를 자칭하여 수 양제를 자극하였던 왜의 국서(國書)가 수에 보내지게 되었다. 이 국서 사건은 왜를 통하여 수의 동향을 떠보려고 하였던 고구려의 외교 전략이었다.

고구려는 북방의 돌궐과도 제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607년 8월에 북방의 이민족에게 세를 과시하고 그들의 복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 양제는 낙양으로부터 멀리 북쪽으로 1,500리나 떨어진 유림(榆林)으로 순행한 후 돌궐의 계민가한(啓民可汗)의 장막을 찾아갔다. 그런데 이때 고구려의 사신이 돌궐에 와있다가 그만 수 양제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복속을 맹세한 돌궐의 땅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던 고구려의 사신과 마주친 수 양제와 군신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이때 수 양제는 고구려 왕의 입조를 요구하면서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고구려를 정벌하겠다고 고구려 사신을 위협하였다. 더욱이 이 해 말에 다시 왜의 국서가 수에 보내짐으로써 고구려의 대수 정책에 의구심을 가진 수는 고구려 정벌을 서두르게 되었다. 특히 돌궐과의 연결을 꾀하는 고구려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가장 위협적 존재인 돌궐이 언제 다시 이탈해갈지도 모를 상황이었다. 그것이 수로서는 무엇보다 두려운 일이었다.

수 양제는 610년부터 고구려 정벌 준비를 시작하여 이듬해 2월에는 전국에 동원령을 내렸다. 고구려의 공격에 시달리던 신라가 걸사표를 보낸 것도 이때였다. 정벌 준비를 마친 수 양제는 612년 1월에 장문의 조서를 내리고 고구려 정벌을 개시하였다. 당시 고구려 정벌에 동원되었던 수나라의 군세는 24군으로서 총수는 113만 3,800명이었으며, 군량과 물자 수송을 맡은 부대만도 그 2배가 되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대군이었다. 이 엄청난 대군이 차례로 출발하는 데만도 40일이 걸렸다고 한다.

2월에 랴오허 강(遼河)에 다다른 수나라군은 부교를 가설하여 강을 건너려 하였으나, 고구려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첫 전투부터 맥철장·전사웅 등 장수가 전사하는 패배를 당하였다. 계속되는 수의 공세에 마침내 고구려군의 저항선도 무너지고 말았으며, 수나라군은 랴오허 강을 건너 요동성을 포위하였다. 요동성의 고구려군은 수의 대군과 직접 맞서 싸우는 것이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성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5월이 다 지나도록 요동성이 함락되지 않자, 양제가 직접 요동성에 이르러 군사를 독려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요동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초조해진 양제는 우문술(宇文述)과 우중문(宇文弼)에게 30만 5,000명의 별동대를 주어 평양성을 직접 공격케 하였다.

한편 내호아(來護兒)·주법상(周法尚)이 이끄는 수군(水軍)은 황해를 건너 대동강 입구에 이르러 고구려군과 마주쳤다. 수군의 임무는 평양을 직공하는 육군에게 군량과 무기 등을 보급하

는 것이었다. 그러나 첫 전투에서 승리한 내호아는 단독으로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을 들이쳤다. 당시 평양성의 수비 책임을 맡은 영양왕의 동생 건무(建武)는 복병으로 적을 공격하여 대파하였다. 이때의 패전으로 수군은 육군에게 보급할 많은 물자를 잃었으며, 얼마 뒤 평양성에 도착한 별동대가 군량과 무기의 부족으로 변변히 싸우지도 못하고 후퇴하게 된 요인도 여기에 있었다.

한편 우중문·우문술이 이끄는 수의 별동대는 요동성을 우회하여 압록강에 이르렀다. 별동대의 모든 군사가 각기 100일분의 식량과 무기를 갖고 출발하였으나, 과중한 무게를 견디지 못해 도중에 군량을 몰래 버렸기 때문에 압록강에 이르러서는 이미 군량이 거의 떨어진 상태였다. 당시 고구려는 모든 주민과 식량 등을 성 안으로 대피시키는 전통적인 청야(淸野) 전술을 썼기 때문에 수나라군의 어려움은 더욱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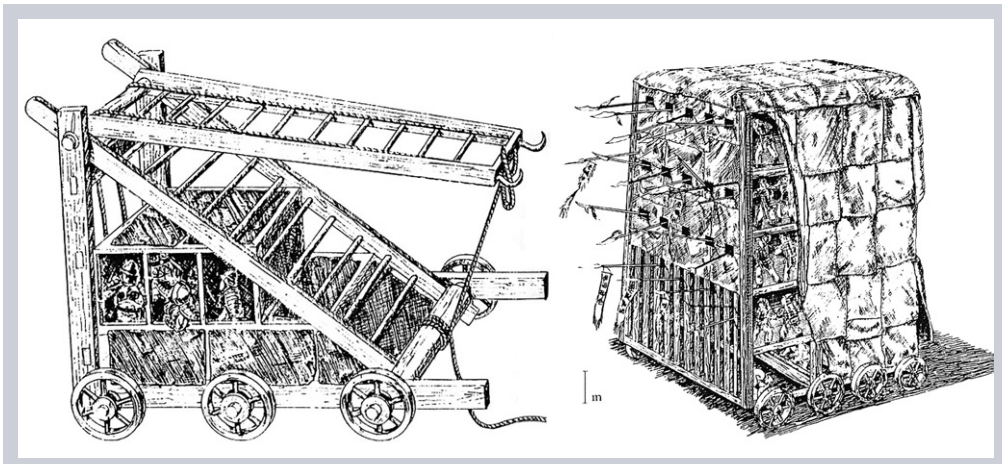
고구려의 총사령관인 을지문덕(乙支文德)은 수나라군의 허실을 정탐하고, 최대한 수나라 군사를 피로케 하기 위하여 하루에 7번 싸워 7번 모두 패주하면서 적을 고구려 영내로 깊숙이 끌어들었다. 매번 승리한 수나라군은 을지문덕의 계략대로 살수(薩水)를 건너 평양성에서 30리 떨어진 곳까지 유인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행군으로 군사들은 지치고 군량은 떨어진데다가, 보급 물자를 대줄 수군마저 진작 패퇴하고 물러선 상황이라 수의 별동대는 감히 평양성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이때 을지문덕은 적을 희롱하는 유명한 오언시(五言詩)를 지어 수나라군의 진중으로 보내는 여유를 보였다.¹⁾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수나라군은 고구려의 거짓 항복을 구실 삼아 후퇴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기회를 엿보던 고구려군이 사방에서 공격하자 금새 진영이 무너졌다. 살수에 이르자 고구려군은 대공세를 퍼부어 수의 장수 신세웅을 전사시키는 등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때 압록강을 건너 살아 돌아간 수의 군사는 2,700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전한다. 이것이 유명한 살수대첩이다.

우중문의 패전 소식을 듣고 바다에서 병선을 거느리고 있던 내호아도 퇴각하였고, 더 이상 싸울 의욕을 잃은 수 양제는 패전의 책임을 물어 우문술을 쇠사슬로 묶어 가지고 물러나고

1) 오언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고	神策究天文
기묘한 방략은 지리를 통달하였소.	妙算窮地理
싸워서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戰勝功既高
족함을 알거든 그치기를 바라노라.	之足願云止



• • • 그림 1 공성무기인 윤제(왼쪽)와 비루당(오른쪽)

말았다. 백만이 넘는 대군을 동원한 이 정벌에서 수가 얻은 것이라곤 고구려의 전초 기지였던 무려라(武勵羅) 지역을 빼앗아 요동군과 통정진을 설치한 데 불과하였다. 하지만 고구려로서도 돌궐과의 연결이나 요서로의 진출로를 차단당하는 타격을 입었다.

1차 정벌에 실패한 수 양제는 여전히 고구려 정벌의 뜻을 버리지 못하고 재차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였다. 이듬해인 613년 4월에 양제는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랴오허 강을 건너 재차 고구려 정벌을 시도하였다. 우문술에게 평양성, 왕인공(王仁恭)에게 신성(新城)을 공격케 하고는, 양제 자신은 1차 정벌 때 수나라군의 진격을 가로 막았던 요동성을 직접 공격하였다.

이번에도 고구려군은 성을 굳게 지키고 청야 전술로 수의 대군에 맞섰다. 하지만 수나라 군대도 각종 공성 도구를 동원하였다. 성을 공격하는 누각인 비루당(飛樓障)· 높은 사다다리인 윤제(雲梯)· 성벽을 공격하는 충차(衝車) 등 최신 공성 무기들로 요동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고구려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요동성은 20여 일이 지나도 함락되지 않았다. 수군은 최후의 수단으로 백만여 개의 포낭에 흙을 담아 성과 같은 높이로 나란히 독을 쌓아 그 위에서 공격하고, 한편으로 성보다 훨씬 높은 8층의 수레를 만들어 성 안을 내려다보면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수군의 총공격 앞에 요동성도 함락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때마침 수군의 후방 여양(黎陽)에서 군량 수송의 책임을 맡고 있던 예부상서 양현감(楊玄感)이 반란을 일으키고, 많은 고관 자제들이 이에 호응한다는 급보가 날아들었다. 사

실 지난 수 양제의 1차 정벌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수의 국내 사정은 심상치 않았다. 대규모 토목 공사와 대외 정벌이 거듭되면서 수의 농민은 피폐해졌다. 1차 정벌 때에는 전국에 있는 수백만 농민이 징집되어 병역과 요역에 충당되었고, 민간의 수레나 소·말 등도 대부분 징발되었다. “출정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은 본업을 잃었다.”는 기록처럼 농촌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전답이 황폐해지고 농민 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졌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마침내 수의 농민들은 각지에서 봉기하였다. 2차 정벌 시에는 농민 봉기군도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고, 군현을 점령할 정도로 세력이 커졌다. 각지에서 농민들이 봉기하는 것을 본 양현감은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켜 수의 동도(東都) 낙양(洛陽)을 공격하였다. 이처럼 본국의 사정이 급박하게 되자 요동성 함락을 눈앞에 둔 수 양제도 군사를 돌이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본국으로 회군하여 양현감의 반란을 진압한 수 양제는 또다시 고구려 정벌을 꾀하였다.

614년, 수 양제는 다시 전국의 군사를 소집하여 고구려 정벌에 나섰다. 그러나 2차레나 요동성 공격에 실패한 수 양제는 선불리 진격하지 못하고 회원진(懷遠鎮)에 머물러 있었다. 단지 내호아가 거느린 수군이 비사성(卑奢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을 뿐이었다. 그런데 당시 고구려도 거둬드는 수와의 전쟁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영양왕의 입조를 조건으로 강화를 청하는 유화책을 취하였다. 수 양제 역시 고구려 정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고구려의 항복을 받아들여 군사를 돌이켰다.

사실 당시 수는 고구려 정벌을 감행할 입장이 아니었다. 전국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확산되고 있었으며, 군대에 동원된 병사들도 상당수가 도망하여 농민 봉기군에 가담하는 실정이라 수나라군의 전투력은 크게 저하되어 있었다. 수 양제가 요동으로 진격하지 못하고 회원진에 머물렀던 것도 이러한 심각한 국내 사정과 관련이 있었다. 고구려의 화평책을 받아들인 수 양제는 고구려 정벌을 위해 동원한 군대를 돌려 국내의 농민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나 농민 봉기군은 끊임없이 증가하였고, 서로 연합하여 대세력을 형성하였다. 더욱이 각지의 귀족·호족들이 할거하여 군웅을 자처하면서 수왕조의 통제력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617년, 강도(江都)에 머물고 있던 수 양제는 친위군의 쿠데타에 의해 살해됐고, 수왕조는 40년이 채 못 되어 멸망하고 말았다.

고구려와 수의 전쟁은 고구려와 중원 세력 사이에 벌어진 최초의 본격적인 충돌이었다. 그렇기에 양국 사이에는 천하관(天下觀)을 비롯한 명분론이 전쟁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 수는 중국을 통일한 세력으로서 자기 중심의 천하 질서를 실현하고자 하였고, 고구려 역시 5세기 이래 자신의 독자적 세력권과 천하관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전쟁의 당사자는 고구려와 수에 한정되었고, 더 이상 다른 국가나 종족으로 확산되지 않았기에, 동아시아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려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후 고구려와 당 사이에 벌어진 전쟁과 비교된다.

아울러 수가 주변의 강국인 돌궐과 토욕혼을 복속시키고, 고구려에 대한 지속적인 공벌을 한 결과 이들 국가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주변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그만큼 동아시아 국제 질서 변동의 요인이 다양화하는 양상을 띠었다.

2. 고구려와 당의 전쟁

1) 당의 등장과 국제 정세의 변동

수 왕조 말기에 각지에서 일어난 농민군의 봉기로 수의 지배 체제가 붕괴되어가자, 이에 편승하여 각지의 관료 세력이 수의 정권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당(唐) 왕조를 세운 이연(李淵)도 그 중의 하나였다. 그는 태원(太原)으로부터 남하하여 황허 강(黃河)을 건너 삼시간에 장안(長安)을 함락시키고 웨이수이 강(渭水) 유역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618년에 수 양제가 피살되자 스스로 제위에 올라 당 왕조를 세우니, 그가 당 고조(高祖)이다.

새로 건국된 당 왕조 앞에 놓여 있던 과제는 농민 봉기로 표출된 민심을 수습하고, 각지에서 일어난 지방 할거 세력을 통일하여 무너졌던 지배 체제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내란을 틈타 다시 세력이 강성해진 돌궐도 견제해야 하였다. 당시 화북의 많은 지방 세력은 돌궐에 신하를 칭하고 돌궐의 봉호를 받들고 있었다. 이연도 예외는 아니어서 당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돌궐에 대해 스스로 신하를 칭하고, “만일 장안에 입성하게 되면 토지와 백성은 당에 돌리고, 금·옥·비단은 돌궐에 돌리겠다.”고 공언하던 실정이었다.

따라서 당이 지방 세력을 진압하여 중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돌궐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626년 당 태종의 즉위 초에는 힐리가한(頡利可汗)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장안 부근

의 웨이수이 강까지 진입하여 당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는 수 왕조 때에 구축되었던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해체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당과 고구려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당시 당의 대고구려 정책은 수의 강경책과는 달리 온건 화평책으로 바뀌고 있었다. 돌궐과의 대결이 급박하였던 당으로서는 고구려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 주력하였고, 고구려의 독자적 세력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구당서(舊唐書)』 고려전에 전하는 당 고조의 다음과 같은 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명분과 실제 사이에는 모름지기 이치가 서로 부응하여야 되는 법이다. 고구려가 수나라에 칭신하였으나 결국 양제(楊帝)에게 거역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신하이겠는가. 내가 만물의 공경을 받고 있으나 교만하지는 않겠다. 다만 모든 사람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힘쓸 뿐이지, 어찌 신하를 칭하도록 하여 스스로 존대함을 자처하겠는가?”

고구려 역시 당의 건국 직후인 619년에 곧바로 사신을 파견하는 등 온건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국은 평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622년에 고구려와 수는 전쟁 때 서로 사로잡은 포로들을 교환하고, 624년에는 고구려가 당에 책력의 반포를 청하였고, 이에 당도 영류왕(618~642년)을 책봉하는 한편 도사(道士)를 보내어 고구려에 도교를 전하고 노자의 『도덕경』을 강론케 하였다. 이렇듯 양국은 보다 진전된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628년에 당이 중국을 재통일하자,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당시 돌궐은 심각한 내분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당은 이를 놓치지 않고 629년에 동돌궐에 대한 대규모 정벌을 시도하였다. 내분에 스스로 지쳐버린 동돌궐은 제대로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대패하였고, 이듬해에는 힐리가한이 당에 포로가 됨으로써 동돌궐은 사실상 와해되고 말았다. 이때 돌궐을 비롯한 여러 종족의 군장들은 당 태종에게 돌궐의 최고 군주인 ‘천가한(天可汗)’의 칭호를 올림으로써 당에 순종할 것을 맹세하였다. 당 태종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황제천가한’이라 칭하여 명실공히 중원과 막북(漠北: 고비사막 북쪽, 현재의 외몽골 지방)의 최고 군주임을 자처하였고, 남북 몽고와 만주 일대의 북방 민족들을 도독부(都督府)와 자사부(刺史府)로 편입시켜 소위 ‘기미 체제(羈縻體制)’를 건설하였다.

북방의 최대 적대 세력인 돌궐을 굴복시킨 당은 고구려에 대해 서서히 강공책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631년에 당은 고구려가 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세운 경관(京觀)을 파

괴하였다. 이는 고구려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고구려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부여성에서 랴오허 강을 따라 보하이 만(渤海灣)까지 이어지는 천리장성을 16년 간에 걸쳐 축조하였으며, 당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게다가 당이 서방으로 정벌의 발길을 돌려 635년에 토욕혼을 정복하고 640년에는 고창국(高昌國)을 멸망시키자, 고구려는 더욱 큰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

중원과 막북을 통합하고 서역마저 복속시킨 당은 관념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실적 차원에서도 중화 중심의 천하 질서를 실현하게 되었다. 이제 당은 동방 지역마저 자국 중심의 천하 질서 속에 편입시키려 하였으며, 당 고조 때와는 달리 고구려의 독자적 세력권을 인정치 않았다.

한편 고구려의 국내 정세도 변동하고 있었다. 영류왕 때에는 대당 유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630년에 당이 돌궐을 격파한 시점에서는 고구려와 당 사이에 서서히 긴장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640년에 고구려는 그동안의 소원한 관계를 청산하고 태자 환권(桓權)을 당에 사절로 파견하였으며, 아울러 귀족들의 자제를 보내어 국학(國學)에 입학할 것을 청하는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640년에 고창국을 정복한 당은 고구려 정벌에 앞서 우선 고구려의 내정을 탐지할 목적으로 환권의 조공에 대한 답례를 핑계로 진대덕(陳大德)을 파견하여 고구려의 지리를 조사하게 하는 등 정벌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당으로부터의 대외적 위협이 고조되어가는 가운데 642년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과 1백여 명의 대신을 살해하고 보장왕(642~668년)을 세워 정권을 장악하였다. 물론 연개소문은 당나라에 대해 유화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호시탐탐 고구려를 넘보며 천하를 통합할 야욕을 갖고 있던 당 태종은 이러한 유화책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왕을 죽이고 권력을 독단하는 연개소문을 빌미로 고구려 침공의 명분을 합리화하였다. 이는 644년 10월에 내린 태종의 조칙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고려의 막리지 연개소문은 그 임금을 시해하고 그 신하를 혹독하게 해치고 변방에서 불과 전갈처럼 방자하게 구니, 짐은 군신의 의리로써 감정상 어찌 참을 수 있겠는가? 만약 먼 곳의 거친 잡초를 죽이고 베지 않으면 어찌 중화를 깨끗이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처럼 당이 내세운 정벌의 명분이 연개소문의 패륜성에 맞추어져 있는 이상 연개소문도 대당 강경책으로 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고구려와 당의 전쟁은 시간 문제였다.

한편 연개소문은 신라에 대해 강경한 대외 정책을 취하였다. 연개소문이 집권하던 642년 겨울에 신라의 김춘추는 외교적 담판을 위해 고구려를 방문하였다. 당시 신라는 백제의 공격

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특히 이 해에는 백제의 대규모 침입으로 대야성(大耶城)을 비롯한 서부 지역의 요충지 40여 성이 함락되는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김춘추는 양국 간 상쟁의 중단과 원병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연개소문은 죽령 이북의 옛 고구려 땅을 돌려줄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으니, 이는 결국 신라의 제의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고구려와의 우호 관계 수립에 실패한 신라는 최후로 당과의 동맹에 국운을 걸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국제 정세로 볼 때 당과의 전쟁을 앞두고 배후의 신라를 적대 세력으로 돌린 것은 연개소문의 큰 실책이었다.

2) 고구려와 당의 전쟁

644년에 당 태종은 고구려 정벌 준비를 서둘렀다. 4백여 척의 병선을 건조하고 군량을 비축케 하는 한편 영주 도독 장검(張儉)을 보내 요동을 공격하여 고구려의 반응을 떠보게 하였다. 당의 동향을 주시하던 고구려는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사신을 보내어 강화를 모색하였으나, 당 태종은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이듬해 1월, 당 태종은 육군 총사령관 이세적(李世勣)으로 하여금 보병·기병 6만 명과 거란·말갈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유주에서 요동으로 진격케 하고, 또 수군 총사령관 장량(張亮)으로 하여금 5백여 척의 전함과 4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산둥 반도(山東半島)의 동래에서 바다를 건너 요동을 향하게 명하고, 3월에는 자신도 대군을 거느리고 정주를 출발하였다.

당군은 랴오허 강 선에 배치된 고구려의 저항선을 뚫기 위해 회원진(懷遠鎮)으로부터 나오는 양 위장하고는 군대를 북으로 돌려 통정진(通定鎭)에서 랴오허 강을 건너 현도성(玄菟城)을 공격하였다. 또 이와 별도로 부총관인 강화왕 도종(道宗)은 고구려 서북의 요충지인 신성(新城)을 공격하였으며, 영주 도독 장검은 건안성(建安城)을 공격하였다. 한편 장량(張亮)이 거느린 수군도 평양을 직공하지 않고, 랴오둥 반도(遼東半島) 남단에 자리잡은 비사성(卑沙城)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작전은 과거 수 양제 정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주도면밀하게 짜여진 것이었다. 당시 요동 지역에서 평양성으로 가는 교통로는 4가지 길이 있었다. 첫째는 요동성이나 개모성(蓋牟城)에서 백암성(白巖城)을 지나 지금의 본계(本溪) - 봉성(鳳城)을 거쳐 남하하는 길, 둘째, 안시성(安市城)에서 지금의 수암(岫岩)을 거치는 길, 셋째, 보하이 만을 건너 건안성에서 지금의 광허 강(廣河)을 거치는 길, 넷째, 랴오둥 반도의 남단인 비사성에서 해안 길을 따라 가는 길 등이다. 개모성·요동성·백암성·안시성·건안성·비사성 등은 그 길목을 제압하는 요충성들이었다.



이 중 랴오허 강 하류는 늪지대가 많아 랴오허 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은 요동성을 향하는 길
이 주요 교통로였으며, 아니면 더 북쪽의 개모성·신성 쪽으로 우회하거나, 보하이 만을 건
너 건안성을 제압하는 길 뿐이었다. 수 양제의 침략 시에는 단지 요동성을 직공하는 길만 고
집하였기 때문에 랴오허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손실을 입었으며, 또 주력을 요
동성 공략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주변 여러 성의 지원으로 요동성 공격에 실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당군은 요동성을 제외하고 랴오허 강선에 배치된 다른 성들을 우회 공격하여 후환을
없앴 후 요동성을 공격하는 전략을 세웠던 것이다.²

그러나 당군의 기습적인 공격 속에서도 고구려는 끝내 현도성과 신성·건안성을 지켜냈

다. 첫 공격에 실패한 당군은 이를 우회하여 개모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요동성으로 진격
하였다. 그러나 신성과 건안성의 고구려군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이후 당군의 요동
작전은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5월에 당 태종도 본군을 거느리고 랴오허 강을 건너 요동성에 도착하였다. 당군이 요동성
으로 속속 밀려들자 고구려도 국내성과 신성의 군사 4만을 보내어 요동성을 구원하게 하였
으나, 당군의 반격을 받아 대패하였고, 결국 요동성은 당군의 포위에 고립되고 말았다. 그러
나 요동성은 요동 지역 최대의 거점으로 과거 수 양제의 공격에도 함락되지 않았던 견고한
성이었다. 이곳에는 6만여 명의 성민과 50만 석의 군량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군의 포
위 공격에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았다. 당군은 요동성을 수백 겹으로 둘러싸고 운제와 충차를
동원하여 연일 계속 공격하였다. 요동성 공격의 중요성을 잘 아는 당 태종도 친히 공격에 참
여하여 군사들을 독려했다. 공방전이 계속된 지 10여 일이 지나자 결국 요동성도 당군의
맹렬한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함락되고 말았다.

요동성의 함락은 고구려군의 방어선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 당군의 위세에 놀란 백암성
성주는 변변히 싸우지도 않고 당군에 항복하였다. 개모성·요동성·백암성·비사성 등이 차
레로 당군의 손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랴오허 강 선에 배치된 고구려군의 거점은 신성·건안
성과 안시성만 남게 되었다.

곧이어 당군은 안시성으로 밀려들었다. 안시성이 무너지면 오골성(烏骨城)을 제외하고는 당
군의 평양성 공격로를 막을 만한 방어선이 없었다. 위기를 느낀 고구려 조정은 긴급히 15만
군을 동원하여 북부 육살 고연수(高延壽)와 남부 육살 고혜진(高惠眞)에게 주어 안시성을 구원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연수가 이끈 고구려군은 당군의 유인 작전에 말려들어 패퇴하고,
고연수와 고혜진은 당군에 항복하고 말았다. 사실 고연수의 고구려군은 거의 모든 역량을 동

2) 고구려 중요 성들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비정된다.

- 현도성 = 랴오닝 성 무순시 노동공원산성(遼寧省 撫順市 勞動公園山城)
- 신 성 = 랴오닝 성 무순시 고이산성(遼寧省 撫順市 高爾山城)
- 건안성 = 랴오닝 성 개주시 고려성산산성(遼寧省 蓋州市 高麗城山城)
- 비사성 = 랴오닝 성 금현 대흑산산성(遼寧省 金縣 大黑山山城)
- 개모성 = 랴오닝 성 심양시 탑산산성(遼寧省 瀋陽市 塔山山城)
- 백암성 = 랴오닝 성 등탑시 연주성(遼寧省 燈塔市 燕州城)
- 안시성 = 랴오닝 성 해성시 영성자촌 영성자산성(遼寧省 海城市 英城子村 英城子山城)
- 오골성 = 랴오닝 성 봉성시 봉황산산성(遼寧省 鳳城市 鳳凰山山城)



••• 그림 2 안시성으로 비정되는 영성자산성 내부 전경

원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전투의 패배로 고구려는 큰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안시성은 고구려의 국운을 짊어진 유일한 희망이었다. 당군은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진 안시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맹렬하게 공격하였다. 그러나 안시성의 고구려군 역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군의 총공세를 막아냈다. 당군이 토산을 쌓고 공격하면 고구려군도 성벽을 더 높이 쌓아 막았다. 당군이 총차와 포차로 성벽을 파괴하면 고구려군은 목책을 세워 무너진 곳을 막았다. 이러기를 하루에 6~7차례씩 연일 계속하였으나, 당군은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결국 당군은 최후의 수단으로 거대한 토산을 쌓기 시작하였다. 연인원 50만 명을 동원하여 밤낮을 쉬지 않고 60여 일을 쌓은 결과 안시성을 내려다볼 수 있는 토산이 완공되었다. 그런데 토산이 성벽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고구려군이 재빨리 토산을 절령하고 이를 깎아 참호를 파고 지켰다. 애써 쌓은 토산을 잃은 당군은 이를 되찾기 위해 3일을 연이어 총공격에 나섰으나 실패하고 말았다.³⁾

3) 당시 안시성주의 이름은 정사(正史)에 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조선 중기 송준길(宋浚吉)의 문집인 『동춘당선생문집(同春堂先生文集)』 別集 卷6에 실려 있는 경연일기(經延日記)에서 윤근수(尹根壽)가 중국에 가

9월에 접어들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최후의 공격 수단인 토산도 빼앗기고, 군량도 다 떨어진 당군은 더 이상 안시성 공격이 불가능하였다. 9월 18일 마침내 당 태종도 철군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의 역사책인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퇴각하는 당군의 참담한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요수에 이르자 길이 온통 진흙 수렁에 막혀 수레와 말이 나아가지 못하였다. 군사들이 나무를 베어 길을 만들고 수레를 연이어 다리를 놓았다. 태종도 나무를 지고 쉼을 엮어 이들을 도왔다. 강을 건너자 이제는 눈보라가 몰아쳤다. 군사들의 옷이 젖어 얼어 죽는 자가 많았으므로, 길에 불을 피워 눈이 녹기를 기다려 나아갔다.”

1차 정벌에서 패전의 쓴맛을 본 당은 고구려에 대한 공격 전략을 바꾸었다. 즉 대규모 정벌을 지양하고, 소규모 군대를 끊임없이 보내어 고구려를 피로케 한 뒤에 공격한다는 지구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는 계속되는 전쟁에서 고구려의 국력이 서서히 피폐해지고 있음을 간파한 전략이었다. 이 전략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고구려 변경에서 당군의 산발적인 공격이 계속되었다. 당 태종은 고구려가 피로해졌다고 판단하고 다시금 대규모 고구려 정벌을 피하였으나, 정작 정벌을 실현치 못하고 649년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뒤에도 당은 계속해서 소규모 군대를 보내 고구려의 변경을 끊임없이 공략하였다.

이처럼 고구려와 당의 소규모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삼국 간의 항쟁도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의자왕이 즉위한 후 백제는 친고구려 정책으로 전환하고, 신라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고구려와 백제의 연결은 적극적인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642년의 신라 당항성 공격에는 양국이 합동 작전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라를 곤경으로 몰아넣은 것은 고구려에 대한 경계를 푼 백제가 일방적으로 신라를 공격한 것이었다. 신라는 김유신만이 근군이 백제군을 막아내고 있었을 뿐 계속되는 백제의 공격에 시달리며 나라 전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고구려와 백제의 양면 공세에 시달리던 신라는 당과의 동맹에 힘을 기울이고, 당 역시 고

서 들었다는 말을 인용하여 ‘양만춘(梁萬春)’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박지원(朴趾源)의 『열하일기(熱河日記)』에도 성주의 이름은 양만춘(楊萬春)으로 당 태종의 눈을 활로 쏘아 맞추었으며, 당 태종이 후퇴하면서 비단 백 필을 상으로 내렸다는 세간의 전승을 기록하고 있다. 당 태종이 고구려 원정에서 눈에 화살을 맞았다는 이야기는 고려 말 이색(李穡)의 시(詩)에도 보이고 있다.



••• 그림 3 요동 지역 최후의 거점성인 오골성 성벽

구려의 배후에 있는 신라를 주목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밀착되어갔다. 648년에 김춘추는 당으로 건너가서 백제 정벌을 위한 당의 군사적 지원을 적극 요청하였다. 김춘추는 당과의 동맹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당의 관복을 요청하고 자신의 아들을 당 조정에서 숙위케 하였으며, 독자적인 연호를 버리고 당의 연호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중화 정책을 추구하였다.

한편 당도 단독 작전에 의한 고구려 정벌이 여러 차례 실패한 뒤였기 때문에, 신라의 제의를 받아들여 백제·고구려 정벌을 위한 군사 동맹이 체결되었다. 이때 양국 사이에는 백제·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에는 대동강 이남 지역은 신라가 차지한다는 밀약이 맺어져 있었다.

나당 군사동맹이 맺어진 이후에도 당은 단독으로 고구려 공격을 수행하였다. 이는 가급적 신라의 힘을 빌지 않고 고구려를 정벌함으로써 장차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독차지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655~659년까지 계속된 공격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마침내 당도 전략을 바꾸어, 신라의 후원을 얻기 위해서 먼저 백제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나당연합군은 660년에 백제 공략에 나서 쉽게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는 여세를 몰아 고구려 정벌에 나섰다. 고구려는 남북 양쪽에서 전개되는 당군의 대규모 공격을 근근이 물리치

고는 있었으나, 전세는 기울어가고 있었다. 과거 수 양제나 당 태종의 고구려 침공이 실패한 데에는 요동 지역에서 긴 보급로를 유지해야 하는 전략상 최대의 약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백제의 멸망으로 한반도 내에 군사 기지를 갖게 된 당군이 남쪽에서 평양성을 손쉽게 공격할 수 있었고, 또 신라로부터 군량을 공급받음으로써 겨울철 군사 작전도 가능해져 장기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구나 요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고구려의 중요 성들도 점차 무력화하기 시작하여 당군이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압록강을 건널 수 있었기 때문에, 평양성은 남북 양쪽에서 당군의 공격 앞에 직접 노출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불리한 정세 속에서 666년에 집권자 연개소문이 죽자 그의 아들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났다. 동생들에게 쫓긴 남생이 국내성 등 6성과 10만 호를 이끌고 당에 투항하였고, 이어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淵淨土)도 휘하의 12성을 이끌고 신라에 투항하였다. 그동안 연개소문 정권에 불만을 품은 귀족 세력과 지방 세력도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기회를 엿보던 당은 고구려의 내분을 틈타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때 당은 평양성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고구려의 실질적인 무력 기반인 지방의 여러 성들을 차례로 굴복시킨 후 평양성을 공격하는 전략을 세웠다.

667년 9월에 요동 방면 행군대총관인 이적(李勣)은 고구려 서북의 요충지인 신성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신성을 비롯한 서북의 16성은 변변한 저항도 하지 않고 당군에 항복하였다. 그의 남소성·목저성·창암성 등의 요충성들도 당군의 공격에 차례로 무너지고 말았다. 이듬해 1월 당군이 부여성을 공격하여 이를 떨어뜨리니, 부여천 부근의 40여 성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당군에 항복하고 말았다. 이처럼 요동과 서북의 요충성들이 차례로 당군에 투항·항복함으로써 고구려는 중요한 무력 기반을 모두 잃어 버렸다.

9월에 당군의 주력 부대는 평양성을 포위하였으며, 신라의 김인문(金仁文)도 군사를 거느리고 평양성 공격에 합류하였다. 고구려 평양성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1개월 넘게 당군의 치열한 공격에 저항하였으나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함락되고 말았다. 보장왕과 4만 호에 이르는 고구려인이 당의 내지로 끌려갔고, 고구려 땅에는 당의 9도독부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왕조는 멸망하였어도 고구려인의 항전은 계속되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성 단위로 치열한 저항이 전개되고, 한편으로 고구려 왕조를 재건하려는 부흥 운동도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대당 항전의 흐름은 이후 한반도 내에서는 신라와 당의 전쟁 과정에서 중요한 몫을 하게 되었으며, 만주 지역에서는 발해의 건국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은 중국에서 통일 제국이 등장함으로써 5세기 이래의 다원적인 국제 질서가 붕괴되고, 그에 따라 주변 제국을 정복해가는 중국 세력의 구심력과 독자적 세력권을 유지하려는 고구려 사이의 충돌 결과였다. 최후의 독자적 세력권을 유지하였던 고구려의 멸망에 따라, 동아시아는 중국 중심의 일원적 국제 질서로 개편되었으며, 그것은 정치적인 영역에 그치지 않고 문화·사상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났다. 신라는 당과 군사 동맹을 맺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중화 정책을 취하였고, 특히 삼국 통합 이후에는 중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일본도 백제의 멸망 후 한반도의 영향력이 배제되자 당의 문물을 직접 받아들여 소위 울령 국가를 구축해갔다. 고구려 유민들이 당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세운 발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당 중심의 문화권에 포괄되었다. 이러한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문화권의 형성으로 당 문화는 보편성·국제성을 띠게 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중화적 천하 질서의 이념적 실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은 그러한 중화적 천하 질서의 확대 과정에 대한 가장 강렬한 저항이었다.

☒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IV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 운동의 전개

조인성

1. 검모잠의 부흥군

668년 당은 고구려의 옛 땅과 백성을 지배하기 위하여 평양에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두었다. 설인귀(薛仁貴)가 초대 도호가 되었고, 유인궤(劉仁軌)가 그를 보좌하였다. 안동도호부 관하에는 9도독부, 42주, 100현을 두도록 하였다. 각 행정 단위에는 당에 협력한 공이 있는 옛 고구려의 유력자를 장관으로 삼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감시·감독하기 위하여 당의 관리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친당적 성격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옛 고구려인을 지방 장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던 것은 고구려 유민에 대한 지배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다. 일부 고구려 유민은 당의 지배로부터 이탈하였다. 669년 2월 안승(安勝)이 4천여 호를 거느리고 신라에 투항하였다. 적어도 1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는 고구려 유민이 망명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장 투쟁을 벌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은 669년 5월 고구려 유민 2만 8,200호와 수레 1,080승(乘), 소 3,300두, 말 2,900필, 낙타 60두 등을 당의 남부와 서부의 공한지에 강제로 이주시키고, 안동도호부에는 빈약한 자들을 남겨 두었다. 반당적 움직임을 이끌 가능성이 있는 유력자들을 연고가 없는 당 내지(內地)의 먼 황무지로 옮겼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도 고구려 유민의 저항을 막지는

못하였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졌던 것이 검모잠(劍牟岑)의 부흥군이었다.

3만 호에 가까운 유력한 민호를 옹기면서 안동도호부에 배치되었던 병력 가운데 상당수가 철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인귀가 평양을 떠나 요동(遼東)의 신성(新城: 무순(撫順))으로 옮겨갔던 것도 이 무렵의 일로 생각되는데, 그는 670년 4월 토번(吐蕃) 정벌군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유인궤는 이보다 앞서 같은 해 정월 사임하였다. 670년을 전후한 시기에 안동도호부는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검모잠은 이 틈을 이용하여 670년 4월 거병하였다.

검모잠은 그 해 6월 백성들을 이끌고 궁모성(窮牟城: 위치 미상)으로부터 패강(溟江: 대동강) 남쪽에 이르러 당의 관리와 승려 법안(法安) 등을 죽였다. 법안은 당 출신으로서 669년 정월 당 고종의 명을 전하고 자석을 구하러 신라에 왔었다. 그는 귀국 길에 안동도호부에 들렀다가 그곳 관리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검모잠은 계속 남하하여 서해 사야도(史治島: 인천 소야도)에서 안승을 만나 한성(漢城: 재령)으로 맞아 들어 왕으로 삼았다. 이로써 고구려는 재건되었다.

안승은 고구려 마지막 왕인 보장왕(寶藏王)의 서자(庶子)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어떤 기록에는 연개소문(淵蓋蘇文)의 동생인 연정토(淵淨土)의 아들이었다고 나오기도 하고, 보장왕의 외손이었다고 되어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는 연정토와 보장왕의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일 수도 있다. 일단 여기에서는 안승이 고구려 최고 귀족 가문 출신이며, 왕실의 일원이기도 하였다고 정리해둔다. 한편 검모잠은 수림성(水臨城: 위치 미상) 출신 대형(大兄)이었다. 대형은 고구려 말기의 14관등 중 제7관등이다. 검모잠은 당의 강제 이주를 모면한 지방 출신의 중급 귀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처지의 그에게 고구려 유민을 결합시킬 구심점으로서 또 재건된 고구려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안승과 같은 인물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검모잠은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적국(敵國) 신라에 사신을 보내 충성을 약속하고 지원을 요청하였다. 당시 신라는 백제의 옛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당과 투쟁하고 있었다. 670년 3월 신라의 사찬(沙飡) 설오유(薛烏儒)가 고구려 태대형(太大人) 고연무(高延武)와 더불어 각각 정예병 1만씩을 이끌고 고구려 옛 땅에서 작전을 벌였다. 이는 반당적인 고구려 유민을 지원함으로써 당의 관심을 그 쪽으로 돌려 옛 백제 땅에 대한 당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함이었다고 파악된다. 당과 투쟁하기 위해서 외부의 지원이 절실하였던 검모잠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신라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신라도 그것을 약속하였던 듯하다.

그러나 고구려 재건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다시 신라로 망명하였던 것이다. 아마도 검모잠은 자신이 재건의 주역임을 내세웠고, 안승과 그의 세력은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워 주도권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닐까 한다. 신라에 대한 외교적 입장의 차이나 당의 파병에 대한 군사적 전략의 차이가 갈등을 초래하였을 수도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하였던 때에 대해서는 670년 7월 말경으로 보는 기왕의 설에 대해 672년 말~ 673년 초였을 것이라는 새로운 설이 제출되었다. 지금 그 시비를 가릴 여유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 종래의 설에 따르려고 한다. 그렇다면 재건된 고구려는 주도 세력 간의 내분으로 인해 두 달을 지속하지 못하였던 셈이 된다. 단 이로써 고구려 부흥운동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671년 7월 당의 장군 고간(高侃)은 안시성(安市城) 일대에서 고구려 부흥군을 격파하였다. 이들이 검모잠의 부흥 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여기는 견해도 있다. 672년 7월에 고간과 이근행(李謹行)이 4만의 병력을 이끌고 평양에 8개의 군영을 설치하고 주둔하였다. 이들은 8월 한시성(韓始城: 위치 미상)과 마읍성(馬邑城: 위치 미상)을 함락하였다. 이에 맞서 신라군과 고구려 부흥군의 연합군은 백수성(白水城 혹은 白水山: 위치 미상. 泉山이라고도 하는데 白+水=泉이므로 같은 곳을 알 수 있다)에서 이들을 크게 무찔렀다. 전투 지역이 황해도 일원으로 생각되고, 신라의 후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때의 고구려 부흥군은 검모잠 추종 세력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투에서 신라군은 달아나는 당군을 추격하다가 석문(石門: 위치 미상)에서 패배하였다. 이로써 연합군의 위세가 크게 꺾이게 되었다. 그 해 겨울 고구려 부흥군은 거점이었던 우잠성(牛岑城: 황해도 우봉)을 잃었다. 그들은 남으로 이동하여 신라의 서북 변경에 가까운 호로하(訶蘆河: 임진강)의 서쪽(아마도 개성 방면)에 집결하였으나 673년 윤 5월 이근행의 공격을 받아 큰 타격을 입고, 패잔한 나머지는 신라로 망명하였다. 이로써 검모잠의 부흥 운동은 약 3년여 만에 종결되었다.

오랜 동안 맞서 싸웠던 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고구려 유민은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이다. 유력 민호를 당의 내지로 강제 이주한 정책은 이를 가증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검모잠이 부흥군을 일으켰던 배경은 이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였고, 유력 민호가 강제 이주된 상황에서 그들은 당과 군사적으로 대결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 까닭으로 신라에 도움을 청하였던 것이지만, 신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을 제공하였을 뿐이었으므로 그 한계는 뚜렷하였다. 더욱이 신라로부터 영입한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고 다시 신라로 망명함으로써 검모잠의 부흥 운동은 결정적 타격을 입고 말았던 것이다.

2. 보덕국과 신라의 고구려 유민 정책

문무왕(文武王)은 다시 망명해온 안승을 금마저(金馬渚: 익산)에 안치하였다. 그리고 670년 8월 1일 그를 고구려 왕으로 책봉하였다. 문무왕은 책봉문에서 안승에게 “공은 마땅히 유민들을 어루만져 모으고 옛 왕업을 잇고 일으켜 영원히 이웃 나라로서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하였다. 이 말은 신라의 정책에 협조하고 충성하라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신라는 안승과 고구려에 무엇을 기대하였던 것일까.

고구려가 망하기 전인 666년 12월 연정토는 12개의 성읍과 3,543명을 이끌고 신라에 투항하였다. 668년 11월 고구려 정벌을 마친 문무왕은 포로 7천 명과 함께 개신하였다. 669년 2월 안승이 4천여 호를 거느리고 귀부하였음은 앞에서 말한 바 있다. 673년 윤 5월 당군에 패배한 고구려 부흥군 중 일부가 신라에 망명하였음도 그러하다. 이처럼 고구려의 멸망을 전후하여 적지 않은 고구려인이 신라에 유입되었다. 문무왕의 당부와 같이 안승은 고구려 왕으로서 이들을 안집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금마저에 모여 살면서 안승의 지배를 받았을 것이다.

백제 말기에 금마저는 일종의 부도(副都)와 같은 위상을 지닌 곳이었다. 삼국시대 최대의 사원이었던 미륵사(彌勒寺) 유적이거나 왕궁리(王宮里)의 궁성 유적이 이를 말해준다. 이 점에서 그 곳은 백제 유민의 거점이 될 만한 곳이었다. 문무왕이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임명하였을 무렵, 비록 금마저와 그 주변이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지역의 백제 유민은 아직 완전히 복속되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라도 반기를 들 우려가 있었다. 당과 결탁한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도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 유민의 나라를 금마저에 세워 그들로 하여금 백제 유민을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백제의 옛 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668년 9월 문무왕은 왜에 사신을 보내 단절된 외교 관계를 재개하였고, 이후 재위 중 12회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는 등 활발한 대일 외교를 펼쳤다. 그런데 안승의 고구려(보덕국: 靺鞨國)도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다. 671~682년까지 8차례 사신을 일본에 파견하였고, 일본의 사신이 고구려(보덕국)에 온 것도 3차례 확인된다. 그런데 673년부터는 신라의 관리들이 고구려(보덕국)의 사신단을 일본으로 호송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다. 이는 고구려(보덕국)의 일본 외교가 신라에 의해 일정하게 제약되었음을 시사한다. 신라는 옛 고구려와 왜의 우호 관계를 이용하여 고구려(보덕국)로 하여금 신라의 대일 외교를 지원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74년 9월 문무왕은 고구려 왕 안승을 보덕왕으로 봉하였다. 보덕(靺鞨)이라는 이름은 고구려의 여맥을 보존하도록 한 신라의 덕에 보답하라는 뜻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보덕국의 독자성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종주국으로서 신라의 지위는 강화되었다. 이미 백제의 옛 땅은 신라의 차지가 되었고, 그 지역에 대한 신라의 지배권도 강화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군에 패배한 고구려 부흥군 중 일부도 673년 윤 5월 이후 신라에 망명하였다. 신라의 입장에서 안승의 고구려는 쓸모가 떨어졌던 것이다.

680년 3월 문무왕은 자신의 여동생(또는 逆演 金義育의 딸이라고도 함)과 안승을 결혼시켰다. 이로써 안승은 신라 왕실의 한 사람이 되었다. 683년 10월 신문왕(神文王)은 안승을 불러 소판(蘇判)으로 삼고 김씨 성을 주어 서울(경주)에 머물게 하였다. 그리고 훌륭한 집과 좋은 토지를 하사하였다. 소판은 신라 17관등 중 제3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김씨는 왕족의 성이었다. 안승은 이제 보덕국 왕이 아니라 경주에 거주하는 왕족의 한 사람이 되었다. 보덕국은 이로써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신라의 조치에 대해 684년 11월에 안승의 조카뻘(族子)되는 장군 대문(大文)이 금마저에서 반역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죽음을 당하였고, 이에 남은 무리들이 관리들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신문왕은 그 성을 함락하여 그곳 사람들을 나라 남쪽의 주와 군으로 옮기고, 그 땅을 금마군(金馬郡)으로 삼았다. 이들 중 일부는 남원소경(南原小京) 등에 이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는 일본으로 망명하기도 하였다.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을 추구하였던 신문왕은 나라 안에 명목적이거나 독립국이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685년 9주 5소경을 골간으로 하는 지방 제도의 개편을 마무리하였다.

신문왕은 686년에 고구려인에게 신라의 관등을 주었는데, 본국에서의 관품(官品)을 헤아려 주었다고 한다. 그 대상 중에는 옛 고구려의 관리도 포함되었을 것이지만, 보덕국의 관리들이 중요한 대상이 아니었을까 한다. 일본에 파견된 보덕국(고구려)의 사신들은 상부, 전부, 후부, 하부, 남부, 서부 등의 부명(部名)과 대상(大相), 위두대형(位頭大兄), 대형, 주부(主簿) 등의 관등을 사용하였다. 부는 옛 고구려의 왕도와 지방의 오부제(五部制)의 그것이다. 관등도 옛 고구려 것과 같다. 680년 5월 안승이 대장군 태대형 고연무를 파견하여 문무왕에게 감사의 표를 올렸고, 681년 8월 소형 수덕개(首德皆)를 보내어 신문왕에게 김흠돌(金欽突)의 난을 평정하였음을 축하한 것에서도 옛 고구려 관등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보덕국(고구려)은 옛 고구려의 관등 제도를 이어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인에게 주었던 신라 관등을 673년 옛 백제의 관리들에게 주었던 그것과 비교해보면 고구려인이 보다 우대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가령 고구려인 중 주부(主簿) 소유자는 제7관등인 일길찬(一吉澹)을 받았고, 소상(小相)·적상(扶相)은 제11관등인 나마(奈麻)를 받았다. 반면 백제인의 경우 제2관등인 달솔(達率) 소유자가 대나마(제10위), 제3관등인 은솔(恩率) 소유자가 나마(제11위)를 받도록 규정되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일부 백제 유민이 백제 옛 땅에 대한 당의 지배에 협력하였던 것에 비해 안승과 보덕국(고구려)이 신라에 기여하였던 점을 참작한 결과로 보인다. 여하튼 이로써 보덕국의 지배층은 신라에 흡수되었다.

신문왕은 안승을 경주로 불러들인 그 해(683년)에 고구려 백성과 말갈국 백성으로써 황금서당(黃衿誓堂)과 흑금(黑衿)서당을 조직하였다. 보덕국이 망한 뒤인 686년에는 보덕성 백성으로 벽금(碧衿)서당과 적금(赤衿)서당을 조직하였다. 이들 부대는 통일신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군단이었던 9서당의 일부였다. 그런데 9서당은 왕권을 옹호하는 성격의 부대였다고 한다. 신문왕은 신라에 이렇다할 연고가 없는 고구려 유민으로 군대를 조직하여 왕권의 무력적 기반으로 삼았던 것이다.

보덕국(고구려)은 신라의 영역 내에서 신라왕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그것은 신라 내의 고구려 유민을 모으고 다스리는 데 기여하였다. 또 백제의 옛 땅에 대한 신라의 지배권을 확립하는 데에도 협조하였다. 일본과의 외교를 통해서도 신라의 대일 외교를 지원하였다.

요컨대 보덕국(고구려)은 신라의 고구려 유민 정책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소고구려국과 당의 동방 정책

700년 3월 6일 측천무후(則天武后)는 동방의 고려국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에 사신을 보낼 때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칙명을 내렸다. 710년 4월에는 고려에서 당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고구려가 망한 것은 668년이었다. 보덕국도 683년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700년대에 들어와 다시 당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던 고려 곧 고구려의 실체는 무엇이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것이 당의 동쪽에 위치하였다고 하므로 고구려 멸망 후 만주 일대의 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당은 676년 2월 안동도호부를 평양으로부터 요동성(요양)으로

옮겼다. 그런데 당의 후퇴에 자극 받은 만주 일대의 고구려 유민의 저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그들이 말갈과 연합하여 반당 투쟁을 일으킬 조짐도 있었다.

677년 2월 당은 고구려 멸망 때 끌려가 장안(長安: 서안(西安))에 머물고 있었던 보장왕을 요동도독, 조선 군왕으로 삼아 요동의 고구려 유민의 동요를 수습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당의 내지에 이주되었던 고구려의 유력 민호들을 요동으로 돌려보냈다. 본토로부터 격리하였던 옛 왕과 주민들을 돌려보내 고구려 유민의 반당적 움직임을 무마하면서 이를 통해 요동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 무렵 당은 안동도호부를 신성(新城)으로 옮겼다. 이는 보장왕에게 요동의 통치를 위임한 것과 짝을 이루는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도호부는 요동 지역에 대한 직접 통치 기관에서 간접 통치 기관, 보다 정확히는 요동도독을 감시하는 기관으로 성격이 변하였다. 이에 따라 수륙 교통의 요지로서 요동의 중심지인 요동성으로부터 요동의 고구려 유민과 말갈과의 연결을 감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신성으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이에 즈음하여 당은 연남생(淵南生)을 안동도호부에 파견하였다. 그는 행정 구역을 개편하는 등의 일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연남생은 연개소문의 큰 아들이자 동생들과의 권력 투쟁에서 밀리자 당에 후원을 요청하였고, 당의 고구려 침공 때에는 향도 노릇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당은 친당적 고구려인으로 하여금 보장왕과 고구려 유민을 감시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비록 당의 감시하에서였지만 요동 지역에는 마치 고구려가 재건된 듯하였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보장왕은 말갈과 서로 통하여 당에 대해 반기를 들려고 하였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그는 양주(仰州: 사천(四川))의 양래(仰來)로 유배되었다. 이에 가담한 고구려 유민은 당의 남부와 서북부의 여러 주에 강제 이주되었고, 빈약한 자들은 안동 부근에 남겨졌다. 마치 고구려 멸망 후 국왕 등을 포로로 하여 이송하고, 유력 민호들을 당 내지에 강제 이주하였던 것을 방불하게 하는 조치였다.

696년 5월 거란의 이진충(李盡忠)이 거병하여 영주(營州: 조양)를 점령하였고, 697년 3월에는 그의 뒤를 이은 손만영(孫萬榮)이 유주(幽州: 북경)를 공격하였다. 이들의 거사는 697년 6월 실패하고 말았지만, 본토와 연락이 어렵게 된 안동도호부의 지배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그것을 폐지하고 다시 고구려 왕족으로 하여금 요동 지역을 다스리게 하자는 의견이 대두하였다. 결국 698년 안동도호부는 폐지되고, 안동도독부가 섰다. 같은 해 당은 보장왕의 손자인 고보원(高寶元)을 충성국왕(忠誠國王)으로 삼아 요동 지역의 고구려 유민을 거느리게 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고, 699년 보장왕의 아들 고덕무(高德武)를 요동에 파견하였다.

고덕무가 당으로부터 받은 관직은 안동도독이었으나 한편으로 그는 종래 도호부가 갖고 있었던 요동 지역 고구려 유민에 대한 통치권을 이양 받은 군장과 같은 존재였다. 700년부터 다시 기록에 나타나는 고려는 바로 고덕무의 안동도독 부임과 더불어 재건된 고구려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영역은 요동 지역에 한정되었다. 옛 고구려에 비하여 극히 작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소(小)고구려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한편 그 건국을 안사(安史)의 난(755~763년) 이후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710년 고구려의 사신 파견 기록을 중시하여 일단 699년 건국설을 따른다.

소고구려국의 왕통은 고씨가 이어갔다. 그리고 최고 유력 귀족도 고씨였다. 고문간(高文簡)은 715년 무렵 국왕으로 재위하였다. 같은 시기에 유력한 귀족으로서 고공의(高拱毅)와 고정부(高定傅) 등의 이름도 찾을 수 있다.

소고구려국은 120년 정도 독립국으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요동의 작은 나라로서 그 지역을 두고 서로 대립하였던 당, 발해, 유목 세력(돌궐, 거란)의 3세력의 소장(消長)에 대응하여 생존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건국을 후원하였던 당에 의지하였지만, 돌궐이 강성해지자 그에 붙었고, 현종(玄宗) 대에 당이 강성해지자 다시 당에 귀속하였다. 안사의 난 이후 소고구려국은 만주의 주도권을 장악한 발해에 붙었다. '해동성국(海東盛國)'을 이루었던 선종(宣宗: 818~830년)이 요동 지역을 공략함에 따라 그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를 계승하였던 발해가 고구려 왕실의 후예가 지배하였던 소고구려국을 일종의 자치국으로 남겨두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

소고구려국의 최후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어느 시점에 발해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렸거나 혹은 발해가 망할 때까지 자치국으로 남아 있다가 그와 운명을 같이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915년 10월 고려에서 거란에 보검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고, 918년 2월과 3월에도 고려에서 거란에 조공하였다고 한다. 이는 왕건(王建)의 고려가 성립하였던 918년 6월 이전의 일이다. 이 점에서 이 고려를 소고구려국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미 901년 궁예(弓裔)가 고려를 칭하였고, 그 후 나라 이름을 마진(摩震), 태봉(泰封)으로 바꾸었지만 여전히 궁예의 나라를 고려라고 한 예가 있으므로 이를 따르기 주저되는 면이 있다.

소고구려 건국의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만주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측천무후가 등장한 이후 당의 대외 활동은 위축되었다. 그 결과 요동 지역에 대

한 지배권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 한때 당 태종(太宗)에게 굴복하였던 돌궐은 세력을 확장하며 당의 변경을 위협하였다. 그리고 698년에는 대조영(大祚榮)이 발해를 건국하였다. 요동 지역에 대한 지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당은 돌궐과 발해를 견제할 수 있는 친당 국가로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소고구려국의 건국을 허용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소고구려는 고구려 유민을 통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당의 동방 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였다는 성격이 강한 것이다.

4. 고구려의 계승국 발해

고구려가 망한 후 대조영과 그가 이끄는 무리는 영주에 이주하였다. 아마도 669년 고구려의 유력 민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강제로 옮겨진 듯하다. 그러다가 696년 거란 이진충이 당에 반기를 들고 영주를 점령하자 대조영의 아버지인 걸걸중상(乞乞仲象)과 대조영은 고려 유민을 이끌고 랴오허 강(遼河)을 건너 동쪽으로 갔다. 이때 걸사비우(乞四比羽)가 이끄는 말갈의 무리도 동행하였다.

당은 이진충의 반란을 진압한 뒤 이해고(李楷圃)로 하여금 이들을 쫓아 공격하도록 하였다. 걸사비우는 전사하였고, 이 무렵 걸걸중상도 죽었다. 대조영은 천문령(天門嶺)을 넘어온 이해고의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마침 거란과 해(奚)가 돌궐에 복속하여 영주를 경유하는 길을 차단하였으므로 당은 더 이상 군대를 파견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대조영은 멀리 동모산(東牟山: 돈화(敦化))으로 가서 진국왕(振國王 혹은 震國王)이 되었다. 일본의 승려로서 당에서 불법을 공부하던 영충(永忠)이 천황에게 올린 글에 “발해국은 고려의 옛 땅(에 건국한 나라)이다. [...] 뒤에 문무천황(文武天皇) 2년 대조영이 비로소 발해국을 세웠다.”고 한 것에서 698년 건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발해라는 국호는 713년 당이 대조영을 발해군왕으로, 아들 대무예를 계루군왕(桂婁郡王)으로 책봉하면서 비롯되었다.

제1대 고왕(高王) 대조영의 뒤를 이은 것은 무왕(武王: 719~737년)이었다. 그는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쳤다. 이에 불안을 느낀 흑수(黑水)말갈이 당에 귀부한 것을 계기로 당과 대립하다가 732년 9월에는 군사를 일으켜 해로와 육로로 당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그의 뒤를 이은 문왕(文王: 737~793년)은 당의 문물 제도를 받아들여 통치 제도를 정비하는 등 내부적인 발전에



힘을 기울였다. 문왕은 황제를 칭하였고,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스스로를 '천손(天孫)'이라고 과시하기도 하였다. 그 후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 왕이 자주 교체되는 등 한 동안 혼란을 겪었다. 선왕(818~830년)이 즉위하면서 다시 왕권이 강화되고 중흥을 이루게 되었다. 이때로부터 대략 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번영을 누렸는데, 당에서는 발해를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고 칭하였다.

9세기 후반 10세기 초의 당 말 오대의 혼란기에 거란은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의 영도 하에 크게 세력을 키웠다. 그는 중원으로 진출하기 전에 배후의 세력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먼저 서쪽의 돌궐, 토혼(吐渾), 당항(黨項), 소번(小蕃), 사타(沙陀) 등의 부락을 정벌한 다음 발해를 공략하였다. 거란은 요동 지역을 점령한 후 발해의 중심부를 공격하였다. 결국 발해는 926년 1월 거란에 항복하였고, 이로써 230년 가까운 역사를 마감하였다. 대부분의 발해 유민은 요에 흡수되었다. 일부는 고려에 망명하였고, 일부는 여러 차례 부흥 운동을 일으켜 나라를 세웠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발해가 최대 판도를 형성하였던 것은 9세기 전반 선왕 대였다.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하였으므로 한반도에서는 대동강과 원산만 이북을 차지하였다. 동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함경도는 물론이고 연해주 대부분을 그 영역으로 본다. 서쪽으로는 거란과 접하였다고 한다.嫩장 강(嫩江)과 송화 강(松花江)이 합류하는 지점으로부터 랴오허 강으로 이어지는 선이 경계였을 것이다. 북쪽으로는 헤이룽 강과 송화 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서쪽으로 송화 강을 따라 이어지는 선까지 진출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고구려 전성기 때의 영토와 비

교해보면 발해 전성기의 영토는 그 1.5~2배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발해는 옛 고구려의 영역 중 신라가 차지하였던 극히 일부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을 개척하였던 것이다.

건국자 대조영은 '고구려 별종(別種)'이라고도 하고, '본래 속말(粟末)말갈로 고구려에 붙은 자'라고도 되어 있다. 그런데 말갈에는 옛 읍루(挾婁)만이 아니라 부여(夫餘), 옥저(沃沮), 동예(東濊) 등의 주민도 포함되며, '고려 별종'이니 '발해말갈'이니 하는 것은 이들을 가리킨다는 설이 있다. 이에 따라 대조영과 그의 집단을 부여계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 말갈은 당과 송대인들이 그들의 동북방 주민들을 범칭(凡稱), 비칭(卑稱)하였던 종족명이었고, 고구려 피지배 주민들의 비칭이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르면 속말말갈이란 속말수(松花江) 유역의 고구려 주민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고구려는 주변의 다양한 종족들을 통합하면서 발전하였다. 대조영은 속말말갈 출신의 '말갈계 고구려인'으로 고구려에 동화된 인물로 보아 좋을 것이다.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영주를 떠나 동쪽으로 이동하였고, 이때 결사비우의 말갈도 동행하였다. 그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의 연합 병력을 지휘하여 이해고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대조영은 말갈의 무리와 고려 유민이 점차 모여들자 이들을 기반으로 건국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건국의 두 세력 중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였던 것은 고구려 유민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발해인은 유민을 포함해 380명이다. 이 가운데 대씨 소유자가 117명이고, 유력 귀족 가문의 성씨 소유자들은 고씨 63명을 포함해 129명이다. 왕족 대씨가 전체의 30% 정도로 나타나고, 다음으로 고구려 계통의 고씨가 전체의 16.5%, 유력 귀족의 거의 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727년 무왕은 일본에 보낸 최초의 외교 문서(國書)에서 발해가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풍습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759년 발해 사신은 자신의 국왕인 문왕을 '고려 국왕'이라고 하였고, 일본 천황도 역시 그렇게 불렀다. 이 무렵 일본에서 발해를 고려라고 하였던 예들은 당시 사용되었던 목간이나 고문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 798년 강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는 "교화를 따르는 부지런한 마음은 고씨(고구려)에게서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외교 문서 혹은 외교 관계에서 사용된 문구나 용어를 통해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알아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사실 발해가 일본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었던 옛 고구려의 후신임을 내세웠으리라고 보는 설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록 그런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예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발해 지배층이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발해는 옛 고구려의 영역을 거의 대부분 차지하였다. 지배층의 구성 면에서도 고구려 계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또한 그들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국이라고 할 수 있다. 발해의 성립으로 삼국이 정립하였던 형세는 통일신라와 발해가 남북에 자리 잡은 형세로 바뀌게 되었다. 유득공(柳得恭)이 이 두 나라를 남북국이라고 불렀던 예에 따라 이 시대를 남북국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5. 고려의 고구려 계승 의식

고구려가 망한 후 230여 년이 지난 901년 궁예는 고려를 건국하였다. 삼국시대의 고구려와 왕건의 고려를 구별하기 위하여 후고구려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다. 이때 그는 “지난날 신라가 당에 군사를 요청하여 고구려를 깨뜨렸기 때문에 평양의 옛 도읍이 풀만 무성하게 되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으리라.”고 하였다고 한다. 신라의 왕자 출신으로 알려진 궁예가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하였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889년부터 신라는 농민 봉기에 휩싸였다. 견훤(甄萱)과 궁예는 이러한 혼란을 틈타 세력을 모아 나라를 세웠는데, 한발 앞선 것은 견훤이었다. 그는 900년 완산주(完山州: 전주)를 도읍으로 삼고, 의자왕(義慈王)의 원한을 갚겠다고 하면서 백제를 건국하였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후백제인데, 견훤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백제 유민의 호응을 얻기 위하여 나라 이름을 백제로 하였음은 물론이다. 이로써 신라와 백제가 서로 대립하는 형세가 되었다. 궁예가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였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궁예는 패강진(溍江鎭)에 기반을 두고 성장한 패서(溍西: 예성강(禮成江) 이서(以西)) 지역 호족들과 송악(松嶽: 개성)의 해상 세력(왕건 집안)과 제휴하여 건국하였다. 유력한 패서 호족의 하나였던 평산(平山) 박씨 가문의 박직윤(朴直胤)은 대모달(大毛達)을 칭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장군의 고구려식 호칭인 대모달(大模達)이다. 이는 그 지역에 옛 고구려의 문물 제도를 알고 있는 고구려 유민이 살고 있었고, 박직윤은 고구려의 재건을 내세우면서 그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려고 하였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궁예가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였던 것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궁예는 마진(904년), 태봉(911년)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었다. 하지만 918년 6월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왕건은 다시 고려를 국호로 하였다. 최승로(崔承老)는 태조가 “금계(金鷄: 김씨의 鷄林 곧 신라)가 스스로 멸망하는 때를 만나고, 병록(丙鹿: 丙+丙+鹿=麗이므로 고구려)이 다시 일어나는 운세를 타고” 건국하였다고 한 바 있거니와, 그가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하여 나라 이름을 다시 고려라고 하였음은 물론이다.

태조는 즉위한 그 해 9월에 “평양은 옛 서울인데 황폐한 지 오래되어 가시나무(蒺藜)가 무성하고, 오랑캐(獯)가 그 사이에서 사냥하며 인하여 침략하니 마땅히 백성들을 옮겨 이를 채움으로써 울타리(藩)를 굳게 해야 한다.”라고 하고, 황주(黃州) 등 황해도 일대의 민호들을 평양으로 옮기고, 대도호부로 삼아 왕식렴(王式廉) 등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이처럼 평양은 우선 국방의 요지로서 중요시되었다. 태조는 919년 10월에 평양에 성을 쌓고 921년 10월에는 서경(西京)으로 행차하였다. 이로써 그 사이에 평양이 서경으로 승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 곳이 정치적으로도 중시되었음을 의미한다. 태조는 서경에 왕실을 뒷받침해줄 세력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한편 오랑캐가 자주 북계(北界)의 골암진(鵝巖鎭)을 침략하자 태조는 920년 3월 유금필(兪金弼)로 하여금 개정군(開定軍) 3,000명을 거느리고 성을 쌓고 지키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는 북계(北界)를 순행(巡幸)하고 여러 곳에 성을 쌓았다.

서경 경영이나 북방 개척은 대륙 방면으로부터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국토를 넓혀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를 두고 충선왕(忠宣王)은 동명왕의 옛 땅을 되찾아 갖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평가하였거니와, 태조는 고구려 계승을 명분으로 이른바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훗날 윤관(尹瓘)은 여진 정벌을 마치고 함께 출정하였던 임언(林彦)으로 하여금 그 전말을 영주(英州)의 관청 벽에 쓰도록 하였다. 그 글에서 “(이곳은) 본래 고구려의 소유였다. 그 옛 비석과 유적이 아직 남아 있구나. 대저 전날 고구려가 이곳을 잃었는데, 훗날 우리 임금(예종)께서 이곳을 얻으셨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감탄하였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고려는 다른 나라에도 자기 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강조하였다. 933년 3월 후당이 태조를 고려 국왕으로 책봉하는 조서에서 “그 소유한 땅은 평양이라고 칭하고 [...] 주몽(朱蒙)이 나라를 연 상서로움을 이어 그 군장이 되었다.”고 하였던 것이 한 예가 된다. 이는 책봉을 요청하는 고려의 문서에 의거한 표현으로 보이는 것이다.

993년 고려를 침략한 요의 소손녕(蕭遜寧)은 그 이유의 하나로 고려가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자기들이 소유하였는데, 고려가 그것을 침범하였음을 들었다. 이에 대해 서희(徐熙)가 고구려의 옛 땅에 세워진 나라이므로 고려라고 이름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음을 주장하였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러한 고려의 주장은 1057년 3월과 1065년 4월 요에서 고려에 보낸 책문에 문종(文宗)이 주몽의 나라를 계승하였다는 표현으로 반영되었다.

1123년 고려에 다녀간 송나라 사신단 중 한 사람인 서긍(徐兢)은 귀국한 후 파견 중 보고 들은 바를 정리하여 『고려도경(원제는 宣和奉使高麗圖經)』을 지었다. 그 가운데 고려 개국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다룬 건국시봉(建國始封)조를 보면 고구려, 발해, 검모잠과 안승의 부흥 운동, 고려의 순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과거에는 발해, 검모잠과 안승의 부흥 운동(고구려와 보덕국)이 있었고, 당시 고구려의 정통을 잇고 있는 나라는 바로 고려라는 고려인들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송에서 편찬한 여러 역사서에는 고려 건국의 역사적 배경이 ①고구려가 당에 망한 후 고씨 왕통이 끊겼으나, ②점차 회복하여 당 말에 다시 왕 노릇을 하였으며, ③왕건이 그를 계승하였던 것으로 정리되었다. 원 세조(世祖)는 즉위 전 고려의 태자가 항복하여오자 “고려는 만리 밖의 나라로서 당 태종 이래로 친정하였으나 능히 굴복시키지 못하였는데, 지금 그 세자가 스스로 나에게 돌아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하였거니와, 이처럼 고구려와 고려를 혼동하는 경우까지도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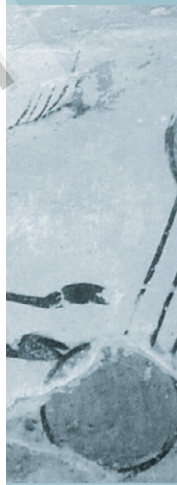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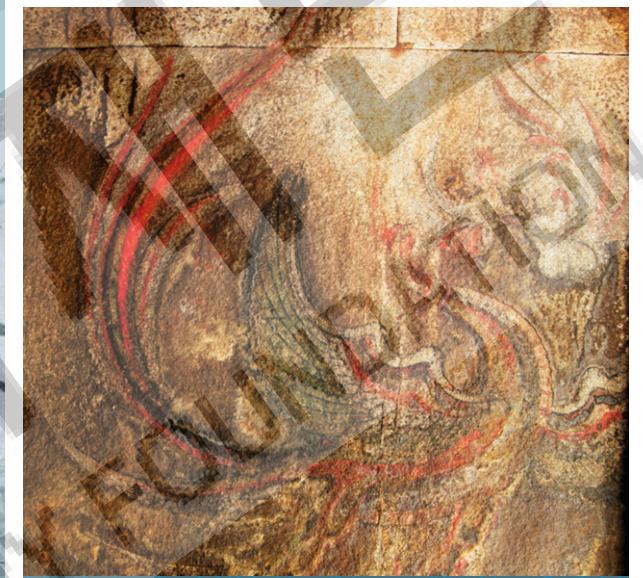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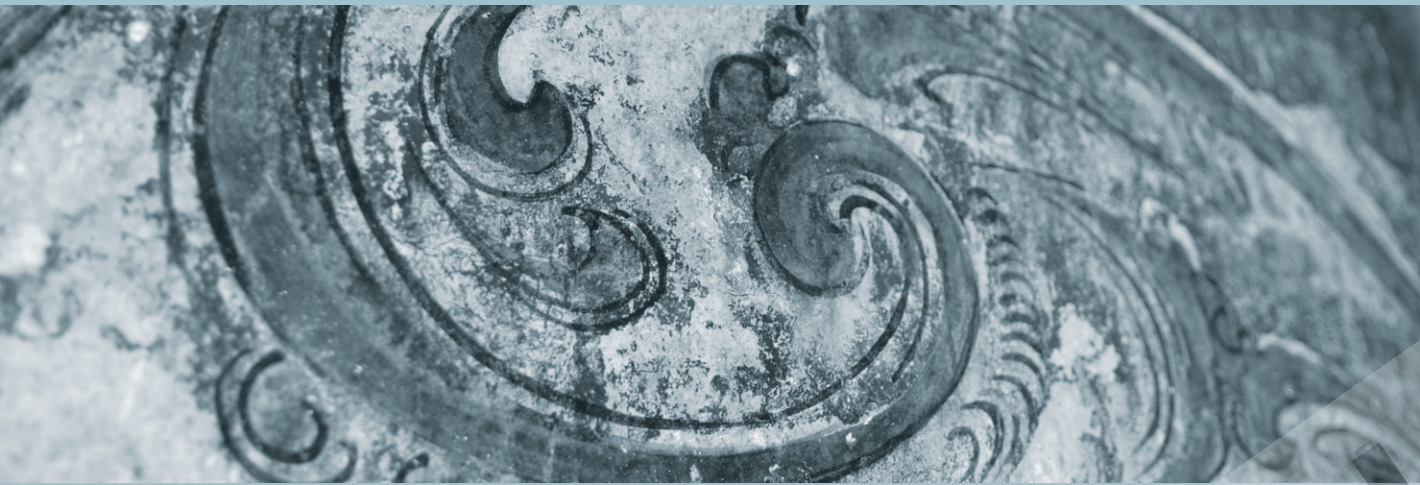
태조는 고구려 계승국임을 내세워 고려 역사의 유구함을 주변의 나라들에 알리려고 하였던 듯하다. 어쩌면 서희의 예에서 보듯이, 북방 민족과의 영토 분쟁을 예견하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요, 금, 원 등 북방 민족이 세운 여러 나라들의 세력이 강대해짐에 따라 북진 정책의 수행은 어려워졌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고구려 계승 의식은 그 현실적인 힘을 잃게 되어 점점 관념적인 것, 이상주의적인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각종 고구려 토기

고구려 토기는 고운 점토질의 바탕흙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토기가 납작 바닥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전통 용기와 유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 참고문헌
- 찾아보기



● 한국도서

강 선(2001), 「고구려와 전연의 관계에 대한 고찰」, 『고구려연구』 11집, 고구려연구회, 학연문화사.

강현숙(2000), 『고구려고분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공석구(1998), 『高句麗領域擴張史研究』, 서경문화사.

금경숙(1994), 「고구려 초기의 중앙 정치구조-제가회의와 국상제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86, 한국사연구회.

_____(2004), 『고구려 전기 정치사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김기홍(1987), 「고구려의 성장과 대외교역」, 『韓國史論』1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_____(1992), 「고구려 淵蓋蘇文政權의 한계성」, 『西巖趙恒來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아세아문화사.

_____(2001), 「高句麗 建國神話의 검토」, 『韓國史研究』 113, 한국사연구회.

_____(2002), 『고구려 건국사』, 창작과 비평사.

_____(2005), 「고구려 국가형성기의 왕제」, 『고구려의 국가 형성』, 고구려연구재단.

김광수(1983), 『고구려 고대 집권국가의 성립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기웅(1985), 「무기와 마구」, 『한국사론』 15집, 국사편찬위원회.

김수태(1994), 「統一期 新羅의 高句麗遺民支配」,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古代·高麗時代篇, 一潮閣.

김정배(1968), 「예맥족에 관한 연구」, 『白山學報』 5, 백산학회.

_____(1973), 『한국민족문화의 기원』, 고려대학교 출판부.

_____(1986), 『한국고대의 국가기원과 형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_____(1988), 「高句麗와 新羅의 領域問題」, 『한국사연구』 61·62합집, 한국사연구회.

김종복(2003), 「高句麗 멸망 이후 唐의 지배정책 - 安東都護府를 중심으로」, 『史林』 19, 성균관대학교.

_____(2005), 「高句麗 멸망 전후의 靺鞨 동향」, 『北方史論叢』 5, 고구려연구재단.

김종완(2002), 「南朝와 高句麗의 關係」, 『高句麗研究』 14-高句麗의 國際關係-, 고구려연구회.

김주성(2003), 「'보덕전'의 검토와 보덕의 고당산 이주」, 『韓國史研究』 121.

김창석(2005), 「한성기 백제의 유고문화와 그 성립과정」, 『향토서울』 65집.

김철준(1971), 「東明王篇에 보이는 神母의 性格」, 『柳洪烈博士華甲記念論叢』, 탐구당.

_____(1990),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김한구(1999), 「高句麗가 遼東에 雄據하던 시기의 韓中關係」, 『한중관계사』 I, 아르게.

김현숙(2003), 「6~7세기 高句麗史에서의 靺鞨」, 『강좌 한국고대사』 제10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_____(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연구』, 모시는 사람들.

노명호(1981),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廟」, 『歷史學研究』 10, 전남대학교 사학회.

노용필(1989), 「普德의 思想과 活動」, 『韓國上古史學報』 제2호, 한국상고사학회.

노중국(1979), 「고구려 울릉에 관한 일시론」, 『동방학지』 2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_____(1981), 「高句麗·百濟·新羅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_____(2006),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 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11, 고구려연구재단.

노태돈(1975), 「三國時代 '部' 에 관한 연구」, 『韓國史論』 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_____(1976), 「高句麗의 漢江流域喪失의 原因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13집, 한국사연구회.

_____(1981), 「高句麗遺民史研究」, 『韓洵勳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_____(1981), 「渤海建國의 背景」, 『大丘史學』 19; 『渤海史研究論選集』, 백산자료원.

_____(1984), 「5-6世紀 東아시아의 國際秩序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 44,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_____(1985), 「渤海國의 住民構成과 渤海人의 族源」, 『韓國古代的 國家와 社會』, 일조각.



참고문헌

- _____(1986), 「고구려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방학지』 5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_____(1989), 「扶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 『國史館論叢』 4, 국사편찬위원회.
- _____(1989), 「고구려·발해인과 내륙아시아 주민과의 교섭에 관한 일고찰」, 『대동문화연구』 2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 _____(1993), 「朱蒙의 出自傳承과 桂婁部의 起源」, 『韓國古代史論叢』 5,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_____(1998), 「고구려의 기원과 국내성 천도」,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의 역사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리병선(1963), 「압록강 유역 청동기시대의 특징적인 토기들과 그 분포정형」, 『고고민속』 1963-1, 평양 : 사회과학원 출판사.
- _____(1966), 「압록강 중상류 및 송화강 유역 청동기시대 주민의 경제생활」, 『고고민속』 1966-1, 평양 : 사회과학원 출판사.
- 마단흠 저·崔茂藏 번역(1988), 『渤海의 起源과 文化』.
- 박경철(1996), 『高句麗의 國家形成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_____(1997), 「B. C.1000年 後半 積石塚築造集團의 政治的 存在樣式」, 『韓國史研究』 98, 韓國史研究會.
- _____(1998), 「高句麗社會의 發展과 政治的 統合 努力 : 國家形成期 高句麗史 理解를 위한 前提」, 『韓國古代史研究』 14, 한국고대사학회.
- _____(2002), 「高句麗人의 國家形成 認識 試論」, 『韓國古代史研究』 28, 한국고대사학회.
- _____(2003), 「고구려 '민족' 문제 인식의 현황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31, 한국고대사학회.
- 박성봉(1995), 『高句麗 南進 經營史의 研究』, 백산자료원.
- _____(1999), 「고구려 토기의 형성에 대하여」, 『백제연구』 29,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박순발(1993), 「우리나라 초기철기문화의 전개과정에 대한 약간의 고찰」, 『考古美術史論』 3,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 박시형(1966), 『광개토왕릉비』, 평양 : 사회과학원출판사.
- 박용운(2006), 「고려의 고구려계승에 대한 종합적 검토」, 일지사.
- 박진욱(1987),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_____(1996), 『高句麗好太王碑研究』, 예하.
- 사회과학출판사(1984), 『조선의 청동기시대』, 평양 .
- 서대식(1992), 「韓國神話에 나타난 天神과 水神의 相關關係」, 『國史館論叢』 31, 국사편찬위원회.
- 서영대(1981),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 『韓國文化』 3,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_____(1981), 「三國과 南北朝 交渉의 性格」, 『東洋學』 1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_____(1995), 「高句麗 貴族家門의 族祖傳承」, 『韓國古代史研究』 8, 한국고대사학회.
- _____(1997), 「高句麗 王室始祖神話의 類型」, 『만경이충희선생화갑기념 동서문화논총』 2, 인하대학교 동양사연구실.
- 손수호(2001), 『고구려고분연구』, 평양 : 사회과학원 출판사.
- 손영종(1990), 『고구려사』,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부.
- 송기호(1995), 『渤海政治史研究』, 一潮閣.
- _____(1999), 『발해를 다시 본다』, 주류성.
- _____(2005), 「扶餘史 연구의 쟁점과 자료 해석」, 『한국고대사연구』 37, 한국고대사학회.
- 송호정(1991), 「요동지역 청동기문화와 미송리형토기에 관한 고찰」, 『한국사론』 24,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심광주(2005), 「高句麗 國家形成期의 城郭研究」, 『고구려의 국가형성, 고구려연구재단』.
- 여호규(1992), 「高句麗 初期 那部統治體制의 成立과 運營」, 『韓國史論』 2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_____(1996), 「압록강 중류 유역에서 고구려의 국가형성」, 『역사와 현실』 21, 한국역사연구회.
- _____(1997), 「1~4세기 고구려 정치체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1998), 『고구려 성』 I·II, 국방군사연구소.



참고문헌

- _____(2000), 『고구려 초기 정치체계의 성격과 성립기반』, 『한국고대사 연구』 17, 한국고대사학회.
- _____(2002), 『고구려 초기의 梁貊과 小水貊』, 『한국고대사연구』 25, 한국고대사학회.
- 오강원(2002), 『遼寧~西北韓지역 中細型銅劍에 관한 연구』, 『淸溪史學』 16·17, 청계사학회.
- _____(2004), 『만발발자 유적을 통하여 본 통화지역 선원사문화의 전개와 초기 고구려문화의 형성과정』, 『북방사논총』 창간호, 고구려연구재단.
- 윤무병(1966), 『濊貊考』, 『白山學報』 1, 백산학회.
- 李 凭(2002), 『高句麗와 北朝의 關係』, 『高句麗研究 14 - 高句麗의 國際關係 -』, 고구려연구회.
- 이기백(1959), 『고구려 왕비죽고』, 『진단학보』 20, 진단학회.
- _____(1977), 『한국의 전통사회와 병제』, 『한국학보』 6, 일지사.
- _____(1982), 『統一新羅와 渤海의 社會』, 『韓國史講座 I 古代篇』, 一潮閣.
- 이남규(2005), 『고구려 국가 형성기 철기문화의 전개양상』, 『고구려의 국가형성』, 고구려연구재단.
- 이내옥(1983), 『淵蓋蘇文의 執權과 道教』, 『歷史學報』 99·100 합집, 역사학회.
- 이도학(1988), 『永樂 6年 廣開土王의 南征과 高句麗』, 『孫寶基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 _____(2006),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서경.
- 이만열(1971), 『高句麗 思想政策에 대한 몇 가지 검토』, 『柳洪烈博士 華甲紀念論叢』, 탐구당.
- 이문기(2000), 『高句麗 莫離支의 官制의 性格과 機能』, 『白山學報』 55, 백산학회.
- 이복규(1998), 『부여·고구려 건국신화 연구』, 집문당.
- 이성시(1990), 『高句麗와 日隋外交 - 이른바 國書 문제에 관한 一試論』, 『李右成教授 停年退職紀念論叢』, 기념논총간행위원회.
- _____(1993), 『高句麗泉蓋蘇文의 政變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1, 일본: 朝鮮史研會.
- 이성제(2001), 『高句麗와 北齊의 關係 -552년 流人 送還의 문제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23, 한국고대사학회.
- _____(2003), 『高句麗 長壽王代의 對宋外交와 그 意義』, 『白山學報』 67, 白山學會.
- _____(2004), 『高句麗의 西方政策과 對北魏關係의 定立-高句麗의 '專制海外' 를 둘러싼 北魏의 認識 변화를 중심으로-』, 『實學思想研究』 26, 母岳實學會.
- _____(2004), 『長壽王의 對北魏交涉과 그 政治的 의미-北燕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對北魏關係의 전개-』, 『歷史學報』 181, 歷史學會.
- 이병도(1976),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 이용범(1959), 『高句麗의 遼西進出과 突厥』, 『史學研究』 4집 참조.
- 이인철(2000), 『고구려의 대외정복연구』, 백산자료원.
- _____(2001), 『6~7世紀 靺鞨』, 『國史館論叢』 95, 국사편찬위원회.
- 이종욱(1979), 『고구려 초기의 좌·우보와 국상』, 『전해중 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일조각.
- _____(2005), 『고구려의 역사』, 김영사.
- 이지린·강인숙(1976), 『고구려사 연구』, 평양: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부.
- 이청규(1993), 『청동기를 통해 본 고조선』, 『國史館論叢』 42, 국사편찬위원회.
- 이흥직(1971), 『淵蓋蘇文에 대한 若干의 存疑』, 『李丙燾 博士 華甲紀念 論叢』; 『韓國古代史의 研究』 신구문화사 재수록.
- 李亨求(1988), 『廣開土大王碑의 新研究』, 동화출판공사.
- 임기환(1987), 『고구려초기의 지방통치체제』, 『慶熙史學』 14, 慶熙史學會.
- _____(1992), 『6·7세기 高句麗 政治勢力의 動向』, 『韓國古代史研究』 5, 한국고대사학회.
- _____(1995), 『4세기 고구려의 樂浪·帶方地域 경영』, 『歷史學報』 147, 역사학회.
- _____(2002), 『南北朝期 韓中 冊封·朝貢 關係의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32, 한국고대사학회.
- _____(2003), 『고구려 정치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 『韓國古代史研究』 31, 한국고대사학회.



_____(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도서출판 한나래.

_____(2006), 「5~6세기 고구려 정복지의 범위와 성격」, 『경기도의 고구려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

임상선 편역(1990), 『渤海史의 理解』, 신서원.

王承禮 著·宋基豪 譯(1987), 『발해의 역사』, 翰林大學 아시아文化研究所.

孫進己 著·林東錫 譯(1992), 『東北民族源流』, 東文選.

전경옥(1996), 「淵蓋蘇文 執權期の 莫離支體制 研究」, 『白山學報』 46, 백산학회.

전미희(1994), 「淵蓋蘇文의 執權과 그 政權의 性格」, 『李基白 先生 古稀 紀念 韓國史 學論叢』, 일조각.

정운용(2005), 「고구려와 신라·백제의 관계」, 『한국고대의 고구려』, 고려대학교박물관.

정찬영 외(1983), 『압록강, 독로강류역 고구려유적발굴보고 : 유적발굴보고 제13집』,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정찬영(1973), 「기원 4세기까지 고구려모체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 5, 평양 : 사회과학원 출판사.

정한덕(1990), 「美松里型土器의 生成」, 『東北あじあの考古學』, 東京 : 六興出版.

조인성(1991), 「4, 5세기 高句麗 王室의 世系認識 變化」, 『한국고대사연구』 4, 한국고대사연구회.

_____(1994), 「高麗初·中期의 歷史繼承意識과 渤海史認識」,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古代·高麗時代篇』, 一潮閣.

주보돈(2006), 「5~6세기 高句麗와 新羅의 關係 - 신라의 漢江流域 진출과 관련하여」, 『북방사논총』 11, 고구려연구재단.

주영현(1962), 「고구려 적석무덤에 관한 연구」, 『문화유산』 1962-2, 평양 : 사회과학원 출판사.

지배선(1997), 『중세동북아시아연구-모용왕국사』, 일조각.

지병목(1987), 「高句麗成立過程考」, 『白山學報』 34, 백산학회.

_____(1997), 「요동반도와 압록강 중하류지역 적석묘의 관계」, 『사학연구』 53, 한국사학회.

최광식(1994),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한규철(2004), 「주민구성으로 본 계승관계」,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관계』, 고구려연구재단

홍승기(1974), 「1~3세기의 '민'의 존재형태에 대한 일고찰 - 소위 '하호'의 실체와 관련하여-」, 『역사학보』 63집, 역사학회.

황철산(1963), 「예맥족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3-1·2, 평양 : 사회과학원 출판사.

중국도서

耿鐵華(1994), 『好太王碑新考』, 長春 : 吉林人民出版社.

馬一虹(2004), 「靺鞨部族分布地域考述」, 『中國文化研究』 夏卷, 北京 : 北京語言文化大學.

方起東(1985), 「高句麗石墓의 演進」, 『博物館研究』 1985-2, 長春 : 博物館研究編輯部.

徐光輝(1993), 「高句麗積石墓研究」, 『靑果集』 1, 吉林大學考古專業20周年紀念文集, 長春 : 吉林大學 考古系.

王健群(1984), 『好太王碑研究』, 長春 : 吉林人民出版社.

魏存成(1987), 「高句麗積石墓의 類型和演變」, 『考古學報』 1987-3, 北京.

李健才(2000), 「三論北夫余, 東夫余即夫余의 問題」, 『社會科學戰線』 6, 長春 : 吉林省社會科學院.

李殿福(1980), 「集安高句麗墓研究」, 『考古學報』 1980-2, 北京.



일본도서

東潮(1995), 「積石塚の成立と發展」, 『高句麗の歴史と遺跡』, 東京: 中央公論社.

武田幸男(1978), 「高句麗 官位制とその展開」, 『朝鮮學報』86집, 朝鮮學會.

_____ (1989), 『高句麗と東あじあ』, 東京: 岩波書店.

_____ (1989), 「高句麗王系成立の諸段階」, 『高句麗史と東あじあ』, 東京: 岩波書店.

白鳥庫吉(1933), 「渤海國に就に乙」, 『史學雜誌』44-12.

_____ (1936), 「夫餘國の始祖東明王の傳説に就いて」, 『服部先生古稀祝賀紀念論文集』, 富山房.

三崎良章(1982), 「高句麗の對北魏外交」, 『早稻田大學大學院文化研究科紀要別冊』9, 早稻田大學 大學院 文學研究科.

三上次男(1966), 「東北あじあの古代文化と穢人の民族的性格」, 『古代東北あじあ史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三品彰英(1953), 「濊貊族小考」, 『朝鮮學報』4, 東京.

_____ (1982), 「北魏の對外政策と高句麗」, 『朝鮮學報』102, 東京: 朝鮮學會.

日野開三郎(1984),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第8巻 小高句麗國の研究』, 東京 三一書房.

_____ (1991), 「靺鞨七部の前身とその屬種」,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15, 東京: 三一書房.

石井正敏(1974), 「日渤交渉における 渤海高句麗繼承意識について」, 『大學院研究年報』4.

小川裕人(1937), 「靺鞨史研究に關する諸問題」, 『東洋史研究』2-5, 京都: 東洋史研究會.

_____ (1994), 「樂浪郡設置前夜の考古學」, 『東あじあ世界史の展開』, 東京: 汲古書院.

田村晃一(1982), 「高句麗積石塚の構造と分類について」, 『考古學雜誌』62-2, 東京.

井上直樹(2000), 「高句麗の對北魏外交と朝鮮半島政勢」, 『朝鮮史研究會論文集』38, 東京: 朝鮮史研究会.

_____ (2001), 「韓暨墓誌を通してみた高句麗の對北魏外交の一側面 - 六世紀前半を中心に -」, 『朝鮮學報』178, 東京: 朝鮮學會.

池内宏(1930),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動向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歴史地理報告』12; (1960), 『滿鮮史研究 上世篇』2, 東京: 吉川弘文.

_____ (1940), 「高句麗王家の上世の世系について」, 『東亞學』3, 東京: 日光書院.

_____ (1951), 『滿鮮史研究』上世 第一冊, 東京: 吉川弘文館.

津田左右吉(1916), 「渤海考」,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東京: 東京帝國大學文科學部.

_____ (1922), 「三國史記 高句麗紀の批判」,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9, 東京: 東京帝國大學 大學部.

請田正幸(1979), 「高句麗莫離支考」, 『旗田巍先生古稀紀念 朝鮮歴史論集』上, 東京: 龍溪書舍.

村上四男(1966), 新羅國と報德王安勝の小高句麗國, 『朝鮮學報』37・38 合輯.

_____ (1978), 『朝鮮古代史研究』, 東京: 開明書院.



찾아보기 Index

가

간연(看烟)	184
개로왕	233
개모성	301
거란(契丹)	219
건안성(建安城)	301
걸걸중상(乞乞仲像)	317
걸사비우(乞四比羽)	317
고구려 사회(高句麗社會)	60
고국양왕(故國壤王)	148, 261
고국원왕(故國原王)	137
고국천왕(故國川王)	99, 145
고려기(高麗記)	150
고막해(庫莫奚)	219
고연수(高延壽)	303
고자 묘지(高慈墓誌)	261
고추가(古鄒加)	117
고혜진(高惠眞)	303
공귀리(公貴里)	33
공귀리 유적(公貴里遺跡)	61
관구검(田丘儉)	122
관미성(關彌城)	228
광개토대왕	165
광개토대왕릉비	261
구민(舊民)	100
구삼국사(舊三國史)	50

국상(國相)	90
국연(國烟)	184
국중대회(國中大會)	99
근초고왕	143
금강사(金剛寺)	202
기미 정책(羈縻政策)	107
김춘추	283

나

나집단(那集團)	61
낙랑군(樂浪郡)	106, 120
남로	140
남평양(南平壤)	195
노객(奴客)	264
논형	58

다

당 고조(高祖)	298
대대로	156, 271
대모달(大模達)	159
대민관(對民觀)	110
대방군(帶方郡)	120
대보	88
대성산성	193
돌궐(突厥)	289
돌지계(突地稽)	292
동맹(東盟)	99

동명성왕	47
동부도위(東部都尉)	117
동부여	179
동수(冬壽)	263
동진	137
동호(東胡)	65
두막루국(豆莫婁國)	242

마

막리지	271
만발발자(萬發撥子)	33
만보정 묘구(萬寶汀墓區)	66
말갈	237, 243
망강루	39
매금(麻錦)	181
명성왕	47
모두루 묘지	261
모두루	45
모용선비(慕容鮮卑)	240
모용외	124
모용황(慕容皝)	136
몽촌토성	235
문자왕(文咨王)	208
미질부(彌秩夫)	192

바

반량전	38
-----	----

발해	318
방어 체계	161
백암성	301
보덕(普德)	285
보장왕	283
부용(附庸)	108, 113, 121
북로	140
북부여	179
북연	210
북위(北魏)	205, 209
비사성	301

사

살수(薩水)	295
삼국사기	138
선비족	122
설인귀(薛仁貴)	309
소수림왕(小獸林王)	147, 261
소수맥(小水貊)	117
속말말갈(粟末靺鞨)	244, 250
속일본기(續日本紀)	249, 263
수 문제(隋文帝)	290
수 양제	294
수묘인 연호	184
수묘인	181
숙신	243
순수(巡狩)	194



찾아보기 Index

실직원(悉直原)	192
심귀리(深貴里)	61
○	
아차산	235
안시성	301, 303
안원왕	259
안장왕(安藏王)	208, 259
안학궁	193
양맥(梁貊)	74
양원왕(陽原王)	259
연개소문(淵蓋蘇文)	264, 274
영류왕	273
영양왕	246, 291
예맥 문화권(濊貊文化圈)	61
예맥족	26
요동성	301
육살	157
우문부	135
우보	88
위만 조선(衛滿朝鮮)	65
유기(留記)	164
유인궤(劉仁軌)	309
을지문덕(乙支文德)	295
일본서기	259, 279
임나가야	236

● 스

장군총	181
장수왕	218
적석묘	25
전연(前燕)	136
전진(前秦)	226
제나집단(諸那集團)	61
제가(諸加)회의	83, 155
제의(祭儀)	161
조공	217
졸본(卒本)	194
좌보	88
주몽왕	261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	191
지두우(地豆于)	241

● 스

책구루(責溝婁)	70
책봉	217
처려근지	158
천남생	264
천리장성(千里長城)	242, 278
청암리 토성	193
최비(崔毖)	134
치양(雉襄)	222

● 테

태대형	281
토욕혼(吐谷渾)	205
토테미즘	43
통정진	296

● 토포

평양성	193
풍홍(馮弘)	208

● 흥

하슬라(何瑟羅)	192
한원(翰苑)	149
해동성국(海東盛國)	318
호우총(壺杆塚)	176
환도성	123
후연(後燕)	226
흉노(匈奴)	65
흑수(黑水)	31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 HISTORY FOUNDATION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초판 1쇄 인쇄 2007년 3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07년 3월 30일

편집 동북아역사재단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미군동 267 임광빌딩 본관 11~12층

전화 02-2012-6000

팩스 02-2012-6180

ISBN 978-89-91448-74-2-0391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